1 고려사상

- 1 ○ 태조 무인 원년(918) 여름 6월 병진일에 포정전(布政殿)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天授)로 고쳤다.
- 2 ○ 정사일에 조서를 내리길 "이전 임금(궁예)은 우리나라 정세가 혼란할 때에 일어나서 도적들을 평정하고, 점차 영토를 개척하였으나,
- 3 전국을 통일하기도 전에 대번 혹독한 폭력으로 하부 사람을 대하며, 간사한 것을 높은 도덕으로 생각하고 위압과 모멸로써 요긴한 술책을 삼았었다.
- 4 부역이 번거롭고 과세가 과중하여, 인구는 줄어들고 국도는 황폐하였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전은 굉장히 크게 지어 제도를 위반하고 이에 따르는 고역은 한이 없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불렀다.
- 6 이러한 형편에 함부로 연호를 만들고 왕으로 자칭하였으며, 처자를 살육하는 등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어 죽은 사람에게나 살아 있는 사람에게 다 원한을 맺었으며
- 7 결국은 정권을 전복당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바가 아니라.
- 8 내가 여러 신하들의 추대에 의하여 왕위에 올라, 모든 풍속을 변혁하고 다 함께 새롭게 나아가려 하노니,
- 9 마땅히 새 규율을 세우고 이전 일을 심각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10 임금과 신하는 고기와 물처럼 서로 화합할 것이며, 이 나라 강산들도 편안하고 밝아지는 경사를 맞이할 것이니, 내외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마땅히 나의 뜻을 알지어다."
- 11 ○ 경신일에 마군 장군 환선길이가 역모를 꾸미다가 잡혀 죽었다.
- 12 ○ 신유일에 조서를 내리길 "관제를 설정하고 직무를 분담시키는 데는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는 길이 있는 것이요
- 13 풍속을 시정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는 현명한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가 급한 것이다.
- 14 진실로 관리들이 자기 직무에 태만하지 않는다면 어찌 정치가 문란하여지겠는가,
- 15 내가 과람하게도 천명을 받아 거창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바,
- 16 높은 자리에 앉아 안일해서는 안 되며 용렬하고 허무한 정치가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 17 마땅히 여러 사람들을 등용하고 모든 관리들을 일일이 시험하되 모쪼록 인재를 잘 선택하여 다 각기 직무에 맞도록 하고,
- 18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뜻을 알게 하라"
- 19 ○ 을축일에 조서를 내렸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절약에 힘써야 할 것이다.
- 20 백성이 부유하고 창고가 충실하면 비록 수재, 한재, 기근이 있더라도 근심이 없을 것이다.
- 21 모든 국고와 동궁 식읍에 저축한 곡식들이 해가 오래 되면 반드시 썩어서 손실이 많을 것이니, 이를 조사케 하라"
- 22 ○ 무진일에 조서를 내렸다. "내가 듣건대, 기회를 타서 제도를 개혁함에는 옳고 그른 것을 상세히 하여야 하며,
- 23 풍속을 지도하고 백성을 훈계함에는 호령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하였다.
- 24 이전 임금이 신라의 품계, 관직, 군현 명칭들은 다 비속하다 하여 새 제도들을 만들었는데,
- 25 여러 해를 통용하였으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 26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신라 제도로 다시 고쳐야 하겠다.
- 27 그러나 그 이름 중에서 알기 쉬운 것들만은 새 제도를 좇아도 될 것이다."
- 28 기사일에 마군 대장군 이흔암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저지에서 처단되었다.
- 29 ○ 8월 기유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타일렀다. "각 지방의 도적들이 내가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 30 혹 변방에서 화변을 일으킬 것이 염려되니, 전권 사절들을 파견하여 선물을 많이 주고, 말을 겸손하게 하여, 조정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 31 이렇게 실행하였더니 귀순하는 자가 과연 많았다. 그러나 오직 견훤(甄萱)만은 서로 내왕 하려고 하지 않았다.
- 32 ○ 경술일에 북방 골암성(鵝巖城) 성주 윤선이 귀순하였다.
- 33 ○ 신해일에 조서를 내렸다. "이전 임금이 백성을 보기를 초개와 같이 하면서 오직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였다.
- 34 이리 하여 허무한 도참설을 믿어 갑자기 송약 도읍을 버리고 철원으로 돌아가 궁전들을 지으니
- 35 백성들은 토목 공사에 시달리고 농사철을 빼앗겼었다.
- 36 게다가 또 기근이 거듭 들고, 역질이 계속 유행하여, 가정을 버리고 길에서 굶어 죽는 자가 허다하였다.
- 37 곡식 값이 폭등하여 세포 한 필 값이 겨우 쌀 5승 밖에 못되어 백성들은 자기 몸과 처자를 팔아 남의 노비로 되는 자가 많았다.
- 38 나는 이를 불쌍히 여기노니 이들을 다 그 현재 있는 곳에서 등록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 39 이에 이렇게 노비로 된 사람들 1천여 명을 조사하여 국고에 있는 포백으로 그들의 몸값을 물어 주어 본가로 돌려 보냈다.
- 40 ○ 견훤이 일갈한 민함을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광평시랑 한신일 등에게 명령하여 감미현에 가서 그를 맞게 하고, 민함이 온 후에는 환대를 하여 보내었다.

- 41 ○ 계해일에 응주, 운주 등 10여 주현이 모반하여 백제로 가 붙었다.
- 42 이전 시종 김행도를 동남도 초토사, 지 아주(牙州) 제군사(諸軍事)로 임명하였다.
- 43 ○ 갑오일에 상주 반란군의 두령 아자개가 사절을 시켜 귀순하여 왔으므로, 왕이 의례를 갖추어 그 사절을 맞이하도록 명령하였다.
- 44 구정(毬庭)에서 의례를 연습하기 위하여 문무관들이 다 나와서 늘어섰는데, 광평낭중 유문율과 직성관 주선길이 자리 순서를 다투었다.
- 45 왕이 이들을 꾸짖었다. "사안은 예의의 으뜸이요 공경은 바로 덕행의 근본이다.
- 46 지금 손님을 예의로써 영접하는 것은 장차 후일의 성과를 보려는 것인데,
- 47 유문율과 주선길이 자리 순서를 다투었으니, 어찌 공경하며 근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다 변방으로 귀양 보내 그 죄상을 폭로하여야 할 것이다."
- 48 ○ 병신일에 여러 신하들에게 타일렀다. "평양 옛도읍이 황폐된 지는 비록 오래나 고적은 아직 남아 있다.
- 49 그런데 가시병졸이 무성하여 번인들이 거기서 수렵을 하고 있으며 또 수렵을 계기로 변방 고을들을 침략하여 피해가 크다.
- 50 마땅히 백성들을 옮겨 거기서 살게 함으로써 국가의 변방을 공고히 하여 백세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1 이리 하여 평양을 대도호부로 하고 당제 식령과 광평시랑 열평을 보내 평양을 수비하게 하였다.
- 52 ○ 정유일에 유척량이 혁명 당시에 여러 동료들은 당황하여 뿔뿔이 도망하였으나, 그는 홀로 성을 떠나지 않았고 말은바 창고는 조그만 손실도 없었다 하여, 특별히 광평시랑 벼슬을 주었다.
- 53 ○ 겨울 10월 신유일에 청주 두령 파진찬 진선이 그 아우 선장과 함께 반란을 도모하다가 잡혀 죽었다.
- 54 ○ 11월에 왕이 처음으로 팔관회(八關會)를 열고 의봉루(儀鳳樓)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였다. 이때부터 해마다 경상적으로 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 55 태조 기묘 2년(919) 가을 8월 계묘일에 청주가 귀순과 반역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여 유언비어들이 가끔 일어나므로,
- 56 왕이 친히 가서 그 지방을 무마하고 성을 쌓도록 명령하였다.
- 57 ○ 9월 계미일에 오월국 문사 추언규가 귀순하였다.
- 58 ○ 겨울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았다.

- 2 ○ 태조 3년(920) 봄 정월에 신라가 처음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교방하는 의식을 치르었다.
- 2 ○ 강주장군 윤용이 아들 일강을 인질로 보내었다. 왕이 일강에게 아찬 품계를 주고 경 행훈의 누이동생

- 에게 장가들게 하였다. 그리고 낭중 춘양을 강주에 보내 귀순한 자들을 위로하고 설복하였다.
- 3 ○ 9월 신축일에 견훤이 아찬 공달을 보내 공작선(孔雀扇)과 지리산(智異山) 대로 만든 화살을 바쳤다.
- 4 ○ 겨울 10월에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여 대량, 구사 두 군을 탈취하고 진례군에 이르렀다.
- 5 신라가 아찬 김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기 때문에 왕이 군사를 보내 구원하였다.
- 6 흰이 그 소식을 듣고 퇴각하였는바 이때부터 그는 우리와 불화하게 되었다.
- 7 이해에 왕이 북쪽 국경을 순행하였다.
- 8 ○ 태조 4년(921) 봄 2월 갑자일에 흑수말갈(黑水靺鞨)의 추장 고자라(高子羅)가 1백 70명을 데리고 귀화하였다.
- 9 ○ 4월 을유일에 흑수말갈 사람 아어한(阿於闐)이 2백 명 인원을 데리고 귀화하였다.
- 10 ○ 12월 신유일에 왕자 무(武)를 책봉하여 정윤(正胤)으로 삼았으니 정윤은 곧 태자(太子)였다.
- 11 ○ 백제 사람 궁창, 명권 등이 귀순하였다. 그들에게 토지와 주벌을 주었다.
- 12 ○ 태조 5년(922) 봄 2월에 거란이 낙타와 전(駝)을 보내 왔다.
- 13 ○ 태조 6년(923) 여름 6월에 북부경 윤질이 양(梁) 나라에 사절로 갔다가 돌아와 5백 나한(羅漢) 화상을 헌납하였다
- 14 ○ 태조 7년(924) 가을 7월에 견훤이 아들 수미강 양경 등을 보내 고려의 조물군(曹物郡)을 공격하므로,
- 15 왕이 장군 애선 왕충 등에게 명령하여 이를 구원하게 하였다. 애선은 전사하였으나 그를 사람들이 굳이 지키니 수미강 등이 손해를 입고 돌아갔다.
- 16 ○ 8월에 견훤이 사절을 파견하여 절영도(絶影島)의 옥색 말 한 필을 헌납하였다.
- 17 ○ 9월에 신라 왕 승영이 죽고 그 아우 위음이 왕위에 올랐다.
- 18 신라에서 국상을 알려왔으므로 왕이 애도하는 의례를 거행하고 재(齋)를 베풀어 명복을 빌었으며 사절을 파견하여 그를 조문하였다.
- 19 ○ 태조 8년(925) 가을 9월 병신일에 발해(渤海)의 장군 신덕 등 5백 명이 귀순하여 왔다.
- 20 ○ 경자일에 발해의 예부경 대화군, 군로사정 대원군, 공부경 대복모, 좌우위 장군 대심리 등이 백성 1백 호와 함께 귀순하여 왔다.
- 21 발해는 원래 속말말갈(粟末靺鞨)족이었다.
- 22 당나라 무후 때에 고구려 사람 대조영이 요동 지방을 점유했던바 그 후 당나라 예종이 그를 발해군 왕으로 책봉하였다.
- 23 이것을 계기로 하여 대조영은 자기 나라를 발해국으로 자칭하고, 부여, 숙신 등 10여 국을 병합하게 되었다.

3 고려사상

24 발해국에는 문자, 예악, 관청 등 제도가 있었으며, 5경 15부 62주에 영토의 넓이는 5천여 이 평방이요, 군사가 수십만이니 되었다.

25 우리 나라 국경과 인접해 있으며 거란과는 대대로 원수를 맺고 있었다.

26 이때에 와서 거란 임금이 그 신하들에게 “대대의 원수를 갚지 않고서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27 군사를 크게 일으켜 발해국의 대인선을 공격하여, 그 수도 흘한성을 포위하니 국왕 대인선이 패배를 당하여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28 거란은 결국 발해를 멸망시켰다.

29 이리 하여 발해국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에 귀순하는 사람이 계속 부절하였다.

30 ○ 겨울 10월 기사일에 신라 고을부 장군 능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31 그 성이 신라 수도에 가까우므로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돌려보내고 다만 그 부하들인 시랑 배근과 대강 명재, 상술, 궁식 등만을 남겨 두었다.

32 ○ 을해일에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조물군(曹物郡)에서 견훤과 교전하였는데, 유금필이 자기 군사를 끌고 와서 응원하였다.

33 견훤이 겁이 나서 화친하기를 청하고 사위 진호를 인질로 보내왔으므로, 왕도 자기의 사촌 동생인 원윤 왕신을 인질로 보냈다.

34 왕은 견훤의 나이가 자기보다 10년 말이라 하여 그를 상부라고 불렀다.

35 신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은 이랬다저랬다 험잡이 많아 화친할 사람이 못된다”고 하였다. 왕이 그 말을 그럴듯이 여겼다.

36 ○ 11월 기축일에 탐라(耽羅)가 토산물을 공납하여 왔다.

37 ○ 12월 무자일에 발해 좌수위 소장 모두간과 검교 개국남 박어 등이 백성 1천 호와 함께 귀순하였다.

38 ○ 태조 9년(926) 여름 4월 경진일에 견훤이 보낸 인질 진호가 병으로 죽었다.

39 왕이 시랑 익훤을 시켜 그 시체를 보내 주었더니

40 견훤은 우리가 그를 죽인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가 보낸 인질 왕신을 죽이고

41 웅진 방면으로 진격하여 왔다. 왕은 여러 성들에 명령하여 성을 고수하고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하였다.

42 이때에 신라 왕이 사절을 파견하여 말하기를, “견훤이 맹약을 위반하고 고려에 출병하였으니 하늘이 반드시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43 만일 대왕이 그를 한 번 반격하면 흰은 반드시 스스로 패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44 왕이 그 사절에게 말하기를, “내가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죄악이 가득 차서 스스로

로 넘어질 것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45 이에 앞서 견훤은 “절영도의 명마가 고려로 가면 백제가 멸망한다”고 하는 도참을 들었는데

46 이 때에 와서 전일 고려에 말을 선사한 것이 후회되어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왕이 웃으면서 그것을 허락하였다.

47 이해에 장빈(張彬)을 당나라에 사절로 파견하였다.

3 ○ 태조 정해 10년(927) 3월 갑인일에 발해 공부경 오흥 등 50명과 승려 재웅 등 60명이 귀순하였다.

2 ○ 여름 4월 임술일에 해군 장군 영창, 능식 등을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강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3 ○ 8월 병술일에 왕이 강주(康州)를 순행하였다.

4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 성주 흥달은 왕이 자기 성을 지나는 기회를 타서 귀순하여 왔다. 이에 백제 여러 성 성주들이 전부 투항하였다.

5 ○ 9월에 견훤이 근포성(近品城)을 공격하여 소각하고 나아가 신라 고을부(高鬱府)를 습격하였으며 신라 서울 가까이까지 육박하였다.

6 신라 왕이 연식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7 왕이 말하기를, 신라가 우리와 친선한 지가 이미 오래다. 지금 신라가 위급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공훤 등에게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8 이들이 채 도착하기 전에 견훤이 신라 서울로 불의에 쳐들어갔다.

9 그때에 신라 왕은 왕비, 궁녀, 종실들과 함께 포석정(鮑石亭)에 나가 연회를 차려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10 갑자기 적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11 왕은 부인과 함께 달아나서 성 남쪽 별궁에 숨어 있었다.

12 시종한 신하들과 악공들과 궁녀들은 다 붙들렸다.

13 견훤은 군사들을 놓아서 약탈을 마음대로 하게 하고,

14 자신은 왕궁에 들어앉아서 측근자들로 하여금 왕을 찾아서 군사들 가운데서 협박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며,

15 자기는 왕비를 강간하고 그 부하들을 시켜서 궁녀들을 간음하게 하였다.

16 그리고 신라 왕의 외종제 김부를 왕으로 세우고,

17 왕의 아우 효령과 재상 영경 등을 포로로 잡아 자녀들과 각종 장인들과 병기, 보배들을 모조리 약취하여 가지고 돌아갔다.

18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절을 시켜 조문과 제사를 치르게 하고,

19 친히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동수(公山桐叟)에서 흰을 맞아 큰 싸움을 진행하였는데 형세가 불리하게 되었다.

20 흰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사태가 매우 위급하였다.

21 고려 대장 신승겸과 김락이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희생되고 각 부대들은 패배를 당하였으며 왕은 겨우 몸만 피하였다.

22 견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대목군(大木郡)을 탈취하고 전야에 쌓인 곡식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23 이 해에 임언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24 ○ 태조 11년(928) 3월 무신일에 발해 사람 김신 등 60호가 귀순하여 왔다.

25 ○ 5월 경신일에 강주(康州) 원보 진경 등이 고자군(古子郡)에 양곡을 운반하려 간 사이에 견훤이 가만히 군사를 보내 강주를 습격하였다.

26 진경 등이 돌아와서 싸웠으나 패배하여 죽은 자가 3백여 명이나 되고, 장군 유문은 견훤에게 항복하였다.

27 ○ 6월 갑술일에 벽진군(碧珍郡)에 지진이 있었다.

28 ○ 가을 7월 신해일에 발해 사람 대유범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순하여 왔다.

29 ○ 병진일에 왕이 친히 삼년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靑州)로 갔다.

30 ○ 8월에 왕이 충주(忠州)로 갔다.

31 그때에 견훤이 장군 관촌을 시켜 양산(陽山)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32 왕은 명지성(命旨城) 원보 왕충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패주게 하였다.

33 관촌은 퇴각하여 대량성(大良城)을 확보하고 군사를 풀어서 대목군(大木郡) 버를 베었다.

34 또 그 다음에는 오어곡(烏於谷)에 군사를 나누어 주둔하니 죽령(竹嶺) 길이 막히었다.

35 왕이 왕충 등에게 명령하여 조물성(曹物城)에 가서 형세를 정찰하게 하였다.

36 신라의 중 홍경이 당나라 민부(閩府)로부터 대장경 1부를 배에 싣고 예성강(禮成江)으로 들어왔으므로 왕이 친히 그를 영접하였고 대장경은 제석원(帝釋院)에 보관하였다.

37 ○ 9월 정유일에 발해 사람 은계종 등이 귀화하여 천덕전(天德殿)에서 왕을 뵈었다.

38 그는 왕에게 세 번 절하였는바 사람들이 그것은 실례라고 하였다.

39 그러나 대상 함흥은 말하기를 패망한 나라 사람은 세 번 절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였다.

40 ○ 겨울 11월에 견훤이 정병을 선발하여, 오어곡성(烏於谷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거기 주둔하였던 우리 병졸 1천 명을 죽였다.

41 장군 양지, 명식 등 6명이 탈출하여 적에게 항복하였다.

42 왕이 명령하여 군사들을 구정(稷庭)에 모아 놓고 6명의 처자들을 그 앞에서 조리를 돌리고 저자에서 사형에 처하였다.

43 ○ 태조 12년(929) 계축일에 천축국(天竺國) 상장범 사 마후라가 왔으므로 왕이 의례를 갖추어 그를 맞이하였다. 마후라는 이듬해에 구산사(龜山寺)에서

죽었다.

44 ○ 경신일에 발해 사람 홍건 등이 배 20척에 사람과 재물을 싣고 귀순하여 왔다.

45 ○ 가을 7월 신사일에 견훤이 군사 5천으로 의성부(義城府)를 침범하였다.

46 성주 장군 홍술이 여기서 전사하였다. 왕이 매우 슬피 울고 말하기를 내가 좌우 손을 잃어버렸다고 하였다.

47 견훤이 또 순주를 침범하니 장군 원보이 도망쳤다.

48 ○ 병자일에 발해 사람 정근 등 3백여 명이 귀순하여 왔다.

49 ○ 겨울 10월에 백제 일길간 염흔이 귀순하여 왔다.

4 ○ 태조 13년(930) 2월 을미일에 사신을 신라에 파견하여 고창군의 첩보를 알리니, 신라 왕이 사신을 시켜 답례 방문을 하고 편지를 보내 서로 만나기를 청하였다.

2 이때에 신라의 동쪽 연해 주군과 부락들이 다 와서 항복하니 명주(溟州)로부터 흥례부(興禮府)에 이르기까지 항복한 성이 총계 1백 10여 성이었다.

3 ○ 겨울 12월 경인일에 왕이 서경에 가서 학교를 창설하였다.

4 ○ 태조 14년(931) 봄 2월 정유일에 신라 왕이 태수 겸용을 보내 다시 왕과 만나기를 청하였다.

5 ○ 신해일에 왕이 신라로 갔다. 이날 5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신라 서울 경내에 이르러 장군 선필을 먼저 보내 신라 왕의 안부를 물었다.

6 신라 왕이 명령을 내려 백관들은 교외에서 왕을 영접하고 자기 사촌 동생인 상국 김유령은 성문 밖에서 왕을 영접하게 하였으며

7 신라 왕 자신은 정문 밖에 나와서 왕을 맞으면서 절을 하였다. 왕은 그에게 답배하였다.

8 신라 왕은 왼쪽으로, 왕은 오른쪽으로 궁전에 오르면서 서로 앞서기를 사양하였다.

9 왕이 수원으로 온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신라 왕에게 절을 하게 하였다. 이때 회견 석상에는 정문과 예절이 극진하였었다.

10 임해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였을 때에 신라 왕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운수가 불길하여 견훤에게서 심중한 침해를 받고 있으니 이 통분한 사정을 어찌하겠소?”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니

11 좌우 신하들이 모두 슬피 울었다. 왕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

12 ○ 계미일에 왕이 돌아오는데 신라 왕이 혈성(穴城)까지 나와서 전송하고 김유령을 인질로 삼아 왕을 수종케 하였다.

13 신라 서울 사람들이 감격하여 울면서 서로 치하하기를 “전일 견씨가 왔을 때에는 승냥이나 범을 만난

5 고려사상

- 것 같더니
- 14 지금 왕공(왕건)의 오심에는 부모를 뵈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 15 이해에 조서를 내렸다. “북번(北蕃)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도 짐승의 심리를 가진 자들로서 주리면 오고 배부르면 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염치를 잊어버리나니
- 16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으나 복종과 배반이 대충였다. 그들이 지나다니는 주진들에서는 성 바깥에 여관을 지어 놓고 접대하게 할 것이다.”
- 17 ○ 태조 15년(932) 여름 5월 갑신일에 왕이 여러 신하들에게 타일렀다. “근자에 서경을 복구하고 백성을 옮겨 거기를 충실히 한 것은 그 지방 역량에 의거하여 삼한을 평정하고 장차 거기에 수도를 정하려고 한 것이다.
- 18 그런데 지금 민가의 양탈이 수탈으로 변화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관가집이 무너졌으니 대체 무슨 재변이 이처럼 심한가
- 19 또 상서지(祥瑞志)에 이르기를 부역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납이 과중하여 아래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면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 20 옛날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일을 대조하여 본다면 어찌 이렇게 된 원인이 없겠는가.
- 21 지금 사방에 고된 역사가 계속되고 백성의 부담이 많은데다가 공납이 면제되지 않고 있으니,
- 22 나는 이것으로 하여 엄중한 화변을 초래할 듯하여 자나깨나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감히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
- 23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 국가의 공납을 감면하기는 어렵다.
- 24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여러 신하들이 직무를 공정하게 실행하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며,
- 25 혹은 분에 넘치는 만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러한 재변을 자아낸 것이 아니겠는가.
- 26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을 고쳐 먹고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
- 27 이해에 대상 왕충유를 당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28 ○ 태조 16년(933) 봄 3월 신사일에 당나라에서 왕경, 양소업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 29 당나라에서 또한 자기들의 역서를 보내 왔다. 이 때로부터 고려의 천수(天授) 연호 대신에 후당(後唐) 연호를 사용하였다.
- 30 ○ 태조 17년(934) 여름 5월 을사일에 왕이 예산진(禮山鎭)에 가서,
- 31 조서를 내리길 “(생략) 내가 그 위급한 뒤 끝을 이어 새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 32 도탄 속에서 신음하여 온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는 것이 어찌 나의 본의이겠는가.
- 33 다만 만사를 초창하는 때라 일이 부득이 하여 그런 것이다.
- 34 내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주, 진들을 돌아 다니면서 성책을 수리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의 난을 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 35 이리 하여 남자는 전부 군대로 나가게 되고 녀자들까지도 부역에 동원되었다.
- 36 그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여 혹은 산중으로 도망하고 혹은 관청에 와서 호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 37 왕실의 친척들과 권세 있는 자들 중에서 횡포하게 악한 자를 멸시하여,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어찌 전연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 38 내가 한 몸으로써 어찌 집집마다 친히 가서 그들을 보살피겠는가. 하부 백성들이 호소할 길 없어서 하늘을 부르짖고 우는 것은 바로 이 까닭이다.
- 39 나라의 녹봉을 먹는 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체득하고 자기의 녹음(祿邑) 백성들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 40 근자에 특별히 염권(染卷)을 발행하였는데 그래도 남의 과오를 숨겨 주는 것을 현명한 것으로 생각하여,
- 41 위에 보고를 하지 않으니 선악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절개를 지키고 허물을 고치는 사람이 있겠는가.
- 42 너희들은 나의 훈계를 준수하고 나의 상벌에 복종하라.
- 43 죄가 있는 자는 귀천을 물론하고 자손에게까지 책벌이 미칠 것이요,
- 44 공이 많고 죄가 적은 자는 그 대로 징작하여 상벌을 시행할 것이다.”
- 45 ○ 가을 7월에 발해국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민중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 46 그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하고 특히 원보(元甫)의 품계를 주어 백주(白州) 고을 일을 맡아 보게 하고 거기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 47 그의 관료들에게는 작위를, 군사들에게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차등 있게 주었다.
- 5** ○ 태조 18년(935) 봄 3월에 견훤의 아들 신경(神劔)이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金山寺)에 감금하고 아우 금강(金剛)은 죽여 버렸다.
- 2 처음에 견훤의 첩들이 많아 아들 10여 명을 두었는데, 그중에서 네째 아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았으므로 흰이 특히 그를 사랑하여 자기 자리를 그에게 전하려고 하였었다.
- 3 형들인 신경, 양경, 용경등이 그 눈치를 알고 고민에 싸여 있었다.
- 4 이 때에 양경과 용경은 외방에 나가 군무에 종사하였고 신경이 홀로 자기 아버지의 곁에 있었는데, 이찬

- 능환(能喚)이 사람을 시켜 양경, 용경과 음모를 꾸며 신검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사촉한 것이었다.
- 5 ○ 여름 6월에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 말 애복, 애첩 고비 등을 데리고 나주(羅州)로 달려 와서 고려 정부로 들어 오기를 청하였다.
 - 6 왕이 장군 유공필, 대광 만세, 원보 향우, 오담, 능선, 충질 등을 시켜 군함 40여 척을 가지고 바다길로 가서 견훤을 맞게 하였다.
 - 7 견훤이 들어 오자 왕은 다시 그를 상부라고 불렀으며 남궁(南宮)을 사관으로 지정해 주었다.
 - 8 그리고 견훤의 품계는 백관의 위에 있게 하고 양주(楊州)를 식읍으로 주는 동시에 금과 비단을 주고 노와 비 각각 40명과 말 열 필을 주었으며
 - 9 그보다 먼저 항복하여 온 신강을 그의 아관(衙官)으로 삼았다.
 - 10 ○ 겨울 10월 임술일에 신라왕 김부가 시랑 김봉휴를 보내 고려 정부로 들어 오기를 청하였다.
 - 11 왕이 섬시중 왕철과 시랑 한헌을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왕의 요청에 동의하는 뜻을 알렸다.
 - 12 ○ 11월 갑오일에 신라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왕도를 출발하였는데 인민들이 다 그를 따라 나섰다.
 - 13 이 때에 향나무로 꾸민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 리에 뻗어 길에 메었고 구경꾼들이 당백처럼 늘어 섰으며 연도 주 천들에서의 공궤(供饋)가 매우 성대하였다.
 - 14 왕이 사절을 파견하여 그 일행을 위로 하였다.
 - 15 ○ 계묘일에 신라왕이 왕철 등과 함께 개경으로 들어 왔다.
 - 16 왕이 의장병을 갖추고 교외로 나가서 그를 영접하였으며 태자에게 명령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그를 호위하여 유화궁으로 들어 와서 사관을 정하게 하였다.
 - 17 ○ 계축일에 왕이 정전에 나와서 백관을 모아 놓고 의례를 갖추어 왕의 말땀 낙랑공주를 신라왕의 아내로 삼았다.
 - 18 ○ 기미일에 신라왕이 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본국이 오래 동안 위기를 겪고 운수가 벌써 다 진해서 다시 왕실을 보전할 희망이 없으니 신하의 예절로써 뵈옵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 19 ○ 12월 신유일에 여러 신하들이 이뢰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으며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는 법이니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원컨대 신라왕의 요청을 허락소서”라고 하였다.
 - 20 ○ 임신일에 왕이 천덕전(天德殿)에 나와서 백관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신라와 더불어 정중한 맹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영구히 하고 각각 자기의 사직을 보전하기를 희망하였다.
 - 21 그런데 지금 신라왕이 신하 노릇을 하겠다고 굳이 청하고 경(卿)들도 그것을 가타고 하니 비록 나의 마음은 부끄러우나 여러 사람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뜰에서 드리는 신라왕의 배례를 받았다.
 - 22 여러 신하들의 축하하는 소리가 온 궁중을 뒤흔들었다.
 - 23 이에 김부를 정승으로 임명하여 품위가 태자 이상으로 되게하고 1년 녹봉을 천 석씩 주었으며 신라궁(神鸞宮)을 지어 주고 그 시종자들을 전부 등록하여 토지와 녹봉을 넉넉히 주었으며
 - 24 신라국은 폐지하여 경주(慶州)로 고치고 그 지역을 김부에게 주어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 25 이 해에 예빈경 형순 등을 당나라에 파견하였다.
 - 26 ○ 태조 19년(936) 2월에 견훤의 사위인 장군 박영규가 귀순하기를 청하였다.
 - 27 ○ 여름 6월에 견훤이 왕에게 청하기를 “이 늙은 몸이 멀리 창파를 건너서 대왕에게 온 것은 대왕의 위력을 빌어서 나의 못된 자식을 처단하려는 것 뿐이었다”고 하였다.
 - 28 ○ 가을 9월에 왕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가서 병력을 합세하여 일선군(一善郡)으로 나아가니
 - 29 신검이 무력으로써 이에 대항하였다.
 - 30 신검이 자기 아우들인 청주(菁州) 성주 양감, 광주(光州) 성주 용경과 문우 관료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 31 왕이 크게 기뻐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포로한 백제 장병 3천 2백 명은 전부 제고향으로 돌려 보내고
 - 32 훈강, 부달, 우봉, 견달 등 40명만은 그들의 처자와 함께 서울로 데려 왔다.
 - 33 왕이 친히 능환을 불러 꾸짖기를 “처음부터 양경 등과 공모하여 임금을 가두고 그 아들을 세운 것은 너의 짓이니 남의 신하된 도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니, 능환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입을 떼지 못하였다.
 - 34 왕은 드디어 명령을 내려 능환을 처단하게 하고 양경, 용경은 진주(眞州)로 귀양을 보냈다가 얼마 후에 죽었다.
 - 35 신검은 그가 아버지의 자리를 참람하게 차지한 것이 남의 위협에 의한 것으로서 죄가 두 아우보다는 경할 뿐더러 항복하여 왔다 하여 특별히 죽이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
 - 36 이에 견훤은 근심과 번민으로 동창이 나서 수일 만에 황산(黃山) 절간에서 죽었다.
 - 37 왕이 백제 서울에 들어 가서 명령하기를 “적의 큰 괴수들은 이미 항복하였으니 죄 없는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 38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 등용하였으며 군령이 엄격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추호도

7 고려사상

칭받지 않으니 각 주현이 편안하였다.

- 39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두 만세를 부르면서 서로 경축하기를 “진정한 임금이 오셨으니 우리들이 살고 났다.”고 하였다.

6 ○ 태조 21년(938) 봄 3월에 서천축국(西天竺國)의 중 흥법대사 실리전일라(唎轉日羅)가 왔는데, 그는 원래 마가다국(摩揭陀國) 대법론보리사 중이었다. 왕이 양 거리에 의장을 성대히 갖추고 그를 맞이하였다.

2 이 달에 비로소 후진(後晉)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3 ○ 겨울 12월에 탐라국(耽羅國) 태자 말로(末老)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그에게 성주(城主), 왕자의 작위를 주었다.

4 이 해에 발해 사람 박승(朴昇)이 3천여 호를 데리고 귀순하여 왔다.

5 ○ 태조 22년(939) 이해에 진나라에서 국자박사 사반을 보내 왕을 개부의동상사, 경교 태사로 책봉하고 기타 관작은 전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6 ○ 태조 23년(940) 진나라에서 우리의 질자(質子) 왕 인직을 돌려 보냈다.

7 ○ 태조 24년(941) 이 해에 대상 왕신일을 진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8 ○ 태조 25년(942) 겨울 10월에 거란 사신이 낙타 50 필을 보내었다.

9 왕이 거란은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배반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 관계를 맺을 나위가 못된다고 생각하여 드디어 국교를 단절하고

10 그 사신 30 명은 성으로 귀양을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萬夫橋) 아래 매어 두었더니 다 굶어 죽었다.

11 ○ 태조 26년(943) 여름 4월에 왕이 박술회를 불러서 친히 “훈요(訓要)”를 주었는데,

12 그 내용에 “(생략)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문란 시킬 듯 하니 이것이 크게 근심스럽다.

13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 보아 영구히 모범으로 삼게 하기를 바란다.

14 첫째로, 우리 국가의 왕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5 그러므로 불교사원들을 창건하고 주지들을 파견하여 불도를 닦음으로써 각각 자기 직책을 다도록 하는 것이다.

16 그런데 후세에 간신이 권력을 잡으면 승려들의 칭축을 받아 모든 사원을 서로 쟁탈하게 될 것이니 이런 일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17 둘째로, 모든 사원들은 모두 도선(道詵)의 의견에 의하여 국내 산천의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창건한 것이다.

18 도선의 말에 의하여 자기가 선정한 이 외에 함부로 사원을 짓는다면 지덕(地德)을 훼손시켜 국운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19 내가 생각하건대 후세의 국왕, 공후, 왕비, 대관들이 각기 원당(願堂)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은 사원들을 증축할 것이니 이것이 크게 근심되는 바이다.

20 신라 말기에 사원들을 아단스럽게 세워서 지역을 훼손시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경계할 일이 아니겠는가?

21 셋째로, 적자(嫡子)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것이 비록 멧뚱한 법이라고 하지마는 (생략)

22 후세에 만일 국왕의 맏아들이 착하지 못하거나 왕위를 지차 아들에게 줄 것이며 지차 아들이 또 착하지 못하거나 그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자로써 정통을 잇게 할 것이다.

23 네째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24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므로 구태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25 그리고 거란은 우매한 나라로서 풍속과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

26 다섯째로, 내가 삼한 산천 신령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생략)

27 마땅히 춘추동 사시절의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서경)에 가서 1백 일 이상 체류함으로써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28 여섯째로,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燃燈)과 팔관(八關)에 있다.

29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30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岳), 명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것이다. (생략)

31 일곱째로,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32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하는 말을 좇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하는바 간하는 말을 좇으면 현명하게 된다.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마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 없어질 것이다.

33 또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부역을 경하게 하며,

34 조세를 적게 하는 동시에 농사 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게 될 것이다.

35 옛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고,

36 중한 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장수가 있으며,

37 활을 겨누면 반드시 피하는 새가 있고 착한 정치를 하면 반드시 착한 백성이 있다고 하였다.

38 상과 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맞아 기후까지 순조로워지나니 그것을 명념하라

- 39 여덟째로, (생략)
- 40 아홉째로, 배봉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니 현재의 것을 증강하지 말라
- 41 또 옛문헌에 이르기를, 공로를 보아 녹봉을 규정하고 사사로운 관계로 관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 42 만일 공로가 없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으로서 헛되이 녹봉을 받게 되면 다만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비방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역시 그 행복을 길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엄격하게 이를 경계해야 한다.
- 43 또 우리는 강하고도 약한 나라가 인방으로 되어 있으니 평화 시기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 44 병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매년 가을에 무예가 특출한 자들을 검열하여 적당히 벼슬을 높여 주라
- 45 열째로,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역사 서적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 46 ○ 5월에 왕이 편치 못하여 정무 처리를 정지하였다.
- 47 ○ 정유일에 대신들인 염상, 왕규, 박수문 등이 왕을 모시고 있었다.
- 48 왕이 말하기를 "한나라 문제는 말하기를, 천하 만물이 생겨 나서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죽음은 천지의 이치요 만물의 자연이다.
- 49 어찌 너무 슬퍼하겠느냐고 하였으니 옛날 명철한 왕들은 마음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다.
- 50 내가 병에 걸린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다. 죽는 것을 돌아 가는 것처럼 생각하노니 무슨 근심이 있으랴 한 문제의 말이 곧 나의 의사이다.
- 51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한 안팎 중요 사무들은 그대들이 태자 무와 함께 처리하고나서 나에게 보고하라"
- 52 ○ 병오일에 왕의 병이 위독하여졌다. 왕이 신덕전에 나가서, 학사 김약에게 명령하여 유조(遺詔)를 쓰게 하였는바 초고가 이루어진 뒤로는 왕이 말을 더 하지 못하였다.
- 53 좌우 신하들이 큰 소리로 목메어 울부짖으니 왕은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 54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성상(聖上)이 백성의 부모가 되었다가 오늘 갑자기 여러 신하들을 버리고 가려 하시니 저희들이 슬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55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덧없는 인생이란 옛날부터 으레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끝난 후 조금 있다가 죽었다.
- 56 왕이 왕위에 있는 지가 26년이요, 향수는 67세였다.
- 57 내외 백관들에게 유언하여 다 동궁의 처분을 받게 하였다.
- 58 초상 장사 및 왕릉의 제도들은 한문제와 위문제의 옛규례를 좇아 일체를 검박하게 하였다.

- 59 왕은 그의 포부가 크고 원대하였으며 국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상벌을 공평히 하며 절약을 숭상하고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하며 유교를 중하게 여겼다.
- 60 시호를 신성(神聖)이라 하고 묘호를 태조(太祖) 라고 하였다.
- 61 송악산 서쪽 기슭에 장사지내니 능호는 현릉(顯陵)이었다.

- 7** ○ 혜종 대왕의 이름은 무(武)요 자는 승건(承乾)이니 태조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장화 왕후 오씨이다.
- 2 ○ 혜종은 912년 임신에 출생하였고 태조 4년(921)에 정윤(正胤)으로 책봉되었다.
 - 3 ○ 태조를 따라 백제를 토벌하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적진으로 선창 들어 간 것으로 하여 제 1등 공신으로 등록되었다.
 - 4 ○ 26년 5월 병오일에 태조가 죽으매 유명을 받들어 왕위에 올랐다.
 - 5 ○ 6월 임신일에 태조를 현릉(顯陵)에 장사하였다.
 - 6 ○ 혜종 원년(944)에 광평 시랑 한현규와 예빈경 김령을 진나라에 보내 왕위 계승을 통고하고 겸하여 거란을 격파한 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 7 ○ 혜종 2년(945)에 진나라가 범광정과 장계응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 8 ○ 대광 왕규가 왕의 아우 요와 소를 참소하였으나 왕은 그것이 무고(誣告)임을 알고 더욱더 그들을 은혜롭게 대우하였다.
 - 9 규는 또 그 일당들을 시켜서 벽을 뚫고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 와서 난을 꾸미려고 획책하였다.
 - 10 그러나 왕은 침실을 옮겨 피하였을 뿐,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
 - 11 ○ 가을 9월에 왕의 병이 위독하게 되었으나 여러 신하들은 들어 가 볼 수도 없고 아침하는 소인들만 항상 곁에 모시고 있었다.
 - 12 ○ 무신일에 왕이 중광전에서 죽었다.
 - 13 재위 연수는 2년이요 향수는 34세였다.
 - 14 왕은 도량이 넓고 지혜와 용기가 탁월하였다.
 - 15 그러나 왕규의 역모 사건 이후에는 의심과 꺼림이 많아져서 항상 무장한 군사들로 자신을 보위하면서 기뻐함과 노여워함이 대종 없었다.
 - 16 이리 하여 뭇소인들이 일시에 득세를 하고 장병들에게 주는 상은 절도가 없게 되니 안팎에서 한탄과 원망이 자자하였었다.
 - 17 시호는 의공(義恭)이라 하고 묘호는 혜종이라고 하였다.
 - 18 송악산 동쪽 기슭에 장사지내니 능호는 순릉(順陵)이었다.

9 고려사상

- 8 ○ 정종대왕의 이름은 요(堯)이니, 태조의 둘째 아들이다.
- 2 어머니는 신명(神明), 순성(順聖) 왕태후(王太后) 유씨이다.
- 3 태조 6년 계미에 출생하였다.
- 4 혜종 2년, 9월 무신일에 여러 신하들이 왕을 받들어 즉위하게 하였다.
- 5 기유일에 왕규(王規)가 역모를 꾸미다가 잡혀 죽었다.
- 6 ○ 정종 원년(946) 봄 정월에 왕이 장차 현릉을 참배하기 위하여 정성을 들이던 날 저녁에 궁전 동쪽 산소나무 속에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 7 “너 요야, 세민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임금의 가장 요긴한 정무이니라.”
- 8 이 해에 뇌성을 듣고 대사령을 내렸다.
- 9 ○ 정종 3년(948) 가을 9월에 동여진(東女眞)의 대광소무개 등이 와서 말 7백 필과 토산물을 바쳤다.
- 10 왕이 천덕전(天德殿)에 나와서 말을 검열하고 3등으로 구분하여 말값을 평정하였는데, 1등은 은 주전자 1개, 잡색 비단과 견직 각 1필이요 2등은 은 바리대 1개, 잡색 비단과 견직 각 1필이요 3등은 잡색 비단과 견직 각 1필이었다.
- 11 이 때에 갑자기 우뢰가 들리고 비가 내리어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과 궁전의 서쪽 모퉁이를 벼락쳤다.
- 12 왕이 크게 놀라매 근신들이 그를 부축하여 중광전(重光殿)으로 들어 갔는데 그 길로 병이 들었다.
- 13 이 날 대사령을 내렸다.
- 14 이 해에 처음으로 후한(後漢) 연호를 사용하였다.
- 15 ○ 정종 4년(949) 3월 병진일에 왕의 병이 위독하여 지므로 자기의 동복 아우 소(昭)를 불러 왕위를 넘겨 주었다.
- 16 왕이 제석원(帝釋院)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죽었다.
- 17 재위 연수는 4년이요, 향수는 27세였다.
- 18 왕은 성품이 불교를 좋아하였고 겁이 많았다.
- 19 처음에 도참을 신빙하여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결심하고 장정들을 징발하여 시종 권직(權直)으로 하여금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다.
- 20 이 때에 부역은 한이 없었고 또 개경 백성들을 뽑아서 서경을 채웠다.
- 21 이리 하여 백성들이 불만을 품어 원성이 계속 일어났다.
- 22 왕이 죽게 되자 부역 나갔던 사람들이 듣고서 기뻐 뛰었다.
- 23 시호는 문명(文明)이라 하고 묘호는 정종(定宗)으로 정하였다.
- 24 성 남쪽에 장사지내니 능호는 안릉(安陵)이었다.
- 9 ○ 광종 대왕의 이름은 소(昭)요, 자는 일화(日華)이니 정종의 동복 아우이다.

- 2 태조 8년 을유에 낳고 정종 4년 3월 병진일에 위양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 3 ○ 광종 원년(950)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공포하였다.
- 4 ○ 광종 2년(951) 겨울 12월에 처음으로 후주(後周)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5 ○ 광종 3년(952)에 광평시랑 서봉을 후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6 ○ 광종 4년(953)에 후주에서 위위경 왕연과 장작소감 여계빈을 보내 왕을 특진 검교 대보, 사지절 현토주도독, 총 대의군사 겸 어사대부, 고려국왕으로 책봉하였다.
- 7 ○ 광종 5년(954) 봄에 송선사를 창건하여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 8 ○ 광종 6년(955)에 대상 왕용을 주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9 광평시랑 손질을 주나라에 보내 후주 세종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였다.
- 10 ○ 광종 7년(956)에 주나라에서 장작감 설문우를 보내 왕을 개부의 동상사 검교 태사로 책봉하는 동시에 백관들의 복식을 중국 제도와 같이 하게 하였다.
- 11 주나라의 전 대리평사 쌍기가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다.
- 12 ○ 광종 9년(958) 여름 5월에 비로소 과거 제도를 설정하고 한림학사 쌍기에게 명령하여 진사를 선발하게 하였다.
- 13 ○ 병진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와서 방(榜)을 붙이고 최성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 14 ○ 이 해에 주나라에서 상서 수부원외랑 한언경과 상연봉어 김언영을 보내 비단 수천 필을 가지고 동(銅)을 무역하여 갔다.
- 15 ○ 광종 10년(959) 봄에 좌승 왕금과 좌윤 황보 위광을 주나라에 보내 좋은 말과 의복, 활, 칼 등속을 선사하였다.
- 16 ○ 가을에 사신을 주나라에 보내 별서효경 1권, 월왕효경신의 8권, 황령효경 1권, 효경자옹도 3권을 선사하였다.
- 17 주나라에서 좌효위 대장군 대교를 보내 왔다.
- 18 ○ 겨울에 사신을 주나라에 보내 구리 5만 근, 자색 수정과 흰 수정 각 2천 개를 선사하였다.
- 19 주나라 시어 쌍철이 고려에 왔다. 그에게 좌승의 작위를 주었다.
- 20 ○ 광종 11년(960)에 백관의 관복 제도를 제정하였다.
- 21 평농서사 권신이 참소하기를 대상 준홍, 좌승 왕동 등이 역모를 꾸민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았다.
- 22 이 때로부터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여 충성 있고 현량한 사람들을 모함하였으며
- 23 노비가 제 주인을 걸어 고소하고 아들이 제 아버지를 참소하여 감옥이 항상 가득 차게 되었다.

- 24 이리하여 따로 임시 감옥까지 설치하였다. 죄 없이 잡혀 죽는 자가 계속 생겨 나고 시기하는 버릇이 날로 심하여졌다.
- 25 왕실 일족들도 많이 잡혀 죽었고 왕의 외아들 왕주까지도 역시 의심을 받아 왕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니,
- 26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여 감히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였다.
- 27 ○ 광종 12년(961)에 궁궐을 수리하였다. 왕은 그 동안 정광 왕육(王育)의 집에 가 있었다.
- 28 ○ 광종 13년(962) 겨울에 광평시랑 이흥우를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29 ○ 광종 14년(963) 여름 6월에 왕이 대궐로 돌아 와서 조서를 내렸다.
- 30 “근자에 대궐을 수리하는 일로 하여 오래 동안 별궁에 가 있는 동안,
- 31 마음에는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일 처리도 평상시와는 달랐으나 백관들이 일을 보고 하는데 내가 직접 듣지 못한 적이 많았다.
- 32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혹 의심이 생길듯 하여 이 걱정을 잠 잘 때나 밥 먹을 때도 잊기 어려웠다.
- 33 그러나 지금은 벌써 수리하는 일이 끝났고 정사를 처리할 장소도 있게 되었다.
- 34 무릇 너희 백관들은 각각 자기 일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과 같이 보고하여 조금도 사무가 침체되지 않게 할 것이며,
- 35 임금과 신하가 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서로 화합하여 조금이라도 간격이 없게 하라”
- 36 ○ 광종 16년(965) 봄 2월에 아들 왕주에게 관(冠)을 씌우고 그를 왕태자, 내사, 제군사, 내의령, 정윤으로 책봉하고
- 37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장생전(長生殿)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 38 대승 내봉령 왕로를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39 송나라 황제가 노에게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벼슬과 식읍 3백 호를 주고 아울러 관고(官誥)를 주었다.
- 40 ○ 광종 19년(968)에 승려 해거를 국사(國師)로 삼고 탄문을 왕사(王師)로 삼았다.
- 41 왕이 아첨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내심으로 가책을 받게 되었다.
- 42 이리 하여 자기 죄악을 덜기 위하여 재회(齋會)를 광범히 가지게 되니,
- 43 많은 무뢰배들이 가짜로 중이 되어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모여 들었다.
- 44 이따금 떡, 쌀, 시탄 등을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길거리에서 일반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수 없이 많았다.
- 45 또 방생소(放生所)를 많이 설치하여 놓고 부근 사원들에게 불경을 강연하였다.

- 46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왕궁에서 쓰는 고기도 시장에서 사들이었다.
 - 47 ○ 광종 22년(971) 겨울 12월 임인일에 지진이 있었다.
 - 48 ○ 광종 23년(972) 봄 2월에 지진이 있었다.
 - 49 ○ 가을 8월에 대사령을 내렸다.
 - 50 내의시랑 서희 등을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51 송나라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의 식읍을 더 주고 추성 순화 수절 보의 공신 칭호를 주었으며
 - 52 서희에게는 검교 병부상서를, 부사인 내봉경 최업에게는 검교 사농경 겸 어사대부를, 판관인 광평시랑 강례에게는 검교 소부소감을, 녹사인 광평원외랑 유은에게는 검교 상서 금부랑중을 각각 주고 아울러 관고(官誥)를 주었다.
 - 53 ○ 광종 25년(974) 이 해에 서경의 승려 연가(緣可)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잡혀 죽었다.
 - 54 중 해거가 죽으며 탄문을 국사로 삼았다.
 - 55 ○ 광종 26년(975) 여름 5월에 왕이 병들어 갑오일에 정침에서 죽었다.
 - 56 재위 연수는 26년이고, 향수는 51 세였다.
 - 57 왕이 즉위초에는 신하들을 예절로 대우하고 정사 처리에 밝았으며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비를 중하게 여기며 밤낮으로 근면하여 정치가 잘 될듯도 하더니
 - 58 중년 이후에는 참소를 듣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였으며, 불법을 확신하게 믿었고 사치에 제한이 없었다.
 - 59 시호를 대성(大成)으로, 묘호를 광종(光宗)으로 하였다.
 - 60 송악산 북쪽 기슭에 장사 지내니 능호는 헌릉(憲陵)이었다.
- 10** ○ 경종 대왕의 이름은 왕주(王侁)요,
2 자는 장민(長民)이니 광종의 맏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대목왕후 황보씨였다.
- 3 ○ 광종 6년 을묘 9월 정사일에 낳고 16년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26년 5월 갑오일에 광종이 죽으며 왕의 자리에 올랐다.
 - 4 대사령을 내리어 귀양 갔던 사람을 돌아 오게 하고 갇혔던 사람을 해방하였으며, 흉 있는 사람을 벗겨 주고, 승진하지 못하던 사람을 발탁하였으며, 관작을 빼앗긴 사람은 복직시켜 주었다.
 - 5 그리고 채무를 덜어 주고 조세와 공납을 감해 주었으며 임시 감옥을 헐고 참소한 글들을 불살라 버렸다.
 - 6 ○ 경종 원년(976) 여름 6월 경신일에 황주원 두 낭군(郎君)에게 다 관(冠)을 씌우고 원호(院號)를 명복궁으로 고쳤다.
 - 7 ○ 겨울 11월에 송나라에서 좌사어 부술 우연초와 사농시승 서소문을 보내 왕을 광록대부, 검교 태부, 사지절 현토주 제군사 현토주 도독 대순군사로 책봉

11 고려사상

- 하고 식읍 3천 호를 주었다.
- 8 사절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송태종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9 집정 왕선을 외지로 추방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선 대 임금 때에 참소를 입은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을 허락하였더니, 드디어 서로 마음 대로 죽이기를 시작하여 또 억울한 일들이 생겼다.
- 10 이 때에 왕선은 복수를 핑계하고 제 마음대로 태조의 아들 천안부원 낭군을 죽이였다.
- 11 이에 선을 추방하는 동시에 제 마음 대로 죽이고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12 이 해에 김행성을 송나라에 보내 국자감에 입학하게 하였다.
- 13 ○ 경종 2년(977) 이 해에 왕자를 송나라에 보내 좋은 말과 갑옷, 병기들을 선사하였다.
- 14 ○ 경종 3년(978) 여름 4월에 정승 김부가 죽었다. 그에게 경순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 15 ○ 송나라에서 태자 중윤 장계를 보내 예방하였다.
- 16 ○ 경종 4년(979) 여름 6월에 송나라에서 공봉관 함문지후 왕준을 보내 왕을 시종으로 책봉하고 식읍 1천호를 더 주었다.
- 17 이 해에 발해 사람 수만 명이 귀순하여 왔다.
- 18 ○ 경종 5년(980)에 최지몽을 내의령으로 임명하였다.
- 19 왕승 등이 역모를 꾸미다가 잡혀 죽었다.
- 20 ○ 경종 6년(981) 여름 6월에 왕이 병들었다.
- 21 가을 7월에 왕의 병이 점점 위독하여졌다. 갑진일에 당제 개령군을 불러서 정권을 위양하고,
- 22 유조를 내리길,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현철한 사람도 면하기 어려우며 수명의 장단은 고금이 마찬가지이다. (생략)
- 23 이제 내가 죽던 짐을 벗음으로써 정신을 쉬우고자 하며, 후계자에게 왕위를 전하여, 근심을 잊으려 한다. 정윤 개령군은 나라를 다스릴 현명한 종친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 24 그는 반드시 조상의 위업을 받들고 국가의 큰 기초를 보전 할 수 있을 것이다.
- 25 너희들 공경 재상들은 나의 동생을 극진히 보호하여 길이 우리 큰 나라를 편케 하라.
- 26 나는 예경을 읽다가 ‘남자는 부인에게 시종을 받으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감탄하여 왔던바 오늘에는 벌써 좌우의 궁녀들을 다 불러 가게 하였다. (생략)
- 27 내가 죽은 후에 상복을 입는 기간과 경종은 한나라 제도에 의거하되,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13일만에 소상, 26일만에 대상을 지내고, 왕릉 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검약하게 하라
- 28 서경, 안동, 안남, 등주 등 모든 지방의 방비 임무를 맡아 병권을 가진 자들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어찌 잠시라도 자기 임지를 비우겠는가.
- 29 이들이 임지를 떠나서 대궐로 올라 오는 것을 허락

- 하지 말 것이며,
- 30 각기 임지에서 사흘 동안씩 애도식을 거행하고 복을 벗게 하라.
- 31 이상에 말한 이 외의 일들은 다 다음 임금의 처분에 맡기노라.”
- 32 ○ 병오일에 왕이 정전에서 죽으니 재위 연수는 6년 이요 향수는 26세였다.
- 33 왕은 온순하고 무던하며 인자로웠고 유희를 좋아하지 않더니 말년에 와서는 정치에 게을러져서 매일 오락을 일삼고 주색에 빠졌다.
- 34 또 바둑을 즐겨서 소인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하였다. 이로부터 정치와 교화가 쇠퇴하였다.
- 35 시호를 헌화(獻和)라 하고 묘호를 경종(景宗)이라고 하였다.
- 36 개경 남쪽 고을 산기슭에 장사 지내니 능호는 영릉(榮陵)이었다.

- 11** ○ 성종 대왕의 이름은 왕치(治)요, 자는 온고(溫古)니 대종(戴宗)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선의대후 유씨이다.
- 2 ○ 광종 11년 경신 12월 신묘일에 낳고 경종 6년 7월 갑진일에 정권을 물려받아 왕위에 올랐다.
- 3 ○ 겨울 11월 정유일에 왕의 죽은 아버지의 시호를 올리고 그 능에 참배하였다.
- 4 이달에 왕은 팔관회(八關會)의 잡기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또 번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전부 폐지하였다.
- 5 법왕사에 가서 분향을 하고 구정(稔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 6 ○ 성종 원년(982) 봄 3월 경술일에 백관 관제를 개정하였다.
- 7 ○ 여름 6월 갑신일에 조서를 내리길,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들의 방조 여하에 달렸다는 것은 고금이 다 같다.
- 8 내가 새로 국무를 총람하게 됨에 따라 혹 잘못된 정치가 있을까 걱정하노니, 중앙 관리로서 5품 이상 되는 자들은 각각 글을 올려 현행 정치의 우점과 결점을 논하라.”
- 9 ○ 성종 2년(983) 봄 정월 신미일에 왕이 원구(圃丘)에서 풍년을 기도하고 태조의 신위를 원구에 모시었다.
- 10 ○ 을해일에 왕이 친히 적전(籍田)을 갈고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후직(后稷)의 신위를 거기에 함께 모시었다.
- 11 풍년을 기도하고 적전을 친히 가는 의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12 ○ 3월 무인일에 송나라에서 대종대부 광록소경 이거원과 조의대부 장작소감 공유를 파견하여 왕을 책봉하였다.
- 13 조서의 대략에 “(생략) 식읍 2천 호를 주는 동시에 고려국 왕으로 책봉한다.”

- 14 ○ 성종 3년(984) 봄 3월 경신일에 처음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 15 ○ 여름 5월 초하루 경술일에 형관의 문기동에 낙회하였기 때문에, 여사(御事)시랑, 낭중, 원외랑 등 관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한 다음 그들을 다 파면시켰다.
- 16 이해에 처음으로 군인들의 복색 제도를 제정하였다.
- 17 형관여사 이경의에게 명령하여 압록강 강안에 성을 쌓아 관방(關防)을 설치하게 하였더니, 여진인들이 군사를 발동시켜 이를 방해하고 경의를 납치하여 갔다.
- 18 우리 군사들이 분산되어 성을 쌓지 못하였고 군사들 중 돌아온 자가 3분의 1이었다.
- 19 한수령을 송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20 ○ 성종 4년(985) 여름 5월에 송 나라에서 태상경 왕저, 비서감 여문중 등을 파견하여, 왕에게 관직을 더 주고
- 21 조서의 대략에 “우리는 세계의 큰 나라로서 천하를 한 집안으로 생각한다. (생략)
- 22 특히 경교 태부의 관직을 주는 동시에 식읍 1천 호를 더 준다. 그리고 산관(散官)훈호는 종전과 같다.”
- 23 송나라에서 장차 거란을 쳐서 연주(燕州), 계주(薊州) 지방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거란과 접경해 있어 자주 그의 침략을 받게 된다 하여,
- 24 감찰어사 한국화(韓國華)에게 조서를 주어 보내길, "(생략) 우둔한 북쪽 오랑캐 거란이 황제의 국도를 침략하였다.
- 25 유주, 계주 등 지역은 중국의 강도인데 진(晉), 한(漢) 때에 사정이 착잡하여, 오랑캐들이 함부로 정령하고 있었다. (생략)
- 26 그런데 고려의 국토가 오랑캐와 인접하여 그 해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래 쌓인 울분을 이제 씻어 버릴 때가 아니겠는가.
- 27 왕은 자기 군대에게 명령하여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적들을 섬멸하도록 하자. (생략)
- 28 좋은 때는 두 번 오지 아니 하니 왕은 이것을 명념하라.
- 29 이번 싸움에서 노획한 인물, 우양, 재보, 기계(병기)들은 전부 왕의 장병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고무하는 상품으로 대신할 것이다.” 하였다.
- 30 ○ 왕이 조서를 받고 시일을 끝내서 출병하지 않으니
- 31 국화가 한편 위협하고 또 한편 이해 관계를 따지면서 권유하는 것이었다.
- 32 왕이 부득이 군사를 출동하여 서방에서 서로 만날 것을 허락하니 한국화가 그제야 돌아갔다.
- 33 이에 앞서 거란이 여진을 칠 때에 우리 나라 영도를 거쳐갔으므로, 여진은 우리가 거란을 유인하여 사단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
- 34 송나라에 말을 바치러 갔을 때에 우리를 무고하여 “고려가 거란과 결탁하여 여진 사람들을 납치하여 갔다”고 하였다.

- 35 그래서 우리 사절 한수령이 송나라에 갔을 때에 송나라 황제가 여진이 고변한 문건을 내보이면서
- 36 “본국에 이 말을 전달하여 여진 포로들을 돌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37 왕이 이 말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화가 오게 되자,
- 38 왕이 말하길 “여진은 욕심이 많고도 교활하여 지난 겨울에 두 번이나 우리에게 글을 보내 거란 군대가 곧 자기네 국경으로 쳐들어오니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다.
- 39 그러나 본국은 그것이 허위인 것으로 의심하고 즉시 구원을 하지 않았다.
- 40 그 후 과연 거란군이 쳐들어와서 많은 여진인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 41 당시에 죽기를 모면한 여진인들이 본국의 회창(懷昌), 위화(威化), 광화(光和) 등지로 도망하여 왔는데 거란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잡아가면서
- 42 우리 수비병을 불러서 말하기를 여진인들이 늘 자기네 변방에 와서 침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복수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 43 그때에 여진인으로서 우리 나라에 도망쳐 들어온 자가 2천여 명이나 되었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다 노자까지 주어 돌려 보냈다.
- 44 그런데 여진인들은 가만히 군대를 거느리고 갑자기 와서 우리 관리와 백성들을 학살하고 장정들을 몰아다가 노예를 만들 줄은 뜻하지 못하였다.
- 45 그러나 우리는 여진이 대대로 중국을 섬겨 오는 터이므로 하여 원수를 갚지 못하였었다.
-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도리어 우리를 무고하여 귀국을 미혹하게 할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 47 본국은 대대로 중국의 정삭(正朔)을 받고 삼가 공물을 보내며 귀국의 후의를 감사히 여기고 있는 터인데 어찌 두 마음을 가지고 외국과 상통하였으리오,
- 48 더군다나 거란은 요해(遼海) 밖에 위치해 있고 우리와의 사이에 두 강이 막혀 있어 그와 상통할 길이 없을 뿐더러
- 49 여진인으로서 피난하여 와서 현재 본국의 관직을 받고 있는 자도 1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 50 바라건대 그들을 당신네 정부로 불러다가 우리의 사절과 함께 황제 앞에서 면질을 시킴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러한 사연을 황제에게 보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 51 한국화가 그것을 수락하였다.
- 52 ○ 겨울 10월에 사람들이 자기 집을 희사하여 사원으로 만드는 폐단을 금지하였다.

12 ○ 성종 5년(986) 봄 정월에 거란이 권력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2 ○ 3월에 비로소 조서를 교서(敎書)라고 개칭하였다.

13 고려사상

- 3 ○ 가을 9월 을축일에 교서를 내렸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으나 많은 별들을 늘어 놓아 아래 세계를 비추며 임금은 교화를 베푸는 데 착한 신하들을 각 지방에 파견한다.
- 4 나의 몸은 비록 구중 궁궐에 있으나 나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가 있다. (생략)
- 5 이제 다시 타이르고 간곡한 교지를 내리노니, 일체 지방관들은 재판 사무를 지체하지 말고
- 6 창고들에 곡식이 충만하게 하며 곤궁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농업과 장업을 장려하며
- 7 부역과 조세는 가볍게 하고 처사는 공평하게 하라.
- 8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처음부터 잘 해야 하며 아랫물을 맑게 하려면 원류를 깨끗이 해야 한다.
- 9 차라리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며
- 10 겸은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솜뿔을 밝히라.
- 11 이렇게 하면 재판에 억울한 것과 지체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며,
- 12 길에 떨어진 것이 있어도 줌은 사람이 없어질 것이며,
- 13 사람들은 곳곳마다 자기의 생활을 즐기고 집집마다 자기 직업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 14 이렇게 되면 하늘에 7정(七政)이 있는 것처럼 나라가 명량할 것이요,
- 15 우주에 사시가 순환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도가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지방관들은 나의 말을 명념하여 잊지 말라”
- 16 ○ 성종 6년(987) 봄 3월 갑자일에 대광 최지몽이 죽었다.
- 17 ○ 가을 8월 을묘일에 이몽유에게 명령하여 중앙 및 지방 관청들에서 주달하는 글과 통첩, 공문 양식들을 제정하게 하였다.
- 18 ○ 이달에 정우현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 19 이날 교서를 내리길 “옛날 문자가 있기 전, 팔괘(八卦)를 굳게 된 뒤를 막론하고,
- 20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누구나 다 오상(五常)을 익혀서 교화를 실시하며 육적(六籍)에 근거하여 규범을 만들었다.
- 21 그렇기 때문에 순 임금은 상상(上庠)과 하상(下庠)을 설치하였고 (생략)
- 22 군신과 부자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풍습을 알았으며, 예의 음악과 시서(詩書)는 족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업을 창안할 수가 있었다.
- 23 그렇기 때문에 인륜의 규범과 규정의 기강이 훌륭히 빛나서 불 만한 것이 있었다. (생략)
- 24 뿐만 아니라 신체가 건강하기 위하여는 병치료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 25 그렇기 때문에 신농씨(神農氏)가 임금으로 있을 때에는 약초를 광범히 탐색하였으며
- 26 진 시황(秦始皇)이 서적을 불태울 때에도 의학 서적들은 없애지 않았었다.
- 27 장차 백성들의 간고한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술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이 긴급하다.(생략)
- 28 이제 경전, 의서들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성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12목(牧)에 각각 경학박사(經學博士) 1명, 의학박사(醫學博士) 1명씩을 파견한다.
- 29 이들의 품행이 착실하고 교수 방법이 능란하여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그 공적의 대소를 심사하여 높은 벼슬에 발탁하여 추장하는 방책을 취할 것이다.
- 30 또 여러 주, 군, 현의 장관(長吏)과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제들이 있거든 그들을 알뜰히 훈계해서 선생에게 배우도록 하라.
- 31 만일 그 부모가 국가의 방침을 모르고 살림살이를 시키기 위하여 다만 눈앞의 이익만 보고,
- 32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며 ‘학습은 해서 무엇하는가’ ‘글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여,
- 33 공부는 방해하고 나뭇짐만 지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평생 동안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 부모는 영화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생략)”
- 34 ○ 9월 무진일에 모든 촌(村)의 대감(大監), 제감(弟監)을 촌장(村長), 촌정(村正)으로 고쳤다.
- 35 ○ 겨울 10월에 양경의 팔관회를 정지하라고 명령하였다.
- 36 ○ 성종 7년(988) 봄 2월 임자일에 좌보궐 겸 지기거주 이양이 왕에게 글을 올려 대책을 요청하였다.
- 37 “첫째로 옛날 명철한 임금은 하늘의 도를 받들어 삼가 농사짓는 계절을 가르쳐 줌으로써 임금은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백성은 농사 시절의 이르고 늦은 것을 알았습니다. (생략)
- 38 월령(月令)에 의하면 입춘 전에 토우(土牛)를 내어 농사철의 이르고 늦은 것을 보였다고 하였으니 이 옛날 행사를 지금 실시하기를 청합니다.
- 39 둘째로 (생략) 지금 바로 이른 봄에 곡식 잘 되기를 상제(하늘)에게 빌고, 길한 날에 동쪽 교외에서 적전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 40 그런데 임금은 비록 친히 적전을 갈지마는 왕후가 종자 바치는 의례는 집행하지 않고 있사오니, 원컨대 주례에 의거하여 우리 국가의 미풍을 보이도록 하소서
- 41 셋째로, (생략) 원컨대 지금 1년의 첫 계절에 널리 봄 행사를 실시할 데 대한 명령을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절의 금령과 자연의 법칙을 알게 하소서”
- 42 ○ 이에 왕이 교서를 내리길 “이양의 논술한 바는 다 경전에 근거한 것이니 채택할 만한 일이다.
- 43 금년에는 벌써 입춘에 토우 내는 일은 지났으니 그만두고 다음 해 입춘 전에 해당 관리가 다시 아뢰어 시행하도록 하라.
- 44 그리고 종자를 바치는 일은 마땅히 의례를 맡은 관

- 리들로 하여금 토의 결정하게 할 것이다.
- 45 적전을 친히 가는 일과 길일에 왕후가 몸소 길쌈을 하는 의례는 금년부터 시작하여 통례로 삼게 하라.
 - 46 정월 중순 초부터 공사간의 제사에 쓸 고기는 암컷을 잡아 가축 생식에 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 47 벌목을 금하여 착한 덕을 위반하지 말도록 하라.
 - 48 모든 곳에서 새끼 짐승과 알 가진 짐승을 잡지 말며 새로 돌아오는 어린 새끼를 다치지 말며
 - 49 적을 방어하고 요새지를 축성하는 등 긴요한 일 이외에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농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50 ○ 겨울 10월에 송나라에서 여단과 여우지를 보내, 왕에게 검교 태위 관직과 식음 1천 호를 더 주었다.
 - 51 ○ 이해 정월에 송나라 황제가 적전을 친히 갈고 대사령을 내리었으며, 연호를 단공(端拱)으로 개칭하고, 백관들에게 다 은혜를 베푼 다음 여단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고 또 대사의 뜻을 권유한 것이었다.
 - 52 왕은 책봉을 받은 후에 교형(絞刑) 이하, 죄수들을 석방하고 문관으로 벼슬하여 오래 된 자는 예복을 개정하게 하고
 - 53 무관으로 늙어서 자손이 없는 자와 계묘년부터 군직에 등록된 자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양반 관리들에게는 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었다.
 - 54 ○ 12월 초하루 을축일에 불가의 교법에 의하여 정월, 5월, 9월을 3장월(三長月)로 하여 짐승 도살을 금하였다.
 - 55 이해에 비로소 5묘(五廟)를 정하였다.

13 ○ 성종 8년(989) 봄 2월 경진일에 교서를 내렸다.

- 2 “나 들으니 조정이나 민간의 양반, 평민들로서 병에 걸린 자들이 의원을 보지 못하고 약조차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자가 많다고 한다.
- 3 이들에게 의약을 일일이 주려는 나의 생각은 간절하다.
- 4 그러나 종래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조리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은 없었다.
- 5 이제부터 중앙과 지방의 문관 5품, 무관 4품 이상 관리들의 질병에 대하여는 다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면,
- 6 시어의(侍御醫)와 상약(尙藥), 직장(直長), 대의(大醫), 의정(醫正) 등 의료 관원들을 시켜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도록 할 것이다.”
- 7 이 교서를 받들고 여러 신하들이 글을 올려 감사를 표시하였다.
- 8 ○ 4월 임술일에 교서를 내리길 “나는 지금 학교를 확장하여 국가를 다스리려고 한다.
- 9 그러기 위하여 선생들을 훨씬 많이 두고 학생들을 광범히 모집하며 이들에게 토지를 급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 10 학문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여 선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11 해마다 갑을과(甲乙科)를 보여서 수재들을 선발하고 날마다 은사들을 심방하여 그 인재를 우대하라.
- 12 이렇게 하여 박식한 선비들을 찾아 내어 나의 부족한 정치를 돕게 하되, 항상 게을리 하지 말고 피곤을 잊어버리도록 하라.
- 13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배우는 자는 소털같이 많으나, 성공하는 사람은 기린의 뿔처럼 드물며,
- 14 공연히 국학에 이름을 걸어 놓은 자는 많으나, 과거장에서 시험을 보는 자는 드물다. 나는 밤낮으로 생각하고 자나깨나 걱정이다.”
- 15 ○ 9월 갑오일에 혜성이 나타났으므로 대사령을 내렸다.
- 16 ○ 12월 병인일에 교서를 내렸다. “옛날에 당 태종은 자기 부모의 죽은 달에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국내 사찰들에 명령하여 5일간 불공을 드리는 것을 상례로 하였었다. (생략)
- 17 그리고 제사 드는 달에는 도살을 금지하고 고기 반찬을 놓지 말라.”
- 18 ○ 성종 9년(990) 여름 6월에 송나라에서 조화성 등을 보내 왕에게 추성 순화공신 칭호와 식음 1천 호, 식실봉 4백 호를 더 주고 다른 관직은 전과 같이 하였다.
- 19 ○ 가을 9월 병자일에 교서를 내렸다. “대체로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힘써야 한다.
- 20 근본을 힘쓰는 데는 효도가 제일이니 효도는 3황 5제(三皇五帝)의 기본 사업으로서 만사의 강령이요 모든 선의 주체이다. (생략)
- 21 근일에 사절들을 6도에 파견하여 늙은이와 어린이 들로써 굶주리고 유리하는 것을 구제하고,
- 22 홀아비와 고아들로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며,
- 23 효행 있는 아들, 기특한 손자, 의로운 남편, 절개 지킨 부녀들을 조사하라고 하였던바,
- 24 아름다운 사실들이 나타났다.
- 25 전주(全州) 구례현(求禮縣) 백성 손순흥은 자기 어머니가 병사한 뒤 초상화를 그려 놓고 제사를 지내며 어머니가 살아 있는 것처럼 3일에 한 번씩 음식을 차려 가지고 묘에 간다고 한다.
- 26 부모 봉양을 잘 하는 자를 추어 줌으로써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뜻을 표시하는 바이다.
- 27 시골의 우매한 백성들까지도 오히려 꾸준히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벼슬하는 신하들이야 자기 조상을 받드는 것을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 28 능히 자기 집에서 효자가 된다면 반드시 국가의 충신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관리와 평민들은 나의 말을 명심하라”
- 29 ○ 12월 무신일에 왕의 조카 송(誦)을 개녕군으로 삼

15 고려사상

고 교서를 내리길, "(생략) 예를 갖추어 너를 개녕군으로 책봉하노니,

- 30 너는 자기 집안에서의 착한 행실을 국가로 옮길 것인바 부모에 대한 효도로써 임금에게 충성하며
- 31 근신, 부자의 도리를 지키어 예의를 어기지 말며, 예악, 시서의 교훈을 학습함에 있어서 읽기를 부지런히 하라.
- 32 호사로운 생활에 힘쓰지 말고 주색놀이애 빠지지 말라.
- 33 농사가 어렵다는 이치를 알고 조정의 정치 교화에 힘력하라. 공경하고 조심하여 나의 명령을 잊지 말라"
- 34 ○ 이 해에 교서를 내렸다. "(생략) 우리 고려가 창건되었을 때는 바로 신라가 멸망한 뒤로서 옛서적들은 전부 불에 타고 고귀한 문헌들은 진흙탕에 버려져 있었다.
- 35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없어진 책들을 베껴 넣고 빠진 전고들을 보충하였다. (생략)
- 36 심은사(沈隱士)의 2만여 권은 인대(麟臺)에 필사되어 있고, 장사공(張司空)의 30수레 서책은 호관(虎觀)에 보관되어 있다.
- 37 그리고 다시 4부 서적을 수집하여 양경(兩京)의 장서를 풍부히 하려고 한다.
- 38 그리 함으로써 학생들은 시장에 나가서 책을 사는 수고가 없고 강단에서는 경서를 들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39 또한 우리 동방 사람들로 하여금 추(鄒), 노(魯)의 옛풍속을 알게 하며 부자 형제 간의 도리를 알게 할 것이다.
- 40 해당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서경(西京)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여, 여러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 서적들을 발취 필사하여 보관하도록 하라"
- 41 ○ 병부 시랑 한언공을 송나라에 보내 사은(謝恩)의례를 치르게 하였다.

- 14 ○ 성종 10년(991) 봄 2월 신유일에 각 도에 안위사(安慰使)를 파견하여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스러운 형편을 보살피게 하였다.
- 2 윤 2월 계사일에 처음으로 사직(社稷)을 세우고, 교서를 내렸다.
- 3 "내가 듣건대 사(社)는 토지의 귀신인데 토지가 광대하여 그것을 다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흙을 쌓고 '사'를 만들어 토지의 공을 갚는 것이요,
- 4 직(稷)은 5곡의 으뜸인데 오곡이 많아서 그것을 두루다 제사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의 신을 세워서 제사지내는 것이라고 한다.
- 5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왕(천자)이 백성을 위하여 '사'를 세운 것을 '대사(大社)'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를 세운 것을 '왕사(王社)'라고 하며, 제후가 백성을 위하여 '사'를 세운 것을 '국사(國社)'라

-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를 세운 것은 '후사(侯社)'라고 하며, 대부 이하 사람들의 집단이 '사'를 세운 것을 '치사(置社)'라 한다고 하였다.
- 6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다 사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나니,
- 7 위로 천자로부터 밑으로 대부에 이르기까지 다 근본을 소중히 여기고 은공을 갚기 위하여는 사직(社稷)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8 우리 태조로부터 여러 왕대를 거쳤거니와 아직 3대적 제전들을 갖추지 못하였다.
- 9 내가 왕위를 계승한 이후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옛날 예전에 근거하여 왔다.
- 10 이제 나라 종묘를 옛제도에 방불하게 건설하고 춘추로 제사하는 사직단을 세우려 하노니, 여러 대신들로 하여금 터를 선정하여 단을 세우도록 하라."
- 11 ○ 이달에 최 향(崔洸)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 12 ○ 가을 7월에 가을이 계속되므로 교서를 내리기를, "늦은 여름이 이미 지나고 첫 가을도 거의 반이나 되었는데,
- 13 아직 비가 오지 않으니 대단히 걱정되는 바이다. 혹 나의 정치교화가 잘못된 탓인가? (생략)
- 14 나의 덕이 없으므로 하여 이런 가뭄을 만나게 되었으니,
- 15 노인을 존경하는 행사를 거행하며 농사를 걱정하는 나의 성의를 표시하려고 한다.
- 16 해당 관청에서는 경성에 있는 평민들로서 나이 80세 이상 된 자들의 성명을 조사 보고하라"
- 17 ○ 겨울 10월 무진일에 왕이 서도(西都)로 갔다. 이 때에 왕이 경유한 주현들에서 노인들이 소와 술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술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소는 도로 돌려주었다.
- 18 암록강 밖에 있던 여진인들을 축출하여 백두산 밖에서 살게 하였다.
- 19 한림학사 백사유를 송나라에 보내 대장경과 어제(御製)를 준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였다.
- 20 ○ 성종 11년(992) 여름 6월에 송나라에서 유식과 진정을 보내 왕을 경교 대사, 식을 1천 호, 식실봉 4백 호로 더 책봉하고 기타 관작들은 전대로 두었다.
- 21 처음에 백사유가 송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공목리 장인전이 송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 우리 나라의 형편을 고해바친 일이 있었는데
- 22 사유는 그것이 국가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이리 하여 인전은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었는데
- 23 이 때에 송나라 황제가 그를 진정 등과 함께 딸려 보내고 또 왕에게 조서를 보내 장인전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였다.
- 24 ○ 가을 7월 초하루 임진일에 종실 옥(郁)을 사수현(泗水縣)에 귀양 보냈다.
- 25 ○ 병인일에는 교서를 내리길, "임금이 천하를 교화

- 하는 데는 학교가 제일 급선무이다. (생략)
- 26 우리 나라는 창엽한 지 벌써 오래이며 문화 정치로써 융성하여졌다.
- 27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이후 구류(九流)의 학설을 밝히고 사술(四術)의 문호를 열고자 한다.
- 28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에 넣고 대소 학교에는 경서를 가지고 오는 선비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게 하며 과거를 보여 재주를 비교하고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
- 29 그런데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많으나 급제하는 자는 아직 적다. 이것은 배울 만한 학교가 없고 공부가 미숙한 탓이다.
- 30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리들은 좋은 터를 가려서 학교를 광범히 건축하고 전장(田庄)을 급여하며 학생들을 훈련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선비들도 나의 정신을 체득하라"
- 31 ○ 성종 12년(993) 봄 3월에 교서를 내리기를 "내가 듣건대 임금은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으며, 해를 형으로 삼고 달을 누님으로 삼아 때에 적당하게 의례를 제정하고
- 32 조상들이 행하던 효도를 본받아 자기 아버비를 공경하며, 조상의 공덕을 추모하고,
- 33 큰 효도는 신명(神明)을 감동케 하고 지극한 덕은 천지를 움직이게 한다고 한다. (생략)" 하였다.
- 34 ○ 여름 5월에 서북계(西北界)의 여진이 보고하기를 거란이 군대를 동원하여 침입할 계획을 꾸민다고 하였다.
- 35 조정에서는 이것은 여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거짓 보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비를 하지 않았다.
- 36 이달에 여진이 또 보고하기를 거란군이 벌써 쳐들어왔다고 하였다.
- 37 그제야 조정에서는 일이 급하게 된 것을 알고 여러도에 병마제정사(兵馬齊正使)를 파견하였다.
- 38 ○ 겨울 10월에 시종 박양유를 상군사(上軍使)로,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문하시랑 최량을 하군사로 각각 임명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북계(北界)에 가서 거란을 방어하게 하였다.
- 39 ○ 윤 10월 정해일에 왕이 서경으로 가서 안북부(安北府)에 머물렀을 적에 거란군 장수 소손녕이 우리 봉산군을 격파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 진격하지 못한 채 그만 돌아왔다.
- 40 그리하여 서희를 보내 화친을 청하니 소손녕이 침공을 중지하고 돌아갔다.
- 41 ○ 성종 13년(994) 봄 2월에 소손녕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근자에 나는 우리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 42 그 내용은 '고려는 우리와 일찍부터 우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경이 서로 인접해 있으니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마는,
- 43 당연히 일정한 규례가 있고 사신이 왕래하여야 시종 일관하게 좋은 관계가 장구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 44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혹 종로에 사신길이 막힐 수 있다.
- 45 너는 고려와 상의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통로 요충이 되는 곳에 성을 쌓도록 권고하라'고 하였다.
- 46 나는 이 명령을 받고 이곳 실정을 참작하여, 압록강 서쪽에 5개의 성을 쌓기 위하여 3월 초에 축성할 곳들에 가서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 47 청컨대 대왕도 미리 지시를 하여 안북부에서 압록강 이동에 이르는 1백 80리 구간에 적당한 지점을 답사하고,
- 48 거리의 원근을 참작하여 우리와 함께 축성되 역군들을 동원하여 동시에 착수하도록 할 것이며 그 축성할 지점의 수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통고하여 주기 바란다.
- 49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목적은 당신네 나라의 차마 교통이 편리하도록 조공의 길을 열고 영구히 거란의 조정을 받들어 자국의 평안한 길을 찾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 50 처음으로 거란의 "통화" 연호를 시행하였다.
- 51 ○ 이달에 시종 박양유를 시켜 표문을 가지고 거란으로 가서 정삭을 행한다는 것을 통고하고 포로들을 돌려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52 ○ 6월에 원옥을 송나라에 보내 우리에게 구원군을 파견함으로써 작년 거란에게서 받은 침략을 보복하는데 원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53 송나라에서는 지금 북방 국경이 겨우 편안하여졌으니 경솔하게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하고 다만 우리 사신을 후대하여 돌려 보냈다.
- 54 이때부터 송나라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 55 ○ 이해에 거란이 송록경 소술관과 여사대부 이완 등을 시켜 조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로하였다.
- 56 사신을 거란에 보내 기생과 악기를 선사하였더니 거란에서는 이를 받지 않았다.
- 57 ○ 성종 14년(995) 2월에 이주정을 거란에 보내 토산물과 매를 선사하였다.
- 58 ○ 이해에 이지백을 거란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고, 동자 10명을 보내 거란어를 배우게 하였다.
- 59 좌승지 조지린을 거란에 보내 혼인을 청하였더니 거란이 동경 유수 부마 소항덕의 딸과 혼인할 것을 허락하였다.
- 60 ○ 성종 15년(996) 봄 3월에 거란이 한림학사 장간과 총정군 절도사 소속갈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는데,
- 61 책서에 "한(漢)나라는 호한(呼韓)을 높여서 직위를 제후왕들의 위에 높였고 주나라는 웅역(熊繹)을 높여서 대대로 봉토를 떼어 주었다. (생략)
- 62 고려국 왕 왕치(王治)는 땅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여러 번국들을 제압하고 있으며 (생략)

17 고려사상

- 63 압록강을 서쪽 경계로 삼아 일찍이 천험을 받고 교만한 일이 없었으며 천자의 공궐을 북으로 바라보고 매시기의 조공을 극진히 하여 왔다.
- 64 이에 국왕의 작위를 주어 더욱 은혜를 보이고자 당신을 개부 의동상사, 상서령, 고려국 왕으로 책봉한다." 하였다.
- 65 간(幹) 등이 서쪽 교외에 와서 단을 쌓고 책명을 전하니 왕이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고 대사령을 내렸다.
- 66 한언경을 거란에 보내 폐백을 전하였다.
- 67 ○ 여름 4월 신미일에 철전을 주조하였다.
- 68 ○ 성종 16년(997) 겨울 10월에 왕의 병이 위독하여졌으므로 개령군 송을 불러 친히 맹세하는 말을 내리고 왕위를 전한 후에 내천왕사로 옮겼다.
- 69 평장사 왕용이 대사령을 발표하자고 청하니, 왕이 말하기를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죄 있는 자들을 용서함으로써 억지로 연명을 구하기까지 하리오.
- 70 또 만일 내가 미리 대사령을 내리고 죽으면, 나를 계승하여 즉위한 자가 무엇으로써 새 왕의 은혜를 베풀겠는가." 하고, 허락하지 않고 죽었다.
- 71 왕의 향수는 38세로 재위 연수는 16년이였다. 시호는 문의(文懿)라 하고 묘호는 성종(成宗)이라고 하였다.
- 15** ○ 목종 대왕의 이름은 송이요, 경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현애 태후 황보씨이다.
- 2 ○ 경종 5년 5월 임술일에 났으며 성종이 왕위에 올라 그를 궁중에서 양육하였고 동 9년 6월에 개령군으로 책봉되었다.
- 3 ○ 성종 16년 10월 무오일에 내선(內禪)을 받아 왕위에 올랐다.
- 4 ○ 11월에 함문사 왕동영을 거란에 보내 왕위 계승한 사실을 알리었다.
- 5 ○ 12월 임인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와서 대사령을 내리고, 효자, 순손을 표창하였으며 무죄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주고 질병을 구제하여 주었으며 문무관과 승려들에게는 품계 1급씩을 올려 주고
- 6 국내의 모든 명산대천의 신들에 일일이 훈호를 붙여 주었으며 안팎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하루 동안 베풀어 주었다.
- 7 어머니 황보씨를 높여서 왕태후로 삼았다.
- 8 이달에 거란이 천우위 대장군 아물적렬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9 왕이 그 사절을 맞이하여 성종(成宗)의 영구 앞에 고하였다.
- 10 ○ 목종 원년(998) 여름 4월에 대묘에 참배하고 성종의 부제를 지냈으며 시종 최승로와 대사 최량을 성종묘에 배향하였다.
- 11 이날에 대사령을 내렸다.
- 12 왕의 생일을 장녕절(長寧節)이라고 하였다.
- 13 이달에 거란이 전왕이 죽었다는 이유로 칙명을 보내 전일에 보낸 폐백을 돌려 보냈다.
- 14 ○ 가을 7월 경오일에 태보 내사령 서희가 죽었다.
- 15 ○ 계미일에 서경(西京)을 호경(鎬京)으로 개칭하였다.
- 16 ○ 목종 2년(999) 가을 7월에 진관사(眞觀寺)를 성남쪽에 지어서 태후의 원찰(願刹)로 하였다.
- 17 ○ 겨울 10월에 왕이 호경에 가서 재제(齋祭)를 치르고 죄수들을 특사하였으며 늙은 이들을 위문하고 물품을 주었다. (생략)
- 18 일본국 사람 도요미도 등 20호가 귀화하였으므로 그들을 이천군에 거주시켜 편호로 하였다.
- 19 이부시랑 주인소를 송나라에 보내니 황제가 특히 그를 불러 보았다.
- 20 인소가 고려 사람들이 중국 문화를 본받는 사실과 거란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형편을 자기의 말로 진술하였다.
- 21 황제가 조서를 주어 돌려 보냈다.
- 22 ○ 목종 5년(1002) 5월에 교서를 내렸다. "(생략) 이러한 때에 만일 군대를 모아 훈련할 일이나, 적국이 침입하고, 우리가 정벌하여야 할 일들이 생긴다면,
- 23 장차 어디서 용사를 구하며 어디서 사람을 얻겠는가. 이것은 마치 날개를 꿰고 높이 날 것을 바라며 배를 버리고 큰 물을 건너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 24 옛역사에 이르기를, 향기로운 미끼 끝에는 반드시 큰 고기가 물리며 좋은 상이 있는 조정에는 반드시 용사가 있다고 하였으니,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늘 지금인들 어찌 없겠는가?
- 25 부족하나마 기왕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지난 경험을 장래의 교훈으로 삼는데 더욱 힘쓰려고 한다.
- 26 특히 나의 뜻을 군대 내에 선전할 것이며, 모든 관청들에는 각각 6위 군영을 형성하고, 직원과 장수들을 배치하여 군사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하여 줄 것이다."
- 27 ○ 목종 6년(1003) 2월에 교서를 내리길 "당나라는 팔원(八元)의 도움으로 잘 다스려졌고 주나라는 십란(十亂)으로 하여 융성하였으니 국가가 믿을 것은 오직 현명한 인재뿐이다.
- 28 그런데 지금 보건대 위에 있는 정승으로부터 아래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충직한 말은 없고 다만 아첨하는 말이 있을 뿐이다.
- 29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거니와 위대한 형편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 30 중앙 관료 5품 이상은 각각 글을 올려 나에게 좋은 약으로 될 말들을 진술하여 함께 국가 위업을 돕도록 하라"
- 31 이 해에 태후 황보씨가 김치양과 간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 32 그를 왕의 계승자로 삼을 계책으로 대량군수를 위협하여 승려가 되게 하였다.

- 33 ○ 목종 8년(1005) 봄 정월에 동여진이 등주(登州)에 침입하여 주, 진의 부락 30여 개소를 불살랐다. 장수를 보내 이를 방어하였다.
- 34 ○ 이해에 송나라 온주(溫州)의 문사(文士) 주지가 귀화하였으므로 그를 예빈주부로 임명하였다.
- 35 ○ 목종 9년(1006) 6월 무술일에 천성전의 대마루 장식물(鳴吻)에 낙뢰하였다.
- 36 왕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죄수들을 특사하였으며 효자, 순손, 의부, 열녀들에게는 상을 주고 국내 명산대천 신들의 훈호를 붙이였다.
- 37 ○ 목종 12년(1009) 임오일에 왕이 상고전에 나와서 관등(觀燈)을 하던 중 대부(大夫)의 기름 창고에 불이 나서 천추전이 연소되었다.
- 38 왕은 궁전과 창고들이 다 타 버린 것을 보고 슬프고 한심하게 생각하던 끝에 병을 얻어 정무를 보지 않았다.
- 40 왕은 여러 날 편치 않아 항상 궁내에만 있고 신하들을 만나기 싫어하였다.
- 41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침실에 들어가 문병을 하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42 왕이 채충순, 최항 등과 함께 후계자에 대한 일을 맡의하고 황보유의를 신혈사에 보내 대량원군을 맞아 오게 하였다.
- 43 서경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드디어 왕을 들어 내고 새 임금을 세울 음모를 하였다.
- 44 ○ 2월 무자일에 강조는 왕에게 용흥귀법사로 나갈 것을 강요하였다.
- 45 ○ 기축일에 강조의 군사가 갑자기 궁문으로 뛰어들어오므로 왕이 결국 모면하지 못할 줄 알고 태후와 함께 울면서 법왕사로 나갔다.
- 46 조금 있다가 유의 등이 원군(院君)을 모시고 와서 드디어 왕위에 앉혔다.
- 47 강조는 왕을 폐위시켜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金致陽)의 부자와 유행간 등 7명을 죽였다.
- 48 왕은 선인문으로부터 나왔다. 시종하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다 걸어서 따라오다가 이때에 와서야 처음으로 말을 타고 따르는 자가 있게 되었다.
- 49 이들은 귀법사에 와서 왕의 옷을 벗기고 음식을 바꾸어서 드렸다.
- 50 강조는 최항 등을 소환하여 왕의 시종을 들게 하였다.
- 51 왕이 최항에게 말하기를 "근자에 소홀히 한 데서 창고에 불이 나고 변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다 나의 덕이 없는 탓이라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 52 다만 소원은 시골에서 편히 살다가 늙는 것뿐이다. 그대는 이러한 사연을 새 임금에게 아뢰고 또 그를 잘 도와 드리어라" 하였다.
- 53 왕은 드디어 충주(忠州)로 향하였다. 태후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왕이 친히 밥상을 차려 드리고 태후가 말을 타려고 하면 왕이 친히 고삐를 잡았다.

- 54 일행이 적성현까지 왔을 때에 강조가 사람을 시켜서 왕을 죽이고 새 임금에게는 왕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 55 문짝을 뜯어서 관을 만들고 임시로 여관에 영구를 모셨다.
- 56 왕의 재위 기간은 12년이요 향수는 30세였다.
- 57 왕의 성품은 침착하고 군세어 어려서부터 임금의 도량이 있었다.
- 58 그러나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 하고 술을 즐기며 사냥을 좋아하여 정무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 59 폐신(嬖臣)들을 신임하고 가까이하다가 결국 화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 60 한 달이 지나 적성현 남쪽에 화장을 하였다.
- 61 능호는 공릉(恭陵)이었다. 시호는 선령(宣靈)이라고 하고 묘호는 민종(愍宗)이라고 하였던바 이는 다 강조가 지은 것이었다.
- 62 강조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와 평민을 막론하고 통분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 63 그러나 현종(顯宗)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거란이 침입하여 문죄를 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 64 현종 3년에 왕성 동쪽으로 이장하고 능호를 의릉(義陵)으로 고쳤으며 시호를 선양(宣讓)이라고 하고 묘호를 목종이라 하였다.

16 ○ 현종 대왕의 이름은 순(詢)이요, 안종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효숙왕후 황보씨로 성종 11년 7월 임진일에 났다.

- 2 조금 장성하여 대량원군으로 책봉되었으니 당시 나이가 12세였다.
- 3 천추태후가 그를 미워하여 억지로 머리를 깎고 충노릇을 하게 하였다. 그는 최초로 숭교사(崇敎寺)에 가게 되었다.
- 4 그 절에 있는 종의 꿈에 큰 별이 절 마당에 떨어져서 용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현상을 본 일이 있었는데 이가 곧 왕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신기하게 여겼다.
- 5 목종 9년에는 다시 삼각산 신혈사(神穴寺)로 가 있었다.
- 6 이때에 천추태후는 비밀리에 여러 번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해치려 하였다.
- 7 이때에 신혈사의 한 노승이 방안에 땅굴을 만들어 그를 숨기고 그 위에 침대를 놓아 불의의 사변을 방지하였다.
- 8 왕이 또 어느 날 닭 우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는 꿈을 꾸고 술사(術士)에게 물었더니,
- 9 술사가 속담으로 해몽하기를 "닭울음은 꼬끼요[鷄鳴高貴位], 다듬이 소리는 여근당어근당[砧響御近當]하니 이 꿈은 왕위에 오를 징조이다"라고 하였다.
- 10 ○ 목종 12년 2월 기축일에 여러 신하들이 대량원군을 모셔다가 연충전에서 즉위케 하니 이가 곧 현종

19 고려사상

- 이었다.
- 11 경인일에 강조를 종대사로, 이현운을 종대부사로, 채충순을 직중대로, 윤여를 상서우승 겸 직중대로 각각 임명하였다.
- 12 이 달에 사농경 왕일경을 거란에 파견하여 목종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겸하여 새 왕위 계승을 통고 하였다.
- 13 교방(敎坊)을 혁파하고 궁녀 백여 명을 해방시켰으며 양원정(閻苑亭)을 헐고
- 14 진기한 각종 조류와 짐승과 어류들을 산과 늪으로 놓아 보냈다.
- 15 이 달에 개경의 나성(羅城)을 쌓을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 16 ○ 4월 초하루 병술일에 공부시랑 대리 이유항을 거란에 파견하여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17 갑오일에 왕이 자기 죽은 부모의 시호를 추증하였다.
- 18 무술일에 대사령을 내리고 늙은이와 병든 사람들을 보호 양육하는 한편,
- 19 채납된 부채와 세금을 면제하고, 부역들을 가볍게 하며,
- 20 공신과 어진 선비들을 표창하고 국가 공로자들에게 상훈을 실시하며 기생들의 가무를 없애고 군량을 조달하며
- 21 모든 명산대천의 신들에 훈호를 붙이고 문무 백관들의 벼슬을 높여 주었다.
- 22 ○ 5월 을해일에는 연흥궁주의 딸 김씨를 왕비로 들이었다.
- 23 동북 변방진들에 이주시켰던 남도 민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었다.
- 24 ○ 7월 계유일에 교서를 내려 문관들 중 상삼 이상은 각각 상소문으로써 현행 정책의 우결함을 숨김없이 진술하게 하였다.
- 25 신사일에 왕이 구정(毬庭)에 나가서 80세 이상 남녀와 중한 환자 6백 35명을 모아 놓고 음식, 옷감, 다과, 약품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 26 ○ 12월에 교서를 내렸다. "(생략) 하늘의 명을 받들어 동방을 통치하게 되었다.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하기에 편안한 거를 바랄 수 없다. (생략)
- 27 심상치 않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음양과 기후가 고르지 않다. 이럴수록 조심스러운 생각이 더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28 그리하여 정전(正殿)에서 옮겨 앉아 반찬수를 절감하고 침식도 제때에 할 겨를이 없이 마음으로 삼가하고 입으로 빌었더니,
- 29 과연 노력이 헛되지 않아 대번 일기가 청명하여졌다. 이런 것으로 보아 정성이 지극하면 재앙을 면할 수 있고 화가 복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할 만하다. (생략)
- 30 그러나 복잡한 정치 사업을 혼자서 처리해 나가는
-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하들은 힘을 합하여 다 함께 나의 일을 협조해야 한다.
- 31 바야흐로 이 두렵고 불안스러운 재변을 교훈으로 삼아 이 훈계를 제시하노라.
- 32 재상의 요직에 있는 관리는 실로 백성들의 우려로운 곳이니 잘못되는 정치를 바로잡고 지혜와 의견을 바치며 모든 이치를 참작하여 국가 사업을 보좌하라
- 33 인재 선발을 맡은 관리는 초야에 묻힌 인재들을 찾아 내어 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불우한 처지에 있게 하지 말며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여 아첨하는 무리의 말을 좇지 말라
- 34 그리고 법전들을 제정하여 형벌을 실시하되, 불쌍하고 외로운 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며,
- 35 너무 각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화순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형옥을 처결함에 있어서 침체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 36 정부의 모든 관리들은 각각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여 청백한 자는 추어 주고 흐리터분한 자는 격려하며 공사에 배치되게 사육을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 37 그리고 지방 수령들은 각기 백성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여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라
- 38 모든 진(鎭)과 변경 장수들은 군사를 훈련하고 영웅한 병사들을 양성하여 적의 불의 침공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일이 없게 하라
- 39 안팎 대소 관리들은 밤낮으로 해이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시종일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라.
- 40 하늘의 감시가 소명하여 경고를 암시하였을 때, 내가 심각히 반성함으로써 재앙을 제때에 방지하였거니와 앞으로 더욱더 조심을 늦추지 않고 나날이 융성 발전하여 가기를 희망한다.
- 41 그러므로 그대들과 함께 협력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 하노라."

17 ○ 경술 원년(1010) 윤 2월 갑자일에 연등회를 다시 열었다.

- 2 4월 계축일에 왕이 친히 대묘에 제사를 지내었다.
- 3 ○ 5월 갑신일에 상서 좌사랑중 하공진과 화주 방어량중 유종을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 4 이에 앞서 하공진이 동여진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당한 일이 있었다.
- 5 유종이 그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오던 중 마침 여진인 95명이 조공차로 화주관(和州館)에 이르자 유종은 그들을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에 하공진과 유종이 동시에 귀양가게 된 것이었다.
- 6 여진은 이 사실을 거란에 호소하였다.
- 7 거란주(主)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고려에서 강조가 임금을 살해한 것은 대역 무도한 일이니 군대를 동원하여 그 죄상을 추궁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 8 ○ 7월 초하루 무인일에 거란에서 급사중 양병과 대

- 장군 나을윤을 파견하여 이전 임금의 살해된 사유를 물었다.
- 9 ○ 8월 초하루 정미일에 내사시랑평장사 진척과 직중대 상서우승 윤여를 거란에 파견하였다.
 - 10 ○ 9월에 좌사월의랑 김연보를 거란에 파견하여 가을철 인사를 치르게 하고 좌사랑중 왕좌섭과 장작승 백일승을 거란 동경에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게 하였다.
 - 11 ○ 겨울 10월 초하루에 참지정사 강조를 행영 도통사로, 상장군 안소광을 행영 도병마사로, 소부감 최현민을 좌군 병마사로, 형부시랑 이방을 우군 병마사로, 예빈경 박충숙을 중군 병마사로, 형부상서 최사위를 통군사로 각각 임명하여,
 - 12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통주(通州)에 주둔하여 거란을 방어하게 하였다.
 - 13 ○ 계축일에 거란에서 급사중 고정과 함운 인진사 한기를 파견하여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을 통고하여 왔으므로
 - 14 참지정사 이례군과 우복야 왕동영등이 거란에 가서 화친 문제를 제기하였다.
 - 15 ○ 11월 초하루에 기거랑 강주재를 거란에 파견하여 동지(冬至)를 축하하였다.
 - 16 거란주가 장군 소응을 시켜 직접 고려 침공을 지휘하겠다는 것을 통고하여 왔다.
 - 17 ○ 경인일에 왕이 팔관회를 다시 열고 위봉루에 나가서 음악을 구경하였다.
 - 18 ○ 신묘일에 거란주가 직접 보병과 기병 40만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흥화진(興化鎭)을 포위하였다.
 - 19 양규, 이수화 등이 성을 고수하여 굴하지 않았다.
 - 20 기해일에 강조가 통주에서 거란과 싸우다가 패배를 당하고 포로되었다.
 - 21 경술일에 거란이 괋주(郭州)를 함락시켰다.
 - 22 임자일에 거란군이 청천강까지 침입하자 안북 도호부사 공부시랑 박성은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며 백성들은 모두 분산되었다.
 - 23 계축일에 거란군이 서경에 들어와서 중흥사 탑을 불살랐고 갑인일에는 숙주를 함락시켰다.
 - 24 경신일에 큰 유성이 괋주 지방에 떨어졌다.
 - 25 신유일에 거란주가 서경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포위하였던 군사를 풀어 동쪽으로 갔다.
 - 26 계해일에 서경 신사(神祠)에서 갑자기 선풍이 일어나며 거란군마들이 모조리 죽어 넘어졌다.
 - 27 하공진과 유종을 소환하여 그들의 관직을 회복시켰다.
 - 28 임신일 밤에 왕이 왕비와 함께 거란병을 피하여 남쪽으로 갔다.
 - 29 갑술일에 왕이 양주(楊州)에 머물러 하공진과 호부원외랑 고영기 등을 시켜 왕의 편지를 가지고 거란병영에 가서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 30 ○ 신해 2년(1011) 봄 정월 초하루 을해일에 거란주가 개경에 침입하여 대묘, 궁궐, 민가들을 모조리 소각하였다. 왕은 이날 광주(廣州)에 머물렀다.
 - 31 정축일에 시종하던 여러 신하들이 하공진 일행이 거란 병영에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놀라고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하는데
 - 32 오직 시랑 충숙, 장연우, 채충순, 주재, 유종, 김응인 등이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 33 을유일에 거란군이 퇴각하였다.
 - 34 임인일에 양규, 김숙흥 등이 거란군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 35 계묘일에 거란주가 군대를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였다.
 - 36 박성은 안북(安北)에서 서울로 도망하여 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향인 무안현(務安縣)으로 가던 도중에 왕을 만나 나주까지 따라오다가 얼마 후에 왕을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37 그 후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전주로 와서 왕을 뵈었고 사재경으로 임명되었던바 당시 여론이 그를 비난하였다.
 - 38 ○ 2월 정미일에 왕이 전주를 출발하여 여양현(礪陽縣)에 묵었고 무신일에는 공주(公州)에서 6일 동안 머물렀다.
 - 39 이 때에 김은부의 말을 들여다가 왕비로 삼았다.
 - 40 기미일에 행궁에서 연등회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2월 보름이 연등 행사의 항정일로 되었다.
 - 41 정묘일에 서울로 돌아와서 수창궁에 거처하였다.
 - 42 ○ 3월 을축일에 공부랑중 왕침을 거란에 파견하여 군대를 철수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 43 ○ 정묘일에 영빈, 회선 두 관(館)을 설치하여 여러 나라 사신들을 접대하였다.
 - 44 ○ 5월 을해일에 동여진 추장 조을두가 자기 부하 70명을 인솔하고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각각 의복과 그릇을 주었다.
 - 45 가을 7월에 교서를 내렸다. “지난해 거란이 서경을 포위하였을 때에 법언(法言)이라는 종이 정의를 위하여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니, 그에게 수좌(首座)의 관직을 추증하여야 하겠다.”
 - 46 ○ 8월 이 달에 송악성을 증수하고 서경의 황성을 구축하였다.
 - 47 동여진의 전함 백여 척이 경주를 침공하였다.
 - 48 ○ 9월 을유일에 탐라가 주, 군의 예에 따라 주기(朱記)를 달라고 요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승인하였다.
 - 49 을축일에 도관 낭중 김송의를 거란에 파견하여 동지를 축하하였다.
 - 50 상서 장연제에게 명령하여 궁궐을 수리하게 하였다.
 - 51 11월 임오일에 형부시랑 김은부를 거란에 파견하여 거란주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52 12월 이달에 거란에서 하공진을 살해하였다.

- 18 ○ 임자 3년(1012) 봄 2월 갑진일에 여진의 추장 마시저(麻尸底)가 30개 성씨가 사는 부락의 자제들을 데리고 와서 토종 말을 바쳤다.
- 2 30개 성씨는 아간도(阿干頓), 니홀(尼忽), 니방고(尼方固), 문질로(問質老), 불차리(佛遮利), 거질아(居質阿), 점한일(黏閑逸), 니질아(尼質阿), 아라다(耶邏多), 요게라(邀揭囉), 요열일(要悅逸), 울언(鬱言), 오림대(烏臨大), 몽골예(蒙骨拽), 훈저헌(暉底憲), 도태(徒怠), 아을일(阿兀逸), 나을신(拏乙信), 나을안(拏乙晏), 동골미(冬骨逸), 지도일(支蘭逸), 어슬근(魚瑟殷), 마을일(糜乙逸), 도물니(塗沒尼), 운돌리(云突利), 압한이(押閑伊), 노일이(惱一伊), 배문이(排門異), 불서일(佛徐逸), 만윤이(滿尹伊) 등이었다.
- 3 을묘일에 교시를 내리길, “옛말에 ‘백성들의 살림이 군색하면 임금이 어떻게 유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생략) 나의 일상 식사에 반찬 가짓수를 적게 하라”
- 4 임신일에 송나라 사람 왕복, 전화, 양태, 섭청, 왕노, 이태, 임석 등이 귀화하여 왔다.
- 5 ○ 4월 거란에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 왕이 친히 예방 하라고 하였다.
- 6 ○ 5월 기사일에 동여진이 청하(淸河), 영일(迎日), 장기(長口) 등 현들을 침략하므로
- 7 도부서 문연, 강민척, 이인택, 조자기 등을 파견하여 주, 군의 군대를 동원하여 적을 격퇴하게 하였다.
- 8 ○ 6월 경술일에 송나라 사람 섭거전, 임덕, 왕호 등이 귀화하여 왔다.
- 9 감찰어사 이인택이 동북면 행영병마사 강감찬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강감찬을 비난하고 고자질하기를 말지 않으므로 인택의 관직을 파면하라고 명령하였다.
- 10 갑자일에 형부시랑 전공지를 거란에 파견하여 여름철 인사를 치르게 하는 한편 왕이 병고로 하여 친히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통고하였더니
- 11 거란주가 성을 내어 자기 부하들에게 흥화(興化), 통주(通州), 용주(龍州), 철주(鐵州), 객주(郭州), 구주(龜州) 등 6개 성을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 12 ○ 가을 7월에 왕이 교서를 내렸다. “내가 지난번 사천(泗川)에 있을 때 연효(彦孝), 효질(孝質) 두 사람은 항상 나의 좌우에 있으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었으니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어 공로를 표창하라.”
- 13 ○ 8월 초하루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 14 ○ 무술일에 일본국의 반다(潘多) 등 35명이 귀화하여 왔다.
- 15 ○ 임인일에 탐리(耽羅) 사람들이 와서 큰 배 두 척을 바쳤다.
- 16 ○ 9월 기사일에 서두공봉관 문유령을 거란 내원성(來遠城)에 파견하였다.
- 17 ○ 겨울 10월 병오일에 중국 남초(南楚) 사람 육세령(陸世寧)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8 ○ 윤 10월에 여진의 모일라(毛逸羅), 조을두(鉏乙頭) 등이 30개 성씨를 가진 부락 사람들을 인솔하고 화주(和州)에 와서 동맹할 것을 요청하므로 이를 승인하였다.
- 19 ○ 경오일에 공부상서 참지정사 장영과 예부시랑 유장필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20 ○ 계미일에 거란의 사절 대위 한빈이 내조하였다.
- 21 ○ 12월 경인일에 장영이 거란의 인진사 이연흥과 함께 귀환하였다.
- 22 ○ 계축 4년(1013) 봄 정월 정유일에 예빈소경 장계를 거란에 파견하였다.
- 23 ○ 경술일에 송나라의 민월(閩越) 지방 사람 대익이 귀화하여 왔다. 그를 유림랑 수공령으로 임명하고 의복과 전장(田庄)을 주었다.
- 24 ○ 임오일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다.
- 25 ○ 경인일에 중추원사 채충순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26 ○ 3월 신축일에 금주(金州)에 지진이 있었다.
- 27 ○ 무신일에 거란의 사절 좌감문위 대장군 아를행평이 와서 우리가 흥화(興化) 등 6개 성을 탈취한 사실을 책망하였다.
- 28 ○ 5월 정유일에 거란에서 통화(統和) 연호를 개대(開泰)로 개칭하였다는 것을 통고하여 왔다.
- 29 ○ 임인일에 여진이 거란 군대를 인도하여 압록강을 건너오려 하였다. 대장군 김승위 등이 이를 쳐서 물리쳤다.
- 30 ○ 계묘일에 경장태자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았다.
- 31 ○ 6월 정묘일에 상서우승 대리 김직빈을 거란에 파견하여 연호 개칭을 축하하였다.
- 32 ○ 계유일에 송악산이 허물어졌다.
- 33 ○ 가을 7월 무신일에 거란의 사절 아를행평이 다시 와서 6성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 34 ○ 11월 정미일에 금주(金州)에 지진이 있었다.
- 35 ○ 12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고
- 36 ○ 병술일에는 금주와 경주에 지진이 있었다.
- 37 ○ 갑인 5년(1014) 봄 임자일에 혜성이 오차(五車) 성좌에 나타났다.
- 38 철리국 주(鐵利國主) 나사가 여진 사람 만두를 보내 말, 초서피(貂鼠皮), 청서피(靑鼠皮) 등을 바쳤다.
- 39 ○ 6월 이달에 진적과 이례균을 문하시랑평장사로, 왕동영을 내사시랑평장사로, 윤여를 사재경으로, 왕좌성을 장작소감으로 각각 벼슬을 높여 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절로 거란에 가서 억류된 채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 41 ○ 8월에 내사사인 윤징고를 송나라에 보내 금실로 용, 봉 무늬를 넣어서 짠 천으로 만든 안장, 복두 및 용봉을 수놓아 만든 안장, 복두 각 두 개와 좋은 말 22필을 선사하고 종전과 같은 관계를 가질 것을 제

- 의하였다니
- 42 송나라 황제가 등주(登州)에 조서를 내려 해안에 관(館)을 설치하여 우리 사절을 접대하라고 하였다.
- 43 ○ 병신일에 거란에서 장군 이송무를 파견하여 또 다시 6개 성을 요구하였다.
- 44 ○ 겨울 10월 기미일에 거란이 자기들의 국구(國舅)인 상온 소적렬을 시켜 통주(通州)를 침략하였다.
- 45 흥화진 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이 이를 쳐부수고 적 7백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 46 이때에 강물에 빠져 죽은 적들도 대단히 많았다.
- 47 ○ 11월 초하루 계미일에 상장군 김훈, 최질 등이 모든 위(衛)의 군대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종추원사 장연우와 일직 황보유의 등을 귀양 보냈다.
- 48 ○ 을유일에 김훈 등이 상참 이상의 모든 무관들로서 문관을 겸임할 것을 요구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 49 ○ 경인일에 북산(北山)에 있는 여러 사원 승려들이 군란을 일으켜 서울로 온다는 뜬소문이 돌았다.
- 50 서울에서는 크게 놀래어 경계를 삼엄하게 하였다.
- 51 ○ 12월 정사일에 유형 이하의 죄수들은 이를 석방하고 사형 및 장형(杖刑), 유형(流刑) 죄수들에게는 형기를 감해 주되
- 52 황보유의, 장연우 등과 보통 은사(恩赦)에 해당되지 않는 죄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인들을 모두 다 적당한 곳으로 옮겼다.
- 53 그리고 해독(海濶), 산천(山川), 신들의 훈호를 붙이고 서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차등 있게 주었으며
- 54 효자, 순손, 의부(義夫), 열부 들에게 각각 해당하는 양의 물품을 주고 7품 이상의 문관들과 20년 이상 벼슬에 종사한 자들의 복장을 고쳤으며 도관(道官)들의 직품을 높여 주었다.

- 19** ○ 을묘 6년(1014) 봄 정월에 거란이 압록강에 다리를 놓은 다음 다리를 끼고 동쪽과 서쪽에 성을 쌓으므로 장수를 파견하여 이를 쳐부수려다가 이기지 못하였다.
- 2 ○ 계묘일에 거란 군대가 흥화진을 포위하므로 장군 고적여, 조익 등이 이를 격퇴하였다.
- 3 ○ 갑진일에 거란군이 또 통주(通州)를 침략하였다.
- 4 ○ 3월 계미일에 왕이 서경에 갔다.
- 5 ○ 갑오일에 왕이 장락궁(長樂宮)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김훈, 최질 등 19명을 처단하였다.
- 6 ○ 기해일에 거란이 용주(龍州)를 침략하였다.
- 7 여진이 배 20척을 끌고 와서 구두포(狗頭浦)를 침략하므로 진영도 도부서(鎭溟道都部署)에서 이를 쳐부수었다.
- 8 ○ 4월 경신일에 거란의 사절인 장군 아를행평이 와서 또다시 6개 성을 요구하였으나 그를 억류하여 돌

- 려 보내지 않았다.
- 9 이달에 왕이 서경으로부터 귀환하였다.
- 10 ○ 윤 6월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구양징이 귀환하여 왔다.
- 11 ○ 7월 경신일에 무관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정하였던 관호(官號)를 폐지하였다.
- 12 도병마사가 장군 정신용, 임영함 및 군사 1만 2천 5백여 명이 모두 국경 방위에서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등을 높이어 표창하자고 제기하였다.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13 ○ 9월 갑인일에 거란의 사절 감문 장군 이송무가 와서 6개 성을 요구하였다.
- 14 ○ 기미일에 거란군이 통주(通州)를 공격하였다.
- 15 ○ 계해일에 흥화진 대장군 정신용, 별장 주연, 산원 임익, 교위 양춘, 대의승 순간, 태사승 강승영 등이 군대를 인솔하고
- 16 거란군 배후로 나가 쳐서 적 7백여 명을 살상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정신용 외 6명이 전사하였다.
- 17 ○ 정묘일에 거란군이 영주(寧州)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 18 ○ 경오일에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총현, 고연적, 산원 김극, 별장 광창 등이 적을 추격하다가 전사하였다.
- 19 ○ 거란군이 병마판관 왕좌, 녹사 노현좌 등을 포로로 잡아갔다.
- 20 ○ 11월 기사일에 호부상서 장연우가 죽었다.
- 21 ○ 갑술일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다.
- 22 이해에 거란군이 선화(宣化), 정원(定遠) 두 진을 함락하고 거기에 성을 구축하였다.
- 23 민관시랑 곽원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선사하고 겸하여 거란이 매년 계속 침략한다는 것을 알렸다.
- 24 송나라에 보낸 표문에 “귀국의 위력을 빌려 슬기로운 전략을 표시하라. 위급한 처지에 빠질지도 모르니 사전에 구급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 25 ○ 병진 7년(1016) 봄 정월 경술일에 거란 장수들인 아를세량, 소굴렬 등이 객주(郭州)에 침입하였다.
- 26 우리 군사가 이들과 싸우다가 죽은 자가 수만 명이 있었다. 거란군은 우리의 군사 물자를 약취하여 갔다.
- 27 ○ 갑인일에 거란 사절 10명이 압록강에 도착하였으나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 28 병인일에 이전 장군 고연적의 전사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에게 쌀 50석, 보리 30석, 베 1백 필을 부의로 주었다.
- 29 ○ 임신일에 객원이 송나라로부터 귀국하였다.
- 30 송나라에서 보낸 조서에 이르길 “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아 백성을 편케 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 31 지역은 비록 다르나 나의 생각이 미치는 데는 간격이 없다.

23 고려사상

- 32 귀국의 사정을 생각하며 나의 심려하는 바가 크고 인 방으로서의 우호 관계도 역사가 오래다. 화목한 현상을 계속 유지하여 백성들을 태평케 하기를 바란다.”
- 33 ○ 2월 임오일에 거란 사람 왕미, 연상 등 7명이 도 망하여 왔다.
- 34 ○ 갑신일에 김훈 등의 부모, 처, 자매, 조손, 백 속 부들로서 김훈의 죄에 연관된 자들은 석방하고 김훈의 아들과 동복 형제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 보통 은사에 적용시키지 않았다.
- 35 ○ 갑진일에 거란의 조사고홀(調思高忽)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 36 ○ 5월 을사일에 궁녀 김씨가 왕자를 낳았다. 왕자의 이름을 흥(欽)으로 명명하는 동시에 연경원과 금은, 기명, 포백, 토지, 노비, 염분(鹽盆), 어량(魚梁) 등 생활 자료를 주었다.
- 37 ○ 신해일에 거란의 마아보량(馬兒保良), 왕보가신(王保可新) 등 열세 집이 귀순하여 왔다.
- 38 을축일에 상서성에서 아뢰기를 구주(龜州) 군사 굴선, 영몽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하므로 이들을 처단 하였다.
- 39 거란의 유도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 40 ○ 6월 무인일에 거란의 지보(志甫)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 41 ○ 경진일에 황춘전(恒春殿)에서 왕자가 출생하였다. 그 이름을 수(秀)로 명명하였다.
- 42 ○ 을유일에 거란의 장렬공현(張烈公現), 신두(申豆), 유아왕충(猷兒王忠) 등 30호가 귀순하여 왔다.
- 43 ○ 가을 7월 갑진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 종량장 서군, 낭장 수암 등 3천 1백 8명은 일찍이 통주(通州) 싸움에서,
- 44 적을 살상하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매우 많았는바 그들의 존몰에 관계없이 관직을 한 등급씩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5 ○ 정사일에 거란의 유도고종(由道高宗) 등 9명이 귀순하여 왔다.
- 46 ○ 8월에 거란의 주간 종도(朱簡宗道)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 47 ○ 9월에 교서를 내렸다. “남쪽 지방 주, 현들에 가물과 흉해가 거듭되고 있으니 굶주리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찌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지 않을 수 있으랴.
- 48 마땅히 정전(正殿)에서 피해 앓고 일상 식사의 반찬수를 줄이며 모든 궁원들에서 술 마시고 음악 잡히는 일을 금지해야 될 것이다.”
- 49 거란의 나간(羅瓘) 등 5명이 귀순하여 왔다.
- 50 ○ 신미일에 거란의 봉대고리(奉大高里)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 51 ○ 11월 병진일에 명산대천의 산들에 눈(雪)을 밟았다.
- 52 ○ 거란의 광예아(匡義兒) 등 10명이 귀순하여 왔다.
- 53 ○ 12월 을미일에 거란의 슬불달(瑟弗達)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 54 ○ 이해에 다시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55 ○ 정사 8년(1017) 가을 7월 무술일에 거란의 광정(光正) 등 7호가 귀순하여 왔다.
- 56 경자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정보 이용봉과 정조 임술광 등 30명은 모두 변방 경비에 공로가 있사온바 이들에게 향직(鄉職)을 한 급씩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7 ○ 신축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임인복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8 ○ 기유일에 여진 말갈의 목사(木史)가 자기 부락민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벼슬과 의복을 주었다.
- 59 ○ 거란의 매슬다을(買瑟多乙), 정신(鄭新) 등 14명이 귀순하여 왔다.
- 60 ○ 형부시랑 서눌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61 ○ 8월 계유일에 거란의 과허이(果許伊) 등 3호가 귀순하여 왔다.
- 62 ○ 을유일에 동여진의 개다불(盖多弗) 등 4명이 귀순하여 국경 경비에 헌신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허락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동시에 물품을 주었다.
- 63 ○ 임진일에 서여진의 개신(揩信)이 거란의 동경 승성사 중 도준을 사로잡아 왔다.
- 64 ○ 계사일에 거란의 소함탁이 흥화진을 포위하고 9일간이나 침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65 ○ 이 때에 우리의 장군 견일, 홍광, 고의 등이 출전하여 적을 크게 격파하였는데 여기서 살상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 66 ○ 갑오일에 흑수말갈의 아리불(阿離弗)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강남 주, 현 들에 배치하였다.
- 67 ○ 9월 갑진일에 거란의 군기군기(群其昆伎)와 여진의 고저(孤迤) 등 10호가 귀순하여 왔다.
- 68 ○ 임자일에 거란의 오두(烏豆)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 69 ○ 무오일에 왕이 선정전(宣政殿)에 나가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 70 ○ 이달에 한재와 총해가 있었으므로 왕이 정전(正殿)에서 움겨 앓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었다.
- 71 ○ 12월에 교서를 내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왕릉들을 해당 지방 주, 현들에서 수리하고 시초 채취를 금지하며 왕릉을 통과하는 자는 말에서 내리도록 하게 하였다.
- 20 ○ 무오 9년(1018) 봄 정월에 서여진의 미알달(未闕達) 등 7명이 와서 갑옷, 투구와 말을 바쳤다.
- 2 정안국(定安國) 사람 골수가 도망하여 왔다.
- 3 ○ 경자일에 대신들이 백관을 데리고 왕에게 글을 올려 정전(正殿)으로 돌아올 것과 일상 식사의 반찬

- 수를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4 ○ 임자일에 동여진의 아주(阿主) 등 40여 명이 와서 말과 갑옷, 투구, 기치(旗幟), 초서피(貂鼠皮), 청서피(靑鼠皮) 등을 바쳤다.
- 5 ○ 무오일에 여러 신하들이 반찬 수를 종전대로 할 것을 간청하므로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 6 ○ 2월 기사일에 서여진의 능거(凌舉), 거이(渠伊) 등이 와서 피물, 철갑과 말을 바쳤다.
- 7 ○ 기묘일에 동여진의 유어(獠於)가 부락민을 인솔하고 와서 말과 초피를 바쳤으므로 그들에게 의복과 물자를 주었다.
- 8 ○ 을유일에 서여진의 마문(麻門), 마알달(麻爾達) 등이 토산 말을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물자를 주었다.
- 9 ○ 병술일에 거란의 장정(張正) 등 4명이 귀순하여 왔다.
- 10 ○ 3월 초하루 갑오일에 거란의 송광, 공이개 등 10여 명이 귀순하여 왔다.
- 11 ○ 계묘일에 서울 주변에 있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거두어 매장하였다.
- 12 ○ 갑진일에 동여진의 아리고(阿梨古)와 서여진의 능거(凌渠) 등 백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에게 모두 벼슬을 주고 또 포백을 주었다.
- 13 ○ 여름 4월 경오일에 누른 안개가 4일간이나 4면에 자욱하고 서울에 유행병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왕이 의원을 보내 이를 치료케 하였다.
- 14 ○ 신사일에 동여진의 구타라(仇陀囉)와 서여진의 거일(渠逸) 등 20여 명이 토산 말과 무기를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의복과 물자를 주었다.
- 15 ○ 서여진의 목사(木史), 목개(木開) 등 2백여 호가 귀순하여 왔다.
- 16 ○ 윤 4월 무술일에 동여진의 추장 아로대(阿盧大) 등이 토산물과 초서피를 바쳐 왔으므로 의복을 주었다.
- 17 ○ 계묘일에 송나라 강남 사람 왕숙자(王肅子) 등 2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8 ○ 이달에 개국사(開國寺) 탑을 수리하여 사리를 보관하고 불교 계율(戒律) 제단을 설치하였으며 중 3천 2백여 명에게 도첩(度牒)을 주었다.
- 19 ○ 5월 을축일에 거란의 사부(史夫)가 귀화하여 왔다.
- 20 무인일에 10만 명의 승려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 21 동여진의 우나(牛那), 특오(特烏), 이불(伊弗) 등 30여 명이 토산 말과 병기를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다 벼슬과 의복을 주었다.
- 22 ○ 기묘일에 강감찬을 서경 유수 내사시랑평장사로, 양진(梁震)을 예부상서 겸 추주사로, 이공(李龔)을 한림학사 승지로, 서눌(徐訥)을 좌간의대부로 각각 임명하였다.
- 23 ○ 임오일에 교서를 내려 을묘년 거란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공로를 세운 여러 주, 진(州鎭) 장졸들에게 벼슬을 높여 주고 전사한 자들에게는 부의를 용

- 송하게 주고 벼슬을 추증하게 하였다.
- 24 ○ 갑신일에 서여진의 타역(拖億), 실불(實弗) 등이 말과 갑옷, 투구 등을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다 벼슬과 물품을 주었다.
- 25 ○ 6월 무술일에 서북 여진의 가을불(加乙弗) 등 30명이 와서 말과 무기를 바쳤다.
- 26 ○ 경술일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40여 척이나 되었다.
- 27 ○ 계축일에 동여진의 니골이(尼骨伊)와 서여진의 제모(諸毛) 등이 내조하였다.
- 28 ○ 경신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장군 양억(楊渥), 종랑장 함진(咸進) 등 4백 49명은 모두 변방 경비에 공로가 있사온바 그들에게 벼슬을 한 급씩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29 ○ 가을 7월 동여진의 오두주(烏頭朱) 등 30여 명이 토산 말과 무기를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다 의복을 주었다.
- 30 ○ 9월 정해일에 동여진의 니우불(尼汚弗)이 내조하였다. 그에게 향직(鄉職)을 더 높여 주었다.
- 31 ○ 겨울 10월 병오일에 우복야 김로현이 죽었다. 그는 근면하고 재간이 있기로 이름이 있었는데 건축공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를 시켜 감독하게 하였었다.
- 32 ○ 정미일에 구주(龜州)에 있는 여진인 목사(木史) 등 34명에게 견주포(絹紬布) 5백여 필을 주어 적을 체포한 그들의 공로를 표창하였다.
- 33 ○ 무신일에 내사시랑평장사 강감찬을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임명하였다.
- 34 ○ 신해일에 동서 여진의 추장 염지거(鹽之渠), 이나(伊那), 서을나(徐乙那) 등 50명이 말과 갑옷, 투구, 무기 등을 바쳐 왔으므로 그들에게 다 의복을 주었다.
- 35 ○ 이달에 예빈소경 원영을 거란에 파견하여 화친할 것을 제의하였다.
- 36 ○ 송나라의 천희(天禧)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37 ○ 11월 계해일에 재상들이 글을 올려 혜성이 이미 없어졌으니 왕이 정전으로 돌아갈 것과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8 ○ 병인일에 우산국(于山國)이 동북 여진의 침략을 받아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므로 이원구를 그곳에 파견하여 농기구를 주었다.
- 39 ○ 12월 신묘일에 동여진의 아차(阿次), 오을불(烏乙弗) 등 14명이 와서 말과 병기를 바쳤다.
- 40 ○ 임진일에 거란의 왕수(王遂)가 귀순하여 왔다.
- 41 ○ 무술일에 거란의 소손녕이 10만 대군으로 침공하여 왔다.
- 42 평장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하였다. 그들이 군사를 인솔하고 흥화진에 이르러 적을 크게 격파하니

25 고려사상

- 43 소손녕의 군대가 곧추 서울로 향하였다. 강민청이 이를 추격하여 자주(慈州)에서 또 크게 격파하였다.
- 44 ○ 갑인일에 서울에 계엄령을 실시하였다.
- 45 ○ 병진일에 유형 이하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내렸다.
- 46 ○ 기미 10년(1019) 봄 정월 신유일에 소손녕이 서울 백 리 밖에 있는 신은현(新恩縣)까지 들어왔다.
- 47 왕이 명령을 내려 성 밖에 있는 민가들을 성 내로 들어오게 하고 “청야(淸野)전술”로써 적을 대기하게 하였다.
- 48 소손녕이 아유히덕을 시켜 서한을 가지고 통덕문(通德門)에 이르러 군대를 철회하겠다고 통고한 후
- 49 비밀리에 기병 척후대 3백여 명을 금교(金郊)역까지 들여보냈다.
- 50 우리가 군대 백 명을 출동시켜 밤을 타서 습격전으로 그들을 죽여 버렸다.
- 51 병자일에 동여진의 추장 우나(于那) 등이 내조하였다.
- 52 ○ 2월 초하루에 거란군이 구주를 통과하므로 강감찬 등이 이를 막아 쳐서 크게 격파하였는바 여기서 살아 돌아간 적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 53 ○ 갑오일에 강감찬이 개선하여 돌아오매 왕이 친히 영파역(迎波驛)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하였다.
- 54 ○ 임자일에 장수들을 위하여 명복전(明福殿)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3군을 위로하였다.
- 55 ○ 3월 계해일에 통주(通州) 도부서 유백부 등 1백 73명이 적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벼슬을 추증하는 동시에 그 유족들에게 쌀과 보리를 차등 있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 56 ○ 무진일에 철리국주(鐵利國主) 나사가 아로태를 보내 토산 말을 바쳤다.
- 57 ○ 갑신일에 죄수들을 재심사하고 경한 죄수들을 너그럽게 처결하였다.
- 58 ○ 여름 4월 계묘일에 신사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59 ○ 병진일에 진명(鎭溟)의 선병도부서 장위남 등이 해적선 8척을 노획하고 그들이 납치하였던 일본인 남녀 2백 59명을 빼앗아 공역령 정자랑으로 하여금 자기 본국으로 호송하게 하였다.
- 60 ○ 5월 병인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61 ○ 무진일에 거란의 동경 문적원 소감 오장공이 내조하였다.
- 62 ○ 신사일에 날이 가문다 하여 죄수들을 재심사하였다.
- 63 ○ 임오일에 철리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들의 내방을 답례하였다.
- 64 ○ 6월 초하루 병술일에 동여진 추장 나사불(那沙弗) 등이 부하들을 인솔하고 내조하였다.
- 65 ○ 기사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진문계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6 ○ 경오일에 서여진의 추장 아라불(阿羅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말을 바쳤다.
- 67 ○ 임신일에 송나라 복주(福州) 사람 우선 등 1백여

- 명이 와서 향로와 약재를 바쳤다.
- 68 ○ 기묘일에 우산국(于山國) 백성들로서 일찍이 여진의 침략을 받고 망명하여 왔던 자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69 ○ 8월 기축일에 예빈경 최원신, 이수화 등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신년을 축하하였다.
- 70 ○ 신묘일에 거란의 동경 사절인 공부소경 고응수가 우리 나라에 왔다.
- 71 ○ 을미일에 고공원외랑 이인택을 거란 동경으로 파견하였다.
- 72 ○ 임자일에 동여진의 모일라(毛逸羅)가 부하들을 데리고 내조하였다. 그에게 관직 품계를 높여 주었다.
- 73 ○ 9월 초하루에 태사(太史)가 일식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날이 흐리고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았다.
- 74 ○ 임술일에 이날은 중앙절이라 하여 송나라 및 탐라, 흑수말갈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관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 75 ○ 겨울 10월 갑오일에 양절(兩浙) 지방 사람 망난 등 60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76 ○ 11월 초하루 계축일에 강감찬을 문하시랑 동내사문하 평장사로 임명하였다.
- 77 ○ 12월 경인일에 동흑수국 추장 구돌라(仇突羅)가 와서 토산 말과 무기를 바쳤다.

21 ○ 경신 11년(1020) 정월 병인일에 흑수말갈의 알시경(闕戶頃), 고지문(高之門) 등 24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 ○ 신미일에 서여진의 추장 고두화(高豆花)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 ○ 2월 무자일에 수안현 대정(隊正) 인 혁연(赫然) 및 군대 이증과 구주(龜州) 군대 시음달 등이 전사하였다 하여 그 처자들에게 물자를 넉넉히 주었다.
- 4 ○ 기축일에 이전 고부령사 유한이 자기 아들과 함께 여진에 잡혀갔다가 도망하여 돌아왔다.
- 5 왕이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벼슬을 주고 의복과 식량을 주었다.
- 6 ○ 임인일에 동여진의 금불라(黔弗羅) 등 7명이 와서 거란의 관인 한 개와 토산 말을 바쳤다.
- 7 ○ 갑진일에 문하시랑 진적, 이례군, 내사시랑 왕동영, 사재경 윤여, 장작소감 왕좌섬, 소부승 김덕화, 장작주부 김정호, 대의감 김덕광 등이 거란에 억류되어 있으므로,
- 8 그들의 처에게 미곡을 차등 있게 주었으며, 왕좌섬의 처는 개성군(開城郡君)으로 봉하고 그 아들 이보는 예부주사 벼슬을 주었다.
- 9 ○ 기유일에 송나라 천주 사람 회지(懷贄)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0 이달에 이작인을 시켜 표문을 가지고 거란에 가서 번국으로 칭할 것과 종전대로 공물을 보내겠다는 것

- 을 약속하는 동시에,
- 11 구금하였던 거란 사람 지자리(只刺里)를 돌려보냈는데 그는 6년간이나 억류되어 있었던 것이다.
 - 12 ○ 3월 계축일에 거란의 사신 아을행평을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 13 ○ 기미일에 거란 사신 검고 사도 한소옹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4 ○ 갑자일에 여진의 귀덕장군 나불이 부하 사람들을 인솔하고 내조하였다.
 - 15 ○ 4월 정미일에 예부상서 양진과 형부시랑 한거화를 거란에 파견하여 왕자 책봉에 대한 사실을 통고하였다.
 - 16 이때에 대신 유방 등이 통고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 17 ○ 기유일에 동여진의 추장 달로(達魯)가 부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번미(蕃米) 3백 석을 바쳤다.
 - 18 ○ 5월 을해일에 흑수말갈의 오두나(烏頭那) 등 7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9 ○ 경진일에 최원신, 이수화 등이 사절로서 나라의 체면을 더럽혔다 하여 귀양을 보냈다.
 - 20 ○ 6월에 계사일에 지서사 사재소경 대리 노집중을 거란 동경에 파견하였다.
 - 21 기해일에 불나국(弗奈國)의 추장 사아문(沙訶門)이 여진인 노을달(奴鬱達)을 시켜 토산물을 바쳐 왔다.
 - 22 ○ 윤 12월 경해일에 연주(漣州)에 지진이 있었다.
 - 23 이해에 최제안을 거란에 파견하여 천령절(千齡節)을 축하하였으며
 - 24 김맹을 송나라에 파견하였다.
 - 25 ○ 신유 12년(1021) 봄 정월 기축일에 거란 동경의 사절 좌상시 왕도충이 와서 자기 나라 임금의 차차 책봉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 26 이달에 흑수말갈의 추장 아두(阿頭), 타불(陀弗) 등이 와서 말과 궁시(弓矢)를 바쳤다.
 - 27 ○ 2월 정미일에 거란에서 검고 사공 어사대부 요거신을 예방 사절로 보내 왔다.
 - 28 ○ 신해일에 오관산(五冠山)이 무너졌다.
 - 29 ○ 계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마저개(麻底介)가 부하 사람들을 인솔하고 내조하였다.
 - 30 ○ 갑술일에 서울에 있는 90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에게 술, 밥, 차, 약, 포백 등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 31 ○ 3월 을유일에 서여진의 모일라(毛逸羅), 나흘라(那忽瀨) 등이 와서 토산 말과 초서피(貂鼠皮)를 바쳤다.
 - 32 ○ 계사일에 철리국(鐵利國)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종전대로 속국으로 되기를 청하였다.
 - 33 ○ 을미일에 거란 동경에서 검고 산기 상시 장증약을 예방 사절로 보내왔다.
 - 34 ○ 병신일에 현화사 북쪽 산이 무너지면서 옥돌덩어리가 나왔다.
 - 35 ○ 6월 정묘일에 한조를 송나라에 파견하여 은공을 사례하였다.
 - 36 가을 7월 병자일에 탐라(耽羅)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37 ○ 계사일에 동여진의 흑수 추장인 거을마두개(居蔚麻頭蓋)가 우리 나라에 왔다.
 - 38 ○ 8월 이달에 동여진의 실빈(實彬), 아리고(阿梨古) 등이 내조하였다.
 - 39 ○ 9월 을미일에 흑수말갈의 소물개(蘇勿蓋), 고지문(高之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0 중추사 이공과 병부시랑 유종을 거란에 파견하여 그 나라 임금이 책봉을 받는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 41 ○ 겨울 10월 을묘일에 동서 여진의 추장 아로대(阿盧大), 아개(阿蓋) 등이 내조하였다.
 - 42 ○ 임술 13년(1022) 봄 정월 정해일에 흑수의 추장 사일라(沙逸羅), 만투불(曼投弗) 등이 내조하였다.
 - 43 ○ 2월 초하루 신축일에 서여진의 지라(遺羅) 등이 와서 사람과 토산물을 바쳤다.
 - 44 ○ 기유일에 탐라(耽羅)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45 ○ 군기소감 김인우를 거란에 파견하여 봉철 인사를 치르었다.
 - 46 ○ 임자일에 거란의 맹류, 연거 등 4명이 본국으로부터 도망하여 왔다.
 - 47 ○ 병진일에 궁성 동북쪽에 있는 행랑 1백 50여 칸에 화재가 있었다.
 - 48 ○ 정묘일에 참지정사 박충숙, 국자사업 이경 등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49 ○ 여름 4월에 거란에서 소회례를 파견하여 왕을 개부 의동삼사 수 상서령 상주국 고려국 왕, 식음 1만 호, 식실봉 1천 호로 책봉하는 동시에 수레, 복식, 기물들을 보냈다.
 - 50 이때로부터 다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51 ○ 5월 경오일에 모든 명산대천의 신들에 비를 빌었다.
 - 52 ○ 을해일에 명주(溟州)에서 보고하기를 정선현(旌善縣)에 은광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 53 ○ 병자일에 한조(韓祚)가 송나라로부터 귀국하였다.
 - 54 이 때에 송나라 황제가 성혜방, 음양이택서, 건흥력, 불교 경전 한 벌을 왕에게 보내었다.
 - 55 ○ 계사일에 왕자 흥을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 56 ○ 흑수말갈의 소의(疎意) 등 30여 명이 내조하였다.
 - 57 ○ 가을 7월에 도병마사가 여진에게서 악탈을 당하고 도망하여 온 우산국 백성들을 예주(禮州)에 배치하고,
 - 58 관가에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어 영구히 그 지방 편호(編戶)로 할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9 ○ 동서 여진의 아라대(阿羅大)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0 ○ 8월 경자일에 거란 동경의 지례사 이극방이 와서 말하기를, 금후부터는 춘기, 하기 문후사는 모두 1차씩 파견하되,

27 고려사상

- 61 천령절 및 신년(正年) 축하를 위한 사신과 함께 보낼 것이며 추기, 동기 문후사도 1차씩 파견하되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과 동행케 하라고 하였다.
- 62 ○ 갑인일에 송나라 복주(福州) 사람 진상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3 ○ 철리국(鐵利國)의 우두머리 나사(那沙)가 흑수의 아부한(阿夫閑)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 64 ○ 신유일에 광남(廣南) 사람 진문수 등이 와서 향료와 약재를 바쳤다.
- 65 ○ 갑자일에 국자제주 서눌의 딸을 맞아들어 속비로 삼았다.
- 66 ○ 9월 기사일에 서울에 있는 80세 이상의 남녀 노인들과 종환자, 폐질자들에게 술, 밥, 차, 포백 등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
- 67 ○ 병자일에 거란 동경의 사절 왕수영이 우리 나라에 왔다.
- 68 ○ 계미일에 도관랑중 윤종원을 거란에 파견하여 태후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69 ○ 정해일에 좌 산기상시 관원과 상서우승 왕서를 거란에 파견하였다.
- 70 ○ 무자일에 거란의 수우매, 오어를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 71 ○ 겨울 10월 을묘일에 연경공주 김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 72 ○ 장마가 계속된다 하여 모든 명산대천 신에 날이 개기를 빌었다.
- 73 ○ 11월 을유일에 거란 동경의 사절 고장윤이 우리 나라에 왔다.
- 74 ○ 12월 신축일에 거란의 불대 등 11명이 귀순하여 왔다.
- 75 ○ 계축일에 서여진의 어니저(魚尼底) 등이 와서 말하기를 “나의 고모가 일찍이 귀화인 매나(昧那)를 따라 귀국에 와서 서울에 거주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으므로,
- 76 본국 땅을 그리워하고 있사오니 토산 말을 대신 바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 77 왕이 곧바로 그를 돌려 보내는 동시에 그 말까지 반환하라고 하였다.
- 78 ○ 기미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사빈(史彬)이 와서 말과 궁시(弓矢)를 바쳤다.
- 4 ○ 2월 병오일에 동여진의 추장 아로불(阿盧弗)과 서여진의 니알개(那闕蓋)가 내조하였다.
- 5 ○ 3월 정묘일에 비서관 유정필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6 ○ 여름 4월 경자일에 거란이 좌산기상시 무백과 야울극공 등을 파견하여 왕태자 흠을 보국대 장군 겸 교태사, 수태보 겸 시중, 고려국공으로 책봉하였다.
- 7 ○ 이달에 여진 말갈의 군두(群豆) 등 70여 명이 와서 토산말을 바쳤다.
- 8 ○ 5월 병인일에 거란 동경의 지서사 노지상이 우리 나라에 왔다.
- 9 ○ 을해일에 금주(金州)에 지진이 있었다.
- 10 ○ 이때부터 지진한 자리에 해괴제(解傀祭)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 11 ○ 정축일에 거란의 마허저 등 13호가 귀순하여 왔다.
- 12 ○ 임진일에 거란의 대세노(大世奴), 제화나(齊化那)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 13 ○ 여진의 추장 이우불(尼于弗) 등이 내조하였다.
- 14 ○ 가을 7월 초하루 계해일에 거란에서 태보 황신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5 ○ 기묘일에 이부에서 아뢰기를 “이전 태상재랑 전언이 자기의 죽은 어머니를 위하여 추복(追服)함으로써 그 효성이 널리 알려졌사온바 그의 관직 품계를 올려 주어 뒷사람들을 고무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6 ○ 9월 기사일에 말갈의 우두머리 아영주(阿令朱)가 내조하였다.
- 17 ○ 윤 9월 경자일에 거란에서 사절 울수상을 시켜 예방하여 왔다.
- 18 ○ 임인일에 거란 동경의 사절 고인수가 우리 나라에 왔다.
- 19 ○ 11월 병신일에 흑수의 추장 야힐라(耶勝羅) 등이 내조하였다.
- 20 ○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진억이 귀순하여 왔다.
- 21 ○ 갑자 15년(1024) 정월 초하루 갑인일에 거란의 마사도(馬史刀)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 22 ○ 정사일에 경흥원주 김씨를 덕비로 책봉하였다.
- 23 ○ 갑오일에 서여진의 고두로(高豆老)와 동여진의 슬불달(瑟弗達) 등 90명이 귀순하여 왔다.
- 24 ○ 임오일에 흑수말갈 고도매(古刀買)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5 ○ 5월 정해일에 태사국(太史局)에서 이날 있어야 할 일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26 ○ 기사일에 비가 내렸다. 이 해에 봄부터 한발이 심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여들어 하늘에 호소하며 기도를 드렸는데
- 27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말소리를 들었는지라, 그 길로 반찬을 철폐하는 한편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들여 분향을 하고,
- 28 하늘에 축원하기를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즉시 벌

22 ○ 계해 14년(1023) 정월 임신일에 재상들을 위하여 내전(內殿)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2 ○ 무인일에 거란의 초복(焦福) 등 11호가 귀순하여 왔다.

3 ○ 이달에 흑수말갈의 오사불(烏沙弗) 등 80명이 와서 말과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각각 베와 비단을 주었다.

- 을 내리소서.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벌을 내가 받겠사오니 원컨대 비를 내리어 백성들을 구제하여 주소서" 하였다.
- 29 이날 비가 크게 내렸던 것이다.
- 30 ○ 경자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懷化將軍) 아알나(阿闕那)가 내조하였다.
- 31 ○ 가을 7월 초하루 병술일에 거란에서 경교사도 고수를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2 ○ 임진일에 서여진의 추장 도리(闡羅)와 동여진의 노을견(奴乙堅)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 33 ○ 임자일에 탐라(耽羅)의 추장 주물자와 고몰을 모두 운취대장군 상호군으로 임명하였다.
- 34 ○ 9월 갑인일에 흑수말갈의 아이고(阿里古)가 우리나라에 왔다.
- 35 ○ 이달에 대식국(大食國)의 열나자(悅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6 ○ 겨울 10월 병진일에 거란에서 경교 좌복야 이정륜을 파견하였다.
- 37 ○ 11월 초하루 을유일에 태사국에서 이날 있어야 할 일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38 ○ 기유일에 상주(尙州)에 지진이 있었다.
- 39 ○ 을축 16년(1025) 정월 경인일에 여진의 회화장군 야고가(耶古伽)와 귀덕장군 아골다로(阿骨朮老) 등이 내조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벼슬과 의복을 주었다.
- 40 ○ 정유일에 피위종 등 6명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벼슬을 복직시켰다.
- 41 이에 앞서 위종이 병부낭중으로서 국경 지대를 순찰하던 중 거란의 장군 아을살할이 사냥하는 것을 보고,
- 42 예빈주부 정민의 등 5명과 함께 달려나가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공로에 대한 상을 요구하였다.
- 43 이에 대하여 해당 관서에서 그가 제멋대로 군대를 국경 밖으로 동원하였다 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었는데
- 44 이때에 와서 그들의 죄명을 벗겨 돌아오게 한 것이었다.
- 45 ○ 신해일에 여진의 추장 모일리(毛逸羅)가 내조하였다. 그가 국경 지대에서 공로를 세웠다 하여 대광(大匡) 품계를 주고 의복과 물품을 후하게 주었다.
- 46 ○ 2월 임오일에 이날은 한식날이라 하여 내전에서 문무관 상참(常參) 이상 관리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 47 ○ 여름 4월 갑자일에 교서를 내렸다. "농사가 한창인 이때에 가뭄이 들어 해를 끼치고 있다.
- 48 백성들의 식량이 모자랄 것이 염려되어 주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돌 바 없다.
- 49 그러므로 마땅히 정전에서 피해 앓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음악을 철폐하며 억울한 죄수들을 보살피고 명산대천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 50 이런 일들은 다만 박덕한 나 자신을 반성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니 모든 문무 관료들도 제각기 노력할 지어다."
- 51 ○ 신미일에 영남도(嶺南道) 광평(廣平), 하빈(河濱) 등 10개 현에 지진이 있었고, 임신일과 을해일에 또 지진이 있었다.
- 52 ○ 6월 갑인일에 궁녀 유씨(庾氏)를 귀비로 삼았다.
- 53 ○ 가을 7월 초하루 신사일에 거란에서 강문위 대장군 한순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54 ○ 정해일에 경주, 상주, 안동, 밀성(密城)과 청주(淸州)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 55 ○ 9월 신사일에 대식국의 만하(蠻夏), 선나자(洗羅慈) 등 1백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6 ○ 겨울 10월 초하루 기묘일에 태사관(太史官)이 이날 있어야 할 일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 57 ○ 병인 17년(1026) 봄 정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歸德將軍) 거여울(居閭鬱) 등이 내조하였다.
- 58 ○ 2월 계해일에 거란에서 태부 이지순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예방하였다.
- 59 ○ 윤 5월 임자일에 동서 여진의 추장들이 각각 자기 부락 자제들을 인솔하고 와서 토산 말과 각종 활을 바쳤다.
- 60 ○ 갑자일에 거란에서 어원판관(御院判官) 아을골타(耶律骨打)를 파견하여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61 ○ 가을 7월 초하루 갑진일에 거란에서 강문위 대장군 왕문간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2 ○ 8월 임오일에 송나라 광남(廣南) 지방 사람 이문통 등 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3 ○ 겨울 10월 초하루 계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 64 ○ 정묘 18년(1027) 봄 정월 임자일에 동여진의 추장 창부(昌夫)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5 ○ 병인일에 문하시랑평장사 유방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하고 그에게 특진 문하시중 벼슬을 더 주었다.
- 66 ○ 무진일에 거란에서 이정윤(李正允)을 보내왔다.
- 67 ○ 2월 갑오일에 흑수말갈의 귀덕대장군 아골아가(阿骨阿駕)가 와서 말과 무기 등을 바쳤다.
- 68 ○ 3월 을묘일에 여진의 우두머리 슬불달(瑟弗達) 등 1백 명이 내조하였다.
- 69 ○ 6월 계미일에 양주(楊州)에서 아뢰기를 "장의, 삼천, 청연 등 사찰의 승려들이 나라의 금령을 위반하고 쌀을 3백 60여 석이나 소비하여 술을 빚었으니 법률에 의하여 처단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70 ○ 갑신일에 탐라(耽羅)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71 ○ 신묘일에 동여진의 추장 모일리(毛逸羅) 등 20여 명이 내조하였다.

29 고려사상

- 72 ○ 가을 7월 초하루 기해일에 거란에서 태부 이광일, 아을호도곤 등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73 ○ 경자일에 영광군(靈光)에서 산호수(珊瑚樹)를 바쳤는데 높이가 8척이요, 가지가 81이었다.
- 74 ○ 8월 초하루 무진일에 거란 동경의 사절 고연이 우리 나라에 왔다.
- 75 ○ 정해일에 송나라 강남 사람 이문통 등이 와서 총 5백 79권의 서적을 바쳤다.
- 23** ○ 무진 19년(1028) 봄 정월에 여진의 귀덕장군 고두(高豆) 등 70여 명이 내조하였으며 여진의 골부(骨夫)가 부락민 5백여 호를 인솔하고 귀순하여 왔다.
- 2 ○ 2월 계사일에 대부경 김작빈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3 ○ 3월 신유일에 거란에서 장군 아을소와 방주방어사 양연미 등을 보내 우리 나라를 예방하였다.
- 4 ○ 이달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아골(阿骨)이 우리 나라에 왔다.
- 5 ○ 5월 신축일에 동여진이 평해군(平海郡)을 침공하여 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이들을 추격하여 적선 4척을 노획하고 사로잡은 적을 모조리 처단하였다.
- 6 ○ 윤 6월 갑인일에 북번(北蕃)의 추장 아홀(阿忽) 등 57명이 귀순하여 왔다.
- 7 ○ 가을 7월 을미일에 거란에서 심주자사 소경과 박주자사 부용원 등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8 ○ 정유일에 동여진의 궤발 부락 3백여 호가 귀순하여 왔다.
- 9 ○ 이달에 동서 여진의 추장 이오불(尼烏弗), 두노개(豆盧蓋) 등 2백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0 ○ 9월 병신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이선 등 3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1 ○ 무신일에 좌사낭중 임복을 거란에 파견하여 황후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2 ○ 겨울 10월 계유일에 상서우승 정장을 사은사(謝恩使)로 거란에 파견하였다.
- 13 ○ 정해일에 동여진의 적선 15척이 고성(高城) 지방을 침략하였으며 기축일에는 용진진(龍津鎭)에 침입하여 중앙장 박흥언 등 70여 명을 납치하여 갔다.
- 14 ○ 11월 계묘일에 태복경 왕희걸과 전중 시어사 이유량 등을 거란에 파견하여 그 나라 임금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5 ○ 12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사일라(沙逸羅)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 16 ○ 기사 20년(1029) 봄 정월 계사일에 천추태후 황보씨가 승덕궁에서 죽었다.
- 17 ○ 윤 2월 기해일에 여진의 적선 30여 척이 동쪽 변경에 침입하였다. 병선도부서 판관 조윤정이 이를 물리쳤다.

- 18 ○ 이 달에 서여진의 아홀(阿忽), 사일(沙一), 나골개(羅骨蓋) 등 1백여 명이 와서 토산 말과 무기를 바쳤다. 그들에게 관작을 한 급씩 높여 주었다.
- 19 ○ 3월 경오일에 오관산(五冠山)이 무너졌다.
- 20 ○ 경진일에 동여진의 적선 10척이 명주(溟州)를 침략하였다. 병마판관 김후가 이를 격퇴하였다.
- 21 ○ 경자일에 장경도랑(道場)을 회경전에 설치하고 구정(毬庭)에서 1만 명의 종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 22 ○ 경술일에 거란에서 대장군 아을연녕과 해복주자사 장영의를 파견하여 우리 나라를 예방하였다.
- 23 ○ 거란 사람 조을(曹元)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쳐 왔다.
- 24 ○ 을묘일에 왕이 대묘의 변두(邊豆) 수를 증가시키려고 하였더니 .
- 25 예부에서 왕제(王制)에 명시되어 있는 “풍년이라 하여 사치하게 하지 말며 흉년이라 하여 더 검박하게 하지 말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제기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므로 그만 중지하였다.
- 26 ○ 5월 을축일에 동여진의 적 4백여 명이 동산(洞山)을 침략하였다.
- 27 ○ 6월 계축일에 탐라의 세자 고오노가 내조하였다. 그를 유격장군으로 임명하고 관복 한 벌을 주었다.
- 28 도적이 광주(廣州) 산슭을 근거로 하여 일어났다.
- 29 을묘일에 용호군 장교를 파견하여 이를 체포하도록 하였다.
- 30 ○ 병진일에 처를 둔 중들을 징발하여 중광사(重光寺) 건축 공사의 노역에 충당하였다.
- 31 ○ 가을 7월 초하루 무오일에 거란에서 장군 아을관녕과 송록소경 이가봉 등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2 ○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33 ○ 문희현(聞喜縣)에서 수정과 옥돌 4만여 개를 채굴하였다.
- 34 ○ 을유일에 탐라 백성 정일 등이 일본으로부터 귀환하였다.
- 35 이에 앞서 정일 등 21명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파를 만나 머나먼 동남쪽 섬에 표착하였는데
- 36 그 섬 사람들은 모두가 몸집이 장대하고 온몸에 털이 낚으며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아 7개월간이나 억류되어 있었다.
- 37 그러다가 정일 등 7명이 비밀리에 작은 배를 훔쳐 타고 동북쪽으로 항행하여 일본 나사부(那沙府)로 갔다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 38 ○ 8월 초하루 정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 39 ○ 을미일에 동여진의 대상(大相) 궤발(嚙拔)이 자기의 족속 3백여 호를 인솔하고 귀순하여 왔다. 그들에게 발해(渤海)의 옛성 자리를 주어 거기서 살게 하였다.
- 40 ○ 기해일에 송나라 광남(廣南) 사람 장문보(莊文寶)

- 등 8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1 ○ 이달에 개경의 나성(羅城)이 완성되었는데 약 21년 만에 공사가 끝났던 것이다.
- 24 ○ 기사 20년(1029) 9월 무오일에 거란 동경의 장군 대연림이 대부승 고길덕을 보내 자기의 건국한 사실을 알리고 겸하여 원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2 이 연림은 발해의 시조인 대조영(大祚榮)의 7대 손으로서 거란을 반대하여 국호를 흥료(興遼)라 하고 연호를 천흥(天興)으로 선포하였다.
- 3 ○ 11월 경오일에 광종의 궁녀였던 김씨를 헌비(賢妃)로 추증하였다.
- 4 ○ 갑신일에 동여진의 구두(求頭) 등 30여 명이 내조하였다.
- 5 ○ 12월 경인일에 뇌성벽력이 있었다.
- 6 ○ 흥료국의 대사 대연정이 동북 여진인들과 함께 거란을 대항하여 서로 공격을 하면서 사절을 보내 원조를 청하였으나 왕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7 이때로부터 길이 막혀서 거란과의 연계가 끊어졌다.
- 8 ○ 임진일에 서북면 판 병마사 유소를 진(鎭)으로 보내 흥료국의 침공을 대비케 하였다.
- 9 ○ 경오 21년(1030) 봄 정월 정사일에 동여진의 오을나(烏乙那) 등 50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10 ○ 병인일에 흥료국에서 또다시 수부 원외랑 고길덕을 시켜 원병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
- 11 ○ 2월 갑오일에 교주(交州), 익령(翼嶺), 동산(洞山)현 들에 지진이 있었다.
- 12 ○ 을미일에 동여진의 모일라(毛逸羅)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3 ○ 여름 4월에 교서를 내렸다. "작년 12월을 송나라 책력에는 크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 태사(太史)가 바친 책력에는 작다고 하였으며 ,
- 14 또 금년 정월 15일에 월식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나 마침내 일식이 있었으니,
- 15 이는 필시 천문가들이 옳게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사대에서는 그 이유를 추궁하여 나에게 결과를 보고하라."
- 16 무자일에 동여진의 만투(曼鬪) 등 60여 명이 와서 과선(戈船) 4척과 호시(楛矢) 11만 7천 6백 개를 바쳤다.
- 17 ○ 기해일에 철리국주(鐵利國主) 나사(那沙)가 여진의 계타한(計陟漢) 등을 보내 초서피(貂鼠皮)를 바치고 책력을 달라고 하였다.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18 ○ 5월 을묘일에 동여진의 봉국 대장군 소물개(蘇勿蓋) 등이 와서 말 9필과 과선(戈船) 3척과 호시(楛矢) 5만 8천 6백 개와 병기들을 바쳤다.
- 19 ○ 을축일에 거란의 수군 지휘사 호기위 대도, 이경 등 6명이 귀순하여 왔다.

- 20 이 때로부터 거란 및 발해 사람으로서 귀화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 21 ○ 신미일에 강감찬에게 문하시중 벼슬을 더 주었다.
- 22 ○ 가을 7월 을축일에 흥료국의 행영 도부서 유충정이 영주자사 대경한을 시켜 표문을 가지고 와서 원병을 청하였다.
- 23 ○ 기사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사람 노준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4 ○ 무인일에 내사시랑 진함조가 죽었다. 함조는 일찍이 음양오행설을 공부하였는데,
- 25 국가에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성패 여부를 묻게 되었으며 마침내 높이 등용되었으나 당시 여론들은 그를 우습게 여겼다.
- 26 ○ 9월 초하루 신해일에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27 ○ 병진일에 흥료국의 영주자사 이광록이 와서 위급한 사태를 고하더니 이내 자기 나라가 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냥 체류하여 돌아가지 않았다.
- 28 ○ 갑술일에 김가를 거란에 파견하여 거란이 동경을 회복한 것을 축하하였다.
- 29 ○ 을해일에 거란에서 천우장군 나한노를 파견하여 조서를 전하기를 "근자에 사절이 내왕하지 않는 것은 정녕 길이 막혔기 때문이었겠는데,
- 30 지금은 발해의 가짜 임금 이하로 모두 포위되었다가 벌써 다 항복하였으니 사신을 빨리 보낼 수 있으며 다른 근심이 없을 것이다."
- 31 ○ 겨울 10월 에 거란, 해가(奚哥), 발해의 백성 5백여 명이 귀순하여 왔다. 이들을 강남 주, 군들에 배치하였다.
- 32 ○ 11월 을축일에 서여진의 만투(曼鬪) 등 27호가 귀순하여 왔다. 이들을 동부 지방에 배치하였다.
- 33 ○ 계유일에 어사 집단 최연수가 참지정사 이작인이 자칭 태조적 공신의 자손이라 하여 자기 아들에게까지 음직(蔭職)을 주게 하였다는 것을 규탄하다가 자기 벼슬을 파면당하였다.
- 34 ○ 12월에 동여진의 영새장군 목사아골과 유원장군 알나와 귀덕장군 아개주 등이 와서 말, 무쇠, 갑옷, 호시(楛矢)들을 바쳤다.
- 35 서울에 전염병이 만연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 36 ○ 신미 22년(1031) 봄 정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이우불(尼牛弗)이 와서 말과 무기를 바쳤다.
- 37 ○ 2월 기축일에 왕자 기(基)를 수태위 겸 상서령 개성국공으로 책봉하였다.
- 38 ○ 이달에 동서 여진 사람 8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9 ○ 3월에 여진의 사일라(沙逸羅) 등 4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0 ○ 거란, 발해 사람 40여 명이 귀순하여 왔다.
- 41 ○ 여름 4월 을사일에 왕이 편치 못하였다.
- 42 ○ 5월 신미일에 왕의 병이 위독하였다.

31 고려사상

- 43 왕이 태자 흠(欽)을 불러 뒷일을 위촉하고 얼마 후에 중광전(重光殿)에서 죽었다. 향년은 40세요 재위 연수는 22년이였다.
- 44 왕은 어려서 총명하고 인자하였으며 장성한 뒤에는 학문에 민첩하여 글씨를 공부하고 시짓기를 좋아하였으며 일체 보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 45 시호(諡號)는 원문(元文)으로, 묘호는 현종으로 하였다. 송악산 서쪽 산기슭에 장사하고 능호를 선릉이라고 하였다.

- 25** ○ 덕종 대왕의 이름은 흠(欽)이고, 현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원성태후 김씨이다.
- 2 ○ 현종 7년 병진 5월 을사일에 나서 동 11년에 연경군으로 책봉되었고 동 13년에 태자가 되었다.
 - 3 ○ 현종 22년 5월 신미일에 현종이 죽으매 중광전에서 왕위에 올라 익실(翼室)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슬퍼하였다.
 - 4 갑술일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성복(成服) 의식을 치르었다.
 - 5 ○ 6월 기묘일에 강감찬을 경교 태사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 6 ○ 을유일에 서여진의 영새대장군 아지대 등 27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7 ○ 을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대완사, 이라 등 58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8 ○ 철리국주(鐵利國主) 무나사(武那沙)가 악오자(若吾者) 등을 파견하여 초서피(貂鼠皮)를 바쳤다.
 - 9 ○ 송나라 태주(台州) 상인 진유지(陳惟志) 등 64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0 ○ 가을 7월 무신일에 대신들에게 각 도에서 진상하여 온 말을 주었다.
 - 11 ○ 기미일에 거란의 보애사 공부낭중 남승안이 와서 자기 나라의 성종(聖宗)이 죽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 12 ○ 정묘일에 발해의 감문군 대도행랑 등 14명이 귀순하여 왔다.
 - 13 ○ 기사일에 발해의 제군판관 고진상, 공목 왕광록 등이 거란으로부터 문건을 가지고 귀순하여 왔다.
 - 14 ○ 거란에서 전 임금 현종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물온덕, 조상현 등을 보내왔다.
 - 15 ○ 임신일에 거란 사절이 현종의 반혼당(返魂堂)에서 자기 나라의 사명을 전달하였다.
 - 16 ○ 8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고어부(古於夫)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7 ○ 갑신일에 왕이 명령을 내리길, "여진의 장군 아두한(阿豆閑) 등 3백 40호가 귀순하여 왔으므로 그들을 거주(嘉州), 철주(鐵州) 두 고을에 강제로 거주시키고 있다.
 - 18 그러나 아두한은 원래 동여진의 자항사(子項史) 종족이니 그들을 동여진 지역으로 가 있게 할 것이

- 다." 하였다.
- 19 ○ 임진일에 왕가도가 왕에게 왕비를 맞아들이자고 청하였다.
- 20 ○ 을미일에 퇴직 중에 있던 시중 강감찬이 죽었다.
- 21 ○ 9월 병진일 동여진의 회황장군 오어나개로(烏於那開老) 등 6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2 ○ 10월 정축일에 거란의 왕수남(王守男)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남부 지방에 거주케 하였다.
- 23 ○ 무인일에 재상들이 글을 올려 반찬 수를 종전대로 할 것을 청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24 ○ 경진일에 국내의 국로(國老)들을 위하여 구정(秘庭)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는데 악기는 내어놓았으나 주악은 하지 않았다.
- 25 ○ 신사일에 왕가도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를 삼았다.
- 26 거란에 사신들을 파견하여 공부낭중 유교는 성종의 장례식에 참가하게 하고 낭중 김행공은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게 하였으며
- 27 정식 문건으로 압록강에 가설한 다리를 철폐할 것과 억류한 우리측 사신들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 28 ○ 을유일에 동여진의 원보 개로 등 46명이 내조하였다. 그들의 관작을 높이고 물품을 주었다.
- 29 사헌대에서 아뢰기를 "상서좌복야 이공이 재물을 횡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종을 역마(驛馬)까지 빌려 타게 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그를 논죄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0 ○ 정유일에 왕이 구정에 가서 3만 명의 중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 31 ○ 윤 10월 기유일에 처음으로 국자감 시험제도를 설정하였다.
- 32 ○ 갑자일에 왕씨를 현비(賢妃)로 책봉하였다.
- 33 ○ 11월 경인일에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국에서 귀화하여 온 사람들에게 의복과 솜을 주게 하였다.
- 34 ○ 임인일에 동여진의 장군 모이라(毛伊羅)가 와서 말을 바치고,
- 35 말하기를, 자기 나라는 지역이 궁벽하고 멀어서 왕의 장례에 대어 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능에 참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36 ○ 계사일에 동여진의 오두내(烏頭乃) 등 4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7 ○ 신축일에 김행공이 거란으로부터 귀환하여 거란이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 38 드디어 하정사(賀正使) 파견을 정지하였다.
- 39 그러나 성종(聖宗)의 태평(太平) 연호만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 40 ○ 임신 원년(1032) 봄 정월 신사일에 어사대에서 대부경 왕희걸, 우사낭중 유백인, 예부낭중 최복규, 원외랑 이응년 등이,
- 41 서경 분사(分司)에서 토지를 경병하여 재물을 모으고 있음을 탄핵하고 그들을 관직에서 파면할 것을

-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2 ○ 을유일에 거란에서 유사를 내원성(來遠城)까지 파견하여 왔으나 그의 입국을 거부하고 삭주(朔州) 영인진(寧仁鎭), 파천(派川) 등 고을에 성을 쌓아 거란의 침입을 방비하였다.
- 43 ○ 정유일에 서여진의 자곤(者昆)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 44 ○ 무술일에 발해의 사지(沙志), 명동(明童) 등 29명이 귀순하여 왔다.
- 45 ○ 2월 초하루에 통주(通州)의 진위부위 호장 김거와 별장 수군은 경술년에 거란군이 침입하여 왔을 때,
- 46 성을 완강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적의 대부 마수를 생포한 공로가 있다 하여 김거를 낭장으로 올려 주고 수군에게는 낭장 벼슬을 증직하였다.
- 47 ○ 무신일에 발해의 사통(史通) 등 17명이 귀순하여 왔다.
- 48 ○ 철리국(鐵利國)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었다.
- 49 ○ 3월 계유일에 거란의 전직 고선오, 전전 고진성 등 15명과 좌상 도지휘사 대광, 보주회화군사 판관 최운부, 항공진사 이운형 등이 도망하여 왔다.
- 50 ○ 경자일에 날이 가문다 하여 봉은사, 종광사 건축 공사에 동원된 인원들을 돌려 보냈다.
- 51 ○ 여름 4월 초하루에 왕이 정전에서 옮겨 앉고 반찬 수를 줄였으며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죄상이 경한 자들을 석방하였다.
- 52 ○ 정미일에 동여진의 원윤(元尹), 고두로(古豆老)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3 ○ 무신일에 거란의 해가(奚家), 내을고(內乙古) 등 27명이 귀순하여 왔다.
- 54 ○ 5월 임신일에 왕이 거상 중에 있다 하여 응천절(應天節)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 55 ○ 정축일에 발해의 살오덕(薩五德) 등 15명이 귀순하여 왔다.
- 56 ○ 계미일에 왕이 반찬 수를 종전대로 회복하고 정전으로 돌아와서 조회를 받았다.
- 57 ○ 병오일에 이날은 복날이라 하여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 58 ○ 기유일에 서여진의 회화장군 이동 등 8명이 내조하였다. 그들에게 벼슬을 한 등씩 높여 주었다.
- 59 ○ 신해일에 발해의 우음(于音) 약기(若己) 등 12명이 귀순하여 왔다.
- 60 ○ 임자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야어포(也於浦) 등 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1 ○ 을묘일에 발해의 소을사(所乙史) 등 17명이 귀순하여 왔다.
- 62 ○ 가을 7월 임신일에 이예균(李禮均) 등 8명이 거란에 사절로 파견되었다가 억류되어 돌아 오지 못하였으므로 그 처자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63 ○ 을해일에 서여진의 대상(大相) 야반(也半)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4 ○ 정축일에 동여진의 정조(正朝), 가이로(加伊老), 회화장군 야반과 귀덕장군 개로(開老), 원보(元甫), 고도화(古刀化) 등 91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5 ○ 가을 병신일에 발해의 고성(高城) 등 20명이 귀순하여 왔다.
- 66 ○ 8월 임인일에 대상(大相) 주오가 자기 어머니를 구타하였으므로 그를 저자에서 처단(棄市)하였다.
- 67 ○ 을묘일에 동여진의 정보(正甫) 두어보(豆於甫) 등 2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8 ○ 경신일에 동여진의 보윤(甫尹) 대유(大由) 등 3명이 내조하였다.
- 69 ○ 9월 계유일에 동여진의 대상(大相), 아을한(也乙漢)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 70 ○ 경인일에 동여진의 봉국대장군 요을내(要乙乃) 등 50명이 내조하였다.
- 71 ○ 겨울 10월에 발해의 압사관(押司官) 이남송 등 10명이 도망하여 왔다.
- 72 ○ 신해일에 상주(尙州) 지역의 10여 현(縣)에 지진이 있었다.
- 73 ○ 임자일에 거란의 주부(注簿) 유신사 등 5명이 도망하여 왔다.
- 74 ○ 병인일에 거란의 제을남(濟乙南) 등 10여 명이 도망하여 왔다.
- 75 ○ 11월 병자일에 우릉성주(羽陵城主)가 자기의 아들 부어마다량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 76 ○ 서여진의 정조 대포고지문(大浦古之門) 등 1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77 ○ 갑진일에 거란의 나골(羅骨) 등 10명이 귀순하여 왔다.

- 26** ○ 계유 2년(1033) 봄 정월 신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개다한(開多閑)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2 철리국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좋은 말과 초서피(貂鼠皮)를 바쳤다. 왕이 이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답례 물품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 3 ○ 을해일에 송나라의 유수전 등 14명이 도망하여 왔다.
- 4 ○ 신사일에 동여진의 장군 보기(寶伎), 아어내(阿於乃) 등 1백 1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 ○ 을미일에 거란의 구내(仇乃) 등 18명이 도망하여 왔다.
- 6 좌우위의 맹교위 오행, 이황, 신선립 등이 거란 군대 7명을 생포하여 왔으므로 그들에게 벼슬을 한 등급씩 높여 주었다.
- 7 ○ 2월 임인일에 서여진의 지인(指印) 고음파(高音波)와 거란의 대사(大師) 고성환(古省喚) 등 11명이 와서 토산물과 무기를 바쳤다.

33 고려사상

- 8 ○ 기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거어울(居於蔚) 등 49명이 내조하였다.
- 9 ○ 3월 신미일에 서여진의 장군 이우불(尼于弗)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0 ○ 해적이 간성현(杆城縣) 백석포(白石浦)를 침략하였다. 그 중 50명을 사로잡아 왔다.
- 11 ○ 거란의 해가(奚家) 고요(古要) 등 11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강남(江南)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 12 ○ 여름 4월 무술일에 발해의 수을분(首乙分) 등 18명이 귀순하여 왔다.
- 13 ○ 기해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고여부(古於夫)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4 ○ 무오일에 발해의 가수(可守) 등 3명이 귀순하여 왔다.
- 15 ○ 임술일에 해적이 삼척현(三陟縣)을 침략하였다. 그중 40여 명을 사로잡았다.
- 16 ○ 5월 무자일에 서여진의 정위 사어하(沙於下) 등 3명이 내조하였다.
- 17 ○ 계사일에 발해의 강문대정 기질화(奇叱火) 등 19명이 귀순하여 왔다.
- 18 ○ 6월 신축일에 발해의 선송(先宋) 등 7명이 귀순하여 왔다.
- 19 ○ 임인일에 안동부 협주(安東府陜州)에 지진이 있었다.
- 20 ○ 갑진일에 서여진의 회화대장군 거이라(居伊羅) 등 24명이 내조하였다.
- 21 ○ 송나라 신류(申流) 등 12명이 도망하여 왔다.
- 22 ○ 병진일에 동여진의 대상 고지문(古之門) 등 41명이 내조하였다.
- 23 ○ 임술일에 서여진의 중운 고사(古舍) 등 6명이 귀순하였으며 고모한(古毛漢)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4 ○ 가을 7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좌윤 아포(阿浦) 등 4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5 ○ 8월 초하루 갑오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지방의 상인 도강(都綱), 임애(林藪) 등 5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6 ○ 10월 계사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요빈(要賓)과 유원장군 고지문(古之門) 등 37명이 내조하였다.
- 27 ○ 기해일에 서여진의 대사 아각팔(阿角八) 등 14명과 동여진의 원보 오두나(烏頭那) 등 63명이 내조하였다.
- 28 ○ 정미일에 거란이 정주(靜州)를 침략하였다.
- 29 ○ 기유일에 교서를 내리길 "내가 선왕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삼한(三韓) 지역을 통치하게 된 이후,
- 30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조상들의 뜻을 옳게 받들어 효도를 다 하기에 노력하여 왔다.
- 31 오늘 내가 선왕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합향(裕享)의 예를 치르게 되는 날을 계기로 하여 특전을 내림으로써 국내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하노니
- 32 전국 죄수들에게 대사령을 내리되 불충 불효 한 자와 탐오, 간음, 절도죄에 연관된 자를 제외하고는 유형 이하 죄수들을 전부 용서하여 주며
- 33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거기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은 적당한 곳으로 옮길 것이며 속금(贖金)을 바친 자들은 면죄시켜 석방하라"
- 34 ○ 11월 신묘일에 서여진의 우화(于火) 등 1백 56명은 관방(關防)을 개척할 때에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모두 벼슬을 한 등급씩 높여 주었다.
- 35 ○ 12월 신축일에 서여진의 보윤(甫尹), 보실(甫失) 등 3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6 ○ 계축일에 발해의 기질화(奇叱火) 등 11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남부 지역에 거주케 하였다.
- 37 ○ 갑술 3년(1037) 봄 정월에 교서를 내렸다. "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용도를 절약하는 것은 백성들을 유족하게 하는 도리이다.
- 38 상의국(尙衣局)에서는 여의(御衣)에 물들이는 홍지초(紅芝草)를 1년간 소요량 이외에 너무 많이 캐지 말라"
- 39 ○ 병술일에 동여진의 정조 다로한(多老閑) 등 5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0 ○ 2월 초하루 임진일에 동여진의 유원대장군 주달(主達) 등 3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1 ○ 기해일에 경흥원장의 딸 김씨를 맞아들어 왕후를 삼았다.
- 42 ○ 동여진의 좌윤 아도한(阿刀閑) 등 4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3 ○ 무인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아도한(阿刀閑) 등 3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4 ○ 경진일에 교서를 내리길 "농사와 잠업은 의식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니, 각 도, 주, 현 관리들은 나의 뜻을 받들어 농사철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
- 45 ○ 여름 4월 병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이라(伊羅)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6 ○ 5월 초하루 경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골보(骨甫)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7 ○ 정축일에 문하시랑평장사 왕가도(王可道)가 죽었다.
- 48 ○ 6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영새장군 이구도(尼仇刀)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9 ○ 가을 7월 경인일에 서여진의 원윤 모오(毛烏) 등 2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0 ○ 9월 계묘일에 왕이 병석에 누워 유언 하기를 "나의 병이 낫지 않고 벌써 위중하게 되었으니 나의 사령하는 아우 평양군 형(亨)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라"

- 51 유언이 끝나자 연영전에서 죽으며 선덕전에 시체를 안치하였다.
- 52 그의 재위 연수는 3년이요 향년은 19세였다.
- 53 왕이 어려서부터 숙성하였으며 성격이 강의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 54 그가 장성하여서는 기왓장을 밟기만 하면 대번에 깨어졌는데 사람들은 왕의 덕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7** ○ 정종 대왕의 이름은 형(亨)이요, 덕종의 동복 아우로서 현종 9년 7월 무인일에 출생하였다.
- 2 그는 어려서부터 숙성하고 총명하였다. 5세 때에 내사령, 평양군으로 책봉되었고 덕종 3년 9월 계묘일에 덕종의 유언을 받아 종광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 3 ○ 겨울 10월 초하루 정사일에 종묘에서 고삭(告朔) 의식을 치루었다.
 - 4 ○ 경오일에 덕종을 속릉에 장사하였다.
 - 5 대신을 서경에 파견하여 팔관회를 열고 2일간에 걸쳐 주연을 배설하였다.
 - 6 ○ 11월 경인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대사령을 내리고 안팎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다.
 - 7 ○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 여진과 탐라국에서 각각 토산물을 바쳐왔다.
 - 8 ○ 경자일에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팔관회를 열고 여러 관리들을 위하여 주연을 배풀고 저택에는 법왕사로 갔으며 이튿날 대회에서 다시 큰 주연을 배설하고 음악을 감상하였다.
 - 9 이 때에 동서 2경과 동북 양도 병마사와 4도호부(都護府)와 8목(牧)에서 각각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으며,
 - 10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 여진과 탐라국에서도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좌석을 주어 의식에 참가케 하였다. 그 후부터 이것이 상례로 되었다.
 - 11 ○ 올해 원년(1035) 봄 정월 초하루 병술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 12 ○ 임인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모이라 등 57명이 내조하였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13 ○ 2월 기묘일에 서여진의 추장 가야고 등 12명이 내조하였다.
 - 14 ○ 신사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고지문 등 35명이 내조하였다.
 - 15 ○ 계묘일에 연흥궁주 한씨로 해비를 삼았다.
 - 16 ○ 여름 4월 갑인일에 왕이 구정(毬庭)에 나가서 국로(國老)로서 80세 이상 되는 남녀 노인들에게 친히 음식을 대접하였다.
 - 17 ○ 정사일에 예부에서 서울 주변의 명산들에서의 시초 채취를 금지하고 식수 사업을 광범히 진행할 것을 제기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8 ○ 5월 갑진일에 거란의 내원성 사절인 안서가 흥화

- 진에 통첩을 보내 오기를,
- 19 "(생략) 원래 귀국은 우리의 속국으로서 선대 황제께서 대양 두터운 배려를 돌렸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귀국에서도 수륙 만리에 사절을 자주 보내왔었다.
- 20 그러다가 지난 시기 양국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절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오늘은 흥악한 역적이 이미 숙청되었으니 공납이 응당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21 그런데 어찌하여 그 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종래의 우호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 22 돌 성을 쌓아 대로를 막으려 하며 목책을 세워 군사행동을 저지시키려 하는가? (생략)
- 23 귀국의 그러한 조치는 일후 심각한 견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략)
- 24 남쪽 지역의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옳은 정치를 본받기 위하여 상호 내왕을 요구하며 서방의 여러 제후들은 영구히 풍화를 우려러 정성을 다하고 있다.
- 25 그런데 오직 귀국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지 않으니,
- 26 만일 우리 황제의 뇌성벽력 같은 위엄을 보이게 된다면 백성들인들 편안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안 들는 것은 귀국 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 27 ○ 6월 병진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28 ○ 신미일에 동여진의 오어고(烏於古) 등 27 명이 내조하였다.
- 29 ○ 이 달에 거란 내원성에 회답한 통첩에 이르길 "보내 온 통첩에 의하여 친절한 귀국의 태도를 잘 알았다.
- 30 그런데 우리에게 대한 책망이 매우 많았으니 그것을 일일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나, 우선 몇 가지에 대하여 대략 이야기하고 많은 말은 하지 않겠다.
- 31 통첩 중 '지난 시기 양국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절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오늘은 흥악한 역적들이 이미 숙청되었으니 공납이 응당 계속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한 데 대하여 말한다면
- 32 대연림(大延淋)이 전란을 일으켜 귀국에서 군사를 동원하였을 때에 도로가 횡난하여 사절이 충도에 침체되었던 것이다.
- 33 그 후 귀국에서 동도(東都)를 회복하였을 때에 우리의 내사사인 김가(金賀)를 보내 축하하였으며 뒤를 이어 호부 시랑 이수화가 토산물을 가져다 주었으며,
- 34 우리 선대 임금이 돌아 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함문사 채충현이 명령을 받들고 가서 부음을 전했고,
- 35 당신의 선대 임금이 돌아 가셨을 때에는 우리의 상서좌승 유교가 달려 가서 회장에 참가하였으며,
- 36 지금 황제가 즉위한 뒤에는 우리의 급사중 김행공이 통고를 받고 축하하러 갔던 것이다.
- 37 그렇다면 흥료국을 평정한 이후 거의 날마다 연락이 있었는데 어찌 사절 내왕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35 고려사상

- 38 통첩에는 또한 '돌 성을 쌓아 대로를 막으려 하며 목적을 세워 군사 행동을 저지시키려 한다'고 하였는데,
- 39 이것으로 말하면 지점을 선택하여 요해지를 설정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떳떳한 일ियो,
- 40 노 나라에서 관방(關防)을 폐지한 것은 통행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교훈으로 되었던 것이다.
- 41 그러므로 성과 목적을 이렇게 설치하여 우리의 국토를 방비하는 것은 대개 변경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요, 귀국과의 교통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 42 통첩에는 또한 '오직 귀국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 43 사실은 지난 시기 우리의 사절 여섯 명이 귀국에 억류되었고,
- 44 선주(宣州), 정주(定州) 두 성은 당신들이 우리의 영토 안에 들어 와서 쌓은 것이 아닌가?
- 45 그런데 지금까지 사절을 돌려 보내지 않으며 우리의 영토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심각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 46 다행히 지금 황제가 유신 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 때에 귀국의 은택이 사방에 미치고 해외로부터 축하 글월이 모여 들고 있다.
- 47 우리가 사절을 돌려 오고 빼앗긴 땅을 찾으려고 하나 요구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는데,
- 48 귀국에서 만일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어찌 공납을 지체하겠는가?
- 49 이 문제는 귀국에 책임이 있거나 어찌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책망이 있을 수 있는가?
- 50 통첩에는 또한 '만일 황제의 뇌성벽력 같은 위엄을 보이게 된다면 백성들인들 편안하겠는가.'라고 하였으나
- 51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황제께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듣는다면,
- 52 바로 우리 나라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펼지언정 무고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화풀이를 하겠는가?
- 53 보내 온 통첩은 아무리 보아도 농담인듯 하다." 하였다.
- 54 ○ 계사일에 상서리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이전 상서 좌복야 이공(李龔)은 일찍이 국가 재산을 탐오한 죄과를 범하였으나,
- 55 이미 대사를 여러 차례 거쳤으므로 그를 다시 복직시키자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6 그러나 여사대에서 그의 죄를 탄핵하므로 얼마되지 않아 다시 파면하였다.
- 57 ○ 8월 신미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우뢰와 같았다.
- 58 ○ 갑술일에 서여진의 대장군 니우불(尼于弗) 등 44명이 내조하였다.
- 59 ○ 경진일에 동여진의 대완 개다한(大完皆多漢) 등

- 52명이 내조하였다.
- 60 ○ 9월 무자일에 동번(東蕃)의 귀덕장군 오다(吳多) 등 23명이 내조하였다.
- 61 ○ 계묘일에 경주(慶州) 지방의 19개 주에 지진이 있었다.
- 62 ○ 이 달에 서북 지방 송령(松嶺) 이동에 장성을 구축하여 변방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는 요충으로 삼았다.
- 63 ○ 겨울 10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어불로(魚弗老) 등 6명이 내조하였다.
- 64 ○ 병인일에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황주(黃州)를 비롯한 10개주, 군의 승관(僧官) 관인(官印)을 회수하자고 제기하였다.
- 65 ○ 11월 계미일에 동여진의 추장 아노간(阿盧幹) 등 65명이 내조하였다.
- 66 12월 임자일에 동번(東蕃)의 대완(大完) 고도화(高陶化)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28 ○ 병자 2년(1036) 봄 정월 초하루 경진일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 2 ○ 을유일에 동번(東蕃)의 회화장군 사라(沙羅) 등 83명이 내조하였다.
- 3 ○ 갑오일에 정치범으로서의 도형(徒刑)과 민사범으로서의 장형(杖刑) 이하 죄수 및 벌금을 바친 모든 죄수들을 전부 용서하게 하였다.
- 4 ○ 2월 초하루에 방택(方澤)에 제향을 치르었다.
- 5 ○ 갑인일에 동번의 우두머리 대신(大信) 등이 와서 낙타를 바쳤고 기미일에 동번의 영새장군 아골 등 1백 35명이 내조하였으며, 기사일에 동번의 장군 개로 등 71명이 와서 준마(駿馬)를 바쳤다.
- 6 ○ 신미일에 동번의 적선이 삼척현 동진 요새지에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 7 수비하던 장수가 풀숨에 군사를 매복하고 적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복을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불의에 습격하여 적 40여 명을 살상 포로하였다.
- 8 ○ 3월 무신일에 동번 추장 귀정 등 82명이 와서 준마(駿馬)를 바쳤다.
- 9 ○ 여름 4월 임자일에 이 날이 입하절(立夏節)이라 하여 얼음을 바쳤더니, 왕이 "금년은 더위가 빠르지 않으니 5월이 되거든 얼음을 바치라" 하였다.
- 10 해당 관리가 아뢰기를 "태양이 북륙(北陸)에 있을 때에 얼음을 떠서 저장하고,
- 11 태양이 서륙(西陸)에 있을 때에 얼음을 내어 쓰느바,
- 12 반드시 영소(氷)를 잡아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빙고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 13 얼음을 저장하는 데는 주밀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게 한다면, 겨울이 덥고 여름이 춥거나 봄바람이 차고 가을 장마가 계속되는 걱정들이 없을 것입니다.
- 14 그러므로 대개 얼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춘분때부터

시작하여 입추 때에 그치는 것인데,
 15 만일 5월에 가서야 얼음을 바친다면 그것은 옛날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음양을 순조롭게 하려는 본의가 아니오니 입하절에 얼음을 바치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16 ○ 경신일에 동여진의 추장 오부하 등 86명이 내조하였다.
 17 ○ 을축일에 동북 여진의 우두머리 태사 아도한(阿道閑) 등 59명이 내조하였다.
 18 해당 관리가 말하기를 "태사는 거란의 관직명인데 아도한이 이제 이미 귀화하였으니 만큼 그를 정보(正甫)로 고쳐 임명하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19 ○ 5월 기묘일에 중앙과 지방의 명산들에서 뿔나뿔을 채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20 ○ 신묘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대체로 아들 네 명을 둔 자는 그중 한 명을 영통사, 송법사, 보원사, 동화사 등 계단(戒壇)에 증으로 보내 자기가 배운 불경과 계율을 시험치게 하였다.
 21 관리들이 아뢰기를 "금년은 봄부터 비가 적게 내리오니,
 22 전례에 따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들을 심사 처리하고,
 23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24 객사한 시체를 거두어 매장하고,
 25 우선 북쪽 교외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산악, 진산, 바다, 강들과 모든 명산 대천에 빌고,
 26 다음에는 매 7일에 한 번씩 종묘에서 빌되,
 27 이렇게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산악, 진산, 바다, 강들에 처음과 같이 빌며,
 28 가뭄이 심하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고
 29 시장을 옳기며 일산(日傘)과 부채를 들지 못하게 하고,
 30 가축 도살을 금지하며 관가 말들에게 곡식을 먹이지 말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31 왕이 이 제의를 좇아 정전에서 피해 앓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었다.
 32 ○ 기해일에 우박이 내렸고 계묘일에 문덕전에 도량(道場)을 설치하여 5일간이나 비를 빌었으며 6월 을묘일에 문덕전에 도량을 설치하여 비를 빌었다.
 33 을축일에 왕이 친히 기도를 하였더니 그 때에야 비가 내렸다.
 34 ○ 병인일에 대신들이 아뢰기를 "옛적 명철한 제왕들의 통치 시대에도 다 재변이 없지 않았으나, 다만 착한 도리와 정치를 잘 하여 재앙을 상서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35 그런데 금년에는 봄부터 한발이 흑심한지라 성상(聖上)께서 정전에서 옮겨 앓고 반찬을 줄이시며,
 36 밤낮으로 근심하고 자체를 반성하시며 제때에 내린 비가 전야를 끌고루 적시어 풍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37 바라옵건대 정전으로 돌아 오시고 반찬 수를 회복하시며 종전 대로 정부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38 왕이 말하기를 "내가 옳지 못하여 이와 같은 한재를 초래하였는데,
 39 지금 비가 내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뿔걱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신들의 요청을 저바릴 수 있겠는가." 하고, 이 제의를 좇았다.
 40 ○ 무진일에 서울, 동경 및 상주(尙州), 광주(廣州), 안변부(安邊府) 관내 주, 현들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다한 가옥들이 훼손되었고 동경에서는 3일을 지나서야 지진이 멎었다.
 41 ○ 임신일에 해당 기관에서 퇴직 중에 있는 전 문하시종 유방(虞方) 등 17명에게 입추(立秋)까지 매 10일에 1차씩 얼음을 주자고 제의하니 왕이 이를 좇았다.
 42 ○ 가을 7월 무인일에 중추원에서 왕에게 의견을 제기하기를 "최근에 인상 3백 근을 바치라는 분부가 있었사오니,
 43 요즈음 바친 인상만 하여도 1천 근이나 되어 쓰시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44 대개 국고에 들어 오는 공물이란 모두 백성의 고혈이라 함부로 굶어 들일 수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다시는 인상을 들여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45 왕이 이 의견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더니,
 46 문하성에서 다시 아뢰기를 "옛날 제왕들이 기욕을 억제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심신을 수양하고,
 47 허부 의견을 허심하게 받아 들였기 때문에 백성을 잘 살게 하여 태평 세월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48 지금 재변이 거듭 생기는 판에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체를 반성해야 되겠는데,
 49 어찌 무용한 일에 재물을 낭비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중추원의 제의를 받아 들이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50 ○ 신사일에 송나라 상인 진량(陳諒) 등 6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51 ○ 임오일에 명령을 내렸다. "근자에 천재 지변으로 나의 잘못을 경고하며 날마다 조심하여 감히 마음을 놓지 못하노니
 52 여러 대소 관원들은 휴가 기간이나 조회를 철폐하는 때 이외에는 책임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재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라"
 53 ○ 경인일에 지중추원사 병부상서 김충찬이 죽었다. 그에게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54 ○ 임진일에 명령하였다. "을묘년에 거란이 우리 변방을 침공하였을 때 대사승 강승영이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바,
 55 그 공로가 가상하니, 그에게 군기시 소감 벼슬을 증직하는 동시에 그 아들 화(和)에게 첫 관직을 주라"
 56 ○ 일본국에서 우리나라의 표류민 겸준 등 11명을

37 고려사상

송환하였다.

- 57 ○ 이 달에 진봉 겸 고주사 상서우승 김원충이 송나라에 가다가 웅진(瓮津)에서 배가 깨어져 중도에 돌아 왔다.
- 58 ○ 계해일에 구정에서 총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59 ○ 병인일에 명령하기를 "어제 형부에서 제기한 참형, 교형에 해당하는 명부를 보았다.
- 60 그러나 내가 지금 거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재변이 일어 나는 것을 고려하여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 61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보이려 하노니, 비록 참형, 교형죄에 걸렸더라도 그들의 형을 감면하여 무인으로 유배할 것이며,
- 62 비록 이런 두 가지 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정상이 가당한 자는 유인도에 유배하는 조치를 취하라" 하였다.
- 63 이리 하여 사형을 면한 자가 무려 1백 16명에 달하였다.
- 64 ○ 동쪽 판내 주현들과 금주(金州), 밀성(密城) 등지에 지진이 있었는데 마치 우뢰 소리라도 같았다.
- 65 ○ 9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아골 등 1백 35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고, 겨울 10월 정묘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요야 등 74명이 내조하였다.
- 66 ○ 11월 기축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이 날에 송나라 상인들과 동여진 및 탐라에서 각각 자기 지방의 토산물을 바쳤으며,
- 67 정유일에 동여진의 장군 오을야 등 78명이 내조하였고, 12월 무신일에 동여진의 봉국대장군 요을도 등 74명이 내조하였다.

- 29** ○ 정축 3년(1037) 봄 2월에 서북로 병마사가 거란과 서로 통래하고 있는 동여진의 사이라(沙伊羅) 등 55명을 체포하여 서경으로 보내었다.
- 2 ○ 계유일에 5개의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각각 5~6척이나 되었다.
 - 3 ○ 서번(西蕃)의 추장 사온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윤 4월 임진일에 동여진의 정보 아도한 등 53명이 내조하였으며,
 - 4 ○ 5월 계축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니구두 등 57명에게 벼슬 한 등급씩을 더 높여 주었다.
 - 5 ○ 을유일에 송나라 상인 주여옥 등 20명이 우리 나라에 왔고, 정해일에 송나라 상인 임찬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 ○ 9월 기유일에 구주(龜州), 삭주(朔州), 박주(博州), 태주(泰州) 등지와 위원진(威遠鎭)에 지진이 있었다.
 - 7 ○ 이 달에 거란 내원성에서 자기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영덕진에 통첩을 보내기를 "고려는 일찍부터 우리 나라에 성의를 다하여 왔는데 근년에 와서는

사절 내용이 거의 없었다."

- 8 이 때에 운하시종 서늘 등 14명이 서로 의논하고, 왕에게 아뢰기를 거란에 고주사(告奏使)를 파견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 9 ○ 겨울 10월 경오일에 동여진의 장군 아유대(阿留大) 등 59명이 내조하였다.
- 10 ○ 병자일에 서북로 병마사가 거란이 해군을 동원하여 압록강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11 ○ 12월 정해일에 전중소감 최연가를 거란에 파견하여, "귀국의 선대 황태후 성제가 책임을 보내 봉작을 주고 영토를 확장한 때로부터,
- 12 우리 동방에서는 귀국을 받들어 해마다 성의를 표시하였고 대대로 직책을 다하여 왔었다.
- 13 근년에 나의 선형(先兄)이 조상의 유업을 계승한 후 역시 귀국을 받들어 왔으며,
- 14 새 황제가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여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기하였으나,
- 15 회답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점차 의혹을 품게 되었고 지난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울과 여름이 바뀌었으나 조공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 16 최근에 귀국 황제의 말을 들으며 나의 마음이 매우 만족하다.
- 17 삼가 태후(太后)의 유언을 받들어 인방의 도리를 다할 것이며 다시 글월로써 성의를 다하고 계속 사절을 보내 의례를 치르겠다."
- 18 ○ 무인 4년(1038) 봄 정월 초하루 무술일에 거란에서 마보업을 파견하여 왔다.
- 19 ○ 신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고지문이 내조하였다. 그에게 회화장군이란 벼슬을 다시 수여하는 동시에 그를 수종하여 온 자들에게도 다 벼슬을 주었다.
- 20 ○ 2월 계미일에 연등회를 열었다. 이날 왕이 봉은사에 가서 태조의 초상을 참배하였다.
- 21 관동하는 날 저녁에 반드시 초상을 모신 궁전에서 친히 분향을 하였는데 이것을 상례로 삼았다.
- 22 ○ 3월 신해일에 최연가가 거란으로부터 귀환하였는데, 그 편에 부쳐 온 조서에 "보내 온 글월에 의하여 조공 절차에 충실하겠다고 한 내용을 잘 알았다.
- 23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받드는 것은 모든 나라의 통칙이요, 목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함은 제후(諸侯)로서의 지당한 일이다.
- 24 원래에 귀국에서는 대대로 책력을 받아 갔고 해마다 사절을 파견하였다.
- 25 그런데 귀국의 먼저 임금이 왕위를 잇게 되자 그만 종래의 임무에 태만하였다. 최근에 받은 글월을 통하여 간절한 성의를 알 수 있다.
- 26 큰 활을 바치던 옛제도에 따라 해마다 호시(楛矢)를 보내려고 하는 간극한 성의를 생각하며, 진실로 사량을 받을 만하다.
- 27 귀국의 요망하는 바를 승인하는 동시에 당신의 성의

- 를 찬양하노니 영원토록 자기의 직책을 어기지 말 것이다."
- 28 ○ 경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구지라 등 32명이 자기 족속 회팔(恢八) 등 30명을 데리고 내조하였다.
- 29 ○ 여름 4월 초하루 정묘일에 궁녀 한씨를 여비(麗妃)로 책봉하였다.
- 30 ○ 이 달에 상서좌승 김원충을 거란에 파견하여 안부를 묻은 다음 은혜를 사례하고 겸하여 연호를 칭하였다.
- 31 ○ 가을 7월 신축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32 ○ 무신일에 상서 형부에서 서울과 지방의 참형, 교형에 해당하는 죄수가 1백 3명이라고 보고하였다.
- 33 왕이 명령을 내려 참형 죄수들은 장형(杖刑)으로 낮추어 무인도에 유배하고 교형 죄수들은 자형으로 낮추어 유인도에 유배하라고 하였다.
- 34 ○ 갑인일에 김원충이 거란으로부터 귀환하였다.
- 35 ○ 8월 초하루에 처음으로 중희라는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36 ○ 정묘일에 김화연을 거란 동경에 파견하였다.
- 37 ○ 정축일에 서북변의 귀덕장군 야평 등 26명이 내조하였고,
- 38 ○ 무자일에 송나라 명주(明州) 상인 진량주(陳亮州) 상인 진유적 등 1백 4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9 ○ 11월 을묘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강덕녕이 우리 나라에 왔으며, 기미일에 최충공을 거란에 파견하여 영수절을 축하하고 겸하여 신년을 축하하였다.
- 40 ○ 12월 갑술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고지문 등 50명이 내조하였다.
- 41 ○ 계미일에 내사 문하성에서 말하기를 "동지(東池)에 있는 백학, 거위, 오리, 산양들에게 날마다 곡식을 먹이게 되니 거기에 소비되는 곡식이 적지 않습니다.
- 42 옛문헌에 개와 말은 그 지방에 맞지 않으면 기르지 않으며,
- 43 희귀하고 기이한 날짐승이나 길짐승은 나라에서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며,
- 44 또 거기에는 날짐승, 길짐승이나 모든 곤충들은 제각기 본성 대로 산다고 하였으니
- 45 이것은 대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동물들의 본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46 바라옵건대 저 동물들을 바닷섬으로 놓아 보내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7 ○ 기묘 5년(1039) 봄 정월 신축일에 우사(雨師-비를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48 ○ 2월 초하루 임술일에 전중감 이성공을 거란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49 ○ 정묘일에 호부량중 유선(虞先)을 거란에 파견하여 우리 나라를 돌보아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 50 겸하여 압록강 동쪽에 증축한 성보(城堡)를 철거하

- 라고 요구하였다.
- 51 ○ 3월 신축일에 동북로 병마사가 여진 제번(諸蕃)의 자제 60명이 예를 갖추어 내조하기를 요구한다고 보고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52 ○ 여름 4월 초하루 신유일에 유선(虞先)이 거란으로부터 돌아왔는데, 그 편에 부쳐 온 조서에,
- 53 "통고한 바에 의하여 압록강 동쪽에 구축한 성벽이 백성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듯 하다는 내용을 잘 알았다.
- 54 그런데 그 성벽으로 말하면 우리 선대로부터 대개 변경을 방지하려는 보통 조치인 것이니,
- 55 귀국의 영토에 어떠한 손해가 있겠는가? 나는 종래의 규례를 지키기에 힘 쓰는 만큼 당장 고치기는 어렵다.
- 56 일찍이 귀국의 선대 임금 흠(欽)이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 요구하다가 결국 조공을 끊게 되었던 것이다.
- 57 백성은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경동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 58 거란에서 보내온 관고의 내용에 "현토(玄菟) 지역을 완전히 맡기니, 식읍을 넉넉히 주어 당신의 충성을 권장하는 바이다.
- 59 당신을 개부의동삼사, 수태보 겸 시중, 상주국, 고려 국왕, 식읍 7천 호, 식실봉 1천 호로 책봉하고 겸하여 수충 보의 봉국 여섯 자로 된 공신 칭호를 준다." 하였다.
- 60 ○ 5월 경자일에 일본인 남녀 26명이 귀순하여 왔다.
- 61 ○ 가을 7월에 거란에서 소부감 진매(陳邁)를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고 우산기상시 임유간을 거란에 파견하여 왕을 책봉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 62 ○ 8월 초하루 경신일에 송나라 상인 유적 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3 ○ 12월 초하루에 왕이 명령하였다. "지금 대한 절후가 되어 풍설이 몹시 차다.
- 64 생각하건대 이러한 때에 빈궁한 자들은 틀림없이 헐벗고 굶주릴 것이니,
- 65 외국에서 귀화한 사람들과 여진으로부터 잡혀 와서 자기 고향을 떠난 남녀 80여 명에게 해당 기관에서는 늙은이와 어린것들을 참작하여 솜과 천을 주라"
- 30 ○ 경진 6년(1040) 봄 정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요어 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 ○ 임신일에 우산기상시 진현석을 거란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3 ○ 병자일에 안산군 대군 김씨가 그 아들 이공협이 부모에게 불효하다는 것을 보고하여 왔으므로 그를 시장에서 처단하였다.
- 4 ○ 경진일에 동여진의 유원장군 파갈 등 40명이 와서

39 고려사상

- 준마를 바쳤고, 갑신일에 서북 여진의 귀덕장군 고두(高鬮) 등 46명이 와서 말과 토산물을 바쳤다.
- 5 ○ 2월 경인일에 승평문 행랑채 수백 간에 화재가 일어나서 여사대 청사까지 연소되었다.
- 6 ○ 무신일에 동여진의 회화장군 유도 등 48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7 ○ 임자일에 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도량형기를 제정하게 하였다.
- 8 ○ 갑인일에 여비 한씨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다음날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였다.
- 9 ○ 3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아골 등 33명이 와서 말 15필을 바쳤고,
- 10 임술일에 서북 여진의 영새장군 임보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갑술일에 서북 여진의 추장 고사문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1 ○ 여름 4월 병술일에 거란의 동경 주민들인 무리로, 오지갈 등 20여 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에게 물자와 토지, 주택을 주어 영남 지방에 거주케 하였다.
- 12 ○ 신축일에 거란의 횡선사 진주 방어서 마세장 등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3 ○ 임자일에 동여진의 추장 오타를 도령장군으로 임명하고,
- 14 ○ 갑인일에 서북 여진의 봉국장군 아이화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5 ○ 5월 초하루 을묘일에 비악(比岳)에서 비를 빌었고 신유일에 회경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비를 빌어 임술일부터 큰 비가 내려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 16 ○ 6월 을사일에 상서우승 유백인을 사은사로 거란에 파견하였다.
- 17 ○ 동여진의 영새장군 모이라 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8 ○ 계축일에 북쪽 변방의 해족(奚族) 적을구 등이 귀순하여 왔다.
- 19 ○ 거란에서 하주 관찰사 조인안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0 ○ 8월 을유일에 공부시랑 유창을 거란에 파견하여 황태후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1 ○ 계사일에 동여진의 고도달 등 5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22 ○ 9월 을묘일에 서북 여진의 장군 야반 등이 와서 준마 13필을 바쳤다.
- 23 ○ 9월 임신일에 북여진의 장군 이우화골보가 귀순하여 왔다. 그에게 토지와 주택을 주어 경기 지방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 24 ○ 겨울 10월 갑신일에 서북 여진의 잉화로 등 13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과호(課戶)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 25 ○ 을유일에 서북 여진의 정조 부거 등 1백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6 ○ 경인일에 지중추원사 김원충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다.
- 27 ○ 계묘일에 동여진의 장군 사이라와 서북 여진의 장군 동화로 등이 각각 2백여 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8 ○ 11월 병인일에 대식국(大食國)의 뜨내기 상인 보나개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 29 왕이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객관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 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히 주라고 하였다.
- 30 ○ 신미일에 공부시랑 이인정을 거란에 파견하여 영수절을 축하하고 겸하여 신년 인사를 치르게 하였다.
- 31 ○ 12월 정유일에 동여진의 원운 아두간 등 50명이 와서 말 35필을 바쳤고 거란의 동경 주민 20여 호가 귀순하여 왔다.
- 32 ○ 신사 7년(1041) 봄 정월 병진일에 서여진의 대승(大丞) 고지지(高智智) 등 15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33 ○ 2월 초하루 경진일에 공부시랑 송약산 동서 기슭에 소나무를 심어 궁궐을 장엄하게 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4 ○ 임신일에 서여진의 봉국장군 이우대 등 18명이 와서 명마(名馬)를 바쳤고,
- 35 ○ 3월 초하루 경술일에 동여진의 중윤(中尹) 야사로 등이 내조하였으며,
- 36 ○ 여름 4월 기묘일에 동여진의 추장인 대상(大相) 이개 등이 내조하였다.
- 37 ○ 계사일에 장경 도량을 회경전에 설치하였다. 원래 장경 도량은 매년 춘추로 두 차례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바 봄에는 6일이요 가을에는 7일이었다.
- 38 ○ 5월에 왕이 을묘일에는 현릉을 참배하고, 병진일에는 선릉을 참배한 후에
- 39 명령을 내리길 "태조께서 3국을 통일하던 당시에 시종한 관료의 자손들로서 평민으로 전락하여 벼슬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 40 담당 관리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문무 재예(才藝)를 시험쳐서 모두 벼슬을 하게 하라" 하였다.
- 41 이 날 상호군 흥빈, 윤수기 등과 대장군 위정, 김탁마, 석충, 양포질, 하흥휴, 지맹오, 김보, 한소보, 부창 등과 감찰어사 김경에게 각각 말 한 필씩 주었다.
- 42 ○ 경오일에 금강명경 도량을 문덕전에 설치하여 비를 빌었다. 올해일에 비가 내렸다.
- 43 ○ 6월 을유일에 동여진의 정보, 오부 등 26명이 내조하였고, 7월 기미일에 서여진의 귀덕장군 소지라 등이 내조하였다.
- 44 ○ 신유일에 거란에서 위위소경 경치군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고, 8월 을미일에 동여진의 유원장군 파을달 등 50명이 내조하였다.

- 45 ○ 이 달에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30척 가량이나 되었고 20여 일을 지나서야 없어졌다.
 - 46 ○ 9월 정미일에 상서 병부에서 아뢰기를 "선군별감에서는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7품 이상의 문무 관리의 자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군대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 47 이것은 비록 '평안 무사한 때라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 48 이들은 모두 여러 왕대에 공훈을 세운 신하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대로부터 병역을 지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 49 더군다나 갑자, 병자 년간에 이에 대한 금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 50 오늘 선군별감에서 취하는 조치는 비단 선대의 공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옛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되오니,
 - 51 청컨대 그들을 군사 대오에 보충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2 ○ 길이가 30척쯤 되는 혜성이 10여 일에 걸쳐 동쪽에 나타났다.
 - 53 신사일에 왕이 대동강에 이르니, 서경 유수사 참지정사 황보영이 강가에 나와서 영접하였다.
 - 54 왕이 용선(龍船)에서 대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고, 장군 승개 등에게 활을 쏘라고 명령하였다.
 - 55 이 때에 우습유 김상빈이 왕에게 간하매 이를 중지하고 선원관으로 들어갔다.
 - 56 ○ 11월 기미일에 송나라 상인 왕락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동여진의 유원장군 사이라와 영새장군 아어개 등 62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57 ○ 12월 신사일에 왕이 동지(東池) 구형각에서 사격을 사열하였다.
 - 58 ○ 임오일에 동여진의 봉국장군 아가주 등 5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1** ○ 임오 8년(1042) 정월 기유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곤두 등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2 ○ 경신일에 서북로 병마사가 압록강 이동에서부터 청새진(淸塞鎭)에 이르기까지의 여진인 호수를 조사하여 보고하였고,
 - 3 ○ 기사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아도간 등 4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4 ○ 2월 무인일에 동여진의 유원장군 고지문 등 3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관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 ○ 무자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 6 ○ 병신일에 서여진의 추장 고지지 등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7 ○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고지지 등은 지난 연간 평로(平虜), 영원(寧遠) 두 성을 개척할 때에 자못 공

- 로가 있었사오니, 그들에게 예물을 후히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8 ○ 기해일에 동경 부유수 최호, 판관 나지열, 사록 윤령과 장서기 정공간 등이 왕의 명령으로 전한서, 후한서 및 당서를 새로 인간하여 바쳤다. 그들에게 다 벼슬을 주었다.
- 9 ○ 3월 을사일에 내사문하에서 아뢰기를, 어전에서 조화를 받을 때에 배관들로 하여금 제각기 자기 의견을 말하도록 하자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0 ○ 병진일에 서북 여진의 영새장군 아어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갑자일에 장군 니우불 등 4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1 ○ 임인일에 동여진의 대상 오어달이 밭갈이소(耕牛)를 요청하여 왔으므로 동로 둔전사에 있는 소 10두를 주었다.
- 12 ○ 6월 정축일에 명령을 내렸다. "농사가 한창인 이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해당 관원은 한재를 적게 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자세히 보고하라" 하고, 경진일에 종묘와 영산 대전에서 비를 빌었다.
- 13 ○ 병술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동로 열산현 영파 요새지의 대정 간홍이 적과의 싸움에서 군대의 수가 적은 데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하여 적에게 희생되었사오니 그에게 벼슬과 상을 추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4 ○ 동여진의 귀덕장군 야이불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15 ○ 7월 을묘일에 거란에서 이부량중 품립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6 ○ 8월 경진일에 동여진의 유원장군 사이라 등 6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17 9월 정사일에 동여진의 귀덕장군 아개 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18 을축일에 서북 여진의 유원장군 고두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9 ○ 11월 신묘일에 거란에서 왕영언에게 주어 보낸 조서에 "관남의 10현은 우리나라의 옛땅이므로,
- 20 장차 군사를 동원하여 그 지역을 회복하려 하였더니, 송나라에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 정잖은 말로 간곡하게 말리기에,
- 21 종전의 공물로 받던 은 30만 냥과 견직 30만 필 이외에 매년 금과 비단 같은 폐백을 바치게 하고,
- 22 다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원히 화목하게 지내려 하며,
- 23 여러 지방에서 온 병마사들에게 물자를 넉넉히 주고 부역과 조세를 감면하여 모두 본부로 돌려 보냈으니,
- 24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룩하였던가.
- 25 이제 문무 백관 및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가하였으니 이는 옛제도에 근거한 것이었다.
- 26 그리고 나를 으뜸가는 공로와 큰 도락이 있다하여

41 고려사상

- 나에게 아름다운 칭호와 명예를 주려고 한다.
- 27 곧이 사랑하다 못해서 부득이 여러 신하들의 요청으로 11월 3일에 우리 부부에게 큰 의례를 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8 귀국은 우리 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 말을 들으면 반드시 경사롭게 생각할 것이다.
- 29 이제 예부상서 왕영언을 귀국에 파견하여 조서로써 이 뜻을 알리는 바이다" 하였다.
- 30 ○ 정유일에 동여진의 영세장군 동불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 31 ○ 계미 9년(1043) 봄 정월에 서여진의 귀덕장군 골개 등 3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2 ○ 3월 병자일에 서여진의 추장 고두로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3 ○ 기축일에 회경전에 백좌 도량을 배설하고 중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34 ○ 임진일에 동여진의 장군 개로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5 ○ 여름 4월 무술일에 동북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여진의 유원장군 사이라가 해상과 육지로 침입한 적의 두목 나불 등 4백 94명을 화주관까지 유도하여 와서 정부에 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였다.
- 36 이에 대하여 관리들이 말하기를 "이 무리들은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의 심보를 가졌사오니,
- 37 병마사로 하여금 그 인원 수를 적당히 줄이고 여러 차례로 갈라서 들어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8 ○ 임인일에 명령을 내렸다. "적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금년 농사일이 근심된다. 아마도 이것은 형벌을 옳게 처리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있기 때문인 듯 하다.
- 39 해당 관원은 유형 이하 죄수들을 심사하여 전부 석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 40 ○ 계묘일에 동여진의 장군 이다불 등이 내조하였다.
- 41 5월 초하루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 날 명령을 내렸다. "내가 어질지 못하여 이러한 가뭄을 초래하였고 재변이 거듭되는 것이다.
- 42 상식국(尙食局)으로 하여금 매 사냥을 해산하는 동시에 밭을 막고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
- 43 ○ 갑술일에 대사령을 내렸고 무인일에 왕이 정전에서 피해 앞으로 기묘일에 비가 내려 백관들이 건덕전에 이르러 왕에게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 44 ○ 6월 정사일에 동여진의 추장 유불달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45 동북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연해 지방의 분도판관 황보경이 단독으로 전항을 영솔하고 대양 깊이까지 진출하여,
- 46 해적을 쳐서 수다한 적들을 살상 포로하였사오니 그에게 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7 ○ 가을 7월 정묘일에 거란에서 시어사 요거선을 파견하며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고, 정축일에 동여진의 추장 아두간 등 66명이 내조하였다.
- 48 ○ 8월 기미일에 중앙과 지방의 사형수들을 처결하였고, 왕이 정전에서 피해 앉아 일상 식사의 반찬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였으며,
- 49 ○ 9월 임신일에 왕이 구정(毬庭)에서 친히 기도를 올렸다.
- 50 ○ 정축일에 해당 관리가 아뢰기를 "중광사 성조도 감사 정장이 사서 승적과 함께 자기들이 관리하는 물자를 절취하였사오니, 법에 준하여 장형을 가한 다음 귀양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니
- 51 왕이 경한 형벌을 적용하라고 명령하였다.
- 52 이에 대하여 어사대에서 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엄격히 처리할 것을 제기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53 ○ 경진일에 동여진의 영세장군 동불로와 유원장군 사이라 등이 여진의 화외인(化外人) 80명을 데리고 내조하여,
- 54 왕에게 아뢰기를 "이 화외인들이 과거에는 함부로 불순한 생각을 품고 변강을 침범한 적이 있었는데,
- 55 두터운 배려를 받게 된 뒤로부터는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개준하였으며 지금 해상과 육지에 있는 적의 두목을 데리고 와서 성의를 표하고,
- 56 변방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금후로는 항상에 인접해 있는 적의 동정을 살펴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였다.
- 57 왕이 이들을 기특하게 여겨 특별히 금과 비단을 일반 규례 이상으로 주었다.
- 58 ○ 겨울 10월 임인일에 동여진의 영세장군 야사개 등 8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9 ○ 11월 무인일에 동경의 회례사 장창령이 우리 나라에 왔다.
- 60 ○ 신사일에 거란에서 책봉사 소신미, 동 부사 한소문, 도부서 이천 관내 관찰유후 유일행, 압책사 전충강 마지유, 독책 장작소감 서화흥, 전선 경교 산기상시 한이손 등 1백 33명을 파견하였다.
- 61 ○ 거란에서 온 책문에 "(생략) 수총 보의 봉국 공신, 개부의동상사, 수태보 겸 시중, 상주국, 고려국왕, 식읍 7천 호, 식실봉 1천 호 왕형은 세상에 드문 영걸이요 인자한 가풍을 이었도다.
- 62 자기의 영토를 확장하여 동방을 굳건히 지켜며 우리 나라를 받들어 성의를 보이고 있다.
- 63 번국으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왕실을 보좌한 공훈이 있으며 당신의 덕화는 동방에 덮이어 명성이 자자하다. (생략)
- 64 신임장을 주어 보내, 수 태부 겸 중서령으로 책봉하고, 식읍 3천호와 식실봉 3백호를 더 주며, 겸하여 동덕치리(同德致理) 네 글자의 공신 칭호를 수여하

- 고 기타 관직과 훈호들은 종전 대로 둔다.
- 65 군자지국(君子之國)을 지켜 다른 제후왕의 으름으로 되어 있다. (생략) 당신의 업적이 청사에 길이 빛날 지니 항상 조심할지라도." 하였다.
 - 66 ○ 병인일에 동번(東蕃)의 적들이 8척의 선박으로 서곡현에 침입하여 40여 명의 주인을 납치하여 갔다. 변방 수비를 엄밀하게 하지 못하였다하여 그 고을 장병들에게 죄를 주었다.
 - 67 ○ 12월 경신일에 탐라국의 성주인 유격장군 가리가 아뢰기를 "왕자 두라근인이 죽었는데 단 하루라도 후계자의 자리를 비울 수 없사오니 호잉으로 왕자를 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 32** ○ 갑신 10년 (1044) 여름 4월에 동여진 사 람 1천 45명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맹약을 청하였다. 그들에게 각각 의복과 은그릇을 주었다.
- 2 ○ 5월 정묘일에 동여진의 장군 구라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 ○ 가을 7월 계유일에 거란에서 유충정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 우복야 이괴와 상사봉어 최희정 등을 거란에 파견하여 왕을 책봉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 5 ○ 8월에 동여진의 장군 아도한 등 4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6 9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장군 사이라 등 6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7 계해일에 동여진의 장군 포기 등 59명과 서여진의 대 장군 고두로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8 정묘일에 동여진의 장군 구니도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9 ○ 겨울 11월 을해일에 병마사 김영기가 아뢰기를 " 금번에 장주(長州), 정주(定州) 두 고을과 원흥진(元興鎭)성들을 아주 짧은 기간에 구축하여 공로를 세운 자가 매우 많습니다.
 - 10 이 역사를 감독한 주진 관리들 중에서 1과 7품 이상은 정직 한 급씩 올리고, 그 부모에게도 관직을 주며, 8품 이하는 정직 한 급씩 올리고 그에 따르는 품계를 주며, 2과(二科)는 정직 한 급씩 올리는 동시에 품계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 11 또한 이 세 성은 원래에 적의 소굴로 되어 있어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곳인데,
 - 12 병마사에 속한 군사들이 각각 요충을 지키면서 해전과 육전으로 적을 방어하여 적들로 하여금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13 그 군사들 중에서 1과의 별장 이상은 정직 한 급씩 올리고 그 부모에게 관직을 주며,
 - 14 대정(隊正) 이상은 정직 한 급씩 올리는 동시에 향직(鄉職)을 주고,
 - 15 군인은 향직 한 급씩 올려 주며 2과의 대정 이상과

- 선장(船長)에게는 정직 및 향직 한 급씩 올려주고,
- 16 일반 군인과 뱃사공 및 수수(水手)들에게는 향직을 주는 동시에 물품을 차등 있게 주어야 하였습니다.
 - 17 그리고 성을 쌓을 때에 적과 싸워서 공을 세운 자들도 있습니다.
 - 18 1과의 병부상서 고렬 등 10명과 또 1과의 소부감 유교 등 5명과 2과의 대악승(大樂丞) 정패 등에게도 표창을 가함으로써 후인들을 권장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19 ○ 계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오을달 등 남녀 1백 44 명이 와서 준마를 바치면서,
 - 20 왕에게 아뢰기를 "저희들은 귀국의 경계 지대에 살면서 왕의 덕화를 입어 신하로 섬겨온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 21 매양 추악한 적들의 침습을 받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는데 이 번에 세 성을 구축하여 적의 통로를 막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였다. 왕이 그들을 우대하여 돌려 보냈다.
 - 22 ○ 을유 11년(1045) 봄 정월에 동북 교외에서 풍사(風師-바람을 맡은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23 동여진의 귀덕장군 아두주 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4 ○ 2월 초하루에 임진(臨津)에 있는 과교원(課橋院)을 자제사(慈濟寺)로 명명하였다.
 - 25 이에 앞서 이 나루에는 배도 다리도 없어서 행인들이 앞을 다투어 건너다가 흔히 물에 빠지곤 하였는데
 - 26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부교(浮橋)를 놓게 하였다. 이 때로부터는 사람과 마필들이 평지처럼 왕래하게 되었다.
 - 27 ○ 갑오일에 동여진의 유원장군 파을달 등 65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고 3월 기사일에 동여진의 회원장군 영한 등 75명이 내조하였다.
 - 28 ○ 여름 4월 무술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사어두 등 35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고, 기해일에 동여진의 장군 요어나 등 70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으며, 경자일에 영새장군 고도화 등 7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9 ○ 병오일에 서북로 병마판관 감찰어사 이춘이 아뢰기를 "번적(蕃賊) 백여 명이 영원진 장평 요새지에 침입하여 군사 30여 명을 납치하여 갔사오니, 그곳 장수들의 방비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0 ○ 무신일에 서남 교외에서 뇌사(雷師)에게 제사를 지냈다.
 - 31 ○ 기유일에 비서성(秘書省)에서 새로 간행한 예기정의(禮記正義) 70질과 모시정의(毛詩正義) 40질을 바쳤다.
 - 32 왕이 어서각에 한 질씩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43 고려사상

- 33 ○ 5월 경신일에 소서(小署)가 닥쳐온다 하여 종죄수들은 관대하게 취급하여 밥 분량을 증가하고 경죄수들은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 34 ○ 병인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상인 임희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5 동로(東路) 군사로서 번적(蕃賊)과 싸워 승리를 쟁취한 자들에게 각각 궁중에 소속된 말을 주었다.
- 36 윤달 신축일에 장마가 오래 계속되므로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경죄수들은 석방하였다.
- 37 ○ 6월 기묘일에 거란의 횡선사 아물선이 우리 나라에 왔다.
- 38 ○ 경진일에 영성(零星)에 제사를 지냈다.
- 39 ○ 7월 정유일에 거란에서 고구기를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0 ○ 9월 경인일에 동여진의 장군 고지문 등 45명이 내조하였다.
- 41 ○ 11월 경인일에 날씨가 몹시 춥다 하여 경죄수들을 석방하고 그리 급하지 않은 공사는 중지하였다.
- 42 ○ 동여진의 고차 등 3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3 ○ 병술 12년(1046) 봄 2월에 연등회를 열고 신하들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임신일에 마조(馬祖)에게 제사를 지냈다.
- 44 ○ 3월 초하루 신사일에 일식이 있었다. 왕이 정전에서 피해 앓고 흰 난삼(襦衫)을 입음으로써 태양을 구원(救)하는 뜻을 표하였다.
- 45 ○ 신축일에 왕이 시중 최제안으로 하여금 구정(毬庭)에 가서 분향을 하고, 가구경행을 배송(拜送)케 하였다.
- 46 대체로 서울 거리를 세 길로 나누어 각각 채색 들것에 반야경을 담아서 메고 앞서 나가면, 종들은 법복을 차려 입고 따라 가면서 불경을 외우며, 감암관도 관복을 입고 보행으로 그 뒤를 따라 시가지를 순회한다.
- 47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행복을 축원하는 행사로서 경행(經行)이라고 하였다. 이 해부터 이것이 상례로 되었다.
- 48 ○ 여름 4월 신해일에 중농(仲農)에 제사를 지냈다.
- 49 ○ 정묘일에 왕이 편치 못하여 산호전으로 옮겨갔다. 정축일에는 대궐 안에 있는 법운사로 옮겨갔다. 병술일에는 불사에서 백관들이 왕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였다.
- 50 ○ 5월 을미일에 이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위위경지 태사국사 서옹이 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한 지 이미 1백 80여 일이나 되었습니다.
- 51 국법에는 대개 현직 관리로서 휴가를 받은 후 백일이 차면 퇴직시키기로 되어 있으나 서옹의 관직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52 이에 대하여 왕이 명령하길 "서옹은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일관(日官)의 책임자로 되었으니 특별히 그

- 에게는 2백일의 휴가를 주라" 하였다.
- 53 ○ 정유일에 왕의 병이 위중하여졌다. 왕의 아우 낙량군 휘를 병석으로 불러서 임시로 국사를 맡아보게 하고,
- 54 조서를 내리길 "내가 돌아가신 임금의 유명으로 여러 왕대의 위업을 이은 지가 열 두 해나 되었다.
- 55 이 12년 동안에 천행으로 나라가 잘 다스렸는데, 내가 봄, 여름 이래로 노심하던 끝에 병을 얻어 약을 써도 효능이 없고 필경은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 56 이제 나라의 중책을 덕행 있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생각한다. 내사령으로 있는 낙량군 휘는 나의 사랑하는 아우로서,
- 57 사람이 여질고 효성이 있으며 공순하고 검박하여 그의 명성이 인방에까지 알려지고 있으니 왕위를 그에게 줌으로써 우리 나라를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58 이날에 왕이 죽었다. 향년은 33세요 재위 연수는 12년이었다. 영구를 선덕전으로 옮겼다.
- 59 ○ 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부모에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며 식견과 도량이 크고도 넓으며 영용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사소한 절차에 구애되는 일이 없었다.
- 60 관리들이 왕의 유명을 받들어 능침(陵寢) 제도를 모두 검박하게 하였다.
- 61 ○ 이제현의 평에 이르길, 거란은 탐욕스럽고 사나워서 서로 신의를 맺을 나위가 없으므로,
- 62 태조가 이것을 깊이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거란이 발해에 대하여 배신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써 국교를 단절하였으니 역시 잘 한 일은 아니었다.
- 63 현종은 국사를 바로 잡기에 급급하여 외교에 여념이 없었고, 덕종은 나이 아직 어렸으니 전쟁을 조심해야 되었을 것이다.
- 64 그런데 왕가도가 거란과의 화친을 끝자고 주장하였으니, 이것은 그들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백성을 휴식시키자는 황보 유의의 의견만 못하였다.
- 65 정종은 왕위에 오르지 2년에 우리측 대부 최연가가 거란에 편견되었고 동 4년에 거란측 사신 마보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66 이 때로부터 옛날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그들을 감동시켰으며 이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묘한 책략이 있었던 것이다.
- 67 이에 대하여 입론하는 사람은 정종이 선대 임금의 유업을 계승하여 국가를 보전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33 ○ 문종 대왕의 이름은 휘요, 현종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원혜 태후 김씨다.
 2 그는 현종 10년 기미 12월 계미일에 출생하였으며 동 13년에 낙량군으로 책봉되었고 정종 3년에는 내

- 사령으로 되었다.
- 3 동 12년 5월 정유일에 정종이 죽으매 영구 앞에서 왕위에 올랐다. 문무 백관이 국새를 받들고 종광전으로 가서 축하 의식을 거행하였다.
 - 4 ○ 기해일에 명령하기를 "돌아가신 임금의 사용하던 용상(倚床)과 발돋움(踏斗)은 전부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 5 이불과 요는 금은 실로 짠 계금(麗錦)으로 만들었으니 담당 관리로 하여금 그것을 동, 철과 능직, 견직으로 고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6 ○ 경자일에 왕이 백관을 인솔하고 빈전에 이르러 설게 올랐다.
 - 7 ○ 6월 갑인일에 상서 공부 낭중 최원준을 거란에 파견하여 국상을 알리었다.
 - 8 ○ 7월 신사일의 명령에 "팔음도(八音島) 수군 은질(殷質)과 양도(壤島) 수군들인 광협, 관달, 영갈 등은 적을 생포한 공로가 있으니 그들에게 중운 벼슬을 주라" 하였다.
 - 9 ○ 무술일의 명령에 "전번에 동번(東蕃) 적들이 우리의 정변진(靜邊鎭)을 포위하였을 때에,
 - 10 별장 정광순이 힘껏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희생되었다. 그에게 금오위 낭장 벼슬을 증직할 것이다."
 - 10 ○ 8월 경신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고 선정전에 가서 시종 최제안과 평장사 최충 등을 불러 당면 정책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였다.
 - 11 ○ 9월 정유일에 임진현 사람 배행이 왕명을 위조하여 조경 등 7명에게 관직을 주었다.
 - 12 국법으로는 마땅히 교형에 처할 것이나 마침 대사령이 내린 때이므로 관직만 파면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 13 ○ 기해일에 왕이 구정(稔庭)에서 80세 이상 관원들과 평민 남녀들 중 효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 한과고독(鰥寡孤獨), 폐질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14 ○ 겨울 10월 계축일에 해당 관리가 왕에게 아뢰어 궁전, 성문, 사원, 관명, 부호(府號) 들 중에서 왕의 이름과 같은 음(音)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일체 개명하자고 하였다.
 - 15 ○ 11월 무자일에 시종 최제안이 죽었다.
 - 16 ○ 경인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에 갔다.
 - 17 ○ 12월 초하루에 문무 백관들이 건덕전에 이르러 성평절을 축하하였다. 왕은 재상들과 급사중승 이상 측근들을 위하여 선정전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 18 ○ 성평절이란 왕의 생일로서 매년 이날이 되면 국가에서는 7일간이나 계속하여 기상영복 도량을 외제 석원에 설치하고
 - 19 문무 백관들은 흥국사에서, 동경, 서경 및 4도호 8목들에서는 각각 소재지의 절간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였는바 이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 20 ○ 임술일에 거란에서 기거사인 주종백을 시켜 부의를 보내왔다.
 - 21 ○ 정해 원년(1047) 봄 정월에 명령하길, "지난 갑신년에 동북 지방에 적이 침입하였을 때, 군인 이성한 등 40명이 선봉으로 되어 승리를 쟁취하였으니 그들에게 각각 상품과 벼슬을 차등 있게 주라"
 - 22 ○ 정해일에 명령하길 "이전 종추원사 임유간은 국사에 충성을 다하여 그 업적이 실로 많았으니 특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의 아들 양개에게 8품 관직을 주라"
 - 23 ○ 정유일의 명령에 "여러 주, 군, 현들에서 매년 윤경회를 성대하게 가지는데,
 - 24 지방 아전들이 이것을 방자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굶어모음으로써 괴로운 폐단을 끼칠 염려가 있다.
 - 25 금후로는 취포하도록 먹거나 오락에 빠지는 일을 이를 일체 금지하라" 하였다.
 - 26 ○ 2월 초하루에 서북로 병마사 양대춘이 왕에게 아뢰기를 "저의 관하 연주 방어사 밑에 있는 우두머리 아전과 군인, 평민 등 8백여 명의 보고에 의하면,
 - 27 방어부사 소현은 부임한 이래로 농업과 잡업을 장려하고 백성들을 돌보아 주며 현저한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를 나라에 주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니,
 - 28 왕이 상서 이부에 명령하여 규정에 따라 적당히 등용하게 하였다.
 - 29 ○ 기미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그 이튿날 종친과 근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 30 ○ 임술일에 거란에서 소신미와 강화성 등을 파견하여 정종의 우궁(虞宮)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왕이 이에 참석하였다.
 - 31 정묘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동번(東蕃)의 추장 아도간이 귀순한 이후 오랫동안 두터운 혜택을 받아 왔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거란에 투항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막대합니다.
 - 32 그 일당의 우두머리인 고지문 등이 현재 동번 지역에 머물러 있사오니 비밀리에 군사를 파견하여 그를 체포하여
 - 33 궐 내로 잡아다가 이유를 심문한 후 법에 준하여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4 ○ 3월 초하루 을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여사대에서 아뢰기를 "춘관정 유평과 태사승 유득소 등이 천문을 옳게 관찰하지 못하여 일식이 있을 것을 미리 주달하지 않았사오니,
 - 35 그들의 관직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36 여사대에서 다시 논박하기를 "일식, 월식이란 음양 원리에 일정한 도수가 있어서 역산(曆算)에 틀림이 없으면 그 변화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 37 그런데 담당 관리는 책임자가 아니므로 그 직책을

45 고려사상

- 총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험사리 관대 정책을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 38 청컨대 이미 주달한 바에 의하여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9 ○ 계미일에 왕이 친히 건덕전에 가서 반야 도량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5일간이나 계속되었다.
- 40 ○ 병술일에 동여진의 봉국 장군 사이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에게 귀덕 대장군 벼슬을 더 주었다.
- 41 ○ 신묘일에 문하시랑평장사 황보영이 왕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자식이 없사오니 외손 김녹송을 양자로 삼게 하여 주소서" 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고 녹송에게 9품 관직을 주었다.
- 42 ○ 무술일에 동여진의 장군 야어해 등 6명이 각각 자기 부하를 인솔하고 국경을 넘어 귀순하였다. 그들에게 토지와 주택을 주어 내지에서 살게 하였다.
- 43 ○ 여름 4월 병오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은 다음 다시 선정전으로 가서 재상들과 어사대관원들을 불러 당면 정책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였다.
- 44 ○ 계해일에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여 왕이 정전에서 피해 앉아 보통 조회를 정지하며 가축 도살을 금지하고 반찬은 다만 건포와 젓에 한하게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죄수들을 재심사하게 하였다.
- 45 ○ 계유일에 동여진의 아가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에게 평원 대장군 벼슬을 주었다.
- 46 ○ 5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오어내가 내조하였다.
- 47 ○ 기묘일에 큰비가 내렸다. 을미일에 문해성에서 시기 적절한 비가 흠축하게 내렸으니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종전대로 회복할 것을 왕에게 제기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 48 ○ 무술일에 동여진의 대상 오불차가 내조하였다.
- 49 ○ 6월 무신일에 명령을 내렸다. "법률이란 형벌을 판단하는 규정이다.
- 50 그것이 분명하면 형벌에 억울하고 지나친 것이 없을 것이요, 분명치 못하면 죄상에 대한 경중이 옳게 처리될 수 없을 것이다.
- 51 현행 법률에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내 이를 못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다.
- 52 시중 최종으로 하여금 여러 법관들을 모아 상세한 교정을 거듭하되 되도록 타당하게 할 것이며 서산업(書算業)에 대해서도 역시 고증 시정하게 하라"
- 53 ○ 정사일에 왕이 문덕전에서 최종 등을 불러 보고 그들에게 군사, 정치 등 모든 문제를 물었다.
- 54 ○ 경신일에 동여진의 영새 장군 노도와 귀덕 장군 야사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회화 장군 벼슬을 주었고,
- 55 ○ 을축일에 거란 사람 고무지 등이 귀순하여 왔으며 경오일에 동여진의 사이불 등이 내조하였다.
- 56 ○ 7월 경진일에 명령을 내렸다. "수 사도 좌복야 장극맹은 오래 전부터 변방 수비에 공로를 세웠으며 국사에 전념하여 집일을 돌아보지 않으니,
- 57 그에게 특전을 베풀어 나의 두터운 사랑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자손은 상례에 의하여 음관으로 추천하는 이외에 아들 한 명에게 특별히 벼슬을 주게 하라"
- 58 ○ 장연현(長淵縣) 백성 문한이 신이 들렸다고 허튼 말을 하면서 광승을 부려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또 친누이동생과 어린아이 등 4명을 죽였으므로 그를 시장에서 처단하였다.
- 59 ○ 상서 형부에서 아뢰기를 "장연 현령인 최덕, 원위, 최송망 등이 모두 선정으로 백성들을 교양하지 못하여,
- 60 오늘과 같은 불상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 조차 제때에 하지 않았사오니 그들의 관직을 파면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61 ○ 8월 무신일에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이희로와 홍덕위를 감찰 어사로 임명한 바 있사오니,
- 62 이희로는 성품이 조급하여 안팎 관직을 역임하면서 아무런 업적도 없었고
- 63 홍덕위는 정종의 국복(國服)을 채 마치기도 전에 금년 연등날 저녁에 위위주부 서경의와 함께 술을 마시고 풍악을 잡혀 제 마음껏 즐기으로써 신하의 도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사오니,
- 64 그들은 다 풍헌(風憲)에 적임이 못됩니다. 청컨대 그들을 그 직에서 파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왕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65 어사대에서 바른 말로 재차 박절하게 아뢰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66 ○ 기사일에 몽라고촌, 양과지촌 등 30개 부락의 번장들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귀화하였다.
- 67 ○ 정축일에 송나라 상인 임기(林機)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8 ○ 10월 을사일에 동여진의 장군 고도달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정미일에 동여진 몽라등촌의 고무지 등 3백 12호가 귀화하여 왔다.
- 69 ○ 경신일에 진주 목사 사재경 최복규가 유리한 백성 1만 3천여 호를 불러들여 안착시키고 직업을 종전대로 가지게 하였다고 보고하니 왕이 가상히 여겨 그를 표창하였다.
- 70 11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장군 마지, 고사(高謝) 등 46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71 ○ 병신일에 상서 이부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 의하여 중앙과 지방 대소 관아의 인원을 1명씩 감원하고 오직 순변관사만은 종전대로 두었더니
- 72 오늘 형편을 보건대 패서(溟西), 산남(山南) 지방의 주목(州牧) 들에 사무는 바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들이 흔히 침체되어 불편하기가 짝이 없사오니,
- 73 악(岳) 목(牧) 주부의 관원 수를 전부 종전대로 두게

- 하여 고정한 제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74 ○ 12월 기유일에 연덕 궁비 이씨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휴(休)로 명명하였다.
- 75 ○ 경술일에 상서 이부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 제도에는 대체로 모든 관료들이 연로한 사유를 밝혀 퇴직할 것을 요청하지 않은 자는 연령이 69세가 되면 으레 그해 연말에 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76 그런데 지금 다방(茶房)의 태의소감 김정악은 퇴직할 연령이 되었사오니 해임시켜야 하겠습니다" 하였
- 다.
- 77 이에 대하여 왕이 명령하기를 "정악은 고명한 의원으로서 근시 직책에 있으니 앞으로 수년 동안 더 복무하도록 하라" 하였다.
- 78 정사일에 동여진의 야고와 서여진의 고사(高舍) 등이 내조하였다.
- 34** ○ 무자 2년(1048) 봄 정월 을해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구라마리불 등 40명이 와서 명마(名馬)를 바쳤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2 ○ 윤 정월 초하루 경자일에 종묘에서 고석(告朔) 의식을 치르었다.
- 3 ○ 병오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사이라, 유원 장군 사시하 등 35명이 와서 토산 말을 바쳤고,
- 4 경술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도구라 등 38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5 신해일에 서여진의 영새 장군 고지지 등 2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 ○ 거란에서 천우위 대장군 왕택 등을 시켜 국서를 보내왔다.
- 7 ○ 3월 경자일에 여사대에서 아뢰기를 "전달에 내리신 명령에 '지금 파종이 시작되었는데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니 매우 걱정된다.
- 8 병술년에 대사령을 내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라고 한 조항 중에서,
- 9 응당 집행해야 될 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 10 저희들이 이미 교시대로 이를 집행하였사오나, 다만 대운(大雲), 대안(大安) 두 절간 건축 공사가 한창 벌어져서 청장년과 목수들이 폐농을 하고 있습니다.
- 11 한 사람의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반드시 굶주리는 자가 생기는 법인데 어찌 세 철의 농사 시기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 12 더군다나 대사령을 내리실 때에 일체 토목 공사를 3년 동안 정지하라고 하신 데 대하여 전국 백성들이 기뻐서 모두 성을 감사히 여겼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13 신(信)이란 나라의 큰 보배이니 신을 저버릴 수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원망이 여기서 생겼
- 라고 생각하오니,
- 14 바라옵건대 저 두 절간 공사를 농한기로 미루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5 ○ 신사일에 내전에 소재 도량을 설치하고,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며, 밀려온 조세를 탕감하였다.
- 16 ○ 갑인일에 연창 궁주 노씨가 죽었다.
- 17 ○ 여름 4월 경오일에 왕이 외제 석원에 가서 중이 현란(軒欄)에서 설경하는 것을 들었다.
- 18 전례에 임금이 산림(山林)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이 외제 석원에 머물러 종에게 명령하여 봉련(鳳鸞)의 현란에서 불경을 강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의식으로 되었던 것이다.
- 19 ○ 계미일에 중류제(中霽祭)를 지냈고 정해일에 후농(後農)에 제사를 지냈다.
- 20 ○ 동여진의 우두머리 오사 등 26명이 내조하였다.
- 21 ○ 9월 갑인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아두 등 36명이 내조하였다.
- 22 ○ 기미일에 거란에서 송록소경 형평년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고, 신유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체주 자사 고경선이 우리 나라에 왔다.
- 23 ○ 12월 초하루 을축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생신 축하를 받았다.
- 24 ○ 기축 3년(1049) 봄 정월에 동여진의 아골 등 32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25 ○ 3월 초하루 계사일에 동북로 감창사가 아뢰기를 "교주(交州) 방어판관 이유백은 성과 참호를 수선하고 병기들을 정비하여 여러 고을들 중에서 으뜸가는 업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 26 자기 관하인 연성, 장양(連城) 인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백은 부임 이래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을 돌보고 있다 하오니
- 27 비록 그의 임기가 차서 교체해야 할 때는 되었으나 그를 유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그 문제를 상서 이부에 회부하였다.
- 28 ○ 경자일에 80세 이상 국로(國老)들인 상서 우복야 최보성, 사재경 조옹, 태자첨사 이택성 등을 위하여 함문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생략)
- 29 왕이 친히 임석하여 술을 권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보성과 웅에게는 공복 한 벌, 복두 두 개, 노원다(腦原茶) 30각을 각각 주고
- 30 택성에게는 공복 한 벌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함문에서 말을 타고 정문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세 노인이 이를 굳이 사양하였다.
- 31 다음날에는 연로한 남녀 평민들과 의부(義夫), 절부, 효자, 순손(順孫), 환과고독, 폐질자들을 위하여 구정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32 ○ 을사일에 거란에서 일찍이 포로로 잡혀갔던 봉주

47 고려사상

- (鳳州) 출신 희달 등 30명을 돌려 보냈다.
- 33 ○ 갑인일에 동여진의 마리해 등 20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34 ○ 여름 4월 을축일에 서여진의 부거 등 20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고 정해일에 동여진의 봉국 장군 사이라 등 79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35 ○ 무자일에 평장사 김원충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다.
- 36 ○ 6월 무진일에 동번(東蕃) 해적들이 임도현에 침입하여 17명의 주인을 납치하여 갔다.
- 37 ○ 임신일에 동북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운양현(雲嶺縣)의 절충군 대정 유고 등 11명이 순찰 임무를 띠고 천정(泉井) 요새지까지 갔을 때에,
- 38 난대없는 번적(蕃賊) 40여 명이 주둔지에 돌입하였었는데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쳐서 피신을 하였으나,
- 39 오직 유고가 단신으로 뛰어나가서 낚다 친 결과 적들이 그만 패주하였사오니, 그의 공로를 평정하여 벼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 40 ○ 가을 7월 정유일에 동번(東蕃) 해적들이 금양현(金壤縣)에 침입하여 20명의 주인을 납치하여 갔다.
- 41 ○ 8월 기사일에 송나라 태주(台州) 상인 서찬 등 71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2 ○ 신사일에 송나라 천주(泉州) 상인 왕이중 등 62명이 와서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
- 43 ○ 9월 경자일에 연덕궁비가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증(蒸)으로 명명하였다.
- 44 ○ 11월 임인일에 탐라의 진위교위 부을잉 등 77명과 북여진의 우두머리 부거 등 2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5 ○ 무오일에 동남해 선병도부서사가 일본 대마도 관청으로부터 자기들의 우두머리 명임 등을 시켜 폭풍을 만나 표류해 갔던 우리 나라 사람 김호 등 20명을 데리고 금주(金州)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전례에 따라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6 ○ 12월 초하루 기미일에 거란에서 전중소감 마우를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5** ○ 경인 4년(1050) 정월에 동북면 도병마사 박성길이 아뢰기를 "작년 10월에 해적들이 진명포(鎭溟浦) 병선 두 척을 탈취하여 갈 때에,
- 2 병마녹사 문양렬이 즉시 원흥진 도부서 판관 송제한과 함께 병선을 몰고 적의 소굴까지 추격하여 가옥들을 소각해 버리고 20여 명의 목을 베어 왔사온바 그의 공로를 표창할 만합니다." 하였다.
- 3 ○ 병오일에 동북면 병마 녹사 위위 주부 박용재가 왕에게 작별을 고하니,
- 4 왕이 그에게 명령하기를 "번인(蕃人) 중에 내조하려는 자가 있더라도 적의 두목인 나불 이외에는 절대로

-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5 그것은 당시 서울 광인관에 3백 명의 번인을 억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6 ○ 3월 병오일에 동여진의 영새 장군 영한 등 12명과 유원 장군 아가주 등 30명과 중윤 인우현 등 4명과 장군 요라나 등 38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는데
- 7 그 중 회화 장군 아가주 등 6명은 표서피(豹鼠皮)를 진상하였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고,
- 8 영한 등 15명은 일찍이 변경을 침범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서울에 억류시키었다.
- 9 ○ 4월 계유일에 발해의 개호 등이 귀화하여 왔다.
- 10 ○ 계미일에 관리에게 명령하여 동여진의 대걸라니촌과 소걸라니촌의 경계를 조사 확정하여 적들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였다.
- 11 ○ 6월 무진일에 동번(東蕃) 해적이 열산현(烈山縣) 영파(寧波) 요새지에 침입하여 남녀 18명을 납치하여 갔다.
- 12 ○ 기묘일의 명령에 "동북 연해 지방의 성보에 있는 군인이나 평민들이 안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13 먼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수(元帥)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니 병부상서 양감을 금년 추동번 병마사로 임명하라"
- 14 ○ 가을 7월 초하루에 동번 적들이 파천현(派川縣)을 침략하였다.
- 15 ○ 경자일에 삼복 무렵에 일기가 덥다 하여 나성(羅城) 수축 공사를 정지하였다.
- 16 ○ 무신일에 동여진의 추장 골라개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는 한편 번인에게 납치되어 갔던 남녀 4명을 송환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주었다.
- 17 ○ 8월 신사일에 동여진의 아가주, 영한, 사이라 등이 번인에게 납치되어 갔던 우리의 정병진 부장 황보충과 대정 송영을 돌려 보냈다.
- 18 ○ 9월 정해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총융군 도지휘사 고장안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9 ○ 기해일에 동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해적이 열산현(烈山縣)을 침략하였을 때에,
- 20 병마 녹사 문양렬을 시켜 전향 23척으로 적을 추자도까지 따라가서 맹렬하게 쳐서 그들에게 큰 패배를 주었는바,
- 21 여기에서 9명의 목을 베었고 그 부락의 가옥 30여동을 불살랐으며 파손시킨 적의 전황이 8척이요 노획한 무기는 몇백 점이나 되었사오니 그들의 공로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22 ○ 겨울 11월 기유일에 진명(鎭溟) 도부서 부사 김경응이 수군을 인솔하고 열도(烈島)에서 해적선 3척을 쳐서 이를 패배시키고
- 23 수십 명의 목을 베어다 바쳤으며 물에 빠져 죽은 적도 매우 많았다. 왕이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공로를 평정하고 상을 주게 하였다.

- 24 ○ 윤 11월 임술일에 거란의 횡선사 광의군 절도사 소질이 우리 나라에 왔다.
- 25 ○ 신미일에 거란에 있는 한족(漢族) 조일이 귀화하여 왔다.
- 26 ○ 12월 갑신일에 거란에서 고주 관찰사 소옥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7 ○ 신묘 5년(1051) 봄 정월에 왕이 진관사에 가서 새로 만든 화엄경과 반야경을 열람하였다.
- 28 ○ 2월 계사일에 경시서에 화재가 나서 1백 20호가 연소되었다.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목재와 기와를 주게 하였다.
- 29 ○ 경자일에 백령진(白翎鎭) 성에 있는 관사 28칸과 민가 78호에 화재가 있었다.
- 30 안찰 부사 상서 병부 원외랑 유숙이 백령진 관원들을 탄핵하여 아뢰기를 "진장 최성도와 부장 최송망 등의 주위가 부족한 데서 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오니, 그들의 현직을 파면시키고 해당하는 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1 ○ 3월 임술일에 냇가에서 비를 빌었고 임신일에 냇가에서 비를 빌었으며 여름 4월 초하루 신사일에 기우제를 지냈다.
- 32 임오일에 왕이 보제사에 가서 오백나한(五百羅漢)에 재를 올렸다.
- 33 ○ 을미일에 명령을 내려 광인관에 억류하였던 동여진 적의 과수 아골 등 77명을 석방하여 돌려 보내게 하였다.
- 34 ○ 경자일에 내사문하에서 아뢰기를 "중흥(重興), 대안(大安), 대운(大雲) 등 사찰을 창건 또는 중수하는 토목 공사가 바야흐로 진행되고 있사오나,
- 35 대체로 보아 그 사업이 그다지 시급한 것은 아닌데, 공인과 인부들은 방낮 일에 시달리고 음식을 날라다가 먹이는 일도 호변합니다.
- 36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아내, 공사장으로 가는 자식들이 도로에 잇대어 봄, 여름 이래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 37 더군다나 작년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노력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응당 해야 되지마는 농한기로 미루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8 ○ 정미일에 내사문하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는 황보연을 응양군 대장군 겸 섭대부경으로, 진언을 좌우위 대장군으로, 노능훈을 신호위 대장군으로 각각 임명하라고 하셨사오나,
- 39 이 세 사람은 일찍이 죄과와 관련하여 관직을 박탈하였었고, 그 후 비록 대사령에 의하여 복직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 별로 공로를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뒷자리로 뽑아 올리는 것은 부당하오니 그들의 관직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40 왕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황보연의

- 관직만은 그대로 두라" 하였다.
- 41 ○ 무신일에 왕이 몸소 구정에서 기도를 올렸고 5월 정사일에 날새가 가문다 하여 대사령을 내렸으며 신미일에 다시 기우제를 지냈다.
- 42 ○ 7월 기미일에 일본 대마도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일찍이 죄를 범하고 도주하였던 양한(良漢) 등 3명을 돌려 보냈다.
- 43 ○ 무인일에 동여진의 원보 고사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4 ○ 8월 신축일에 왕이 친히 80세 이상의 승려, 속인(僧俗) 남녀 1천 3백 43명과 심한 폐질자인 승려, 속인 남녀 6백 53명과 효자, 순손, 절부 14명을 위하여 구정에서 음식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5 ○ 갑진일에 구주(龜州) 낭장 강린과 창주(昌州) 별장 강언, 최립 등이 번적 6명을 잡아 죽였다.
- 46 ○ 을사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두야불 등 31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7 ○ 9월 초하루에 동북면 병마 부사 김화승이 아뢰기를 "여진이 변경을 침략하므로 군사를 보내 적 59명을 쳐 죽였습니다." 하였다. (생략)
- 48 ○ 갑인일에 서북면병마사 박종도가 아뢰기를 "어제 장병들과 함께 성 밖을 순회하던 중 번적을 만나 적 10여 명을 쳐 죽이고 말 20필을 탈취하였으며 노획한 갑옷과 군기는 우수합니다" 하였다. 왕이 그들을 특별히 표창하였다.
- 49 ○ 겨울 10월 정해일에 동북면 병마사가 보고하길 "번적이 변경에 침입하였으므로 병마 녹사 윤보, 경충과 장주(長州 - 황남 정평) 방어사 김단 등을 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적 2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 50 ○ 정미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경교 공부 상서 야울수행이 우리 나라에 왔다.
- 51 ○ 12월 초하루 무인일에 거란에서 은주(恩州) 자사 유중비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6** ○ 임진 6년(1052) 봄 정월 병진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포가주 등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2 ○ 병인일에 동여진의 정보(正甫) 마파(馬波) 등 남녀 48명이 경주 성 밖에 와서 호적에 편입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들에게 주택과 토지를 주어 내지에서 살도록 하였다.
 - 3 ○ 갑술일에 서여진의 영새 장군 고반지와 동여진의 귀덕 장군 다로 등 수십 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4 ○ 2월 무인일에 연덕 공주 이씨를 책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 5 ○ 경진일에 동변(東蕃)의 원보 아린 등 29명이 와서 좋은 말을 바쳤다.
 - 6 ○ 3월 무오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태사들인 김성택

49 고려사상

- 은 심정력을, 이인현은 칠요력을, 한위행은 현행력을, 양원호는 둔갑력을, 김정은 태일력을 각각 편찬하여 오는 해의 재변과 경사를 예견함으로써 해당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 8 ○ 4월 병술일에 왕이 대안사에 가서 이 절을 수축하는 사업이 끝났다 하여 낙성 도량을 배설하였다.
- 9 ○ 임인일에 번적에게 납치되어 갔던 모아직이 남녀 16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 10 ○ 5월 경술일에 북로(北路) 삼살촌(三撒村)의 적의 괴수 고연이 번병과 함께 우리의 치당역(淄潭驛)을 포위하였다.
- 11 병마 녹사 김충간과 자주(慈州) 방어판관 장임신 등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 싸워서 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이긴 기세로 그들을 추격하여 적 50여 명의 목을 베어 왔다.
- 12 ○ 을묘일에 동여진의 추장 고지문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3 ○ 무오일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지난 통화 연간에 거란 군대가 침입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산남(山南) 지방으로 피난을 가셨었다.
- 14 이때에 상서 우복야 박성은 죄인으로서 임금의 행차를 모시었는데 힘겨운 고비에서 서울이 회복될 때까지 시종일관 정성을 다하여 나라일에 충실하였으니, 그를 공신록에 올리어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라."
- 15 ○ 6월 무인일에 송나라 진사 장정이 우리 나라에 왔다. 그에게 비서 교서랑 벼슬을 임명하고,
- 16 교서를 내렸다. "위나라 사람 악의는 연나라 임금을 섬겼고, 오나라 사람 육기는 진나라 조정으로 갔으나 그들이 처하였던 임장은 다 마찬가지이다.
- 17 그대는 사씨와 같이 이름 있는 선비요, 장씨 삼대처럼 대대로 재능이 있는 집안이며, 깊은 조예로써 명성을 날렸고 착한 행실로써 자신을 수양하여 왔다.
- 18 구속됨이 없이 사방을 유람하는 것은 대장부의 능능한 기상이요,
- 19 일정한 인연이 있어서 군자지국(君子之國)에 왔도다.
- 20 그대에게 문관 벼슬을 주어 나의 정사를 돕게 하노니,
- 21 비록 국적은 다를지라도 우리 나라에 이익을 주어야 한다.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나의 위엄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 22 이제 그대에게 교서 한 통을 내리는 동시에 의복, 비단, 백은 등 물품을 보내노니 도착하는 대로 받으라"
- 23 ○ 기묘일에 동여진의 고지문 등이 바다를 건너 삼척현 임원진에 침입하였다.
- 24 그곳을 수비하던 장수 해주려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으로 나가서 진중에 전령하기를 "적의 군사는 많고 우리의 인원은 적다 하더라도,
- 25 만일 사람마다 이번 싸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였다.
- 26 드디어 방패와 창을 휘두르면서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마침 안변 도호 판관 김송정이 자기 관하의 요새지들을 순찰하기 위하여 그 부근 지점에 이르렀다.
- 27 적들이 김송정 부대의 군악 소리를 듣고 우리측 증원병이 들이닥쳤다고 생각하여 그만 놀래어 혼란에 빠졌다.
- 28 해주려의 부대가 이 틈을 타서 양양된 기세로 적을 쳐서 10여 명을 사로잡아 목을 베니 적들이 패배를 당하고 달아났다.
- 29 ○ 8월 초하루에 한식, 문질우, 기리, 김열 등은 현종이 남쪽으로 순행하였을 때에 수행으로 가서 공로를 세웠다 하여 그들을 전부 좌위위 상장군으로 추증하라고 명령하였다.
- 30 ○ 을유일에 송나라 상인 임흥 등 3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4 ○ 신묘일에 송나라 함주(咸州) 사람으로서 번인(蕃人)에게 납치되어 갔던 고사문이 동여진으로부터 귀화하여 왔다.
- 35 ○ 9월 초하루에 송나라 상인 조수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임자일에 송나라 상인 소종명 등 4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6 ○ 기미일에 동여진의 장군 사시하 등 40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37 ○ 병술일에 평로진(平盧鎭 - 평남 영유)에서 전사한 소강한의 공로를 등록한 후 그에게 흥위위 상장군 벼슬을 증직하였다.
- 38 ○ 12월 초하루 임신일에 거란에서 영주(永州) 자사 아물사청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9 ○ 갑오일에 퇴직 중에 있던 문하시랑평장사 김영기가 죽었다. 이와 관련하여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40 ○ 기사 7년(1053) 2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아부한 등 33명이 와서 준마를 바치는 동시에 번인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우리 인원 6명을 돌려 보냈으므로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1 ○ 탐라국 왕자 수운라가 자기 아들 배용교위 고물 등을 보내 우각(牛角), 우황(牛黃),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櫃子), 해조(海藻), 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쳤다.
- 42 왕이 탐라국 왕자에게 종호 장군 벼슬을 임명하고 공복(公服), 은대(銀帶), 비단, 약품 등등을 주었다.
- 43 ○ 가을 7월 신유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고도달 등 30명이 와서 말을 바치는 동시에 번인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우리 인원들을 돌려 보냈으므로 그들에게 물품을 후하게 주었다.
- 44 ○ 윤 7월 계미일에 등북 지방의 문주(文州), 용주(湧州) 등지에 홍수가 나서 백여 호의 민가가 표류 또는 매몰되었으므로 사절을 파견하여 그들을 위로하였다.

- 45 ○ 8월 정유일에 여사대에서 아뢰기를 "상서 공부를 통하여 '나성(羅城) 동남쪽 강안을 높인 것은 서울 지세의 허수한 곳을 막기 위해서인데
- 46 이번에 하천이 범람하여 제방이 허물어졌으니 3~4천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이를 수축해야 된다'고 하신 명령을 받았습니다.
- 47 그러나 저희들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변 일대가 모두 전답이므로 농작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사오니 수축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8 ○ 9월 갑신일에 여사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궁성 밖에 있는 모든 기관의 시신들이 밤낮으로 들어와서 시종하고 있는 형편에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생략)
- 49 이제부터 교지(敎旨) 쓰는 관원들을 한림원에 유숙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게 여겼다.
- 50 ○ 겨울 10월 갑진일에 왕이 효자, 순손, 의부, 절부와 환과고독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1 ○ 을묘일에 왕의 일행이 서경을 출발하였다. 이날 왕이 대동강 누선에 올라 동쪽으로 강안을 바라보면서 장군 정중 등 8명에게 명령하여 활을 쏘라고 하였다.
- 52 낭장 유현의 화살이 강을 넘으니 왕이 기특하게 여겨 그를 표창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친, 재상들과 시종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 53 ○ 정사일에 자비령 미륵원에 머물러 분향을 하고 의복을 시주하였다.
- 54 미륵원을 떠나서 절령(岳嶺)을 통과할 때에 어떤 여자가 두 명의 어린아이를 안고 길가에 서 있었다. 왕이 그를 귀엽게 여겨 쌀을 주었다.
- 55 ○ 신유일에 왕이 서경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왔다.
- 56 ○ 12월 초하루 병신일에 거란에서 소소를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7** ○ 갑오 8년(1054) 봄 정월에 동여진의 중윤 영손 등 18명이 와서 명마(名馬)를 바쳤다.
- 2 ○ 2월 계묘일에 훈(勳)을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 3 ○ 3월 갑술일에 억류하여 둔 동여진의 아골 등 59명에게 포목과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 ○ 여름 4월 임자일에 북여진의 영새 장군 고차 등 39명이 와서 준마를 바쳤다.
 - 5 ○ 5월 기묘일에 국내 명산대천의 신들에게 "총정(聰正)"이라는 두 글자의 공호를 더 붙이었다.
 - 6 ○ 탐라국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태자 책봉을 축하하였다. 사절 13명에게는 벼슬을 주고 뱃사공과 수원들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7 ○ 가을 7월 경오일에 송나라 상인 조수 등 69명이 와서 서각(犀角)과 상아를 바쳤다.

- 8 ○ 이달에 거란에서 처음으로 포주(抱州) 동쪽 별에 궁구문란(弓口門欄)을 설치하였다.
- 9 ○ 8월 경신일에 동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장주(長州)는 지형이 높고도 험하며 성 안에 우물이 없사오니,
- 10 남문 밖 평지에 목책을 세우고 백성들을 거기로 이주시켰다가 일단 위급한 일이 생길 때에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1 ○ 9월 기사일에 임진년 치담역(淄潭驛) 전투에서 적을 격파한 사람들의 공로를 평가하여 군사들에게 벼슬을 차등 있게 임명하고 물품을 후하게 주었다.
- 12 ○ 경오일에 송나라 상인 황조(黃助) 등 48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3 ○ 겨울 10월 을미일에 동여진의 유원 장군 이다불 등 28명이 와서 준마를 바치고 포로로 갔던 신금, 위봉, 섬례 등 우리측 인원 3명을 데려다 주면서,
- 14 말하기를 "번인 실빈, 영한, 비단, 마리불 등 4명은 일찍이 거란의 벼슬을 받은 바 있었으나,
- 15 왕께서 이국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대하신다는 말을 듣고 들어와 뵈옵기를 원하므로 저희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였다.
- 16 왕이 이다불, 실빈, 영한, 비단, 마리불 등에게 벼슬을 특별히 주고 그 나머지 인원들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17 ○ 갑진일에 거란의 횡선사 익주 자사 아을방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8 ○ 11월 갑자일에 거란의 선유사 익주 자사 아을간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9 ○ 12월 경인일에 거란에서 복주 자사 아을신을 파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0 ○ 을미 9년(1055) 봄 2월 을사일에 동여진의 병국 장군 이다불 등 2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21 ○ 무신일에 이날은 한식날이었으므로, 송나라 상인 섬덕총 등 87명은 오빈관에서, 황조 등 1백 5명은 영빈관에서, 황조 등 48명은 청하관에서, 탐라국 수령 고한 등 1백 50명은 조종관에서 각각 음식을 대접하였다.
- 22 ○ 5월 신유일에 거란에서 아을혁, 진개 등을 파견하여 왕을 책봉하였다.
- 23 책문의 내용에 "(생략) 광시(匡時) 치리(致理) 갈절(竭節) 자충(資忠) 봉상(奉) 공신, 개부의동상사, 수태보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 국왕, 식읍 1만 호, 식실봉 1천 3백 호 왕휘는,
- 24 학식이 풍부하고 본성이 총직하니 동방의 순수한 정기는 그에게 집중되었고 탁월한 천품을 타고났도다.
- 25 수 태사로 책봉하고, 식읍 5천 호와 식실봉 5백 호를 더 주며 다른 것은 이전대로 둔다.
- 26 곡대(曲臺)에서 갖추어 보내는 이 물품들은 보통 열국에 비하여 더욱 훌륭한 것이니 이 특수한 대우를

51 고려사상

- 받고 영원히 명명하라."
- 27 ○ 가을 7월 초하루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거란의 이전 태후 황제는 압록강 이동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조서를 준 바 있었으나,
- 28 그들이 성을 쌓고 다리를 가설하며 혹은 궁구란자(弓口欄子)를 설치하기도 하여 점차 옛날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으니, (생략)
- 29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또 우정(郵亭)까지 설치하여 우리 영토를 점차 침식하고 있사오니, (생략)
- 30 그러므로 거란의 동경 유수에게 국서를 보내, 그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만일 동경 유수가 듣지 않으면 직접 거란 정부에 사절을 파견하여 실정을 알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31 ○ 이에 동경 유수에게 국서를 보내기를 "본국은 기자의 옛국도 그대로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아 왔을 뿐만 아니라,
- 32 귀국의 이전 태후 황제가 은혜로운 책문을 보낼 때에도 역시 이 압록강을 계선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영역 내에 다리와 보루를 설치하였다. (생략)
- 34 또 최근에는 내원성 군인들이 우리의 성과 박근한 곳으로 궁구문을 옮겨오고 게다가 정사(亭舍)를 건축하기 위하여 벌써 목재와 돌을 쌓아 놓았다.
- 35 이렇게 함으로써 변방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니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 36 바라건대 귀국 정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여 옛지역을 돌려주게 하는 동시에, 성벽, 보루, 궁구란자, 정사 등 일체 시설을 전부 철거하도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하였다.
- 37 ○ 거란의 강경준 등 15명이 귀순하면서 번인(蕃人)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우리 인원 53명을 송환하여 왔다.
- 38 ○ 임신일에 동여진의 우두머리 야시로 등 2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관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39 ○ 8월 기해일에 상서 이부에서 아뢰기를 "검교 작소감 유공의는 대광 금필의 증손으로서 이전에 과오를 범한 관계로 하여 오랫동안 산관(散官)에 머물러 있습니다.
- 40 전일 왕께서 내리신 명령에는 '태조 묘에 배향한 공신의 자손은 비록 죄과를 범하였더라도 전부 그대로 채용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공의를 숙주 방어사로 임명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 41 ○ 이에 대하여 문하성에서는 아뢰기를 "공의는 일찍이 아첨죄를 범하여, 그 이름이 죄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니 그를 등용할 수 없습니다.
- 42 더군다나 지방관의 책임은 '비단을 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서 진실로 책임자가 아니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오니, 그것을 파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의 의견을 옳게 여겼다.
- 43 ○ 9월 계해일에 홍종 고애사인 홍려소경 장사복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4 이에 앞서 왕은 장사복이 압록강을 통과하였다는 말을 듣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이고 음역을 철폐하였으며 가축 도살과 사냥을 금지하였다.
- 45 ○ 을축일에 왕이 흰 난삼을 입고 백관들과 함께 창덕문 앞으로 나오니 사복이 부서를 전달하였다.
- 46 애도의 예식을 거행한 후 상복을 입고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점포도 열지 않았다.
- 47 ○ 신미일에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송나라 도강(都綱) 황흔이 글을 올려 우리 나라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포안과 세안을 데리고 귀화하여 왔습니다.
- 48 그런데 본국에 82세 된 노모가 있어서 아들과 손자들을 못내 그리워한다고 하오니 청컨대 그의 맏아들 포안을 돌려 보내 자기 조모를 봉양케 하소서" 하였다.
- 49 왕이 말하기를 "월나라 새도 고국을 생각하여 반드시 남쪽 가지에 동지를 틀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나위가 있으랴" 하면서, 이를 허락하였다.
- 50 ○ 병자일에 지중추원사 최유선과 공부 시랑 이득로를 거란에 파견하여 조문을 하고 회장에 참가케 하였다.
- 51 ○ 겨울 10월 을유일에 생신회사사 호부 시랑 최종필이 거란으로부터 귀환하였다.
- 52 그가 예부를 통하여 왕에게 보고하기를 "거란 황제의 이름이 종진(宗眞)인바 나의 이름이 그에 저촉된다 하여 '종(宗)' 자를 고치라고 하기에 표문에 있는 나의 성명을 최필로 고쳤습니다" 하였다.
- 53 이에 대하여 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종필은 응당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 알지 못하여 그렇게 쓴 것이며 표문에 기록된 내용을 자의로 고칠 수 없다고 대답했어야 할 것이요,
- 54 만일 그들이 이를 강요하였다면 글자의 한 점 한 획 정도나 지워 버리는 것은 체면상 틀릴 바가 없겠는데,
- 55 종필은 함부로 표문을 고침으로써 신성한 국가 사명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그에게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왕은 이를 용서하였다.
- 56 ○ 병신일에 명령을 내리기를 "옛날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여 왔음은 문헌들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우리의 태조 이후는 대대로 사원을 세워 행복과 경사를 축원하여 왔다.
- 57 그런데 내가 왕위를 계승하여 어진 정치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재번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 58 그러므로 나는 부처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행복하게 하려 하노니 해당 관리로 하여금 적지를 선택하여 사원을 건설하게 하라"
- 59 이에 대하여 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예로부터 명철한 제왕으로서 그 누구도 사원과 불탑을 건설하여 나라를 화평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 60 오직 불교를 숭상하고 정치를 신중히 하며 백성들의 노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연 국가의 운명이 장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략)
- 51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사방에서 일어날 것이요,
- 52 산천의 기맥을 훼손시키면 반드시 재해가 생기고 신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노여워할 것이오니,
- 53 이는 결코 나라를 화평하게 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였으나, 왕이 이 의견을 듣지 않았다.
- 54 ○ 11월 을축일에 왕이 동지(東池)에 나갔다. 이때에 검교 위위소경 최성절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왕의 막 앞까지 들어왔으므로 왕은 놀래어 그를 목에 가두게 하였다.
- 55 법관이 아뢰기를 "임금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목을 베어야 합니다" 하였다.
- 56 왕이 말하기를 "비록 법률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가혹한 조치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절은 문필이 쓸 만하니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 57 문하성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 58 ○ 거란 동경의 회례사인 검교 공부 상서 아윤도가 우리 나라에 왔다.
- 59 ○ 12월 초하루 갑인일에 거란에서 금주 자사 아윤 장정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8** ○ 병신 10년(1056) 봄 정월 신미일에 황주에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 2 ○ 갑술일에 동여진의 아가주 등 50명이 와서 준마 32필을 바쳤다.
 - 3 ○ 2월 갑오일에 해당 기관에서 아뢰기를 "번인들에게 납치되어 갔던 영가청은 궁기승 영위의 아들이요, 삼한 공신 사도 영형명의 후손으로서 경술 연간에 환위공자군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 4 마침 거란군이 침입하여 서울이 소란하게 되자 부모를 모시고 자기 고향인 봉성현으로 갔습니다. 도중에 적을 만나서 그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청년 원년 정월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하여 왔사오니
 - 5 그의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과 가택을 돌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6 이에 대하여 왕이 명령하였다. "가청은 공신의 자손으로서 청장년 시기에 적에게 잡혀갔다가,
 - 7 번도(蕃土)에 있는 처자를 버린 채 다만 아들 한 명만을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정상이 매우 가엽고 민망하다. 그의 세업으로 내려오던 토지와 주택을 주어라"
 - 8 ○ 계묘일에 덕수현에서 흥왕사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 9 ○ 가을 7월 정유일에 동변 적들이 우리 변경을 자주 침범한다 하여 동로 병마 이사 시어사 김단을 파견하여 이를 토벌케 하였다.
- 10 김단이 군사를 앞에서 맹세하기를 "적과의 싸움에서 자기 일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니 우리들의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오늘에 달렸다" 하였다.
- 11 전체 군사들이 이에 감격하고 흥분되어 용기 백배한 기세로 적들의 집결처 20여 개소를 쳐부수니 적들이 크게 패하였다. 이 싸움에서 노획한 무기, 양, 마필 등은 이루 헤일 수 없었다.
- 12 ○ 8월 무진일에 이날 전국 사형수들을 처결하게 되므로 왕이 정전에서 옮겨 앉아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약을 정지하였다.
- 13 ○ 서경 유수가 보고하기를 "서경에서는 진사과, 명경과 등 과거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서적의 대부분이 사본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글자의 오착이 많사오니
- 14 비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9경, 한서, 진서, 당서, 논어 효경, 제자, 사기, 여러 학자들의 문집, 의서(醫書), 복서(卜書), 지리, 율역, 산수 등 서적들을 모든 학원들에 비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15 왕이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 서적들을 한 벌씩 인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 16 ○ 9월 갑신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모든 고을에 사절을 파견하여 목사, 자사, 통판, 현령, 위(尉), 장리(長吏) 등의 정치 성적 및 청백 여부와 백성들의 빈부고락 등 실정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 17 담당 관아에서는 사절을 파견하면 연로에 있는 백성과 아전들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전송하기에 괴롭다는 구실로 이를 중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18 왕이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선대 임금들은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괴로워하는 바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방 관리들이 전부 청렴한 정치에 노력하여 백성들을 편케 하였던 것이다.
- 19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의 제도와 질서가 해이하고 문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징계하거나 혁신하는 대책이 없는데로부터,
- 20 관리들이 나라일에는 충실하지 않고 오직 사리사욕에 몰두하여 권세 있는 토호들과 결탁하고 있다.
- 21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수다한 물자를 수탈하면서 농업과 길쌈은 장려하지 않으며,
- 22 어떤 지방에는 어염(魚鹽)과 재칠(梓漆)이 산출되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축산과 재산이 있기도 하였건마는 이것을 모조리 수탈하고
- 23 어쩌다 주기를 주저하는 자가 있거나 하면 엉터리 없는 죄명으로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는다. (생략)
- 24 관리들이 이리하고서야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53 고려사상

-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 25 나는 이에 대하여 밤낮으로 그 폐해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건마는,
- 26 이를 집행할 당사자들이 나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않고, 이러니저러니 하여 논의가 분분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라"
- 27 ○ 기축일에 수춘궁에서 태일(太一)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화재를 예방하였다.
- 28 ○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근자에 일관(日官)의 보고를 보건대, 천변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니 이것은 아마 나의 덕이 박하고 정령이 일정하지 못한 결과인 듯하다.
- 29 나는 공구한 생각으로 밤낮 마음을 펼 수가 없다. 이달부터 정전에서 굶겨 앓고 일상 식사의 반찬 수를 줄임으로써 하늘이 주는 건책에 대처하려 하노니
- 30 모든 대소 관원들은 각각 자기 직책에 충실하며 나의 결함에 대하여 조금도 은폐함이 없이 바른 대로 말하라"
- 31 ○ 병신일에 조서를 내리기를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것은 청정(淸淨)으로 근본을 삼아 온갖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없애자는 것이었는데
- 32 지금은 나라의 역사를 기피하는 우리들이 불교에 이름을 걸어 놓고는 재부를 축적하여 사생활에 마음을 팔고 있다.
- 33 이리하여 농업과 축산으로 직업을 삼고 상업이 예사로 되어 있다. (생략)
- 34 속인의 관(冠)을 쓰고 속인의 옷을 입으며 사원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서,
- 35 복장구와 깃발을 마련하며 촌락과 시정으로 다니면서 사람들과 난투하여 피투성이가 된다.
- 36 내가 그들 중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규율을 엄격하게 하려 하노니 서울과 지방의 사원들을 깨끗이 정리하여 계율을 충실한 자는 전부 안착시키고 계율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률로써 논죄하게 하라"
- 37 ○ 겨울 10월 초하루 기유일에 일본국 사신들인 정상위권례 등원과 조신 뇌총 등 30명이 와서 금주(金州)에 사관을 정하고 있었다.
- 38 ○ 12월 초하루 무신일에 거란에서 영주 자사 소유신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9 ○ 동여진의 유원 장군 사복하 등 2명을 목베어 죽였다. 그것은 그들이 일찍이 삭주에 침입하여 사람을 납치하고 재산을 약취하여 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40 ○ 정유 11년(1057) 3월 을유일에 거란에서 소계종, 왕수졸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 41 ○ 책문에 "생각하건대 삼한 지역은 모든 열국의 으뜸이어서 하우씨의 치수한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다.
- 42 고려 국왕, 식음 1만 5천 호, 식실봉 1천 8백 호 왕 휘는 (생략) 식음 5천 호와 식실봉 2백 호를 더 주는 바이다.
- 43 당신에게 정벌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니 지위가 모든 제후의 윗자리에 있고 왕위를 계승시키었으니, 권한이 여러 재상들보다 높도다." 하였다.
- 44 ○ 거란에서 또 소소와 시덕자를 보내 왕태자를 책봉하였다. 책문에 "왕휘의 아들 훈은 삼한 국공, 식음 3천 호, 식실봉 5백 호로 책봉하는 바이다." 하였다.
- 45 ○ 임술일에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에 거란에 사절을 파견하여 궁구문(弓口門) 바깥에 있는 우정(郵亭)을 없애 버리라고 하였는데,
- 46 지금까지 그것을 철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송령(松嶺) 동북 지대에 토지 개간 사업을 점점 확대시키고, 혹은 암자(庵子)를 설치하여 사람과 가축을 증식시키고 있다.
- 47 이는 필시 우리의 강토를 침범할 장본이니 마땅히 이것을 빨리 철폐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 48 이 문제에 대하여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현재 거란 측에서 변경을 소란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 임금이 들어섰고 책명을 보내온 뒤에 아직 회사도 하지 못하였는데, 국경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 49 왕이 말하기를 "자들이 만일 우리보다 먼저 성책을 설치한다면 비단 후환이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경각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터이니
- 50 8월에는 우선 사절을 보내 책봉을 사례하고,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모든 시설을 철거하게 할 것이다."
- 51 ○ 병인일에 조서를 내렸다. "두 패로 갈려 온 책봉 사절들이 동시에 도착하여 서울과 지방 인민들은 이들을 접대하기에 피로하였었다.
- 52 그 당시에 일을 잘못하여 죄를 받은 자가 있으면 그들을 전부 석방하고 거란 사절들이 통과한 주 현들에는 금년 조세의 절반을 감면하여 줄 것이다."
- 53 ○ 병술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고도달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4 ○ 6월 정미일에 거란 동경의 지례 회사사 검교 공부 상서 야율가행이 우리 나라에 왔다.
- 55 ○ 무진일에 동여진의 유원 장군 요여내 등 2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6 ○ 7월 임진일에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송나라 귀화인 장완에게서 그가 공부한 둔감상기법과 육임점술을 시험하고 태사감후 벼슬을 주게 하였다.
- 57 ○ 갑오일에 구정에서 나이 80세 이상 되는 남녀 노인과 효자, 순손, 의무(義夫), 절부(節婦), 환과고독, 폐질자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8 ○ 12월 초하루 계묘일에 거란에서 우간의대부 왕종량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59 ○ 정미일에 상서 호부 시랑 안민보를 거란에 파견하여 태황 태후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다.

- 60 ○ 기유일에 상서 공부 시랑 최계유를 거란에 파견하여 천안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 61 ○ 신해일에 좌복야 지맹이 고령으로 퇴직을 청하였는데 왕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 62 중서성에 아뢰기를 "나이 70세가 되면 벼슬을 그만두는 것은 규정이 그러하오니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 63 왕이 말하기를 "지맹의 조상은 일찍이 국가에 공로가 있었으므로 그가 퇴직을 청하기 전에 이미 수년 동안 더 조정에 남아 있게 하고 따라서 궤장(几杖)까지 준 일이 있는데
- 64 지금 이 제의에 의하여 갑자기 전자의 말을 변경한다면 지맹이 나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 65 중서성에 또 아뢰기를 "지금 지맹은 한갓 자기 조상의 공로를 의세할 뿐이요, 천문 지리를 알지 못하며 전투에서의 공로도 없습니다.
- 66 그리고 기타 정사에 대해서 그에게 물을 만한 것이 없사오니, 만일 그 조상의 공로를 생각하신다면 1년 쯤 조정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 67 여러 해로 미루고 궤장까지 주신다면 이는 은택이 너무 지나칠 듯하오니 전일의 명령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9** ○ 무술 12년(1058) 봄 2월 신해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관내에서 공납하는 철을 종전에는 병기 제조에 총당하여 왔는데,
- 2 근자에 흉왕사를 짓기 위하여 또 더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오니
 - 3 염(鹽), 해(海), 안(安) 세 주에서 군기용으로 바치는 정유, 무술 양년 공철(貢鐵)을 덜어 내어 흉왕사 짓는데 전용하게 함으로써,
 - 4 민간 피해를 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 이에 대하여 식견이 있는 자는 평하기를 "당사(唐史)에 이르기를 '거리에 차도록 절간을 많이 세우더라도 나라의 위태한 환난을 구출하지 못하니,
 - 6 종들이 길에 잇대인들 어찌 국가를 보위하는 군사에 도움을 주겠는가?'라고 하였으니
 - 7 오늘 국가의 이러한 조치가 너무 잘못이 아닌가?" 하였다.
 - 8 ○ 무오일에 내사사인 지 동궁 시독사 최상이 아뢰기를 "어제 거란의 사절 왕종량을 전송하기 위하여 밤에 금교역까지 갔더니
 - 9 종량이 햇불들을 보고 말하기를 '작별하는 자리에서 술이 취하면 야금(夜禁)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요, 햇불을 잡은 하인들의 흠뻑이 민망스러우니 이 뒤에는 이른 아침에 떠나야 하겠다.
 - 10 우리 나라 법령에는 혼인날 밤에 한해서 화촉을 밝

- 히도록 하고 신하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에 아무리 날이 저물어도 촛불을 켜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였었습니다.
- 11 저도 생각하건대 임금이란 밝은 곳을 향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법이니 마땅히 대낮에 손님을 접견해야 되겠습니다.
- 12 더군다나 등축도 역시 백성들의 고흥이오니 너무 지나치게 소모한다면 경박한 덕에 어그리질 듯합니다.
- 13 금후로는 연회는 낮에 한하게 하고 전송하는 행사는 아침 조회 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4 ○ 신유일에 거란에서 검교 상서 우복야 소회를 보내 태황 태후가 죽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왕이 검은 관과 흰 옷으로 그 사절을 맞이하였다.
- 15 ○ 6월 임인일에 거란에서 좌경군위 상장군 소간을 시켜 죽은 태후의 유물을 보내왔다.
- 16 ○ 무신일에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는 태사강후 이신황이 풍운수한에 관한 기후를 관측함에 있어서 틀림이 없으니 성적 고사에는 관계없이 8품 관직으로 발탁하라고 하셨습니다
- 17 신황은 그의 가계를 알 수 없고 처음으로 등용하였을 때에 두 번이나 탄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후를 관측하는 것이 바로 자기 직책이오니 그를 발탁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 18 왕이 명령하기를 "기술에 정통하기를 신황만한 자가 없으니 전일 명령대로 시행할 것이다"
- 19 ○ 가을 7월에 중서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내리신 명령에는 경창원 소유로 있는 전시(田柴)를 흉왕사에 이속시키고
- 20 경창원에서 관리하던 어량(魚梁), 선박, 노비는 전부 국가에 바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 21 원래 공원에 대하여 선대 임금이 토지와 인원을 넉넉히 주는 것은 이를 자손 만대에 전함으로써 군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22 지금 왕실의 종손과 지손(宗枝)이 번창하여 그 공원들에게 일일이 전시를 주기에다 오히려 부족할 염려가 있거든 하물며, 한 공원의 전시를 회수하여 불교 사원에 주어야 되겠습니까.
- 23 삼보(三寶)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오니 토지, 인원, 어량, 선박들을 종전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24 이에 대하여 왕이 "이미 삼보를 위하여 주어 버린 전시를 도로 찾기는 난처하니 국가 소유에서 원숫자에 해당하는 전시를 경창원에 주고 다른 것은 제의한 바대로 하라"
- 25 ○ 경인일에 명령을 내리기를 "수년 이래로 비와 가을이 일정하지 않고 재변이 종종 나타나니 이는 다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하여 원한이 쌓인 결과이다.
- 26 만일 위로 천벌에 대처하고 아래로 사람들의 원망을

55 고려사상

- 풀어 주려고 할진대 마땅히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며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다.
- 27 양경의 문무관과 남반(南班)에 속한 관원 이속으로서 죄를 범하여 감직 철직을 당한 자이거나,
- 28 여러 주부군진의 장리 장교로서 죄를 범하여 철직을 당한 자는, 해당 관리가 그 죄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종전대로 서용하되,
- 29 아첨하고 간사하여 민사 죄를 재차 범한 자는 이 범주에서 제외하며, 공사 죄의 도형과 민사 죄의 장형은 이를 용서하라" 하였다.
- 30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장만하여 큰 배를 건조함으로써 점차 송나라와 연계를 가지려 하였다니
- 31 내사문학성에서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거란과 우호 관계를 맺어 변경에 위급한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안착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32 지난 경술년에 보내왔던 거란의 문죄서(問罪書)에 '동으로는 여진과 결탁하고 서로는 송나라에 왕래하니, 이는 무슨 계책을 꾸미려는 것인가?' 라고 하였으며
- 33 또한 상서 유참이 거란에 사절로 갔을 때에도 동경 유수가 송나라에 사절을 보낸 데 대하여 물으면서 시기하는 듯한 눈치가 있었다고 하니 만일 이 일이 누설된다면 반드시 큰극이 생길 것입니다.
- 34 뿐만 아니라 탐라는 지질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고기잡이와 배 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35 그런데 작년 가을에 탐라로부터 목재를 베어 바다를 넘겨다가 불사를 짓기에 그들의 피로가 이미 대단하였는데 이제 또 거듭 피곤하게 한다면 다른 사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 36 더군다나 우리 나라의 문화와 예악이 흥왕한 자가 벌써 오래이므로 상선들이 낙역 부절하여 날마다 귀중한 보배가 들어오고 있사오니
- 37 중국에서는 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 38 만일 거란과의 국교를 영원히 끊지 않으려면 송나라와 사절을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 39 ○ 9월 초하루 기사일에 충주목에서 새로 인각한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 천옥집(川玉集), 상한론(傷寒論), 본초괄요(本草括要), 소아소씨병원(小兒巢氏病源), 소아약증병원(小兒藥證病源), 십팔론(十八論), 장중경오장론(張仲景五臟論) 등 99판을 바쳐 왔다.
- 40 왕이 조서를 내려 이것을 비서각에 보관하게 하였다.
- 41 ○ 9월 을해일에 거란의 동경 회례사 검교 좌 산기상시 아을연녕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2 ○ 겨울 11월 경오일에 명령을 내려 정종의 혼당에

- 있는 금은 기명과 거란에서 조제 예물로 보내온 비단으로 대장경을 만들어서 정종의 명복을 빌게 하였다.
- 43 ○ 이 해 4월, 5월, 6월, 11월, 12월에 동여진에서 유원 장군 다로 등, 귀덕 장군 상군 등 33명, 정조 분대 등 23명, 영새 장군 고도달 등 50명이 말과 토산물을 바치므로 그들에게 의복, 기명, 물품을 차등있게 주었고 회화 장군 이동화 등 26명에게 관작을 수여 주었다.
- 44 ○ 그리고 8월 을사일에 송나라 상인 황문경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5 ○ 기해 13년(1059) 2월 갑술일에 안서(安西) 도호부사 도관 원외랑 이선정 등이 새로 조각한 주후방(肘後方, 의학 서적) 73판, 의옥집(疑獄集) 11판, 천옥집(川玉集) 10판을 바쳤으며
- 46 지 경산 부사 전중 내급사 이성미는 새로 조각한 수서(隋書) 6백 80판을 바쳤다. 왕이 명령을 내려 이 서적들을 비서각에 비치하게 하고 그들에게 각각 의복을 주었다.
- 47 고주사 상서 공부 원외랑 최석진을 거란에 파견하였다.
- 48 ○ 4월 병자일에 왕이 친히 종묘에 체제를 지냈다. 이때에 송나라 상인 소송명 등이 가로에서 왕의 행렬을 참관할 것을 요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 49 ○ 경진일에 지 남원 부사 시(試) 예부 원외랑 이정공이 새로 조각한 삼례도(三禮圖) 54판과 손경자서(孫卿子書) 92판을 바쳤다. 왕이 조서를 내려 그것을 비서각에 보관하게 하고 그에게 의복을 주었다.
- 50 ○ 8월 무진일에 송나라 천주 상인 황문경, 소종명과 의사 강조동 등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왕이 소종명, 강조동 등 3명을 남아 있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 51 ○ 계유일에 편전에서 80세 이상의 연로자들인 공부상서 홍해와 상장군 하흥휴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왕이 친히 화주(花酒)를 권하면서 해가 지도록 즐겼으며 겸하여 의복을 주었다.
- 52 또한 구정 낭하에서는 평민 연로자들과 중한 질병에 걸린 남녀와 효자(孝子), 순손(順孫), 의부(義夫), 절부(節婦) 등 1천 2백 80 명에게 주연을 배설하여 주었으며,
- 53 같은 날 서경을 비롯한 모든 주, 군들에서도 주연을 배설하였다.
- 54 ○ 정해일에 명령을 내려 양경과 동남 지방의 주부군현들에서 한 집에 3명의 아들을 둔 자는 그 중 한 명이 15세가 되면 머리를 깎고 승려로 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다.
- 55 ○ 9월 병신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검교 우산기상시 아을연녕이 우리 나라에 왔다.
- 56 ○ 겨울 10월 갑신일에 거란의 다우이, 남우릉 등 두 명이 귀순하여 왔다.

- 57 12월 초하루에 거란에서 검교 사도 아을덕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58 이 해에 정월, 2월, 11월에 동여진에서 경위 울어금 등 18명, 중윤 아시로 등 35명, 정보 오사 등 22명, 영새 장군 거다불, 귀덕 장군 모하 등 24명과 정보 고사 등 23명이 준마와 토산물을 바쳤다.
 - 59 ○ 8월 을유일에 송나라 상인 부남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0 경자 14년(1060) 7월 계축일에 동남해 선병도부서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표류하여 갔던 예성강 사람 위효남을 송환하여 왔다고 하였다. 왕이 대마도 사절에게 예물을 후하게 주었다.
 - 61 ○ 8월 계묘일에 송나라 진사 노인유는 문필에 재능이 있다 하여 비서성 교서랑으로 임명하였다.
 - 62 ○ 겨울 11월 경인일에 거란의 선사사 고주(高州) 관내 관찰사 소오가 우리 나라에 왔다.
 - 63 ○ 12월 초하루 병진일에 거란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아을렬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4 ○ 갑자일에 내사문하성에서 화재가 일어 회경전의 동남 행랑까지 연소되었다.
 - 65 ○ 이 해 9월, 11월에 동여진에서 회화 장군 아린 등 19명, 귀덕 장군 아가주 등 37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6 ○ 그리고 송나라에서 7월, 8월에 황조 등 36명, 상인 서의 등 39명, 상인 황원재 등 4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0 ○ 신축 15년(1061) 2월 계미일에 명령을 내렸다. "형벌을 적당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정치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 2 그것이 지나치게 준엄하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하여진다.
 - 3 그러므로 형벌이 공정하게 처리되면 음양 이치가 조화되어 기후가 순조롭고 법령이 적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원한이 쌓여서 재변이 생기는 것이다.
 - 4 포학한 신하와 가혹한 아전은 어느 시대에도 있는 법이다. (생략)
 - 5 지금부터 형조의 관원과 이속들을 엄격히 선택 임명함으로써 억울한 죄수가 없도록 하라"
 - 6 ○ 3월 정유일에 지난해에 문하성에서 수직하던 날 화재가 일어났다 하여 참지정사 김현을 좌복야로, 우산기상시 최원준을 판 소부 감사로 각각 강직시켰다.
 - 7 ○ 여름 4월 병진일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검교 공부상서 소수사가 우리 나라에 왔다.
 - 8 ○ 6월 계축일에 왕이 봉은사에 갔다가 고추 국자감에 이르러 시종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중니는 모든 군왕들의 스승이니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면서, 절을 두 번 하였다.
 - 9 ○ 정사일에 송나라의 진사 진위를 비서 교서랑으로,

- 소정, 소천을 함문승지로, 섭성을 전전 승지로 각각 임명하였는바, 진위는 문예(文藝)에 재능이 있고 소정 등 세 사람은 음률에 정통하였다.
- 10 ○ 가을 8월 임자일에 동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정주(定州) 별장 경보가 20여 명의 인원을 인솔하고 적정을 정찰하던 중에
- 11 갑자기 적의 괴수 아하비 등 2백여 명과 조우하여 그들과 싸워서 이를 격파하고, 적 10여 명의 목을 베었사오니 그의 공로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2 ○ 윤달 초하루 신사일에 종묘에서 고삭(告朔) 의식을 치렀다.
- 13 ○ 9월 정묘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적의 괴수 아라불 등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변경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므로
- 14 평로진(平虜鎭) 병마 녹사 강영과 서북면 병마 녹사 고경인 등이 군대를 인솔하고 강마진(降魔鎭)까지 추격하여,
- 15 이를 격퇴하고 적 수십 명을 살상하는 동시에 수다한 군기를 노획하였사오니 표창하는 뜻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6 ○ 12월 초하루 경진일에 거란에서 검교 태부 영주(寧州) 자사 소술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7 ○ 병오일에 송나라 사람 소중명을 권지 함문지후로 임명하였다.
- 18 ○ 이 해 8월 병자일에 송나라 상인 객만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19 ○ 임인 16년(1062) 봄 정월에 거란 동경의 회례사 검교 상서 우복야 아을장이 우리 나라에 왔다.
- 20 ○ 12월 초하루 갑술일에 거란에서 태주 관내 관찰사 고수정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1 ○ 이 해 2월, 10월에 탐라의 고렴, 성주 고일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22 동여진에서 6월, 7월, 8월, 10월에 귀덕 장군 분대, 모내, 늑어을, 우모내, 귀덕장군 마리해, 아가주 등이 내조하였다.
- 23 ○ 계묘 17년(1063) 봄 정월 무신일에 상사에서 익령현과 서북면 성주 수전장 지방에서 산출되는 금을 공물 대장에 등록할 것을 제의하였다.
- 24 ○ 3월 병오일에 거란에서 대장경을 보내왔다. 왕이 의식을 갖추어 가지고 서쪽 교외에서 거란의 사절을 영접하였다.
- 25 ○ 신해일에 탐라의 새 성주 두량이 내조하였다. 그에게 특별히 영위 장군이라는 관직을 주었다.
- 26 ○ 9월 경자일에 명령을 내렸다. "금년은 비가 내리지 않아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 없으니 각 주, 군들로 하여금 구황 대책을 미리 수립하게 하라"
- 27 ○ 11월 계묘일에 거란에서 익주 자사 소격을 보내 우리 나라를 예방하였다.

57 고려사상

- 28 ○ 12월 초하루 무진일에 거란에서 우간의 대부 이 일숙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9 ○ 이 해 2월, 11월에 동여진에서 귀덕장군 회화, 귀덕장군 상근, 귀덕장군 마리해, 유원장군 다로대 등이 와서 준마를 바치고 내조하였고
- 30 송나라에서 9월, 10월에 상인 곡만, 상인 임녕, 황경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1 ○ 갑진 18년(1064) 봄 정월 신유일에 서북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지난 임인년에 몽포촌(蒙浦村)에 있는 적들이,
- 32 우리 변강을 침략할 목적으로 평로진(平虜鎭)에 잠입하여 절충, 강마 두 요해지 사이에 군사를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 33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번인(蕃人)의 우두머리 제준나가 이것을 알고 평로진 진장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 34 우리가 앞질러서 풀숲 속에 복병을 하여 놓고 대기하였던바 과연 적들이 돌입하였습니다. 이때에 우리 군사가 일제히 일어나 적을 사로잡고 죽인 것이 매우 많았사오니
- 35 준나에게 금과 비단을 후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6 ○ 3월 계유일에 명령하기를 "옛날 제도에 의하여 봄 가을로 지방 명산의 제고사를 10여 도에 파견하여 왔는바, 그에 따르는 사절 왕래가 빈번하여 연로 역참들이 피폐하게 되었다.
- 37 이제부터는 동북 양계(兩界) 감창사와 패서도(溟西道) 안찰사가 모두 제고사를 겸임할 것이며, 산남(山南) 각 도에는 종전대로 제고사를 파견하되 이것을 항구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 38 ○ 여름 4월 경오일에 명령하기를 "대운사는 선대 임금 이를 창건하여 국가를 번영하도록 한 것이었다.
- 39 그런데 그 전에 주었던 공전(公田)은 지질이 척박하고 세금이 적어서 공양(供養) 물자가 부족하니 옥토 1백 결을 더 주어라"
- 40 ○ 경인일에 명령하였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임진강 보통원(普通院)에 죽과 채찬을 준비하여 놓고 행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라"
- 41 ○ 5월 윤달 무진일에 동여진의 적의 괴수 마질개 등 백여 명이 바다를 건너 평해군(平海郡) 남포(南浦) 지방에 침입하여 민가들을 소각하고 남녀 9명을 납치하여 갔다.
- 42 ○ 신미일에 병부에서 아뢰기를 "군인 반열의 명부를 작성한 지가 벌써 오래 되어 종이 먹고 낡아졌습니다.
- 43 이로 말미암아 군사 인원수가 정확하지 못하오니, 옛날 규정에 준하여 명부를 다시 만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4 ○ 6월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적의 괴수 마질개 등이 평해군에 침입하였을 때에 변방을 수비하던 장수가 이를 추격하여 체포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를 단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45 ○ 7월에 동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환가현(獮家縣)은 지난 무자년에 동변 해적들의 침략을 받아 남녀 백여 명이 살상되었었고,
- 46 금년 봄에 또 산화로 말미암아 성첩, 보루, 창고 및 민가들이 연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을 거듭당하여 백성들이 안착할 수 없사오니,
- 47 성을 옮겨 쌓음으로써 해적의 요충지를 틀어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양촌(陽村)으로 성을 옮기라고 하였다. 양촌은 옛성의 남쪽 2천여 보 거리의 지점이었다.
- 48 ○ 11월에 호부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 지방은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가을이 계속된데다가 우박까지 내려서 전지역에 수확할 곡식이라고는 전연 없으며,
- 49 봉주(鳳州)에서도 지난 경자년 대홍수로 인하여 가옥과 곡식이 거의 다 유실되다시피 하여, 백성들이 일정한 곳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오니
- 50 이 두 지역에는 조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절을 보내 토지를 재계 하던 일을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1 ○ 12월 초하루 임진일에 거란에서 사능경 호중(胡仲)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52 ○ 거란의 고노 등 3명과 흑수(黑水)의 포기 등 8명이 귀순하여 왔다.
- 53 ○ 이 해 송나라에서 7월에 상인 진공 등이 토산물을 바쳤고, 8월에 상인 임녕 등이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
- 54 ○ 을사 19년(1065) 여름 4월 계사일에 거란에서 야율녕, 정문통 등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 55 책문에 "고려 국왕, 식읍 2만 호, 식실봉 2천 호인 당신은 경사가 여러 대에 쌓였으며 도덕은 백성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 56 당신에게 수정보의(守正保義) 네 글자의 공신 칭호와 식읍 3천 호, 식실봉 3백 호를 더 주고 기타 관작은 종전대로 둔다." 하였다.
- 57 ○ 5월 계유일에 왕이 경령전에 나가서 왕사 난원을 불러 놓고 왕자 후의 머리를 깎아 종이 되게 하였다.
- 58 ○ 6월 갑오일에 왕이 문덕전에 나가서 복시(覆試)를 보였다.
- 59 이때에 시어사 노단이 제기한 문제가 왕의 뜻에 거슬렸으므로 왕이 화가 나서 시험 과목을 설정하지 않고
- 60 여러 차례 응시를 하고도 급제를 하지 못한 자만을 뽑아서 이원장 등에게 급제를 은사(恩賜)하였다.
- 61 ○ 가을 7월에 봄 여름이 지나도록 비가 흠족하여 내리지 않다가 이때에 와서 기다리던 비가 많이 내

- 렸다. 왕이 측근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희우시(喜雨詩)를 짓게 하였다.
- 62 ○ 8월 병오일에 상서 우복야 김양지와 전중소감 서정을 거란에 파견하여 왕에 대한 책봉을 사례하였다.
 - 63 ○ 9월 계미일에 예부 상서 최상과 장작소감 김성점을 거란에 파견하여 태자에 대한 책봉을 사례하였다.
 - 64 ○ 겨울 12월 초하루 병술일에 거란에서 좌간의대부 부평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5 이 해에 동여진에서 정월, 3월, 6월에 이지달 등 16명, 두령 상곤 등 22명, 장군 아부한, 오화문 등 27명, 회화 장군 잉울 등 17명이 준마와 토산물을 바쳤고
 - 66 ○ 9월 계미일에 송나라 상인 곡만, 황중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1** ○ 병오 20년(1066) 봄 정월 을해일에 명령을 내려 공년부터 3년 동안 서울과 지방에서의 가축 도살을 금지하게 하였다.
- 2 2월 기해일에 운흥창에 화재가 있었다. 신해일에 명령을 내리길 "운흥창의 화재는 이를 지키는 관원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 3 여러 해에 걸쳐서 축적하여 둔 곡식을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하룻밤 사이에 불태워 버렸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은가.
 - 4 이 뒤로는 일체 창고들에 화재 감시원을 특별히 배치하고 여사대에서는 수시로 검열하여, 일직 당번에 나오지 않은 자는 벼슬 품계에 관계없이 그를 잡아 가둔 다음 나에게 보고하라"
 - 5 ○ 3월 정축일에 난데없이 달만한 별이 서북쪽에 나타나더니 이내 혜성으로 변하였다.
 - 6 ○ 거란에서 다시 국호를 대료라고 하였다.
 - 7 ○ 4월 경인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 8 ○ 갑진일에 사재경 고부창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국호 개칭을 축하하였다.
 - 9 ○ 병오일에 태복경 대리 이충현이 소탄하고 게을러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므로 그 직에서 파면하였다.
 - 10 ○ 7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7월달은 곡식이 성숙하는 때인데 아직도 늦더위로 인하여 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필연코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여 억울한 죄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 11 나는 밤낮으로 근심이 되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으니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원들은 내 뜻을 받들어 형벌을 고려하고 죄수들을 심사하여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 12 ○ 11월 임자일에 요나라 황선사인 귀주 자사 야을하가 우리 나라에 왔다.
 - 13 ○ 12월 초하루 신사일에 요나라에서 송록경 왕거혹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4 ○ 정미 21년(1067) 봄 정월 경신일에 흥왕사가 완성되었다. 이 절은 총 2천 8백 칸으로서 12년 만에 공사를 마친 것이었다.
- 15 왕이 재를 올림으로써 낙성식을 거행하려 하는데 각 지방으로부터 종들이 모여들어 그 수를 헤일 수 없 이 많았다.
- 16 병부상서 김양과 우가승록 도원에게 명령하여 불교에 수양이 있는 자 1천 명을 골라서 이 모임에 참가하게 하고 그들을 흥왕사에 그대로 남아 있게 하였다.
- 17 ○ 무진일에 흥왕사에서 5주야에 걸친 연등 대회를 특별히 열고 정부의 모든 관리들과 안서 도호부, 개성부, 광주, 수주(水州), 양주, 동주(東州), 수주(樹州) 등 5개 주와 강화, 장단 두 현들에 명령하여
- 18 대궐 뜰에서부터 흥왕사 문간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5색 비단으로 감은 시형대를 준비하게 세워 비늘(鱗)처럼 겹겹이 잇대이게 하고
- 19 왕의 수레가 통과하는 큰길 좌우에는 등 장대를 수풀처럼 세워 대낮과 같이 밝게 하였다.
- 20 이날 왕은 호위병을 앞뒤에 세우고 백관들과 함께 향불을 피운 다음 재물과 의복을 시주하였다. 이처럼 성대한 불교 행사는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 21 ○ 신미일에 왕이 신봉루 동쪽의 장전에서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 22 ○ 병자일에 창릉에 참배하였다. 준비업을 담당 집행한 관리들에게는 벼슬을 한 급씩 높여 주고 시종한 군사들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23 ○ 2월 초하루 기유일에 왕이 신봉루에 나가서 흥왕사가 완성된 것을 계기로 대사령을 내렸다.
- 24 ○ 경오일에 이제부터는 모든 주, 현들에서 어포(魚脯)를 바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 25 ○ 3월 기축일에 퇴직 중에 있던 중서령 왕충지가 죽었다.
- 26 ○ 계사일에 명령하기를 "전 문하시종 최항 및 강감찬과 참지정사 김맹 등은 고상한 절개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 왕대를 섬겨 그 공로가 청사에 빛나고 있다.
- 27 이제 국내가 태평무사하고 백성들이 나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다 그들의 힘이니
- 28 최항과 강감찬에게는 수 태사 겸 중서령을, 김맹에게는 태자태사 문하시종을 각각 추증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 29 ○ 무술일에 왕이 장원정에 갔다.
- 30 ○ 을사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잡곡 4만 9천 4백 석을 북부 지방의 주, 군들에 수송하여 변방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 31 ○ 가을 7월 계사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32 ○ 9월 을유일에 왕이 송악정에 가서 주연을 배설하고 문학을 하는 신하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59 고려사상

- 33 ○ 정유일에 국사 해린이 연로하여 절간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 34 왕이 현화사에서 그를 친히 전송하면서 차, 약, 금은 기명, 비단, 보물들을 주었다.
- 35 ○ 겨울 12월 초하루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호평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6 ○ 이 해, 윤 정월 정해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잉을 등 2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7 ○ 무신 22년(1068) 5월에 명령하기를 "봄부터 여름이 지나도록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고 뜨거운 별이 내리뿔어 농작물이 타고 있다.
- 38 이것은 아마도 나의 덕이 부족하여 이러한 재앙을 초래하는 듯하다. 내가 자신을 반성하고 선정을 실시함으로써 하늘이 준 징계에 대처하려 하노니
- 39 오늘 이전까지의 전국의 잡범들과 공사범으로서의 유형(流刑), 민사범으로서의 도형(徒刑) 이하 죄수들을 전부 석방하라"
- 40 ○ 6월 경신일에 동계(東界) 병마사가 아뢰기를 "판관 임희열, 녹사 정신, 장군 거흥 등이 전함을 타고 초도(槀島)를 순행하다가
- 41 적선 10척과 조우하여 이를 쳐부수고 전함 7척을 노획하였으며 수다한 인원을 살상 포로하였습니다" 하니
- 42 왕이 그들을 가상히 여겨 희열 등에게는 편복(便服) 한 벌, 도금한 은대(銀帶) 한 개씩을 주고 기타 전광을 세운 자들에게는 모조리 벼슬과 상품을 주었다.
- 43 ○ 7월에 동계 병마사가 아뢰기를 "판관 임희열, 도부서 부사 배행지, 원흥진 부사 석수규 등이 또 초도(槀島)를 순시하다가
- 44 밤에 염라포(閻羅浦)에 이르러 적선 8척과 마주쳐 그 중 3척을 격파하였습니다.
- 45 남은 적들이 혼란에 빠져 육지로 도망하려 할 때에 그들을 추격하여 30여 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였다.
- 46 ○ 8월 정사일에 왕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송나라 진사 신수, 진장고, 지원빈 등을 불러서 옥축정에서 시부(詩賦)를 시험하게 하였다.
- 47 ○ 12월 초하루 기해일에 요나라에서 익주 관내 관찰사 위성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8 ○ 이 해에 동여진에서 정월, 6월, 10월에 귀덕장군 상군, 귀덕장군 안구 등, 회화장군 아린 등이 내조하였고,
- 49 ○ 3월 정묘일에 탐라 성주 유격 장군 가야임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50 ○ 7월 신사일에 송나라 사람 황신이 와서 왕을 뵈옵고 말하기를 "우리 황제께서 강, 회, 양절, 형호 남북로 도대제치 발운사 나중을 불러,
- 51 그에게 이르기를 '고려는 예로부터 군자의 나라로 알려져 왔고, 그들의 선대로부터 우리 나라에 극진

- 한 성의를 표시하여 왔는데, 그 뒤에 이르러 호상 내왕이 두절된 지 오래이다.
 - 52 근자에 듣건대 그 나라 임금이 현명하다고 하니, 사랑을 보내 인사를 치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 53 그리하여 나중의 추천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 황제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 54 왕이 기뻐하여 그에 대한 접대를 후하게 하였다.
 - 55 ○ 7월 송나라 상인 임녕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6 ○ 기유 23년(1069) 5월 경진일에 왕이 장원정에 갔다가 정자 밑 연못 속에서 상서로운 무늬가 있는 돌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신들에게 가사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 59 ○ 12월 초하루에 요나라에서 어사종승 고훝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요나라의 동경 회례사 검교 우복야 야율극리가가 우리 나라에 왔다.
 - 60 ○ 이 해, 정월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사어하가 내조하였고
 - 61 ○ 6월, 7월에 송나라에서 상인 양종성, 왕녕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62 ○ 경술 24년(1070) 봄 정월 경자일에 별이 대구현에 떨어져 돌로 변하였다.
 - 63 ○ 계유일에 이날은 연등 대회이므로 왕이 중광전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태자, 여러 종친들 및 측근 신하들과 함께 놀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 64 ○ 15일은 한식이요, 13일은 국기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12일을 연등날로 정하였던 것이다.
 - 65 ○ 5월 임인일에 왕이 왕자 정을 현화사로 보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게 하였다.
 - 66 ○ 6월에 흥왕사에 성을 쌓았다.
 - 67 ○ 11월 갑오일에 서울 주변 사면에 고수탄철고를 설치하였다.
 - 68 ○ 12월 초하루 정사일에 요나라에서 위위경 화육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9 ○ 이 해, 8월 신미일에 송나라의 호남, 형호, 양절 발운사 나중이 다시 황신을 파견하여 왔으며
 - 70 ○ 8월 왕이 명령을 내려 서여진의 추장 회덕의 아버지 이우불은 선대 임금 때부터 변강 수비에서 세운 공로가 있으니 회덕에게 봉국 장군 벼슬을 주라고 하였다.
- 42** ○ 신해 25년(1071) 3월 경인일에 민관(民官) 시랑 김제를 시켜 글월과 예물을 가지고 송나라에 가게 하였다.
- 2 이에 앞서 황신이 돌아갈 때에 복건에 공문을 보내 예물을 갖추어 조공하겠다는 것을 알린 바 있었으므로 이 때에 와서 김제를 파견하는데 등주를 거쳐서 들어가게 하였다.
 - 3 ○ 5월 무술일에 사현대에서 아뢰기를 "송나라 출신인 주향은 원래 문예에 재능이 있어서 등용하였던 것인데,

- 4 이제 탐오죄를 범하였사오니, 그의 관직과 토지를 회수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 ○ 6월 경신일에 안장공 송유는 삼한 공신 태부 소격달의 현손이므로 특별히 그를 천역에서 해방시켜 벼슬을 하도록 하였다.
- 6 ○ 9월 경인일에 왕이 이날은 중양(重陽, 음력 9월 9일)이라 하여 상춘정에 나가서 태자, 계령후, 평양후, 재상 이유충, 왕우승 등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 한 필씩을 주었다.
- 7 ○ 11월 을미일에 왕이 팔관회를 열고 법왕사(法王寺)에 갔다.
- 8 ○ 12월 초하루 신해일에 요나라에서 익주 자사 고연길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9 ○ 이 해, 서여진에서 정월, 4월, 11월에 회화장군 분태 등, 추장 노우달 등 10명, 추장 호마달 등 18명, 추장 인주 등 10명이 토산물을 바쳤으며 요연 등이 5월에 내조하여
- 10 추장 호마달 등에게 귀덕장군을 주고 노우달 등에게 벼슬과 전례에 준하여 물품을 주었으며 특별히 요연에게 상을 주었으며
- 11 ○ 11월 신축일에 서여진의 추장 만두불 등이 부하인원을 인솔하고 귀순하여 오므로 그들에게 관직과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12 ○ 동여진에서는 3월에 귀덕장군 상군 등 22명이 납치되어 갔던 우리 나라 사람들을 빼내어 돌려 보냈으며,
- 13 9월, 11월에 귀덕장군 고사 등 15명, 회화장군 사어하 등 20명, 추장 다로곤과 상군 등 58명이 토산물과 좋은 말을 바쳤다.
- 14 ○ 송나라에서 9월, 10월에 객만 등 33명, 원적 등 36명, 왕화 등 30명, 허만 등 61명의 상인들이 토산물을 바쳤다.
- 15 ○ 임자 26년(1072) 봄 정월에 왕이 예부에 조서를 내려 예복 제도를 다시 제정하도록 하였다.
- 16 ○ 6월 갑술일에 김재가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 17 그 편에 송나라 황제의 칙서에 "귀국 사신 김재의 말에 의하여 귀국에서 보소왕사에 은을 납부하고 재(齎)를 올려 나의 수명을 기원한 사실을 알았다.
- 18 기자가 원래 요하 동쪽에서 봉지를 받았었고, 그 후 승가(僧伽)가 사수(泗水) 가에서 불교를 전전하였다.
- 19 마침 이 절에 사신을 보내 재를 정성껏 올렸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축수까지 하였으니 당신의 성의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였다.
- 20 ○ 송나라에서는 우리 나라가 문교를 숭상하는 곳이라 하여 조서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글 잘 하는 신하를 선발하여 조서를 짓도록 하되
- 21 그 중에서도 잘 지은 것을 선택하였으며 파견하는 사신과 서장관은 반드시 중서성으로 불러서 그의 문필을 고사하여 본 뒤에야 보냈던 것이다.
- 22 ○ 가을 7월 병오일에 교위 거신(巨身)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단되었다.
- 23 ○ 겨울 11월 초하루 병오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자사 야율직을 보내 3년에 1차씩 예방하는 의례를 지켰다.
- 24 ○ 12월 초하루 을해일에 요나라에서 검교 태위 장일화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5 ○ 이 해, 동여진에서 정월에 마두한 등 25명이 귀순하여 왔고
- 26 9월, 12월에 상군, 사어하 등이 와서 준마와 토산물을 바쳤다.
- 27 서여진은 5월에 귀덕 장군 마사내(麼舍乃)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28 송나라에서 6월에 의관(醫官) 왕유, 서선 등을 보내 왔다.
- 29 ○ 계속 27년(1073) 봄 정월 초하루 을사일에 지진이 있었다.
- 30 ○ 2월 초하루에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평리역(平理驛)에 정자를 지어 왕이 순행할 때에 휴식하는 곳으로 삼게 하였다.
- 31 ○ 2월 을미일에 동여진의 귀순주 고도화, 부도령 고사,
- 32 익창주(益昌州) 도령 귀덕 장군 고사, 도령 금부와
- 33 전성주(氈城州) 도령 봉국 장군 야호, 귀덕 장군 오사불과
- 34 공주(恭州) 도령 봉국 장군 다로, 변장 파아불과
- 35 은복주(恩服州) 도령 원보아홀, 도령 나가수와
- 36 온주(溫州) 도령 상빈, 아로대와
- 37 성주(誠州) 도령 이다불 등이
- 38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귀순하여 와서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기를 청원하였다.
- 39 왕이 그들을 가상히 여겨 고도화의 이름은 손보새(孫保塞)로,
- 40 고사(高舍)의 이름은 장서충(張誓忠)으로 명명하여 각각 회화 대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 41 야호의 이름은 변최(邊最)로,
- 42 다로의 이름은 유항빈(劉咸賓)으로 명명하여 각각 봉국 대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 43 오사불의 이름은 위번(魏蕃)으로 명명하여 회화 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 44 아홀의 이름은 양동무(楊東武)로 명명하여 귀덕 장군 벼슬을 주었으며
- 45 고사(古舍)의 이름은 문격민(文格民)으로,
- 46 금부의 이름은 강적(康績)으로,
- 47 파아불의 이름은 노수(盧守)로,
- 48 나가수의 이름은 장대원(張大垣)으로,
- 49 상빈의 이름은 한방진(韓方鎭)으로,
- 50 아로대의 이름은 고종화(高從化)로,
- 51 이다불의 이름은 조장위(趙長衛)로 명명하여 각각

61 고려사상

대상 벼슬을 주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52 성주(城主) 도령 봉국 대장군 소덕(蘇德) 등 14명이 와서 명마(名馬)를 바쳤다.
53 ○ 정유일에 왕이 봉은사에 가서 연등회를 특별히 열고 새로 만든 불상을 찬송하였다.
54 이때에 가로에는 이를 밤에 걸쳐서 각각 3만 개의 등불을 밝혔으며, 중광전과 각 관아에는 모두 채단으로 장식한 다락과 등불 산을 장치하고 풍악을 잡혔다.

43 ○ 여름 4월 병자일에 명령을 내렸다. "동북 변경 15개 주 바깥에 있는 번인(蕃人)들이, 2 계속 귀순하여 와서 군현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으니, 3 이것은 실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을 감화시켰던 덕택이다. 재상들로 하여금 중요 사직에 이 사유를 먼저 고하게 하고, 4 멀고 가까운 번인들이 완전히 귀순하기를 기다려서 주현들을 획정한 뒤에는 중요와 사직에 내가 친히 감사를 드리려고 한다. 5 이 행사에 따르는 절차와 태자가 대행하는 의식에 대하여 해당 관원들은 이를 상세히 토의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하였다.
6 ○ 5월 정미일에 서북면병마사가 아뢰기를 "서여진의 추장 만두불 등 여러 번인들이, 7 자기들도 동번(東蕃)의 예에 준하여 주군을 설치하여 준다면 영구히 번병이 되어 강히 거란 계열의 번인들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였다.
8 왕이 명령을 내려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이 뒤에도 귀화하여 오는 자가 있으면 이를 무마하여 품안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9 또 서북면병마사가 아뢰기를 "평로진(平虜鎭) 인접 지역에 있는 번인의 우두머리 유원 장군 곁어부와 먹해촌(覓害村)의 요결 등이 와서, 10 말하기를 '우리는 종전에 이제촌(伊齊村)에 살면서 거란의 대완(大完)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재차 귀국의 무마하는 혜택을 입었고 11 기유년 11월에는 정부에 올라가서 융성한 물자와 함께 관직까지 받게 되어 감격함을 금치 못하겠으나 12 우리들의 사는 곳이 여기서 4백 리나 되기 때문에 왕래가 매우 곤란하다. 13 청컨대 적야호(狄耶好) 등 5호와 함께 거란의 영향 하에 있는 번인들을 먹해촌으로 인입하여, 귀국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영구히 번병이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14 그리하여 실정을 조사해 본즉 세대 수가 35호요, 인구가 2백 52명이오니, 이들을 호적에 등록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15 번인의 우두머리가 또 말하기를 '삼산촌 산곡과 해

변에 분산되어 있는 번적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을 살육함으로써 우리의 원수로 되어 있다. 16 이제 복수를 하고자 귀화 지역인 삼산촌 중윤 야서로 등을 설복시켰고, 삼십도(三十徒)의 추장들도 이에 호응하여 각각 번군을 거느리고 와서 방금 곧 진격하려고 하니 17 그 지방 사람들을 파견하여 전투 정형을 참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고 하였습니다. 18 그리하여 정주 낭장 문선과 장교 및 통역들을 시켜 번인의 복색을 차리고 나복기촌 도령상군의 부하 번군들과 함께 떠나게 하였더니, 19 문선으로부터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에 '골면(骨面) 등 촌의 도령들이 각각 장병을 인솔하고 삼산촌 아방포(阿方浦)에 이르러 적의 소굴을 정찰한즉, 20 대체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전촌(由戰村), 해변 산마루, 나갈촌(羅竭村)의 적 1백 50호가 냇가에 돌성을 구축하여 남녀노소와 재산들은 거기에 모아 놓고 보병, 기병 5백여 명의 병력으로 항전하여 나섰다. 21 우리측 번군이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공격하여 적들을 크게 혼란시킨 다음 적 2백 20명의 목을 베었더니 나머지 적들은 자기들의 성으로 달려가서 이를 지키려 하였다. 22 이때에 우리측 번군이 승승장구하는 기세로 적을 추격하여 성을 부수고 불을 질러 적 3백 32명을 생포하였으며 성에서 항거하던 자들은 모두가 불에 타 죽었다. 23 또 유전촌으로 진격하였으나 때마침 큰비가 내리고 군량이 부족하므로 군대를 수습하여 가지고 퇴각하였다가 24 수일을 지나서 다시 번병 2천 30명을 인솔하고 유전촌의 돌성 밑으로 진주하였으나 적들이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25 이 성이 험악한 관계로 결국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퇴각하였다.'고 합니다. 26 금번 나갈촌 전투에서 도령, 대완들인 다어개(多於皆), 아반니(阿半尼) 등의 번군 장수 6백 80여 명은 힘껏 싸워서 적을 격파하였고, 27 문선 등 15명은 전투를 지휘함에 있어서 공로를 세웠사오니 그들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고무 격려하는 뜻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28 이에 대하여 문하시중 최유선 등 13명이 서로 협의한 후 왕에게 아뢰기를 "삼산촌에 있는 자들은 원래 우리 변경을 침범하는 적이 아닙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번군들이 조정의 지시도 없이 자의로 우세한 병력을 믿고 사사로운 원수를 보복한 데 불과하였사오니, 청컨대 그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0 ○ 6월 무인일에 동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상산, 대란(大蘭), 지촌(支榦) 등 9개 촌락 및 소을포촌(所乙浦村)의 변장 영한과 소지들의 전리(前里) 변장 야반이와 대지졸, 나기나, 오안, 무이주, 골아이 변장 소은두 등 1천 2백 38호가 와서 국적에 들기를 청원합니다.
- 31 대지졸로부터 소지졸 요응포 해변까지의 장성(長城)이 약 7백 리에 달하며, 지금 변인들이 연락 부절하게 귀순하여 오고 있사오니,
- 32 관방을 설치하여 그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관리를 하여금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주(州)의 명칭을 정하게 하는 동시에 주기(朱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3 ○ 기묘일에 서경 장군 유섭이 암록강을 수비하고 있을 때에 수군 중에는 거란인으로서 귀순하여 온 자가 있었는데,
- 34 거란으로부터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월강한 자가 장성(長城)을 넘어 정주(靜州)까지 박근하였으나 유섭은 이를 방어하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명령을 내려 그의 관직을 파면하게 하였다.
- 35 ○ 을미일에 동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동번의 대제자고하사 제12촌 변장 곤두괴발 등 1천 9백 70호가 상군(霜昆)의 예에 준하여 우리에게 귀속되기를 청원하여 왔으며
- 36 두룡골이(豆龍骨伊), 여파한(餘波漢) 등 부락의 변장 아로한 등도 우리의 주현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37 그런데 이들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그 거리가 먼 관계로 예로부터 아직 조공한 일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모두 귀순하였습니다.
- 38 이제 만일 계선을 정하고 관방을 설치한다면 여파한(餘波漢) 영 바깥에 있는 제차고(齊遮古), 대사이(大史伊), 칭견(稱見), 곤준(昆俊), 단준(丹俊), 몰비화두(無乙比化豆) 등 지역은,
- 39 그 한계가 끝없이 광활하고 변인들이 연달아 살고 있는 만큼, 그곳에 모조리 요새지를 설치할 수는 없사오니,
- 40 여파한 영 바깥에 있는 변인들의 지역이 우리 주현으로 된 뒤에 점차로 먼 곳에 있는 변인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41 ○ 병신일에 병마사가 아뢰기를 "동번의 해적들이 동경 관내 파장 부곡에 침입하여 백성들을 납치하여 갔으므로,
- 42 원흥진 도부서 장병들이 전함 수십 척을 동원하여 초도(椒島)로 나가서 그들과 교전하여 적 12명의 목을 베고 포로 16명을 탈환하였습니다" 하니,
- 43 왕이 기뻐하여, 지 병마사 비서감 이성미와 영군 도부서 장군 영한 등에게 은(銀)과 약을 함하여 한 가

- 지씩 주고 공로가 있는 다른 장수와 관리들에게는 벼슬과 상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4 ○ 가을 7월 초하루에 관원들이 왕에게 아뢰기를 "동북면 병마사의 보고에 의하면 지졸촌, 나발촌(那發村), 요와촌(婁臥村), 대신촌(大信村), 서호촌(西好村), 무주기촌(無主其村) 등 부락 변장이 토산물과 명마(名馬)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니, 왕이 명령을 내려 이 제의를 좇았다.
- 45 ○ 병오일에 명령하기를 "흑수 출신 통역인 가서로가 동번 사람들을 설복시켜 주군에 편입시킨 공로가 있으니, 그에게 감문위 산원 벼슬과 고맹(高孟)이라는 이름을 주라"
- 46 ○ 동남해 도부서에서 아뢰기를 "일본국 사람들인 왕축, 정송, 영년 등 42명이 와서 나전(螺鈿), 안장(鞍橋), 도경(刀鏡), 갑연(匣硯), 상즐(箱槨), 서안(書案), 화병(畫屏), 향로, 궁시, 수은, 나갑(螺甲) 등 물품을 바치려 하고,
- 47 일기도 구당관 등정안국 등 33명을 파견하여, 역시 동공과 여러 대신들에게 토산물을 바치려고 청합니다" 하니, 왕이 그들에게 해로를 통하여 서울로 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 48 ○ 8월 정해일에 태복경 김양감과 주서사인 노단 등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은혜를 사례하게 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이날 송나라 의원들인 왕유, 서선 등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 49 ○ 9월 갑진일에 한림원에서 아뢰기를 "동여진의 대란(大蘭) 등 11개 촌락의 귀화인들이,
- 50 자기들의 거주 지역이 빈주(濱州), 이주(利州), 복주(福州), 항주(恒州), 서주(舒州), 습주(濕州), 민주(閩州), 대주(戴州), 경주(敬州), 완주(宛州) 등 11개 주로 각각 편입되기를 청하오니,
- 51 그들에게 각각 주기(朱記)를 주어 귀순주에 소속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52 ○ 겨울 10월 임오일에 평양후 수(瑋)를 책봉하는데, 이날 채봉(綵棚) 악부(樂部) 등 차림새가 굉장하였다.
- 53 왕이 비빈들과 태자 및 여러 종친들을 데리고 몰래 나가서 의식을 구경하였다.
- 54 ○ 11월 신해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 나가서 풍악을 구경하였다.
- 55 이튿날 연등 대회에서는 송, 흑수, 탐라,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
- 55 ○ 12월 초하루 경오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자사 대택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44 ○ 갑인 28년(1074) 7월 경자일에 문두루도량을 동경(東京) 사천왕사(四天王寺)에 설치하고 27일만에 걸쳐 번병(蕃兵)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2 ○ 겨울 12월 초하루 갑자일에 요나라에서 송록경가

63 고려사상

- 영(賈詠)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 ○ 이 해, 일본국이 2월에 선두(船頭) 중리(重利) 등 3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 ○ 동여진에서 6월에 회화 장군 조양인 등이 말을, 8월에 귀덕 장군 소라 등 28명이 와서 명마를 바쳤다.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 ○ 서여진에서 9월에 귀덕 장군 고수 등 10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6 ○ 송나라에서 6월에 양주 사량인 의학 조교(助教) 마세안 등 8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7 ○ 을묘 29년(1075) 여름 4월 병인일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거란에 파견하였는바,
- 8 형부 시랑 최석은 천안절을 축하하게 하고,
- 9 전중 내급사 전함정은 곤녕절을 축하하게 하고,
- 10 도관 원외랑 조유부는 신년을 축하하게 하고,
- 11 전중 시어사 허충은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 12 ○ 병술일에 한재가 계속되므로 각처에서 토목 공사에 동원되어 온 사람들을 돌려 보냈다.
- 13 ○ 5월 초하루에 태사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한발이 계속되므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듯하오니, 산악과 하천들에 비를 빌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14 ○ 가을 7월 을축일에 요나라의 동경 병마 도부서에서 자기들의 함옹(咸雍) 11년을 대강원년으로 개칭하였다는 것을 통고하여 왔다.
- 15 ○ 계유일에 요나라의 동경 병마 도부서에서는 추밀원이 시달한 공문에 준하여 압록강 이동의 국경을 획정하지는 통첩을 보내왔다.
- 16 ○ 기묘일에 지중추원사 유홍과 상서우승 이당강 등을 파견하여 요나라의 사절과 함께 국경을 심의 확정하게 하였더니 결정을 짓지 못한 채 돌아왔다.
- 17 ○ 겨울 10월 병신일에 혜성이 진성(軫星) 성좌에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7척이 넘었다.
- 18 ○ 11월 을해일에 요나라에서 횡선사 익주 관내 관찰사 아을보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였다.
- 19 ○ 12월 초하루 무자일에 요나라에서 태부 무달(武達)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0 ○ 이 해, 일본에서 4월, 6월에 상인 대강 등 18명, 조원, 시경 등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7월에 상인 59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 21 ○ 송나라에서 5월, 6월에 상인 왕순만 등 39명, 임녕 등 35명이 토산물을 바쳤다.
- 22 ○ 병진 30년(1076) 4월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소유강을 보내 자기의 황태후가 죽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 23 ○ 기유일에 왕이 흰 난상을 입고 문무 백관들과 함께 함문 앞에 나와서 조서를 접수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하였다.
- 24 호부 상서 왕석과 형부 시랑 이자위를 요나라에 파견하여 조문을 하고 장례식에 참가하게 하였다.
- 25 ○ 8월 정해일에 공부 시랑 최사량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은혜를 사례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 26 ○ 경술일에 해당 관리가 왕에게 아뢰기를 "거란 정부가 정음진(定戎鎭) 관문 바깥에 암자를 설치하였사오니 사절을 파견하여 그것을 철거하도록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27 ○ 10월에 해당 관리가 왕에게 아뢰기를 "일본국의 승려, 속인 등 25명이 영광군(靈光郡)에 와서 대왕의 수명을 축원하기 위하여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서울로 가서 이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 28 ○ 11월 경오일에 이날은 동짓날이므로 명령을 내렸다. "이날부터 한 줄기의 양(陽)이 처음으로 동하고 만물이 생기를 품게 되나니 마땅히 만물을 보호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 29 주부군현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천렵하고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되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라"
- 30 요나라에서 송록경 석종회를 파견하여 대행 황후의 유물인 의복, 비단, 은그릇 등속을 선사하면서,
- 31 조서를 보내기를 "하늘이 무성하여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다. 한없이 애절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하라. 이제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이러한 물품을 보내는 바이다." 하였다.
- 32 ○ 12월 초하루 계미일에 요나라에서 송록경 곽선리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33 이 해에 관제를 개정하였다.
- 34 ○ 정월, 2월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장항 등 19명, 귀덕 장군 개로 등 10명, 가봉 등 20명이 준마, 명마, 토산물을 바쳤다.
- 35 ○ 정사 31년(1077) 5월에 이날은 왕의 아버지 현종의 제삿날이므로 왕이 흰 난상을 입고 정전에서 피해 앉았으며, 이날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음악과 수렵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
- 36 ○ 6월 정미일에 이날은 왕태후의 제삿날이므로 대신들이 글을 올려 왕을 위로하였고, 서울과 지방에서는 음악을 중지하였다.
- 37 ○ 8월 신묘일에 나주도 제고사 대부소경 이당강이 아뢰기를 "중국 사절들을 영접하고 전송함에 있어서 고만도(高巒島)에 있는 정각은 항구가 약간 멀고 배를 대기도 불편하오니
- 38 홍주(洪州) 관내인 정해현(眞海縣) 지구에 정각을 하나 새로 지어서 사절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장소로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 39 왕이 이를 승인하였으며 새로 지은 정각을 안흥정(安興亭)이라고 하였다.
- 40 ○ 12월 초하루 정축일에 요나라에서 경교 태부 양상길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1 ○ 이 해, 2월, 11월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방진 등 20

명, 귀덕 장군 강수 등 50명이 존마, 명마를 바쳤고,
42 ○ 7월, 9월에 송나라 상인 임경 등 28명, 양종성 등 49명이 토산물을 바쳤으며, 12월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쳤다.

- 45** ○ 무오 32년(1078) 2월 병진일에 연등회를 열었다. 보름날은 한식이었기 때문에 3일이나 앞당겼던 것이다.
- 2 ○ 4월 갑자일에 이날은 송나라 황제의 생일이므로 동령, 대운 두 절에서 축수재(祝壽齋)를 올렸다.
- 3 ○ 신미일에 송나라 명주(明州) 고윤공이 통첩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자기 나라에서 사절을 파견하며 서신을 교환하러 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
- 4 왕이 말하기를 "송나라에서 우리에게 사절을 파견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으랴. 나는 일변 기쁘기도 하고 일변 놀람기도 하다.
- 5 사절 접대를 담당할 모든 관원은 각각 직책을 다하여 실수가 없게 하라.
- 6 열성과 재능을 발휘한 자에게는 벼슬을 높여 줄 것이요,
7 태만하고 용렬하여 과실을 범한 자에게는 별도로 강직 혹은 파직을 적용할 것이다." 하였다.
- 8 ○ 5월 경자일에 공부 상서 문황과 호부 시랑 최사훈을 시켜 안흥정에서 송나라 사절을 영접하도록 하였다.
- 9 ○ 6월 갑인일에 송나라의 국신사(國信使) 좌간의대부 안도와 기거사인 진목 등이 예성강에 도착하였다.
- 10 병부상서 노단으로 하여금 연반(筵伴)이 되어 서교(西郊) 역정(驛亭)까지 동행하여 오게 하고,
11 또 중추원사 형부상서 김제를 연반으로 삼아 순천관(順天館)까지 영접하게 하였으며,
12 지중추원사 호부상서 김양강과 예부시랑 이량을 관반(館伴)으로 임명하였다.
- 13 정묘일에 태자를 순천관에 보내 송나라 사신을 인도하여 오게 하였다.
- 14 송나라 사절들이 창함문(闕閤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회경전 뜰로 들어왔다.
- 15 이때에 마침 왕의 몸이 불편하였으므로 측근 신하들이 왕을 부축하고 나와서 조서를 받았다.
- 16 조서 내용에 "당신은 대대로 복을 누리 상한을 통치하면서 예의와 문화를 숭상하여 우리나라를 한결같이 존경하고 뱃길로 공물을 보내게 되어 여러 차례 강과 바다를 건너왔다.
- 17 그러므로 특별히 사절을 보내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니 고명한 당신은 응당 이 후의를 이해할 것이다." 하였다.
- 18 왕이 조서 접수 예식을 치르고 나서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송나라 임금이 우리를 잊지 않고 멀리 대신을 보내,
19 이렇게 융숭한 물품을 주리라는 것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던가. 감사하기도 하려니와 그보다 부끄러운 생

- 각이 앞선다" 하였다.
- 20 태자가 모든 신하들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축하의 뜻을 진술하였으며 동서 이경(二京), 동북 양계(兩界)의 병마사들과 여덟 곳의 목(牧), 네 곳의 도호부에서도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
- 21 ○ 왕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건덕전에서 송나라 사절을 위한 연회를 배설하게 하였으며,
22 기사일에는 또 지중추원사 이부 상서 유흥에게 명령하여 송나라 사절이 들어 있는 사관으로 가서 피로연을 배설하게 하였다.
- 23 ○ 7월 을미일에 안도 등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 24 왕이 돌아가는 사절을 통하여 글월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자기가 풍비중으로 앓는다는 것을 말하고 의사와 약재를 보내라 하였다.
- 25 이때에 송나라와의 연계를 오랫동안 끊고 지내다가 안도 등이 처음으로 왔는지라 왕을 비롯하여 전국이 경사를 만난 듯이 기뻐하였다.
- 26 송나라에서 전례에 따라 선사한 의복, 말안장 등속을 제외하고 금은 보화, 미곡(米穀) 기타 이려저려한 물품을 준 것이 이루 헤일 수 없었다.
- 27 사절이 돌아가려 할 때에 배에 다 싣지 못하여, 자기들이 받은 물품들을 은(銀)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니 왕이 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요청을 들어 주게 하였다.
- 28 송나라 사신 안도, 진목 등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인색하여 매일 공급받는 반찬 값을 때어서 녹은 값으로 은을 바꾼 것이 굉장히 많았다.
- 29 이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 시랑 단이 사절로 왔다가 돌아간 뒤로 중국 사신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이므로,
30 이번에 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고상한 풍모를 보려고 기대하였더니 그들의 하는 것이 이리할 줄은 몰랐다" 하였다.
- 31 ○ 이달에 흥왕사의 금탑이 완성되었다. 이 탑은 안에는 은을 받치고 곁에는 금을 입혔는데 은이 4백 27근이요, 금이 1백 44근이었다.
- 32 ○ 9월 초하루 계유일에 일본국에서 탐라 표류민 고려(高麗) 등 18명을 돌려 보내었다.
- 33 ○ 갑오일에 도병마사가 왕에게 아뢰기를 "팔조음부곡(八助音部曲)은 성이 해변 평지에 있는 관계로 동로 해적의 침략을 자주 당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사오니 그 성을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4 여진의 고마수 등 14명이 귀순하여 왔다. 그들을 남방 지역 주현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 35 ○ 겨울 10월 갑진일에 동여진의 마리해 등 23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그들의 이름을 고치고 벼슬을 주었다.
- 36 ○ 11월 정유일에 요나라의 선사사 익주, 관내 관찰

65 고려사상

사 아올은이 우리 나라에 왔다.

37 ○ 12월 초하루 신축일에 요나라에서 위위경 여사안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46 ○ 기미 33년(1079) 4월 갑진일에 국내 명산 대천의 신들에게 “지기(知幾)”라는 두 글자의 칭호를 더 붙이었다.

2 ○ 기유일에 동북면 병마사가 아뢰기를 "여진의 야음간이 정주(定州) 홍화수(弘化戌)로부터 여기에 와서,

3 간청하는 말이 '나의 아버지 아라불과 어머니 오쇄와 형 제주나 등 6명은 벌써 지난 정사년에 귀순하였으니 나도 그들을 따라 와서 살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왕이 말하기를 "그들이 예절은 모를지언정 그래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으니 부모 친척을 따라 와서 같이 살도록 하고 영남 지방으로 이주하게 하라" 하였다.

5 ○ 서여진의 수우나 등 7명이 내조하여 거란에서 받은 직첩을 바쳤다. 해당 관리가 그의 벼슬을 원보로 고쳐 주자고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그들에게 금과 비단을 주었다.

6 ○ 5월 무진일에 북번의 적들이 평로진(平虜鎭)의 관문에 침입하였다.

7 이 때 대정 강금, 종보 등이 풀숲 속에 잠복하여 적들이 오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적의 선봉 두 놈을 쏘아 놓으니 적들이 패배를 당하고 달아났다.

8 이에 대하여 병마사가 그들의 공로를 평정하여 상을 주자고 제의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9 ○ 7월 신미일에 송나라에서 왕순봉, 형조, 주도능, 심신, 소화급 등 88명을 보내왔다.

10 조서에 "당신이 보낸 글월을 받아 '내가 나이 많고 기력이 쇠진한 관계로 갑자기 품비증에 걸렸는데(생략)

11 신농씨가 발명한 약재를 보내 이 병에 써 보도록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당신은 접수하리라 믿는다'라는 사연을 잘 알았다.

12 당신과 같이 어진 사람에게는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 더욱 조섭을 잘 하여 멀리서 생각하는 이 마음을 보답하기 바란다.

13 이제 함운통사사인 왕순봉과 한림의관 형조 등을 당신에게 보내 병을 치료하게 하고 겸하여 1백 가지의 약품을 별지와 같이 보내니 도착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하였다.

14 ○ 9월에 일본국에서 폭풍에 표류하여 갔던 우리 나라 상인 안광 등 44명을 송환하였다.

15 ○ 11월 기사일에 일본 상인 등원 등이 와서 법라(法螺) 30개와 해조(海藻) 3백 석(束)을 흥왕사에 시주하고 왕의 장수하기를 축원하였다.

16 ○ 임신일에 탐라의 구당사 윤응균이 별처럼 번쩍거

리는 큰 진주 두 개를 바쳤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야명주(夜明珠)라고 하였다.

17 ○ 12월 초하루 을미일에 요나라에서 기거량 마고준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18 ○ 이 해 2월에 동여진의 추장 누라 등이 와서 준마를 바쳤고

19 ○ 서여진의 귀덕 장군 고란 등 20명이 낙타(駱駝)를 바쳤으며

20 ○ 8월 정사일에 송나라 상인 임경 등 2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21 ○ 경신 34년(1080) 3월 임신일에 형부에서 아뢰기를 "호부에서 흥왕사의 토지를 마음대로 떼어서 만령전(萬齡殿)에 주었사오니 그에 대한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22 왕이 명령을 내려 호부 관리들의 벼슬을 삭탈하여 시골로 추방하게 하였다.

23 ○ 호부 상서 유홍과 예부시랑 박인량 등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약재(藥材)를 보내 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24 ○ 6월에 흥왕사의 석탑이 완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대사령을 내렸다.

25 ○ 7월 계해일에 유홍 등이 송나라로부터 귀환하였다.

26 그 편에 송나라에서 8통의 칙서를 보내왔다. "귀국은 동방에 위치하여 대대로 행복을 누리 오면서 도덕을 숭상하여 과실이 없고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규율이 엄격하다.

27 이에 당신을 찬양함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더욱 두텁게 하려 하는 바이다." 하고,

28 "나에 대한 사례로서 보내온 물품들을 잘 받았다. 전번에 사신을 시켜 당신에게 예물을 보낸 것은,

29 나의 지극한 뜻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보답하려는 것이었는데 또 이렇게 공물과 글월을 보내었으니 당신의 간곡한 태도에 진실로 탄복하는 바이다." 하고,

30 "(생략) 보내온 물품을 이렇게 받은 다음 내가 다시 선물을 주어 나의 사랑하는 후의를 표시하는 바이니 더욱 조심하여 이 영예를 영구히 누릴 것이다." 하고,

31 "귀국 사절이 공물을 바치기 위하여 큰 바다를 건너 오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생명이 위험하였고 물품도 더러 유실하였다.

32 이것은 배를 잘 조종하지 못한 탓이요, 사명을 옳게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33 더군다나 당신은 우의를 앞세워 영원한 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34 그렇다면 벌써 우의가 두터움을 인정하였으니 오로지 물품 다과를 따지겠는가?

35 나의 권고하는 말을 침착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바란다." 하였다.

36 이에 앞서 유홍 등이 바다에 들어서자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하마터면 배가 전복될 뻔하였다.

- 37 송나라까지 가서 공납할 토산물을 계산하여 보니 유실된 것이 거의 절반이었다.
 - 38 왕이 송나라 임금의 권고에 의하여 유충 등의 죄를 용서하였다.
 - 39 정묘일에 송나라에서 의사 마세안을 파견하여 왔다.
 - 40 ○ 12월 초하루 기미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고사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1 동번(東蕃)에서 병란을 일으켰다.
 - 42 중서시랑 평장사 문정을 판행영 병마사로, 동지중추원사 최석과 병부상서 영환을 병마사로, 좌승선 이의를 병마 부사로 각각 임명하여
 - 43 보병과 기병 3만을 거느리고 여러 방면으로 나가 치게 하였다. 이들이 적 4백 31명을 살상 포로하였다.
 - 44 ○ 이 해, 3월 동여진의 회화 장군 유신 등이 내조하였고
 - 45 ○ 윤 9월 경자일에 일본국의 살마주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 47** ○ 신유 35년(1081) 정월에 지 서북면병마사 왕저가 아뢰기를 "서번의 추장 아부환 등 9명은 변방 보위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이들에게 벼슬과 표창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 2 왕이 명령을 내려 아부환 등 3명은 유원 장군으로, 산두 등 6명은 회화 장군으로 각각 임명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라고 하였다.
 - 3 ○ 2월 초하루에 서여진의 추장 차단 등 6명이 와서 철갑옷과 무기를 바쳤다.
 - 4 왕이 그들에게 의복과 채색 비단을 차등 있게 주고, 명령을 내리길 "일체 동서 추장들로서 조정에 와서 조현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 5 병마사가 이를 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대궐로 들여보내는 것을 항구한 제도로 삼게 하라" 하였다.
 - 6 ○ 2월 병자일에 명령을 내렸다. "지난 겨울 10월달에 동북 지방에 있는 추악한 오랑캐들을 일조에 소탕하여 변방 양운이 깨끗이 가시게 되었다.
 - 7 이것은 다 위로는 역대 임금들의 신령이 돕고 아래로는 여러 장수들의 뛰어난 전략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다.
 - 8 이제 이미 승리를 거두고 개선한 이때 종묘와 6릉에 이 사실을 고해야 할 것이니 날을 가리어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라"
 - 9 ○ 3월 기미일에 이날은 송나라 임금의 생신이라 하여 마세안이 체류하고 있는 사관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경하여 예물을 주었다.
 - 10 ○ 4월 경진일에 예부상서 최사제와 이부시랑 이자위를 송나라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전달하고 경하여 의사와 약재를 보내 준 것을 사례하게 하였다.

- 11 ○ 임오일에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송나라 사람 양진이 상선을 따라왔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과거 응시자로서 여러 번 시험을 쳤으나 합격되지 못하였다고 하오니
- 12 그의 진술에 의하여 자기 본국으로 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3 ○ 5월 기축일에 동여진의 추장 진순 등 23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14 이날 명령을 내렸다. "일체 내조한 번인들이 서울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15일이 되면 전부 사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항구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 15 ○ 무술일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요나라에 파견하였는바, 함문인진사 고몽신은 천안절을 축하하게 하고 우보궐 위강은 왕의 생신에 물품을 보낸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고, 호부 낭중 하충제는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고 함문지후 최주지는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 16 ○ 가을 7월 기해일에 퇴직 중에 있던 전 참지정사 이장망이 죽었다. 그에게 광정이라는 시호를 주고 백관들로 하여금 회장(會葬)을 하게 하였으며 10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17 ○ 8월 기미일에 서여진의 만두 등 17명이 전 가족을 인솔하고 귀순하였다.
- 18 ○ 예빈성에서 아뢰기를 "옛규정에는 변방 주인으로서 일찍이 번적들에게 납치되어 갔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자진하여 돌아온 자와
- 19 송나라 사람으로서 재능이 있는 자 이외에는 흑수족이나 여진족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 이제 만두에 대해서도 옛규정에 준하여 돌려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였다.
- 21 이에 대하여 예부상서 노단이 아뢰기를 "만두 등이 비록 무지하다 할지라도 의리를 중히 여겨서 귀순한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사오니,
- 22 그들을 산남(山南) 지방 주현들에 배치하여 입적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23 ○ 신유일에 명령을 내렸다. "서경 궁궐은 오랜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퇴폐한 곳이 매우 많으니 장인(匠人)들을 동원하여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 24 서경에서 동서로 각각 10리 되는 지점에 새로 위치를 설정하여 좌우 궁궐을 건축함으로써 내가 지방을 순회할 때 머무르는 곳으로 삼게 하라"
- 25 ○ 9월 정유일에 동북번의 적 괴수 아해가 자기 자제들인 서해 등을 파견하여 조현케 하였다.
- 26 ○ 10월 갑자일에 왕이 평주 온천에 갔다가 계유일에 환궁하였다. 병자일에 대사령을 내렸다.
- 27 ○ 11월 임인일에 요나라에서 횡선사 이주관내 관찰사 아물덕양을 보내왔다.

67 고려사상

- 28 ○ 12월 초하루 계축일에 요나라에서 송록경 양이효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9 ○ 계해일에 지 태사국사 양관공이 아뢰기를 "명령을 받들고 교감하여 바치는 명 임술년 역서에 다른 것은 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
- 30 다만 기미년 이후로 송나라 역법에 의하여 술일(戌日)을 납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가부를 알 수 없습니다.
- 31 제가 음양서(陰陽書)를 상고하여 보건대, 대한절 전후를 임박하여 첫째 진일(辰日)이 납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 32 우리나라가 이날을 납일로 하여 온 지가 오래일 뿐더러,
- 33 옛사기를 보면 하나라는 가평(嘉平)이라 하고 은나라는 청사(淸祀)라 하고 주나라는 대사(大蟪)라 하고 한(漢)나라는 납(臘)이라 하여 그 명칭은 각이하였으나
- 34 모두 다 연말 행사로서 납일에 짐승을 사냥하고 온갖 물건을 모아 여러 신들에게 은공을 보답하는 제사를 지냈으니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35 그러므로 납일을 황부로 변경할 수 없사오니, 해당 관리에게 맡겨 이를 신중히 결정하게 한 뒤에 정식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6 ○ 이 해, 2월, 8월에 송나라 상인 임경 등 30명, 이원적 등 68명이 토산물을 바쳤고
- 37 ○ 8월 임신일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호간이 와서 말을 바쳤다.
- 38 ○ 임술 36년(1032) 3월 경자일에 해당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산천과 사직단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
- 39 ○ 4월 기묘일에 회경전에서 태일 구궁(太一九宮)에 기도를 하였다.
- 40 ○ 나주목(羅州牧) 관하의 홍원현(洪原縣) 백성이 땅을 파다가 황금 1백 냥종과 백은 1백 50냥종을 얻어 왕에게 바쳤다.
- 41 왕이 이는 하늘이 준 것이라고 하면서 드디어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 42 ○ 5월 계미일에 죄수들을 재심사하고,
- 43 계사일에 구요당에서 기도를 하여 비를 빌고 경자일에는 또 흥국사에서 비를 빌었다. 정미일에 비가 크게 내렸다.
- 44 ○ 8월 무오일에 왕이 문덕전에 나가서 사형수들에 대한 판결을 내린 다음 자세한 것은 문하시랑 문정과 좌복야 이정공으로 하여금 이를 참작케 하였다.
- 45 이달에 동번의 적 괴수인 장항 등 14명을 산남 지방 먼 곳으로 유배하였다.
- 46 ○ 겨울 10월 초하루에 왕이 친히 지은 "늦은 가을에 남행하여 천안부에 머물렀다"는 시를 보이면서 측근 신하들에게 그 운자에 의하여 화답시를 짓게 하고,
- 47 등수를 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좌산기상시 이의의 시가 가장 우수하여 사람들을 경탄케 하였다.
- 48 왕이 그를 가상히 여겨 말 한 필을 주고 기타 관원들에게는 비단을 차등 있게 주었다.
- 49 ○ 12월 초하루 정미일에 요나라에서 영주관내 관찰사 이가수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50 ○ 정사일에 중서시랑 평장사 김약진이 죽었다. 왕이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51 ○ 이 해 2월 갑자일에 동여진의 요어고 등이 내조하였고
- 52 ○ 8월 을해일에 송나라 상인 진의 등이 와서 진귀한 보화를 바쳤으며
- 53 ○ 11월 병술일에 일본국 대마도에서 사절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 54 ○ 계해 37년(1083) 봄 정월에 노인들을 위하여 구정에서 연회를 배설한 다음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5 ○ 2월에 동여진의 귀덕 장군 요빈과 영원 장군 방진 등이 와서 말을 바쳤다. 그들에게 각각 관직과 상을 주었다.
- 56 ○ 3월에 왕이 태자에게 명령하여 송나라에서 보내 온 대장경을 접수하여 개국사에 보관하도록 하고 겸하여 도량을 베풀었다.
- 57 ○ 4월 을축일에 왕자 침이 죽었다.
- 58 ○ 계유일에 명령을 내렸다. "봄부터 여름에 이르는 기간은 곡식이 한창 자라는 때인데 서리와 우박이 내려 재해를 끼치고 있다.
- 59 생각하건대 아마도 옥중에 억울한 죄수들이 있거나 판결이 침체된 까닭인 듯하니, 서울과 지방 죄수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일체 토목 역사를 전부 정지하도록 하라"
- 60 ○ 5월 병자일에 왕이 편치 못하였다.
- 61 ○ 6월 정묘일에 종묘와 사직에 비를 빌었다.
- 62 ○ 7월 계축일에 백관들이 5일만에 걸쳐 화엄경 도량을 흥국사에 베풀고 우순 풍조하기를 기도하였다.
- 63 ○ 신유일에 왕의 병세가 위독하여졌다.
- 64 이날 최후 조서를 내리기를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조상의 위업을 이어 왔다. 운수가 불길하여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였고 하늘이 무심하여 어느덧 죽을 날이 다가왔다.
- 65 임금의 중요한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울 수 없으니, 이제부터 군국 정사를 전적으로 태자 훈에게 위임하고 왕위를 전하노니 그대들은 나의 간곡한 부탁을 받들어 힘써 충성을 다할지어다."
- 66 ○ 왕이 중광전에서 죽었다. 선덕전 서쪽에 빈청을 차렸다. 향년은 65세요, 재위 연수는 37년이었다.
- 67 ○ 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장성한 뒤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활을 잘 쏘았으며,
- 68 웅대한 도량에 성품이 인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포

용성이 있고 일체 사업을 처리한 뒤에는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 69 ○ 이제현의 평에 현종, 덕종, 정종, 문종은 부자 형제끼리 서로 대를 이어 전후 거의 80년 동안은 전성시대를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
- 70 그런데 특히 문종은 자신이 근면하고 검박하였으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형벌을 너그럽게 하였으며 학문을 숭상하고 늙은이를 존경하였다.
- 71 그리고 중요한 벼슬이 자격 없는 자에게 미치지 않고 권력이 친근한 자에게 돌리지 않았으며,
- 72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 하여도 일정한 공로가 없으면 표창하는 일이 없었고,
- 73 사랑하는 좌우 측근자라 하여도 그들이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벌을 주었다.
- 74 왕의 시종을 드는 환관 수호가 10여 명에 불과하였고, 내시는 반드시 공로와 재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이를 임명하였으되 역시 20여 명에 불과하였다.
- 75 이리하여 우용한 관원이 줄어서 사업은 간편하게 되었고 비용이 절약되어 나라가 부유하여졌으며 창고에는 해마다 목은 곡식이 쌓이고 집집마다 살림이 넉넉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때를 태평성세라고 일컬었다.
- 76 송나라에서는 매양 왕을 칭찬하는 글월을 보내왔고, 요나라에서는 매년 왕의 생신을 축하하는 의례를 치렀으며,
- 77 동쪽에 있는 왜국에서 바다를 건너 보배를 바쳤고 북쪽에 있는 아인들도 관문에 들어와서 토지와 주먹을 받았었다.
- 78 그러므로 임완(林完)이 문종은 우리 나라의 성군이라고 하였다.
- 79 그런데 경기 지방의 한 개 현을 들어 내고 거기에 사원(홍왕사)을 건립하였는데, 그 웅장한 건물은 궁궐보다 더 사치스럽고, 높다란 성벽은 수도의 왕성과 비등하며 황금으로 탑을 쌓아 모든 시설을 이에 맞게 하였다.
- 80 이렇게 하여 자기를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 무제에 비기려고 하였으나, 끝까지 자기(문종)의 미덕을 추어 주려는 자가 이 점에서 탄식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 48** ○ 순종 대왕의 이름은 훈이요, 문종의 맏아들이요, 어머니는 인혜 태후 이씨이다.
- 2 ○ 문종 원년 12월에 출생하여 동 8년 2월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동 37년 7월에 왕이 죽으매 유명을 받들어 왕위에 올랐다.
 - 3 좌승유 지제고 오인준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문종의 부서를 전하였다.
 - 4 ○ 8월 갑신일에 문종을 경릉에 장사하고, 경자일에 왕이 신봉루에 나가서 대사령을 내렸다.

- 5 ○ 10월 초하루에 회경전에서 3일간이나 소재 도량을 베풀고 총 3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6 ○ 갑신일에 명령을 내려 왕의 아우 운을 수 태사 겸 중서령, 식실봉 1천 호로 책봉하였다.
- 7 ○ 왕의 건강이 원래 좋지 못하였는데 거상 중에 너무 애통한 나머지 병이 더욱더 위중하여졌다.
- 8 ○ 을미일에 동복 아우인 국원공 운에게 명령하여 나라일을 임시로 맡아 보게 하고,
- 9 ○ 최후 조서를 내렸다. "내가 근자에 부왕의 유언을 받들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후,
- 10 매양 보잘것없는 나의 역량으로 선대 임금의 유훈을 받은 것이 외람스럽다고 생각하나, (생략)
- 11 뜻밖에도 거상 중의 과도한 애통과 쌓이고 쌓인 근심으로 병이 생기게 되어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고 나지 않으며 첫겨울이 되면서부터는 마침내 위중하게 되었다.
- 12 생각하건대, 풍전등화처럼 이용가용한 몸으로 어찌 죽기를 면하여 사직을 계속 받을 수 있겠는가.
- 13 미리 대책을 세워 뒷일을 위촉해야 되겠다. 나의 동복 아우인 수 태사 중서령 국원공 운은 원래 재능이 많고 덕행도 나날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 14 인간 실정에 밝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며 정치의 자잘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 15 만일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백성들의 기대에 보답할 만하니, 내가 죽거든 즉시 정권을 잡게 하라.
- 16 일체 국가 상벌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일일이 새 임금에게 문의한 후에 처리할 것이며,
- 17 멀리 떨어진 주진(州鎭) 관원들은 다만 본 군에서 애도의 뜻을 표할 것이요, 항부로 자기 임소를 떠나지 말게 하라.
- 18 상복 입는 기한은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고, 능묘 제도는 극히 검박하게 하라.
- 19 오직 바라는 것은 1~2명의 중대신들과 안팎문무 백관이 한망 한 뜻으로 충성을 다하여 나의 친왕을 도와 주기를 부탁한다.
- 20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운명을 길이 유지하여 이 강토를 영구히 맡길 수 있다면 내가 당장 죽은들 다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 21 이날 왕이 상차(喪次)에서 죽었다. 선덕전에 빈청을 설치하였다.
- 22 왕의 향년은 37세였다. 시호를 선혜(宣惠)라 하고 묘호를 순종(順宗)이라 하였으며, 성 남쪽에 장사하니 능호는 성릉(成陵)이었다.

- 49** ○ 선종 대왕의 이름은 운이요, 그는 문종의 둘째 아들이며, 순종의 친동생으로서 문종 3년 9월 경자일에 출생하였다.
- 2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웠으며 장성해서는 부모에게 효성이 있고 어른들을 존경하였으며,

69 고려사상

- 3 성질이 공손하고 겸박하였으며 지식이 깊고 도량이 넓었다. 그리고 경사(經史)를 두루 읽었고 특히 제술(製述)에 재능이 있었다.
- 4 ○ 문종 10년 3월에 국원후로 책봉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상서령으로 있다가 공작으로 승급되었으며 동 37년 7월에 순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 태사 겸 중서령으로 임명되었다.
- 5 ○ 그해 10월 을미일에 순종이 죽으매, 그 이튿날인 병신일에 순종의 유언을 받들어 곤룡포와 면류관으로 정복을 갖추고 선정전에서 왕위에 올라 문무 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 6 ○ 정유일에 금강경 도량을 건덕전에 베풀었고, 무술일에 왕이 문무 백관과 함께 상복을 입고 선정전으로 가서 순종에게 제사를 지냈다. (생략)
- 7 ○ 11월 정묘일에 한림원에서 서술과 지방의 주부군현 사원들과 관용(官用) 혹은 개인들의 문관(門館) 명칭 및 대신 이하 관료들의 이름이 왕의 이름에 저촉되거나 글자 음이 같은 것들은 이를 모두 딴 글자로 바꾸도록 하자는 것을 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8 ○ 무진일에 시어사 이자인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순종의 서거한 사실을 통고하였다.
- 9 ○ 12월 임신일에 화엄경 도량을 건덕전에 베풀었다. 이것이 5일간 계속 되었다.
- 10 ○ 갑자 원년(1084) 4월에 요나라에서 칙제사인 익주 관내 관찰사 야율신, 위문사 광주 관내 관찰사 야율연 등을 파견하였다.
- 11 ○ 갑술일에 요나라 사신들이 문종에게 제사를 지냈다.
- 12 ○ 6월 임오일에 동여진군이 흥해군 모산진 농장(毋山津農場)에 침입하였다. 수비병들이 그들을 쳐부수고 5명을 생포하였다.
- 13 ○ 8월 임신일에 명령을 내렸다. "현종(顯宗)이 남쪽으로 피란하였을 때에 문하시중 박성걸이 왕을 호종한 공로가 있었으니,
- 14 삼한후 박상 공신 양규 등의 녹권에 함께 기록하여 그를 표창하도록 하라"
- 15 ○ 갑신일에 송나라에서 제전사 좌간의대부 양경락, 부사 예빈사 왕순봉과 조위사 우간의대부 전현, 부사 서상함문부사 송구 등을 파견하였다.
- 16 ○ 신묘일에 송나라에서 온 제전사가 승려들을 모아 문종의 혼전에 3주야 동안 도량을 베풀었고, 임진일에는 순종의 혼당에도 도량을 베풀었다.
- 17 ○ 계사일에 문종에게 제사를 지냈다. 축문에 이르길 "왕은 경사로운 전통을 이어 선왕의 봉도를 통치하여 왔다.
- 18 기자의 유훈을 본받아 예의를 숭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나라에 성의를 다하였다. 세월이 경과할수록 공납에 더욱 충실하였다.
- 19 바다의 만릿길을 일엽편주로 다녔건만 지극한 정성의 표현으로 풍량이 일지 않았다.
- 20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 중국을 받들건만 공로와 덕을 평가한다면 그 누가 왕보다 우월하겠는가?
- 21 응당 만수무강하여 동방을 보위하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나의 슬픈 마음 한이 없도다.
- 22 사절을 보내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의 심정을 피력하는 바이다." 하였다.
- 23 ○ 9월에 송나라 사신들을 위하여 회경전에서 연회를 배설하였고 임인일에 또 연회를 베풀었다.
- 24 갑진일에는 송별연을 베풀고 송나라 임금에게 사례하는 편지를 부쳤다.
- 25 ○ 이 해, 3월 초하루에 동여진의 장군 분나로 등 20명이 와서 말을 바쳤고
- 26 6월 무자일에 일본 축전주(筑前州)의 상인 신통 등이 와서 수은(水銀) 50근을 바쳤다.
- 27 ○ 을축 2년(1085) 2월 정묘일에 천제석 도량을 문덕전에 베풀었다.
- 28 ○ 신미일에 금강경 도량을 건덕전에 베풀었는데 이것이 7일간 계속되었다.
- 29 ○ 계유일에 요나라에서 연호를 대안으로 개칭하였다는 통보가 왔으므로 왕이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이를 중요와 6릉에 고하게 하였다.
- 30 ○ 을해일에 처음으로 왕이 외출할 때에 인왕, 반야경을 받든 길잡이를 세우게 하였는바, 이는 송나라 제도에 준한 것이었다.
- 31 ○ 3월 병신일에 왕이 자기 아버지인 문종의 반혼당에 가서 한식(寒食) 제사와 어울려 상사제를 거행하려고 하니
- 32 해당 관청에서 왕이 서서 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 행사를 난처하게 여겼다.
- 33 왕이 말하기를 "예절은 응당 적당히 할 수 있다" 고 하면서 드디어 간편한 차림으로 반혼당에 갔다.
- 34 ○ 무술일에 송나라 밀주에서 자기 나라 황제가 죽고 황태자가 들어섰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 35 ○ 4월 경오일에 왕의 동생인 승려 후가 송나라로 도주하였다.
- 36 ○ 7월 임인일에 왕이 구정에서 80세 이상 남녀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의복과 전례에 의한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37 ○ 8월 신미일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송나라에 파견하였는바, 호부상서 김상기와 예부시랑 최사문은 그 나라 임금의 서거를 조문하게 하고, 공부 상서 임개와 병부시랑 이자인은 황태자의 즉위를 축하하게 하였다.
- 38 ○ 무인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호부에서 제의한 사형법들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음악을 정지시키고 소찬을 먹였다.
- 39 ○ 8월 임진일에 요나라에서 어사중승 이가금을 파

- 견하여 왕의 생신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그날이 지난 후에 도착하였다.
- 40 사람들이 그를 비롯하여 말하기를 "사신의 이름이 '가급(可及)'인데 어째서 '불급(不及)'이 되었는가?" 하였다.
- 41 ○ 11월 병오일에 요나라에서 낙기복사로서 고주 관내 관찰사 야율성을 파견하였다.
- 42 ○ 계축일에 요나라에서 보정군 절도사 소장과 송록 경 온고 등을 보내 왕을 특진 경교 태사 겸중서령, 상주국, 식읍 1만 호, 식실봉 1천 호로 책봉하였다.
- 43 ○ 이 해, 2월 정축일에 대마도 구당관이 사절을 파견하여 굴을 바쳤다.
- 44 ○ 병인 3년(1086) 2월 정묘일에 적경 궁주가 부여 후 수에게 출가하였다.
- 45 ○ 윤 2월 갑인일에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요나라에 파견하였는바, 위위소경 최사열은 천안절을 축하하게 하고, 전중소감 객상은 토산물을 바치게 하고, 호부 시랑 김사진은 요제(遼帝)가 왕의 생신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였다.
- 46 ○ 3월 을유일에 산천에 비를 받고 여름 4월 계사일에도 비를 받았다.
- 47 ○ 5월 병자일에 상서우승 한영을 고주사로 파견하여, 당시 요나라에서 압록강에 각장(榷場)을 설치하려는 기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 48 ○ 6월 계묘일에 조서를 내렸다. "내가 선왕의 유언을 받들고 외람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시기에 과변이 자주 일어나며 한재가 계속되고 있다.
- 49 행여나 부처님의 보호와 여러 신하들의 협력에 의하여 기후가 순조롭고 상하가 화목하게 되기를 염원하여,
- 50 나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책망도 하였으며 수차례 걸쳐 관대한 특전을 베풀었으나
- 51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는 아마도 나에게 덕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
- 52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하들의 하는 일들이 혹 잘못되어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할까 염려된다.
- 53 문무 상참관들과 퇴직한 원로들과 산임으로 하는 3품 이상의 관원들은 이달 26일까지 각각 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되,
- 54 나의 과오에 대하여서와 형벌 처리의 적당 여부와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단에 대하여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라.
- 55 또한 충직하고 청렴스러우며 재주와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거할 것이며,
- 56 일반 남녀와 승려, 도사로서 효성과 우애에 충실한 자들 및 불효 불순한 자들,
- 57 현직 관리로서 국법을 준수치 않고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가난한 백성을 침해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록

- 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하였다.
- 58 ○ 7월 병인일에 왕이 조서를 내렸다. "여러 신하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건대, 대다수가 '민간 풍속이 사치한 생활을 숭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재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59 해당 관청에서는 재상들, 모든 학사들, 사헌부 장관들과 함께 선대 임금들이 제정한 법전에 근거하여 품위에 따르는 의복, 거마(車馬) 제도를 참작 결정하여 나에게 보고하라"
- 60 ○ 8월 계묘일에 왕이 국로(國老)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함문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며,
- 61 친히 궁정에 나와서 평민 남녀 노인들에게 음식을 먹인 다음 물품을 차등 있게 주고 중한 자들과 불구자들에게는 별도로 음식을 주었다.
- 62 ○ 9월 무오일에 양경의 무관들을 소집하여 동정(東亭)에서 활사격을 사열하였는데 수월을 지나서 파하였다.
- 63 ○ 갑자일에 요나라에서 수 전중감사 순직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4 ○ 10월 기유일에 눈(雪)을 받았다. 11월 임술일에 왕이 친히 기도를 하여 눈 내리기를 받았다.
- 65 ○ 무진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로 갔다가 그 길로 신중원에 갔다.
- 66 그 다음날인 기사일 대회에는 눈이 내려서 연회에 참가했던 신하들의 의복이 모두 젖었는데 저녁이 되어 돌아오려 할 때에는 하늘이 맑고 달이 밝았다.
- 67 왕이 창덕문 밖에서 수레를 멈추고 여러 종친들로 하여금 왕에게 잔을 들어 장수를 축원하게 하였더니,
- 68 간의(諫議)들인 김상기, 이자인과 보궐(補闕) 위계정 등이 이를 간하므로 그만두었다.
- 69 ○ 12월 무술일에 왕이 양경(兩京)의 무관들을 소집하여 동정에서 활 사격을 사열하였다.
- 70 ○ 이 해, 2월 탁라의 유격 장군 가어내 등이 와서 신년 축하를 드리고 토산물을 바쳤고
- 71 3월 기묘일에 대마도 구당관이 사절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 50** ○ 정묘 4년(1087) 봄 정월 을축일에 비서감 임창개를 고주사로 요나라에 파견하였다.
- 2 ○ 기사일에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산천과 중요사직에 제사를 지내 신병(神兵)으로 전투를 도와 달라고 받았다.
- 3 ○ 갑술일에 회경전에서 왕이 친히 기도를 하였다.
- 4 ○ 경진일에 함문 인진사 김한충을 밀진사로 요나라에 파견하였다.
- 5 ○ 3월 기미일에 왕이 흥왕사에 가서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
- 6 ○ 병자일에 왕이 친히 태일(太一)에 기도하여 일기가 순조롭기를 받았다.

71 고려사상

- 7 ○ 무인일에 경병자들을 석방하였다.
- 8 ○ 경진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정무를 보았다. 이 때에 문하시랑평장사 최석, 김량감과 중서시랑 평장사 유홍 등이 당면 정책의 우결함을 진술하였다.
- 9 ○ 4월 무자일에 중서시랑 평장사 왕석이 죽었다. 왕이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10 ○ 경자일에 왕이 귀법사에 가서 대장경의 완성을 경축하였다.
- 11 ○ 을사일에 금강경 도량을 건덕전에 베풀고 7일간 비를 빌었고 무신일에 보제사에서 또 비를 빌었으며 5월 정사일에 다시 기우제를 지냈고 기묘일에 왕이 친히 회경전에서 기도를 하여 비를 빌었다.
- 12 ○ 7월 병진일에 왕이 대궐 뜰에서 기도를 하였다. 기사일에 왕이 흥왕사에 갔다.
- 13 ○ 임신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정무를 보았다. 이때에 최석, 김량감, 유홍, 최사랑 등이 당면 정책의 우결함들을 진술하였다.
- 14 ○ 8월 계미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사형범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 15 ○ 9월 초하루 경술일에 왕이 회교역에 머물렀는데 이날 밤에 호위군 병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16 ○ 신해일에 왕이 대동강에 누선(樓船)을 띄우고 측근 신하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 17 ○ 계축일에 왕이 장락전에 나가서 정무를 보았다.
- 18 ○ 무오일에 요나라에서 고주 관내 관찰사 고혜를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9 ○ 10월 임진일에 예빈소경 유신을 고주사로 요나라에 파견하였다.
- 20 ○ 계사일에 왕이 부계(浮壻)에서 종친들과 시신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을미일에 왕이 흥복사와 금강사에 갔다.
- 21 ○ 병신일에 왕이 흥복사와 인왕사를 거쳐 곧주 제연(梯淵)으로 가서 누선을 타고 주연을 베풀었으며 물길을 따라 대동강에 이르러 활사격 정형을 구경하였다.
- 22 이날 개경에서는 회경전에 백좌 도량을 설치하였고 구정에서 3만 명 승려들에게 음식을 먹였다.
- 23 ○ 11월 을묘일에 왕이 서경으로부터 돌아왔다.
- 24 ○ 병진일에 위위소경 유석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왕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25 ○ 기사일에 전중소감 김덕균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 26 ○ 12월 기축일에 형부 시랑 최저를 요나라에 파견하여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27 ○ 이 해, 정월, 2월에 동여진 장군 아로한 등 19명, 괴팔 등 9명이 말과 토산물을 바쳤고
- 28 3월에 서여진의 추장 소은두 등 13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쳐 그들에게 작위를 주었다.
- 29 3월 임신일에 일본 상인 중원 친중 등 3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30 7월 경오일에 동남도 도부서에서 일본국 대마도의 원평 등 40명이 와서 진주, 수은, 보도(寶刀), 우마(牛馬)를 바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 31 3월에 송나라 상인 서전 등 20명이 신주화염경 판을 바쳤고, 4월에 송나라 상인 부고 등 2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2 ○ 무진 5년(1088) 봄 정월에 요나라에서 어사대부 아을연수를 횡선사로 파견하였다.
- 33 ○ 2월 갑오일에 요나라에서 압록강 강안에 각장(權場)을 설치하려고 획책하므로
- 34 종추원부사 이안을 장경소항사라는 명목으로 구주(龜州)에 파견하여 비밀리에 국경 수비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 35 ○ 3월 기유일에 중서시랑 평장사 유홍과 우승선 고경에게 명령하여 전성(氈城)에서 기도를 하게 하였다. 이는 전부터 내려오던 제도를 복구한 것이었다.
- 36 ○ 4월 병신일에 한발이 심하므로, 왕이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남쪽 교외에 나가서 다시 기우제를 지내면서, 여섯 가지 문제로써 자신을 책망하였다.
- 37 "정사가 성실치 못한가?
- 38 백성들에게 직업을 주지 못하였는가?
- 39 공평이 사치한가?
- 40 부녀자들의 청탁에 귀를 기울이는가?
- 41 아침꾼이 활기를 띠는가?"
- 42 이렇게 한 다음 동남동녀 각 8명을 시켜 춤을 추면서 비가 오라고 외치게 하였다.
- 43 그리고 왕은 정전에서 피해 앉아 일상 식사를 검소하게 하고 음악을 정지하였으며 노천에서 정무를 처리하였다.
- 44 ○ 임인일에 또 종묘, 사직, 산천에 비를 빌었다.
- 45 ○ 5월 신해일에 송나라 명주(明州)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표착한 우리의 나주(羅州) 지방 사람들인 양복 등 남녀 23명을 송환하였다.
- 46 ○ 기미일에 요나라 동경에서 회례사로 보낸 검교 우산기상시 고덕신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7 ○ 계유일에 조서를 내렸다. "내가 덕에 밝지 못한 탓으로 하늘이 벌을 주기 위하여, 석 달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니 나는 위구를 금치 못하겠다.
- 48 혹시 서울과 지방 감옥들에 일시의 과오나 불행으로 인하여 수감된 자가 있지 않은가? 경병 죄수들은 전부 용서하여 주라" 하였다.
- 49 ○ 7월에 송나라 명주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표착한 우리의 제주도 사람 용협 등 10명을 송환하였다.
- 50 ○ 9월에 태복소경 김선석을 요나라에 파견하여 그들의 각장(權場) 설치 계획 폐지를 요구하였다.
- 51 요나라에 보낸 편지 내용에 "문제를 재삼 제기하는 것이 비록 예절에 어긋나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원을 어찌 목살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겠

- 는가.
- 52 하물며 지난날 보낸 글월들에는 우리 나라 전체 백성들의 의사가 밝혀졌고, 여러 번 보낸 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 53 오늘 다행히 당신처럼 공정한 임금을 만났으니, 어찌 우리의 사정을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 54 삼가 돌이켜 보건대 승천 황태후가 집정하였을 때에 책임을 보내 관작을 주었으므로, 황태후의 성덕을 칭송하고 공물을 보냈더니, 우리의 성의를 표창하기 위하여 특전을 베풀어 주었다.
- 55 그리하여 요동성 서부는 저쪽으로 붙이고 개사수(蓋斯水) 동부는 우리의 영토로 확정하였었다.
- 56 귀국 성종(聖宗)의 통화 12년(994)에 예방 사절을 보냈을 때에 정위 고랑이 다음과 같은 천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 57 이때에 우리의 대신 서회가 국경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귀국의 손녕이 명령을 받들고 와서 상의 함으로써 각각 양쪽 경계를 알아서 모든 성들을 구축하였다.
- 58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하공진(河拱辰)을 압록강 구덩사로 안문(雁門)에 파견하여 낮에는 동쪽 강안을 감시하고 밤이 되면 내성(內城)에 들어가 자면서
- 59 귀국의 힘을 입어 점차 증도적이 제거되었고, 그 후부터 경비를 하지 않아도 변방 정세가 더욱 좋아졌다.
- 60 아직 성종(聖宗)의 조서에 먹이 채 마르지 않았고, 황태후의 자상한 말씀이 어제 일 같은데,
- 61 갑인년(1014)에는 하천에 선박을 배치하여 통로를 열었고,
- 62 을묘년(1015)에는 우리 고을 성내에 들어와서 군사를 주둔시켰다.
- 63 을미년(1055)에 궁구란자(弓口欄子)를 설치하고 우정(郵亭)을 세웠다,
- 64 병신년(1056)에 우리 나라의 요구에 의하여 이것을 철거하고,
- 65 우리에게 보낸 조서에는 '기타 세세한 문제도 일정한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는 구절이 있었다.
- 66 그런데 또 임인년(1062)에는 의주, 선주(宣州) 남쪽에 매매원(買賣院)을 설치하려고 하였을 때,
- 67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즉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 설치하지는 않겠다고 하였으며
- 68 갑인년(1074)에는 정융성(定戎城) 북쪽에 새로 탐수암(探守庵)을 설치하면서, 우리의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답하기를 이것은 시설한 자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였다.
- 69 본국이 대대로 귀국을 성의껏 대하였고 해마다 사절과 공납을 보내었으며, 몇 번이나 사신을 시켜 글월을 제출하였는데,
- 70 아직까지 탐수암, 성책, 다리(橋) 등 일체 시설을 철

- 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
- 71 이는 귀국 선대 임금들의 유지(遺旨)에 어긋나는 것이며, 우리의 간곡한 성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된다.
- 72 이리하여 수천리 길에 우리의 사신이 계속 오가게 되고 90년 동안 가져다 준 공납도 보람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 누가 분개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겠는가.
- 73 (생략) 바야흐로 나의 성의를 다하려는 이때에 어찌 사소한 잇속을 도모하여 그러한 시설을 경영하는가?
- 74 영토가 귀국과 연결되어 선린 정책을 쓰려고 약속하였는데, 이 좁은 지역에 각장을 설치하면 몸돌 곳조차 없게 되므로,
- 75 글월을 빈번히 띄웠으나 당신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위로는 하늘이 두렵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부끄럽다.
- 76 바라건대, 당신은 지방 관리들의 옳지 못한 의견을 물리치고,
- 77 인방의 중대한 관심사를 고려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마음놓고 농사를 지어 자기 생업에 안착하도록 하고,
- 78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경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백성들을 경동시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당신의 호의를 잊지 않겠다." 하였다.
- 79 ○ 10월 정축일에 요나라에서 태상소상 정석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80 ○ 임신일에 요나라에 파견했던 김선석이 귀국하였다. 회답 조서에 "각장 설치를 정지하라는 황의 서한을 여러 번 받았으나,
- 81 이는 사소한 일인데 그렇게 여러 말을 할 나위가 있는가. 가까운 시일에 적당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 82 더군다나 아직 설치할 기일도 정하지 않았으니, 부디 안심하고 성의를 다할 것이며 심각한 의구를 풀고 나의 지극한 뜻을 이해하기 바란다." 하였다.

- 51** ○ 기사 6년(1089) 봄 정월 을해일에 신흥 창 곡식을 내어 서울에 있는 각 불사들에 시주하고 재를 몰려 복을 기원하였다.
- 2 ○ 무술일에 소재(消災) 도량을 회경전에 베풀어 5일간 계속하였다.
- 3 ○ 2월 신유일에 왕이 친히 구정(稷庭)에서 천지 산천에 제사를 지내 복을 기원하였다.
- 4 ○ 3월 경인일에 능엄경 도량을 경덕전에 베풀어 7일간 계속하였다.
- 5 ○ 8월 경술일에 송나라 명주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표착한 우리 나라 사람들인 이근보 등 24명을 송환하였다.
- 6 ○ 9월 을해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양린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73 고려사상

- 7 ○ 정축일에 이날은 요제(遼帝)의 천원절(天元節)이므로 요나라 사신을 초대하여, 건덕전에서 축하연을 배설하고,
- 8 왕이 친히 요 정부를 축하하여 가사를 짓기를 "찬 이슬 내리고 바람결 거세어 가을 하늘 맑은데 달빛도 밝구나. 피향전(披香殿) 깊은 밤에 노래 소리 높도다. 분분한 사람의 일생이 도시 꿈과 같거니 영화를 탐내지 말라. 좋은 술 금술잔에 가득 부어 마음껏 즐겨 보세" 하였다.
- 9 ○ 10월 신해일에 회경전에서 3일에 걸쳐 인왕경을 강술하고, 승려 3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10 ○ 무오일에 새로 조조한 13층 황금탑을 회경전에 세우고 경찬회를 배설하였다.
- 11 ○ 신유일에 왕태후가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 12 ○ 12월 수 사공 유흥의 새 저택이 완공되었다. 왕이 대복경 이자의를 시켜 유흥에게 왕의 명령으로 은그릇, 비단 및 말안장과 마필을 주게 하였다.
- 13 ○ 이 해, 8월, 11월에 동여진 귀덕 장군 서해 등 14명, 추장 고사 등 21명이 말을 바쳤다
- 14 8월에 일본국의 대재부 상인이 와서 수은, 진주, 화살, 칼 등속을 바쳤으며
- 15 10월에 송나라 상인 양주 등 40명, 상인 서성 등 59명, 이주, 양보, 양준 등 1백 27명이 토산물을 바쳤다.
- 16 ○ 경오 7년(1090) 봄 정월 기축일에 예빈성에서 탁라 구당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 17 왕에게 아뢰기를 "성주(星主)인 유격 장군 가량잉이 죽고 그의 동복 동생 배옹부위 고복령이 자기 형 후임으로 되었사오니 부의 물품을 전례에 의하여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18 ○ 임진일에 보제사의 수륙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 19 이에 앞서 왕의 사랑을 받는 섭 호부 낭중 지 대사 국사 최사겸이 송나라에 가서 수륙의문을 구해 온 일이 있었는데, 왕에게 이 수륙당을 짓자고 하여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 20 ○ 3월 무자일 밤에 큰 우레와 번개로 인하여 신흥창에 화재가 일어났다. 흥원사와 국청사의 건축 공사를 중지시켰다.
- 21 ○ 5월 병인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복시(覆試)를 보이고 이경필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 22 이때에 이경필의 과문(程文)이 격식에 맞지 않았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해당 관리를 비난하였다.
- 23 ○ 6월 경자일에 여사대에서 아뢰기를 "영원 병마 녹사 우여유는 국경 지대 인민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부터 재산을 약취하고 뇌물을 받았사오니 죄를 논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24 ○ 7월 계미일에 호부상서 이자의와 예부시랑 위계정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우리 나라에 베푼 은혜에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공문을 전달하게 하였다.
- 25 ○ 9월 신미일에 요나라에서 이주 관내 관찰사 장사열 등 31명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26 ○ 경진일에 왕이 요나라 사신들을 위하여 건덕전에서 재차 연회를 배설하고 3명의 사절들을 전내(殿內)에 들어와 앉도록 하였다.
- 27 좌우 관리들이 아뢰기를 "사신들에게 연회를 재차 베풀어 주는 법은 전례가 없으며, 3명의 사절들을 전내에 들어앉힌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 28 이에 대하여 왕이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나라 임금 이 지은 천경사 비문을 가지고 왔으니 특별히 대우해야 된다" 하면서, 관리들의 제의를 좇지 않았다.
- 29 ○ 10월 병오일에 왕이 왕태후를 모시고 삼각산에 갔다.
- 30 경술일에는 승가굴(僧伽窟)에 들렀다가 곧추 장의사로 갔으며 계축일에는 인수사에 가서 분향을 하였다.
- 31 ○ 갑인일에 왕의 일행이 산길에 들어섰을 때 백세 노인 1명과 80세 노인 3명이 길가에서 왕에게 헌신하였다. 각각 물품을 주어 그들을 위로하였다.
- 32 ○ 12월 임진일에 눈(雪)을 밟았고, 경자일에는 각처의 신묘(神廟)에서 재차 밟았으며 임진일에도 밟았다.
- 33 ○ 요나라에서 익주 관내 관찰사 아물이칭을 횡선사로 파견하였고
- 34 송나라에서 문원영화집을 보내왔다.
- 35 ○ 이 해, 2월 동여진의 도령 야사 등 17명이 말을 바쳐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고, 도령 요내 등 28명이 말을 바쳤으며, 독달 등 34명이 내조하였고
- 36 ○ 9월 무자일에 동여진의 회화 장군 아어대 등 15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37 ○ 3월 기사일에 송나라 상인 서성 등 1백 5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52 ○ 신미 8년(1091) 봄 2월에 요나라 동경 지례회사사 예빈부사 조야려가 우리 나라에 왔다.

- 2 ○ 5월 을축일에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날 왕이 흥왕사에 갔다. 정묘일에 종묘와 7릉(七陵)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3 ○ 6월 갑오일에 다시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정유일에는 또 종묘와 7릉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 4 ○ 갑진일에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연전에 변적들이 창주(昌州)에 침입했을 때,
- 5 병마 녹사 안선준 등이 부대를 인솔하고, 덕녕수(德寧戍)에 나가 있으면서 낭장 고맹 등을 시켜 적을 추격하게 하였던바, 이들이 용감히 싸워 적들에게 대타격을 주었습니다.
- 6 이때에 교위 송경대정 변학 등은 적진에 돌입하였고, 병사들은 사기 충천하여 적을 수다히 살상 포로한 공로가 있사오니,
- 7 그들에게 관직과 상품을 주어 장래의 모범이 되도록

- 추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8 ○ 병오일에 이자의 등이 송나라로부터 귀국하여 보고하기를 "송나라 임금이 우리 나라에 있는 서적은 좋은 판본이 많다는 말을 듣고,
- 9 관반에게 지시하여 요구되는 서적 목록을 써 주면서 '비록 권수가 부족되는 것이 있더라도 꼭 베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 10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편상서, 순상주역 10권, 경방주역 10권, 정강성주역 9권, 육적주주역 14권, 우번주주역 9권,
- 11 동관한기 1백 27권, 사승후한서 1백 30권, 한시(韓詩) 22권, 업준모시 20권, 여침자림 7권,
- 12 고옥편 30권, 팔지지 5백 권, 여지지 30권, 신서 3권, 설원 20권,
- 13 유향별록 20권, 유희칠락 7권, 왕방경원정초목소 27권, 고금록함방 50권, 장중경방 15권,
- 14 원백창화시 1권, 심사방, 황제침경 9권, 구허경 9권, 소품방 12권,
- 15 도은거효함방 6권, 시자(尸子) 20권, 회남자 21권, 공손라문선, 수경(水經) 40권,
- 16 양우로자 2권, 나십로자 2권, 종회로자 2권, 완호서 칠록, 손성진양추 33권,
- 17 손상위씨춘추 20권, 우보진기 22권, 심록국춘추 1백 2권, 위담후위서 1백 권, 여환위략, 유번량전 30권,
- 18 오군제춘추 30권, 원행총위전 60권, 심약제기 20권, 양웅집 5권, 반고집 14권,
- 19 최인집(崔駰集) 10권, 급총기년 14권, 사령운집 20권, 안연년집 41권, 상교주영 1천 권,
- 20 공환문원 1백 권, 유문 3백 70권, 문관사림 1천 권, 중장통창언 두서체론,
- 21 제갈량집 24권, 왕희지소학편 1권, 주처풍토기 1권, 장음광야 4권, 관천지 4권,
- 22 왕상찬음악지, 채옹월령장구 12권, 신도방찬악서 9권, 고금약록 13권, 공양목수 15권,
- 23 곡량폐질 3권, 효경류소주 1권, 효경위소주 1권, 정지 9권, 이아도찬 2권,
- 24 삼창 3권, 비창 3권, 위광관서 1권, 통속문 2권, 범장편 1권,
- 25 재석편 1권, 비룡편 1권, 성초장 1권, 권학편 1권, 진중흥서 80권,
- 26 고사고 25권, 복후고금주 8권, 삼보황도 1권, 한관해고 3권, 삼보결록 7권,
- 27 익부기구전 14권, 양양기구전 5권, 해강고사전 3권, 현안춘추 3권, 우보수신기 30권,
- 28 위명신주 31권, 한명신주 29권, 금서칠지 10권, 세본 4권, 신자 2권,
- 29 수소자 1권, 호비자 1권, 하승천성원, 고사령씨족지 1백 권, 심삼주지 14권,
- 30 고려풍속기 1권, 고려지 7권, 자사자 8권, 공손니자 1권, 신자 10권,
- 31 조씨신서 3권, 풍속통의 30권, 범승지서 3권, 영현도 1권, 대연력 병서집요 7권,
- 32 사마법한도 1권, 동군약록 2권, 황제대소 30권, 명의별록 3권, 조식집 30권,
- 33 사마상여집 2권, 환당신론 10권, 유근집 15권, 노심집 21권, 산공계사 3권,
- 34 서집 80권, 응거백일시 8권, 고금시원영화집 20권, 집림 20권, 계연자 15권
- 35 ○ 8월 정묘일에 명령을 내렸다. "송나라 사람들인 전성(田盛)은 서찰(書札)에 능숙하고 동양(東養)은 무술에 기예가 있으니,
- 36 그들을 우리 나라에 머물러 있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관직 품계를 높여 중으로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고무케 하라"
- 37 ○ 9월 경인일에 왕이 상춘정에 나가서 계림공 희, 부여공 수, 문하시랑평장사 유희, 좌복야 소태보, 병부상서 서정, 상장군 왕국모, 직문하성 고경, 한림학사 손관 등을 불러,
- 38 주연을 베풀고, 그들에게 조용히 변방 정형을 물었다.
- 39 ○ 계사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고송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40 ○ 11월 병오일에 문하시랑평장사 유희가 죽었다.
- 41 ○ 경술일에 사직단에서 기설제(祈雪祭)를 지냈다.
- 42 ○ 12월 계해일에 문하시랑평장사 이안이 죽었다. 그에게 양신이란 시호를 주었다.
- 43 ○ 이 해, 3월 병자일에 동여진의 영새장군 개다한 등 40명이 와서 낙타와 말을 바쳤다.
- 44 ○ 임신 9년(1092) 봄 정월에 퇴직 중에 있던 중추원사 형부상서 박양단이 죽었다. 이와 관련하여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 45 ○ 3월 병진일에 서울 시가의 민가 6백 40호가 소실되었다.
- 46 ○ 이달에 왕이 정무에 시달리고 근심이 되어 몸이 몹시 불편하였다. 문덕전으로 처소를 옮기고 내의(內醫)에게 명령하여 양성방약을 바치게 하였다.
- 47 왕은 갑자기 감상이 생겨서 고체 장편시를 지었는데,
- 48 그 시편 끝에는 "약효야 있건 말건 굳이 관심해 무엇하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니, 다만 성실하게 선한 노릇이나 하다가 천당으로 가면 그만이지" 라는 구절이 있었다.
- 49 왕의 나이 아직 젊은데 이런 글을 썼으므로 보는 자들이 놀라는 동시에 괴이하게 여겼다.
- 50 ○ 4월 무오일에 공녀 이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날 명령을 내려 금관후 비에게 수 대위 겸 중서령 벼슬을 더 주었다.
- 51 ○ 병인일에 금관후 비가 죽었다.
- 52 ○ 무진일에 요나라 동경 지례사 고량경이 우리 나라에 왔다.

75 고려사상

- 53 ○ 6월 경신일에 조서를 내렸다. "내 일찍이 일관(日官) 최사경으로부터 그가 경릉의 허수한 곳을 보수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는데,
 - 54 최근 사천소감 황충현 등의 건의서를 보건대, 최사경이 보수 사업을 했다는 것은 도리어 지덕(地德)을 놀라,
 - 55 지하에 계신 조상의 신령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형부에 명령하여 사경을 옥에 가두고 그 죄를 추궁하도록 하라"
 - 56 ○ 임진일에 왕태후가 백주(白州) 견불사에서 천태종례참법 의식을 차려 놓았는데 이것이 약 1만 일(日) 동안 계속되었다.
 - 57 ○ 8월 을축일에 이자위를 상서 우복야, 권지 문학성사 겸 서경 유수사로 임명하였다.
 - 58 이에 앞서 이자위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송나라에 보내는 국서 집필을 지도 교열하였는데, 거기에 요나라 연호를 잘못 기입한 까닭으로 송나라에서는 그 국서를 반환하여 왔다.
 - 59 이 문제로 책임을 지게 되어 파직을 당하였다가 그 후 수개월이 못되어 왕의 측근자들에게 청탁하여 이 벼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다.
 - 60 ○ 기사일에 최사경을 선산도(仙山島)로 추방하였다.
 - 61 ○ 9월 임오일에 왕태후가 서경에서 죽었다.
 - 62 ○ 을유일에 요나라에서 왕정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63 ○ 11월 경자일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서 광망(光炤)이 하늘에 뽀뽀했다.
 - 64 ○ 이 해, 정월, 2월에 동여진의 아로한 등 20명, 회화 장군 삼빈 등이 와서 각각 토산물과 말을 바쳤고
 - 65 ○ 2월 탐라 성주 의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를 정원장군으로 직위를 높이고 관복을 주었으며,
 - 66 12월 계해일에 동여진의 여라불 등 2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3** ○ 계유 10년(1093) 2월에 송나라 명주 보신사 황충이 우리 나라에 왔다.
- 2 ○ 3월 무인일에 왕의 말아들 왕욱을 수춘궁에 들어와 있게 하고, 동지중추원사 유석과 좌간의대부 손관을 태자 좌우 첨사로 임명하였다.
 - 3 ○ 임오일에 서북로 병마사로부터 북번인(北蕃人) 3명이 우리 나라의 교화를 흠모하여 귀순하였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그들에게 의복과 토지와 주택을 주었다.
 - 4 ○ 4월 을묘일에 요나라에서 고주 관내 관찰사 풍행종을 보내 왕이 비록 거상 중이라도 정무를 보라고 하였다.
 - 5 ○ 5월 경자일에 서울 성 동쪽에 홍호사를 창건하였다.
 - 6 ○ 7월 계미일에 서해도 안찰사가 아뢰기를 "안서도

- 호부 관하에 있는 연평도 순경군이 해선(海船) 한 척을 포착했는데,
 - 7 거기에는 송나라 사람 12명과 왜인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활, 화살, 칼, 갑옷, 투구 등속과 수은, 진주, 유황, 법랍(法螺)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 8 이는 필시 그 두 나라 해적들이 공모하여 우리 나라의 변방을 침략하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 9 그들의 가진 병기와 기타 물품들은 몰수하여 해당 관서에 넘기고 체포한 해적들은 영외(嶺外)로 유배하고 그 배를 잡은 순경군 군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0 ○ 임진일에 병부상서 황종각과 공부 시랑 유신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그 나라에서 베푼 은혜를 사례하게 하였다.
 - 11 ○ 8월 임신일에 전국 사형수들의 형을 감면시켜 섬으로 유배하였다.
 - 12 ○ 9월 임오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대귀인을 보내 왕의 생신을 축하하였다.
 - 13 ○ 12월 갑자일에 요나라의 횡선사인 안주 관내 관찰사 아물괘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4 ○ 갑술 11년(1094) 봄 정월 초하루에 정조 축하의식을 정지하였다.
 - 15 ○ 2월 병오일에 천변이 빈번하다 하여 대사를 실시하였다.
 - 16 ○ 무신일에 왕이 군사를 사열하려 하였다.
 - 17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병(兵)이란 금(金)에 해당하며 금은 목(木)을 이기는 것입니다.
 - 18 지금은 바야흐로 봉날이라 목이 성할 때인데 군사를 사열한다는 것은 생기(生氣)에 모순되는 일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 19 ○ 3월 갑신일에 국지제주 한경상이 글을 올려 연로한 이유로 퇴직을 청원하니 왕이 이를 승인하였다.
 - 20 ○ 병술일에 동여진 장군 잉우 등이 와서 말 9필을 바쳤다.
 - 21 ○ 여름 윤 4월 임진일에 왕의 몸이 편치 않았다.
 - 22 ○ 갑오일에 대신들과 추밀원 관리들 및 종친들이 왕의 병환을 근심하여 연영전 북문에 와 있었다.
 - 23 ○ 5월 임진일에 왕이 연영전 내침에서 죽었다.
 - 24 그날 시체를 선덕전으로 옮겨 놓았다. 왕의 향년은 46세요 재위 연수는 11년이었다.
 - 25 시호는 사효(思孝)라 하고 묘호는 선종이라 하였으며 성 동쪽에 장사하고 능호를 인릉이라고 하였다.
- 54** ○ 현종 대왕의 이름은 옥이니 선종의 말아들이요. 어머니는 사숙 태후 이씨이다. 그는 선종 원년 6월 을미일에 출생하였다.
- 2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로워 9세 때부터 이미 서화(書畵)를 좋아하였으며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 3 ○ 선종 11년 5월 임인일에 선종이 서거하자, 그 유언에 의하여 종광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 4 ○ 갑인일에 선종을 인릉에 장사하였다.
- 5 ○ 6월 초하루 경오일에 어머니를 높여서 태후라고 하였다.
- 6 ○ 무자일에 왕이 신봉루에 나가 앉아서 대사를 실시하였다.
- 7 ○ 송나라 도강 서우 등 69명과 탁라 사람 고적 등 1백4명이 와서 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 8 ○ 7월 정묘일에 송나라 도강 서의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9 ○ 8월 초하루에 조서를 내렸다. "정주 선덕진 관하지역에 누리가 발생하여 재해를 끼치고 있으니 모든 신하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제의하도록 하라"
- 10 ○ 갑술일에 송나라 도강 구보류, 양보 등 64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11 ○ 11월 임자일에 왕이 8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하여 궁정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12 ○ 12월 요나라에서 칙제사 소준열, 부사 양조술, 위문사 소체, 기복사 곡인문 등이 도착하였다.
- 13 ○ 을유일에 칙제사가 반혼당에 이르러, 선종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왕이 요에서 온 조서를 받고 이 제사에 참석하였다.
- 14 ○ 제사 절차가 끝난 다음 왕이 환궁하였다.
- 15 ○ 요나라의 위문사가 건덕전에서 자기 임금의 조서를 전달하였다.
- 16 ○ 병술일에 요나라 기복사가 건덕전에서 자기 임금의 조서를 전달하였다.
- 17 ○ 관고 내용에 "이제 당신을 표기 장군, 검교 태위 겸 중서령, 상주국, 고려 국왕, 식읍 7천 호, 식실봉 7백 호로 기록시키고,
- 18 ○ 해당 관리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책명 절차를 갖추게 하되 이를 주관하는 자가 집행케 할 것이다."
- 19 ○ 을해 원년(1095) 봄 정월 초하루에 정조 축하 의식을 정지하였다.
- 20 ○ 이 날 태양 주위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왕은 나이가 어려서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 21 ○ 다만 내의(內醫) 3~4명을 불러들여 술서(術書)에 대하여 물어 보기도 하고 서화를 배우기도 하였다.
- 22 ○ 2월 갑신일에 동여진의 회덕 장군 소라 등 28명이 와서 말을 바쳤고, 정해일에 동여진의 봉국(奉國) 장군 두문 등 48명이 와서 말을 바쳤다.
- 23 ○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 본 다음 근신(近臣) 최홍사에게 명령하여 변방 형편을 물어 보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 의복, 피륙 등을 주었다.
- 24 ○ 신묘일에 송나라 상인 황충 등 31명이 자은종 승려 혜진을 데리고 우리 나라에 왔다.
- 25 ○ 왕이 근신 문익에게 명령하여 헌개를 갖추어 가지고 혜진을 보제사로 영접하게 하였다.
- 26 ○ 혜진은 늘 말하기를 "내가 보타락산에 있는 성굴(聖窟)을 참관하려고 왔으니, 가 보도록 허락해 달라" 하였으나, 정부의 공의에 의하여 이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 27 ○ 5월 계축일에 요나라 동경 회례사 고수가 우리 나라에 왔다. 그가 개인 선물로서 능라와 채색 비단을 매우 많이 바쳤다.
- 28 ○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그를 불러 보고 근신에게 명령하여 동경 유수의 안부를 묻고 음식과 의복을 주게 하였다.
- 29 ○ 6월 기묘일에 왕이 건덕전에서 목차계(木叉戒)를 받았다.
- 30 ○ 7월 무술일에 이 날부터 요나라의 수창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 31 ○ 병오일에 종묘에 제향을 치르었다. 왕이 상신으로 있으면서도 원구, 방택, 종묘, 사직들을 비롯하여 일체 제사 예전(禮典)에 등록된 곳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곳이 없었다.
- 32 ○ 계축일에 탁라 사람 고물 등 8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3 ○ 경신일에 이자의가 반란을 획책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 34 ○ 계해일에 소태보를 권판리부사로, 왕국모를 권판부사로 각각 임명하고,
- 35 ○ 8월 초하루 갑자일에 황중보를 상서 우복야로 임명하였고,
- 36 ○ 을축일에 왕의 숙부인 계림공 회를 중서령으로 임명하였다. 백관들이 그의 자택에 가서 축하를 드렸다.
- 37 ○ 갑술일에 송나라 상인 진의, 황의 등 6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38 ○ 계미일에 손관을 추밀원사로, 최사추를 이부 상서 지 추밀원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 39 ○ 9월 을미일에 소태보를 특진 수 사도 판 이부사로, 김상기와 유석을 중서시랑 동 중서문하시랑평장사로, 임개를 수 사공 상서 좌복야 판 호부사로, 왕국모를 우복야 참지정사 판병부사 주국(柱國)으로, 황중각을 동지중추원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 40 ○ 병신일에 이자의의 도당인 병부 원외랑 김덕충을 먼 지방으로 추방하였다.
- 41 ○ 무술일에 조서를 내렸다. "일전에 권력을 잡은 간흉들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처단되었는바, 이것은 오로지 여러 장상(將相)들이 충성을 다한 결과이다.
- 42 ○ 비록 반란은 이미 소탕되었다 할지라도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 43 ○ 일체 억울한 죄수들을 관대하게 용서하며 서울과 지방에서 속금을 바치게 된 소소한 죄는 모두 면죄해 주도록 하라"
- 44 ○ 경자일에 김선석을 형부상서로, 왕국모를 판 도병마

77 고려사상

- 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 45 ○ 10월 기사일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외람되게 왕위에 올랐더니,
- 46 나이가 어리고 몸이 허약한 관계로 나라의 권신들을 옳게 통솔하지 못하였고 인민들의 기대를 보답하지 못하였다.
- 47 그리하여 음모책동이 권력자들에게서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며, 역적 난신이 대궐을 자주 침범하고 있다.
- 48 이는 다 내가 덕이 없은 까닭이라.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
- 49 내가 보기에는 나의 숙부 계림공에게로 대세가 기울어져서 신인(神人)이 다 그를 돕고 있는 듯하니, 너희 대중들은 그를 받들어 국가의 위업을 맡게 하라.
- 50 나는 후궁으로 물러앉아 여명이나 유지하겠노라라고 하면서
- 51 곧 근신 김덕균 등을 시켜 계림공 희를 그의 저택에서 맞아들이게 하여 왕위를 선양하고 자기는 드디어 후궁으로 물러났다.
- 52 그 후 숙종 2년 윤 2월 갑진일에 흥성궁에서 죽으니 나이는 14세요 재위 연수는 1년이었다.

- 55** ○ 숙종 대왕의 이름은 웅이요, 문종의 셋째 아들이요, 순종의 동복 아우이다.
- 2 ○ 문종 8년 갑오 7월 기축일에 낳다.
- 3 어려서 총명하더니 자라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도량이 크고 기질이 굳세며 매사에 과단성이 있었고 오경 자사(五經子史) 등 많은 서적에서 아니 읽은 것이 없었다.
- 4 문종이 그를 사랑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후일에 왕실을 부흥시킬 자는 아마도 네로구나" 하였다.
- 5 문종 19년 2월에 계림후로 되었고 동 31년 3월에 공으로 승진되었으며, 선종 3년 2월에 수태보 벼슬을 더 받았었다.
- 6 동 9년에 선종을 따라 서경에 갔었는데, 이 때에 자색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올랐다. 천기 보는 자가 이것은 임금 될 자의 징표라고 하였다.
- 7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 태사 겸 상서령으로 승진되었고, 이듬해 8월에 종서령으로 되었다.
- 8 동 10월 기사일에 현종이 명령을 내려 왕위를 내어 주니, 왕이 두세 번 사양하다가 경오일에 종광전에 서 왕위에 올랐다.
- 9 이날 원신 궁주 이씨와 그 아들들인 한산후 형제를 경원군으로 귀양을 보내었다.
- 10 ○ 신미일에 좌사낭중 윤관, 형부 시랑 임의 등에게 표문을 주어 요나라에 파견하였다.
- 11 ○ 무인일과 경진일에 (생략) 각각 임명하였다. 이 밖에 품계의 순차를 뛰어올려 벼슬을 갈아 준 자가 수백 명이요,
- 12 공인바치, 상인, 천인들까지도 이를 발탁하여 높은

- 벼슬을 준 자가 있었으나, 해당 관리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 13 ○ 병술일에 참지정사 왕국모가 죽었다.
- 14 ○ 11월 계묘일에 왕이 신봉루에 나가서 참형(斬刑) 교형(絞刑) 이하 죄수들을 놓아 주고, 명산대천에다 덕호를 더 붙였으며
- 15 백성들 중에서 나이 80세 이상 되는 노인 및 중환자, 폐질자와 의부(義夫), 절부(節婦), 효자, 순손(順孫), 흠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들에게 음식을 차려 주고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으며
- 16 각 색(色) 군인에게 준 쌀과 포(布)도 차등이 있었다.
- 17 ○ 병오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문(神鳳門)에 나가서 서울과 지방에서 올리는 축하를 받았다. 왕이 그 길로 법왕사에 갔다.
- 18 ○ 계축일에 최유거를 요나라에 보내 예물을 전하게 하였다.
- 19 ○ 갑인일에 사신들을 요나라에 보내 최용규는 신년을 축하하게 하고 동평재는 천안절을 축하하게 하였다.
- 20 ○ 기미일에 요나라에서 유적을 보내 전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왕이 전 임금을 대신하여 그를 맞았다.
- 21 ○ 병술일에 (생략) 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날 황주목 부사 이위를 상서 우사원외랑으로 임명하였다.
- 22 왕이 이위의 청렴하고 부지런한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데 대하여 이를 가상히 여겨 그의 임기가 채 차기 전에 불러올려 이 벼슬을 준 것이었다.
- 23 ○ 경인일에 임의가 요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편에 부쳐 온 회답 조서에 "당신의 부지런하고 온순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하였다.
- 24 ○ 병자 원년(1096) 봄 정월 갑인일에 교서를 내리길 "내가 선대 임금들의 모범을 따라 검소한 덕을 실행코자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부당한 기목을 억제하고 있다.
- 25 요즈음 듣건대 서울과 지방 풍속이 사치한 생활을 좋아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음식을 먹는데도 가짓수가 너무 많다고 하니 양풍미속을 문란케 하는 이런 현상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 26 지금부터 등급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곧 어사대에 명령하여 이를 감찰하게 하였다.
- 27 ○ 무오일에 왕의 생일을 대원절이라 하였다.
- 28 ○ 2월 갑자일에 우원령을 사은사 겸 고주사로 요나라에 파견하였다.
- 29 ○ 을축일에 전 임금이 흥성궁으로 나가 있겠다고 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흥성궁은 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쓰던 집이었다.
- 30 ○ 3월 기유일에 지례사 고민익을 요나라 동경에 보내었다.
- 31 ○ 4월 계유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해가 기울

- 때까지 정무를 보았다.
- 32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지금은 만물을 가꿔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
- 33 3월 이후로 기후가 잘못되어 물이 얼고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치며 방 우박이 내렸습니다.
- 34 흉병 오행전에 이르기를 '우박은 음(陰)이 양(陽)을 협박하는 징후'라 하였으며,
- 35 경방의 주역전에 이르기를 '죄인을 죽이거나 벌을 주되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재앙으로서 서리가 내린다' 하였고,
- 36 동서에 이르기를 '윗사람이 한쪽 말만 들으면 하부 실정에 어두워 이해 관계를 옳게 고려하지 못하며 너무 지나치게 엄하면 그 벌이 언제나 냉혹하다' 하였고,
- 37 동서에 또 이르기를 '군사를 발동시켜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를 일러 법을 위반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재앙은 여름에 서리를 내려 오곡을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 38 얼마 전에 어린 임금이 병석에 누워 정무 처리를 옳게 하지 못하였고,
- 39 태후가 정사를 대리하면서 흘림수에 빠지고 절도를 어지럽게 하여 흉악한 자들로 하여금 이 기회에 난을 꾸미게 하였습니다.
- 40 이런 데로부터 살육을 자행하여, 그 동류까지 남기지 않았는데 일은 사실과 상반되었습니다.
- 41 이에 따라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화기가 재앙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 42 성상(聖上)께서는 천의에 순응하여 왕통을 이으시고 만사를 바로잡았사오니,
- 43 여사대와 상서 형부에 명령하여 일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서 시비가 결정되지 못한 것은 빨리 정당하게 해결하여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 44 고발한 것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도리어 고발한 자에게 죄를 줌으로써
- 45 하늘의 경고에 보답한다면 백성들은 서로 기뻐할 것이요, 재앙이 변하여 복으로 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채택하였다.
- 46 ○ 5월 무오일에 요나라 동경 지례사 예빈 부사 고양정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7 ○ 6월 갑술일에 진명(鎭溟) 도부서에서 문주(文州) 방어판관 이순해 등으로 하여금 해적을 치게 하였다. 순해가 적을 패배시키고 적 17명의 머리를 베었다.
- 48 ○ 계미일에 왕이 연덕궁주와 맏아들을 데리고 동지(東池)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 49 이 날 주연을 베풀고 시중 소태보, 복야 황중보(생략) 등을 불러서 이에 참가시켰다.
- 50 밤중이 되도록 놀다가 뇌성이 나고 비가 내려 그만 파하였다.

- 51 ○ 8월 초하루 경신일에 동합에서는 국로(國老)들을 위하여, 좌우 동락정에서는 평민 늙은이들을 위하여 각각 잔치를 배설하였다.
- 52 왕이 백관들과 함께 친히 음식을 권하는 동시에 의복, 비단, 실, 솜 등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53 ○ 병자일에 동여진의 와돌, 고마요 등이 왔다. 왕이 중광전에서 그들을 불러 보고 그 나라 사정을 물은 다음 음식과 비단을 주었다.
- 54 ○ 9월 경자일에 탁라 성주(星主)가 사람을 보내 왕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55 ○ 정미일에 왕이 선정전에 나가서 송나라의 중해진을 불러 보고 한림원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 56 ○ 무신일에 송나라의 종들인 성충, 해진 등을 각각 명오(明悟), 삼중(三重) 태사(太師)로 임명하였다.
- 57 ○ 계축일에 왕이 회경전에서 3일에 걸쳐 인왕(仁王), 반야경을 강론하고, 중 1만 명에게 친히 음식을 먹였다.
- 58 ○ 겨울 10월 정축일에 건덕전에서 3일에 걸쳐 도량을 베풀고 인예태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비치한 화엄경을 열람하였다.
- 59 ○ 을유일에 오연총을 요나라에 보내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60 ○ 11월 정미일에 소총을 요나라에 보내 예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 61 ○ 무신일에 백가신을 요나라에 보내 신년을 축하하였다.
- 62 12월 정사일에 요나라에서 이유신을 보내 전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63 ○ 이 해, 정월에 동여진의 아부한, 고란(高蘭), 곤두문 등 1백 79명이 토산물을 바쳤고, 6월 정축일에 동여진의 영손 등 17명이 내조하였고
- 64 ○ 2월, 3월에 서여진의 아라화 등 48명, 하부한 등이 내조하였으며
- 65 ○ 10월 무인일에 송나라 상인 흥보 등 30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6** ○ 정축 2년(1097) 봄 정월 임인일에 요나라에서 해주(海州) 방어사 아를괄을 황선사로 보내왔다.
- 2 ○ 2월 기사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 3 ○ 임신일 국청사(國淸寺)가 완성되었다.
- 4 ○ 윤 2월 갑진일에 전 임금이 죽었다.
- 5 ○ 3월 경신일에 전 임금을 은릉(隱陵)에 장사하였다.
- 6 ○ 6월 무자일에 송나라 상인 신환 등 36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7 ○ 갑오일에 송나라에서 우리의 표류민인 자신(子信) 등 3명을 돌려 보냈다.
- 8 이에 앞서 탐라 백성 20명이 배를 타다가 풍랑에 밀

79 고려사상

- 려 나국(驪國)으로 들어가서 모두 피살되고 오직 이 세 사람이 그곳을 탈출하여 송나라로 갔었는데 이때에야 돌아온 것이었다.
- 9 ○ 7월 임신일에 동여진에서 온 적선 10척이 진명현(鎭溟縣)을 침략하였다.
- 10 동북면 병마사 김한충이 판관 강증을 보내 그들과 싸워 이겼으며, 배 세 척을 노획하고 적 48명의 머리를 베었다.
- 11 ○ 8월 정미일에 혜성이 저씨, 방(房) 두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 광망(光芒)이 천시원(天市垣)을 직사하였다.
- 12 ○ 9월 을해일에 회경전에서 백고좌를 열어 인왕경을 강론하고 총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13 ○ 10월 갑진일에 안인감을 요나라에 보내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14 ○ 정미일에 유택을 요나라에 보내 횡선사를 보는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15 ○ 11월 기미일에 유유우를 요나라에 보내 전 임금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16 ○ 무진일에 필공찬을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고 또 임유문을 보내 신년을 축하하였다.
- 17 ○ 12월 계사일에 요나라에서 야율사제, 이상 등을 시켜 왕에게 옥책, 옥인, 면류관, 수례, 장복(章服), 안마(鞍馬), 피륙 등등 물품을 보내왔다.
- 18 책문에 "귀국은 동방에 사직을 세워, 그 지역이 북쪽으로 용천(龍泉)에 다다르고 서쪽으로 압록강에 접하여 있다.
- 19 당신을 고려 국왕, 식을 1천 호, 실식봉 7백 호로 책봉한다." 하였다.
- 20 ○ 이 해, 2월, 8월, 9월, 10월에 동여진의 와돌 등, 와영 등 7명, 미응 등 24명, 사호라 등 23명, 영파 등 25명이 내조하였다.
- 21 ○ 무인 3년(1098) 3월 계해일에 교서를 내리기를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릇 왕위에 올랐으나 맡아들이 있으니 그를 동궁으로 봉해야 하겠다" 하면서
- 22 해당 관리에게 특명을 내려 태자를 세우고 첨사부, 좌춘방, 연경공사 등에 관원을 배치하는 동시에 노복과 식읍을 다 여기에 종속시키게 하였다.
- 23 ○ 을축일에 백관이 표문을 올려 태자부를 설립한 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 24 ○ 5월 기해일에 5해신(海神)에 비를 빌었고, 임자일에 우박이 내렸으며 신유일에 회경전에서 기도를 하였다.
- 25 ○ 7월 무신일에 송악 신사(神祠)에서 비가 개기를 빌었다.
- 26 ○ 기미일에 윤관, 조규 등을 송나라에 보내 왕의 즉위를 알리고 토산물을 선사하였다.
- 27 ○ 10월 갑신일에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묘에서

- 합제(禘祭)를 지내고,
- 28 신봉루(神鳳樓)에 돌아와서 참형 교형 이하 죄수들을 석방하되, 참형, 교형에 해당한 자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고,
- 29 전에 섬으로 귀양을 보냈던 자는 육지로 내보내고,
- 30 이미 육지에 나와 있는 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 보내고,
- 31 이미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자는 서울로 오게 하고,
- 32 이미 서울로 와 있는 자는 조회에 참가하게 하고,
- 33 이미 조회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다시 등용하였으며,
- 34 명산 대천의 신호(神號)들을 더 붙이고,
- 35 배향(配享) 공신들에게도 증직을 더 주었으며,
- 36 (생략) 진사과 명경과에서 낙제하여 군적에 이름을 둔 자는 이를 면제하였다.
- 37 ○ 무자일에 지 추밀원사 김용과 예부시랑 조양휴를 요나라에 보내 책봉을 사례하였다.
- 38 ○ 신축일에 상서 형부에서 옥이 비었음을 아뢰니, 재상 소태보 등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 39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내가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선대 유업을 이어받아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하루에도 허다한 문제를 총괄하니 다만 고달픈 생각을 쌓아 왔을 뿐이요.
- 40 현재 모든 옥을 말끔하게 처리한 것은 실로 그대들이 보좌를 잘 하였기 때문이다.
- 41 그런데 어찌하여 진심갈력한 우정을 나에게 돌려서 이렇게 글월로써 축하를 보내는가. 그대들의 정성을 생각하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 42 대신들이 다시 표문을 올려 사례하였다.
- 43 ○ 임인일에 김약충을 요나라에 보내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44 ○ 11월 경술일에 송나라 상인 흥보 등 20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 45 ○ 을축일에 왕가와 윤계형을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고 장녕을 보내 신년을 축하하였다.
- 46 ○ 12월 병술일에 요나라에서 좌간의대부, 내고부를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47 ○ 신묘일에 왕자 필을 봉하여 경교태보, 수태위 경상서령을 삼았다.
- 48 ○ 계사일에 내고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매 왕이 그에게 표문을 부쳐 보내 사례하였다.
- 49 ○ 이 해, 2월, 3월, 4월에 동여진의 창곤, 요진, 고두 등이 내조하였다.

- 57** ○ 기묘 4년(1099) 봄 정월 병인일에 문덕전에 제석천(帝釋天) 도량을 베풀어 7일 동안 계속하였다.
- 2 왕이 신중원에 가서 나한재를 올렸다.
- 3 ○ 2월 기해일에 송나라에서 외국인의 과거 응시를 허락하였다.

- 4 ○ 3월 을사일에 연덕궁주 유씨를 책봉하여 왕비를 삼았다.
- 5 ○ 임자일에 왕이 왕륜사에 가서 나한재를 올렸다.
- 6 ○ 4월 신사일에 왕이 사루에 나가서 사신(詞臣)들을 불러모아 종광전 옥매과화시를 짓게 하고, 등수를 정하여 비단을 차등 있게 주었다.
- 7 ○ 정해일에 요나라에서 영주 관내 관찰사 소랑을 횡선사로 파견하고 겸하여 장경을 보내왔다.
- 8 ○ 경자일에 임의를 죄간의 대부로, 윤관을 우간의 대부 한림 시강 학사로 각각 임명하였더니,
- 9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윤관은 임의와 인척 관계가 있어서 간원에 함께 있을 수 없사오니, 윤관의 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10 ○ 5월 을사일에 모든 신사들에서 비를 받았다.
- 11 ○ 6월 계미일에 윤관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 12 ○ 송나라에서 조서의 대략에 "길이 동방을 지켜 우리 중국을 도울 것이다." 하였다.
- 13 ○ 무술일에 모든 신사와 박연(朴淵) 냇가에서 비를 받았다.
- 14 ○ 7월 신유일에 송나라에서 우리 탁라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갔던 조성 등 6명을 돌려 보냈다.
- 15 ○ 9월에 재신(宰臣)과 일관(日官)들을 시켜 양주(楊州)에 남경(南京)을 건설할 데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 16 ○ 을사일에 지례사 소사석이 요나라의 동경에 갔다.
- 17 임자일에 왕이 보제사에 가서 오백나한재를 올렸다.
- 18 ○ 신묘일에 문관(文冠)을 요나라에 보내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19 ○ 10월 경자일에 이수를 요나라에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20 ○ 계묘일에 왕이 삼각산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약사원에 머물러서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 21 ○ 신해일에 고주사 겸 밀진사 문익이 요나라에 가서 왕의 원자에게 책명을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 22 ○ 한이를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게 하고, 조신준을 보내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 23 ○ 11월 신미일에 왕의 아우 왕수를 그의 범죄와 관련하여 경산부 악목군으로 귀양을 보내었다.
- 24 ○ 12월 임인일에 요나라에서 대속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25 ○ 신해일에 요나라 동경에서 지례 회사사 대의가 우리 나라에 왔다.
- 26 ○ 이 해 10월 병진일에 동여진의 아로화 등 26명이 내조하였다.
- 27 ○ 경진 5년(1100) 봄 정월 경진일에 요나라 사신 소랑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 28 왕이 그 편에 표문을 보내 사례하였다.
- 29 ○ 계사일에 왕이 구정에서 친히 기도를 하였다.
- 30 ○ 을미일에 왕의 맏아들 우를 책봉하여 왕태자를 삼았다.
- 31 ○ 2월에 왕이 신봉루(神鳳樓)에 나가서 참형, 교형 이하 죄수들을 석방하고, 명산 대천들에 신호(神號)를 더 붙였으며,
- 32 양부의 문무 백관에게는 관직 한 급씩, 첨사부와 춘방 관원들에게는 2급씩 올리고,
- 33 산관 7품으로서 조정에 있는 지 20년 된 자에게는 의복을 주고, 동서 번장들에게는 무관 산계를 더 올려 주었으며,
- 34 홀아비, 과부, 늙고 병든 자, 효자, 순손(順孫) 들에게는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35 ○ 3월 을유일에 중서성에서 아뢰기를 현행 역서에 틀린 것이 있으니 역시 편찬자의 관직을 삭탈하자고 하였다.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 36 ○ 5월 신사일에 송나라 명주(明州)에서 공문을 보내, 자기 나라의 철종 황제가 죽고 그의 아우 단왕 길이 황제의 위에 올랐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 37 왕이 철종을 위하여 대안사에서 명복을 빌고자 하였으나 간관이 옳지 않다고 하여 그만두었다.
- 38 ○ 임오일에 요나라에서 장신연을 보내 왕의 맏아들을 책봉하였다. 왕이 의장을 갖추고 태초문 안에서 요나라 사신을 맞았다.
- 39 ○ 경인일에 장신연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왕이 그 편으로 표문을 보내 사례하였다.
- 40 ○ 6월 정유일에 왕이 봉은사에 갔다. 을묘일에 대묘, 8릉 및 송악 동쪽 신사에서 비를 받았다.
- 41 ○ 을축일에 상서 임의와 시랑 백가신을 송나라에 보내 그 나라 황제를 조문하였다.
- 42 ○ 7월 정축일에 상서 왕가와 시랑 오연총을 송나라에 보내 새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43 ○ 8월 기미에 궁 남쪽 문루, 다리 동쪽 행랑, 네점관, 장생서, 사의서 등에 화재가 나서 민가 수백호가 연소되었다.
- 44 ○ 9월 정묘일에 왕이 국정사(國淸寺)에 갔다.
- 46 ○ 병술일에 이재를 요나라에 파견하여 조서를 보낸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47 ○ 무자일에 송나라의 도강 이기 등 30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8 ○ 10월 임자일에 요나라에서 소호고와 고사령을 보내 왕태자를 책봉하였다.
- 49 ○ 을묘일에 왕이 태자와 함께 남쪽 교외에 나가서 이 책문을 받았고 기미일에 태자가 요나라 사신을 위하여 문화성에서 연회를 배설하였다.
- 50 ○ 신유일에 박호를 요나라에 보내 천안절을 축하하였다.
- 51 ○ 11월 을축일에 요나라 사신 소호고 등이 돌아갔다. 왕이 그 편으로 표문을 부쳐 사례하였고 김후선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52 ○ 11월 신사일에 김귀년을 요나라에 보내 은혜를 사례하였다.

81 고려사상

- 53 ○ 병술일에 혁련정을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게 하고 최선위를 보내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 54 ○ 12월 초하루 계사일에 요나라에서 태복경 왕집종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고, 갑진일에 왕집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왕이 그 편으로 표문을 부쳐 사례하였다.
- 55 ○ 이 해, 정월 갑신일에 동여진의 장군 표어내 등 60명이 내조하였고
- 56 ○ 11월 무인일에 송나라 상인과 탐라, 여진 등에서 토산물을 바쳐 왔다.

- 58** ○ 신사 6년(1101) 봄 정월 정묘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구경(九經) 자사(子史) 각 한 벌씩을 대성(臺省)과 추밀원에 비치하게 하였다.
- 2 태자의 생일을 창녕절로 정하였다.
- 3 ○ 기사일에 문덕전(文德殿)에 천제석(天帝釋) 도량을 베풀었다.
- 4 ○ 병자일에 요나라 동경에서 예빈 부사 고극소가 우리 나라에 지례사로 왔다.
- 5 ○ 경진일에 송나라 사람 소규, 육정준, 유급 등이 귀순하였다.
- 6 왕이 그들을 불러 문덕전에서 시험을 보인 다음 모두 8품 벼슬을 주었고,
- 7 정준에게는 정결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 8 ○ 계미일에 주부 이경택의 처 김씨가 자기 남편의 계모를 죽이고자 비밀히 여종을 시켜 음식에 독약을 두어 들어가게 하였다.
- 9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어사대에 고발하였는데 김씨가 자기 죄를 실토하지 않았다.
- 10 어사대에서 다시 심문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범죄 진상이 이미 명백하여졌으니 즉시 판결할 것이다" 하였다.
- 11 그런데 김씨는 선대 임금의 외척이라 하여 사형을 감면하고 안산현으로 귀양을 보냈다. 경택은 옥중에서 죽었다.
- 12 ○ 을유일에 형부에서 아뢰기를 "주부 동정 조준명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후 4년 동안에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 13 아우에게 우애롭지 못하여 어머니와 아우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없게 하였사오니 그를 법대로 논죄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 14 왕이 말하기를 "내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효도와 우애를 앞세우거니 이러한 사람이 있던 말이나" 하고, 형부의 제의를 옳게 여겼다.
- 15 ○ 2월 갑오일에 사신을 보내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 16 ○ 퇴직 중에 있던 참지정사 신수가 죽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조제(弔祭)를 치르고 공현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 17 신수는 송나라 사람으로서 자못 학식이 있었고 특히 의술에 정통하였다.
- 18 ○ 임자일에 조서를 내려, 역적 이자의 사건과 관련되어 먼 지방으로 귀양 보냈던 자들을 가까운 곳으로 적당히 옮기게 하였다.
- 19 ○ 을묘일에 또 조서를 내렸다. "역적이 우리로 지목받던 자들을 이미 놓아 주었으니,
- 20 시어사 왕태소, 주부 전총, 판관리자, 위위 소경 김의영의 처 이씨 등을 서울로 돌아 오게 하라"
- 21 ○ 3월 임신일에 명령을 내렸다. "비서성에서 서적 판본을 되는 대로 쌓아 두어 이를 훼손시켰으니,
- 22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여, 이 서적들을 보관하는 동시에 모사(摹寫) 인판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게 하라"
- 23 ○ 기묘일에 왕이 요제의 이름을 피하여 옹으로 개명하고 대묘와 8릉에 고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 24 ○ 경진일에 건덕전에서 반야경 도량을 베풀었다.
- 25 ○ 요나라에 경교 우산기상사 아물곡을 보내 자기 나라의 도종이 죽고 황태손인 연국공 연희가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 26 ○ 광명사의 종 광기, 주부 손필, 진사 이진광 등이 공모하여, 음양 술서를 위조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그들에게 장형을 가하고 귀양을 보내었다.
- 27 ○ 병술일에 다섯 가지 돌림병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28 ○ 경인일에 조서를 내렸다. "기묘년에 내가 삼각산으로 가면서 통과한 명산대천의 신희(神號)에 각각 인성(仁聖) 두 자를 더 붙이고, 해당 소재지 주현들로 하여금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라"
- 29 ○ 4월 계사일에 61명의 선비와 21명의 현인(賢人)들을 문선왕 묘에 배향하였다.
- 30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요나라의 고애사가 와서 자기 나라의 부고를 전할한 뒤에, 조삼(皂衫), 오모(烏帽)로 연회에 참가한 것은 예가 아니었사오니 영점 관리에게 죄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31 왕이 말하기를 "이는 요나라 사신의 잘못이거니 영점 관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 제의를 듣지 않았다.
- 32 어사대에서 또 아뢰기를 "사천복정 유복춘이 일식 시간을 잘못 아뢰었사오니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좃았다.
- 33 날이 가문다 하여 천지, 종묘, 산천에 비를 빌었다.
- 34 ○ 신축일에 평주(平州)의 요사스러운 중 각진이 음양설을 허투루 말하여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하므로 조서를 내려 곡주(谷州)로 귀양을 보내었다.
- 35 ○ 계묘일에 대부 소경 왕공윤과 함문사 노작공을 요나라에 보내 조문 의례를 치르고 회장(會葬)에 참가하게 하였다.
- 36 ○ 동로(東路)의 주진 들에 눈이 한 치나 내렸다.

- 37 ○ 갑진일에 태일(太一)에 기도하여 비를 빌었다.
- 38 한림원에서 아뢰기를 "비서성에 명령하여 어명과 음이 같은 글을 인쇄 배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어명에 저촉되는 글자를 알게 하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 39 용화전(雍和殿)을 상화전(祥和殿)으로 고쳤다.
- 40 ○ 을사일에 햇별이 몹시 째었다. 무당이 비를 빌었다.
- 41 ○ 여러 신하들이 건의하기를 "송충이 번식하여 온갖 제거 대책에도 성과가 없습니다.
- 42 저희들이 경방역의 비후편을 상고하건대 거기에 '국록을 먹으면서 임금의 교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하늘이 벌레로써 경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43 저희들이 변변치 못하여 왕께 걱정만 끼치오니, 원컨대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러가게 함으로써 하늘의 견책에 대처하소서" 하였으나 왕이 회답하지 않았다.
- 44 ○ 무신일에 개성부와 양주(楊州)에서 지난 기묘년 왕의 순행시에 통과한 명산대천의 신들을 위하여 합제(合祭)를 지내었다.
- 45 ○ 왕이 일월사(日月寺)에 가서 금자, 묘법연화경의 완성을 경축한 다음 왕비와 태자를 데리고 절 뒷산에 올라 주연을 베풀고 즐기려 하였더니
- 46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바야흐로 농사일이 한창인 이때에 한재가 심하오니 만일 여기서 술놀이를 하신다면,
- 47 어느 백성이 '전하께서 백성의 근심을 함께 근심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그만 중지하였다.
- 48 왕이 돌아올 때에 느낀 바가 있어서 시를 지었는데, 그 끝 구에 "연궁(蓮宮)을 찾아서 전일 소원을 풀고 겸하여 비를 빌어 지극한 마음을 표시하였노라." 하였다.
- 49 ○ 기유일에 천지와 종묘에 비를 빌었고 신해일에 경한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 50 ○ 갑인일에 조서를 내렸다. "방금 농사 때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아니 하니,
- 51 아마도 주군 관리들이 나의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여 면제하여 준 세납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고,
- 52 혹은 억울한 죄수와 침체된 농사를 시일이 경과하여도 해결하지 아니 하며,
- 53 굶어 죽은 시체와 길가에 나뎠구는 해골을 버려 두어 묻어 주지 않거나,
- 54 또는 공사 간에 거두어들이는 세납이 과중하여 백성의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화기를 손상시켜서 이렇게 되는 듯하다.
- 55 해당 관청에서는 혜택을 널리 입히고, 불법 행위를 금지하며, 죄인 심문을 공평하게 하여, 옥 문건을 작성하고, 길가에 널려 있는 시체를 매장함으로써 시급히 하늘의 견책에 대처하라"
- 56 ○ 주전 도감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비로소 돈을

-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고 좋다고 하오니, 종묘에 이 사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좇았다.
- 57 ○ 경신일에 평로진 관내의 추자전(楸子田)을 떼내어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나누어 주었다.
- 58 ○ 왕이 명령을 내려 올해 가을에 동원할 부역군 6천 5백 명으로 흉호사를 수리하게 하였다.
- 59 ○ 6월 병신일에 왕가와 오연총이 송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편에 송나라 임금이 태평어람 1천 권을 보내었다.
- 60 ○ 신축일에 정주(定州)의 장금남이 관가 창고에 있는 칠 갑옷 네 벌을 훔쳐서 동여진에 팔았는데 일이 발각되어 사형을 당하였다.
- 61 ○ 갑진일에 왕이 조서를 내려 긴급하지 않은 역사에 양경 군졸을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 62 ○ 내부(內府)의 서적을 갈라 내어 추밀원에 보관하게 하였다.
- 63 ○ 가을 7월 신유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역군 1천 9백 명으로 국청사(國淸寺)를 수리하게 하였다.
- 64 ○ 8월 계사일에 조서를 내렸다. "원효와 의상은 우리 나라의 성인이다. 그런데 비문도 시호도 없어서 그 덕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나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 65 원효는 대성화정 국사로, 의상은 대성원고 국사로 추증하노니, 그들의 살던 곳에 비를 세워 공덕을 새김으로써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
- 66 ○ 을사일에 조서를 내렸다. "내가 국사를 맡은 이래로 늘 조심하여 북으로는 요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남으로는 송나라를 섬겨 왔는데 또 여진이 동쪽 강적으로 되어 있다.
- 67 군사 정치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로 되는 것이니, 긴급하지 않은 역사를 없애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라"
- 68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지금 요나라 동경 명마 도부서에서 공문을 보내 정주(靜州) 관내에 있는 병영을 없애라고 합니다.
- 69 지난 대안 연간에 요나라가 압록강에 정자(亭子)와 각장(榷場)을 설치하려 했을 때에도, 우리 정부에서 사신을 보내 그의 철퇴를 요구하여 그 나라의 동의를 얻었사오니, 지금 우리도 그 청을 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이 옳다고 하였다.
- 70 ○ 9월 무인일에 동지추밀원사 광상과 상서좌승 허경을 요나라에 보내 새 임금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 71 ○ 갑신일에 회경전, 구정 및 외산(外山) 절들에 인왕경 도량을 베풀고 총 5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72 ○ 10월 임진일에 어사대에서 아뢰기를 "경기의 포적(捕賊) 군졸이 민가를 함부로 노략질하여, 그 피해가 도리어 심하오니 청컨대 이를 해산하소서" 하니, 왕이 옳다고 하였다.

- 73 ○ 을미일에 탐라의 새 성주(城主) 배웅 부위 구대(具代)를 유격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 74 ○ 최사추 등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저희들이 노원역(盧原驛), 해촌(海村), 용산(龍山) 등지에 가서 산수(山水)를 살펴본즉 도읍을 정하기에 합당하지 않고,
- 75 오직 삼각산 면악(面嶽) 남쪽의 산수 형세가 옛 문헌의 기록에 부합되오니, 청컨대 삼각산 주룡의 중심 지점인 남향관에 그 지형대로 도읍을 건설하소서"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 76 ○ 병신일에 남경 건설을 시작한 사유를 종묘 사직과 산천에 고하였다.
- 77 ○ 12월 병오일에 요나라에서 고주(高州) 관내 관찰사 고덕신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78 ○ 기유일에 요나라에서 송녹경 오전을 시켜 자기 나라 도종의 유훈 의복, 피륙 등속을 보내왔다.
- 79 ○ 이 해, 정월에 동여진의 여라불, 사은 등 75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고
- 80 ○ 2월에 동여진의 내파지촌 귀덕장군 보마궁한, 이훈촌 도령 마포, 광탄촌(廣灘村) 장군 골부 등 55명이 조현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였으며 이위촌 도령 괴부 등 30명이 내조하였다.
- 81 ○ 4월과 9월에 여진의 모직공 고사모 등 6명, 서여진의 고시모가 귀순하여 왔다. 그들에게 토지와 집을 주고 민호에 편입하였으며
- 82 ○ 11월 송나라 상인과 탐라 및 동북변 추장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59** ○ 임오 7년(1102) 2월 병신일에 태자를 시켜 구정에서 삼계(三界) 백신(百神)에 기도를 하게 하였다.
- 2 ○ 3월 기묘일에 여사대에서 아뢰기를 "사문(四門) 진사 이제로는 소경 중(盲僧) 범종의 아들이니, 과거에 응시시킬 수 없습니다" 하니
 - 3 말하기를 "공자가 중궁(仲弓)을 두고 이르기를 '얼럭소(犁牛) 새끼라도 빛깔이 붉고 뿔이 바로 생겼다면 제사에 쓰지 않으려고 한들 산천 신령이 이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였다.
 - 4 과거는 장차 어진 사람을 선발하자는 것이니 이제로가 진실로 재주와 학식이 있다면 그 아버지 때문에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라"
 - 5 ○ 경진일에 중서 문하성에서 아뢰기를 "남경을 새로 건설하는 데는 반드시 땅을 넓게 차지하고 백성들의 농토를 많이 빼앗아야 될 것이오니
 - 6 청컨대 경위령의 말한 바에 근거하여 산에 의거하여 형세를 취하기도 하고 물로 지형을 표하기도 하되
 - 7 우선 안으로 산수 형세를 따라 동으로는 대봉(大峯)까지, 남으로는 사리(沙里)까지, 서로는 기봉(岐峯)까지, 북으로는 면악(面嶽)까지를 경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 8 ○ 정종의 비 연흥궁주 김씨가 죽었다.
- 9 ○ 4월 정유일에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진사과 복시를 보이고, 태자, 재추 및 양제 사신들을 불러서 주연을 베풀고,
- 10 "봄바람이 부드럽게 분다 - 春風扇微和"는 제목을 제시하여 태자와 사신들로 하여금 각각 육운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으며,
- 11 강척 등에게 급제를 주고 귀화한 송나라 진사 장침을 불러서 응시시키고 별두 급제를 주었다.
- 12 ○ 5월 병인일에 왕이 현화사에 가서 유가현양론을 은으로 쓴 것을 경찬하였다.
- 13 ○ 6월 정해일에 조서를 내렸다. "대안 2년에 송충이 서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백주, 토산 등지에 만연되었었는데 근래에는 이것이 더욱 번성하여지고 있다.
- 14 이는 반드시 형벌을 잘못 처리한 까닭이다. 밤낮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여러 신하들과 함께 허물을 반성하여 자신을 책망하고,
- 15 5월 계유일부터 을해일까지 하늘에 기도하여 죄를 사례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며 죄수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늘의 건책에 대처코자 하노니
- 16 오늘까지 서울과 지방의 공사범으로서의 도형(徒刑)과 사사범으로서의 장형(杖刑) 이하 잡법들을 석방하되 추밀원으로 하여금 시행케 하라"
- 17 ○ 7월 임자일에 예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서소를 상고하건대, 임금이 순행을 하는 것은
- 18 제후들이 일국을 자기 마음대로 틀어쥐고, 백성에게 미치는 위엄과 복이 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상부 명령을 가로막고, 해택이 하부에 닿지 못할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 19 임금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피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 20 서경 유수와 미리 파견한 안찰사에게 명령하여 우선 민간의 질병과 고통을 위문하며 부역을 면제하고,
- 21 가난한 자를 구제하여 준 정형과 전일에 내린 특사령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들을 조사하여 해당 관청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니, 왕이 좋다고 하였다.
- 22 ○ 8월 초하루 계축일에 왕의 행재소에 있는 관료들이 표문을 올려 삭일을 축하하였다.
- 23 ○ 정사일에 왕이 대동강에 이르러 배를 타고, 태자, 호종 관료 및 서경의 문무 관원들을 위하여 연회를 배설하였다. 이날 수영 잡기를 구경하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파하고 장락전으로 돌아왔다.
- 24 ○ 경진일에 왕이 제연(梯湍) 가에서 해엄에 능숙한 금군 5명에게 명령하여 옛 사닥다리 터를 찾게 하였더니, 그들이 아뢰기를 열 자 깊이에 사닥다리 초석이 있다고 하였다.
- 25 왕은 그 길로 홍복사에 가서 분향을 한 다음 절 남쪽 강가에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거기서 주연을

- 배설하여 태자와 관료들을 이에 참가하게 하고
- 26 친히 "가을날 호경 남쪽 강가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 秋日遊鎬京南河開宴"는 사을시를 지어 양경 유신들에게 돌려 보이고 화답시를 바치게 하였다. 저녁 나절에 궁으로 돌아왔다.
- 27 ○ 9월 신축일에 왕이 금강사에 가서 종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옛탑의 유적을 구경하였으며 태자를 시켜 강가에 있는 제단(祭壇)과 통한교(通漢橋)를 돌려 보게 하였다.
- 28 ○ 계묘일에 왕이 회복루에 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고, 을사일에 활 쏘는 것을 검열하였으며, 병오일에 왕이 장경사에 가서 말 타고 활 쏘는 것을 검열하였다.
- 29 왕이 부유수 최공익 등을 시켜 유수부에 비치한 서적을 검토하여 바치게 하였다.
- 30 ○ 10월 임신일에 안자공을 요나라에 보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31 ○ 11월 초하루에 왕이 우타천 들만에 이르자 웬 범이 갑자기 나타났다.
- 32 왕이 시위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쫓게 하였더니 견룡 교위 송종소가 범을 때려 죽였다. 왕이 종소에게 옷 한 벌을 주었다.
- 33 ○ 11월 갑오일에 양신부를 요나라에 보내 왕이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고, 임인일에 객준목을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선사하였으며, 갑진일에 김택선을 요나라에 보내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 34 ○ 12월 임자일에 요나라에서 귀주 관내 관찰사 소가를 횡선사로 보내고 계축일에는 또 중서 사인 맹초를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35 ○ 이 해, 2월에 서여진의 고사 등 18명, 아호라 등 15명이 토산물을 바쳤고
- 36 ○ 2월에 동여진의 안단, 분나로 등 18명이 내조하였으며 4월 갑진일에 추장 영가(盈歌)가 사절을 보내왔다. 영가는 곧 금 나라의 목종이었다.
- 37 ○ 11월, 12월에 동여진 상근 등 30명, 추장 고라골 등 30명이 말을 바쳤고
- 38 ○ 11월 정미일에 동여진의 영가가 사절을 보내 은기 만드는 사람을 요구하므로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 39 ○ 6월, 9월에 송나라에서 상인 황주 등 52명, 상인 서수 등 3명, 상인 주보 등 40명, 상인 임백순 등 20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 40 ○ 계미 8년(1103) 6월 임자일에 송나라에서 호부시랑 유규와 급사중 오식을 국신사로 보내 왕에게 의복, 피륙, 금옥, 그릇, 활, 화살, 안마(鞍馬) 등 물품을 선사하였다.
- 41 갑인일에 왕이 경회전에서 조서를 받았다. 이와 아울러 의관(醫官)들인 모개, 여병, 진이유, 범지재 등 4명을 보내왔는데 이는 서면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 42 ○ 7월 신묘일에 송나라의 국신사 유규 등이 돌아가

- 매 왕이 글을 부쳐 사례하고 겸하여 개명한 사실을 통고하였다.
- 43 송나라의 의관(醫官) 모개 등에게 흥성공을 사관으로 정해 주고 의생(醫生)을 양성하게 하였다.
- 44 ○ 갑진일에 동여진의 태사 영가가 사람을 보내 예방하였다.
- 45 일찍이 우리 나라 의원으로서 원안부에 가 있으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에 영가의 친척에 환자가 있었는데
- 46 영가가 이 의원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내가 사람을 시켜 당신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겠다" 하였다.
- 47 그 사람의 병은 과연 완치되었다. 영가가 약속대로 사람을 시켜 국경까지 전송하였다.
- 48 그 의원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흑수(黑水)에 사는 여진인들은 그 부족이 날로 번성하며 군사가 더욱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 49 왕이 그제야 사절을 교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로부터 호상 내방이 막히지 아니하였다.
- 50 영가가 소해리(蕭海里)를 쳐부수고 우리나라에 첩보를 보내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를 축하하였다.
- 51 영가가 자기의 족제(族弟) 사갈을 보내 답례 방문을 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 52 ○ 8월 경술일에 헌관(憲官)이 형서(刑書)를 평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53 ○ 대장군 고문개, 장흥정, 이궁제와 장군 김자진 등이 비밀리에 역적 음모를 품고 있었다.
- 54 어사대에 명령하여 그들을 잡아서 남쪽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 55 ○ 9월 임인일에 이계응, 박경작 등을 요나라에 보내 존호를 더 올린 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 56 ○ 병오일에 중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57 ○ 10월 병진일에 송나라 황제의 천령절과 관련하여 태자를 시켜 봉은사에서 재를 올리게 하였다.
- 58 송나라 의관(醫官) 모개 등이 이를 참관하였다. 그들에게 술과 예물을 주었다.
- 59 ○ 경신일에 요나라 동경에서 예빈 부사 고유목 등이 회례사로 왔다.
- 60 ○ 송림을 요나라에 보내 천흥절을 축하하였다.
- 61 ○ 임신일에 왕이 동지에 가서 활 쏘는 것을 검열하고 과녁을 맞힌 자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주었다.
- 62 ○ 갑술일에 김국진을 요나라에 보내 횡선사를 파견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63 ○ 11월 을유일에 최계방을 요나라에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였다.
- 64 ○ 기축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 65 ○ 11월 정유일에 조경을 요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고 심후는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85 고려사상

- 66 ○ 12월 무신일에 요나라에서 오흥경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67 ○ 무오일에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
 - 68 ○ 이 해, 정월, 2월에 동여진의 고라골 등 30명, 두문 회팔 등 90명이 내조하였고
 - 69 ○ 2월, 7월에 동여진의 장군 두문소 등 30명이 토산물을, 장군 고부로 등 30명이 와서 말을, 추장 곤두가 사람을 보내 황모(黃毛) 1만 매를,
 - 70 ○ 11월에 태사 영가가 고쇄(古洒) 술부, 아로 등을 우리 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서여진 망간 등 24명이 정월에 내조 하였고,
 - 71 ○ 북번의 장군 종곤 아로 등 47명이 12월에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72 ○ 2월 기사일에 송나라의 명주(明州) 교련사 장종민, 허중 등이 강수 양소 등 38명을 데리고 내조하였다.
- 60** ○ 갑신 9년(1104) 봄 정월 신사일에 동여진의 남녀 1,753명이 귀순하여 왔다.
- 2 동여진의 추장 오아속이 별부의 부내로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공형지조를 시켜 부내로를 치면서 그 기병을 정주(定州) 관문 밖에 주둔시켰다.
 - 3 ○ 계미일에 왕이 문하시랑평장사 임간을 판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하고 선정전에 나가서 그에게 병기를 주어 만일을 대비하게 하였으며
 - 4 또 직문하성 이위를 서북면 행영 병마사로, 위위경 김덕진을 동북면 행영 병마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 5 ○ 2월 무신일에, 송나라의 의관 모개 등이 돌아갔다.
 - 6 ○ 임자일에 임간이 정주 성 밖에서 여진군과 싸우다가 패하였다.
 - 7 해당 관청에서 임간을 비롯하여 병마사 좌복야 황유현, 부사 대장군 송충, 호부 시랑 왕공윤, 우승선 조규 등의 패전한 죄를 탄핵하므로 이들을 다 파면하였다.
 - 8 ○ 경신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 9 ○ 을축일에 왕이 추밀원사 윤관을 동북면 행영 병마도통으로 임명하고 중광전에 나가서 그에게 병기를 주어 전선으로 보내었다.
 - 10 ○ 3월 병자일에 이오를 수 사공 상서 우복야로 임명하였다.
 - 11 ○ 정축일에 윤관이 여진군과 싸워서 3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우리 군사로서 살상 함몰된 자가 태반이었다.
 - 12 ○ 기묘일에 회경전에 인왕경 도량을 베풀고 구정에서 총 1만 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 13 ○ 경진일에 전주 목사 오연충을 소환하여 추밀원 좌승선 지 여사 대사로 임명하였다.
 - 14 ○ 4월 갑자일에 요나라에서 야율가모와 하자목을 보내 왕을 책봉하였다.
 - 15 ○ 책문에 "당신을 고려 국왕, 식음 7천 호, 식실봉

- 7백 호로 책봉한다." 하고,
- 16 ○ 태자가 단에 올라 책명을 받았다. 책문에 "상한국공, 식음 3천 호, 식실봉 5백 호로 책봉하게 한다."
- 17 ○ 5월 갑오일에 남경의 궁궐이 완성되었다.
- 18 ○ 6월 갑인일에 동북면 병마도통이 "여진에서 자진하여 성책을 헐어 버렸고 공형지조 등 63명이 관에 와서 화친을 청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 19 ○ 7월 추밀원사 최홍사와 비서감 정문(鄭文)을 송나라에 보내 은혜를 사례하고 토산물을 전달하게 하였다.
- 20 ○ 무술일에 왕이 남경에 갔다. 평장사 이오, 참지정사 오수증, 권지 추밀원 부사 오연충, 판 여사 대사 임의 등이 왕을 수행하였다.
- 21 ○ 신축일에 왕이 봉성현에 머물러서 관가 돈을 내어 여러 신하들과 군인들에게 차등 있게 주었다.
- 22 ○ 8월 을사일에 농촌 부녀들과 늙은 농민들이 앞을 다투어 길거리로 달려와서 왕에게 참외와 과실을 바쳤다.
- 23 그들에게 각각 직물을 차등 있게 주었고 또 내부(內府)의 차, 향, 의복 등 물품으로 연로의 절간에 시주하였다.
- 24 ○ 병오일에 왕이 상자원에 머물러서 시어사 최위를 시켜 어의와 차, 향 등을 가지고 삼각산 승가굴에서 비를 빌게 하였다.
- 25 ○ 신해일에 왕이 남경에 도착하였다. 모든 행사를 다 천문관이 아뢰는 대로 하여 예절에 맞지 않았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말하는 자가 없었다.
- 26 ○ 임자일에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누각과 원림을 유람하였다.
- 27 ○ 갑인일에 왕이 연흥전에 앉아서 서울과 지방 관리들의 축하를 받았고,
- 28 ○ 을묘일에 반야경 도량을 연흥전에 베풀어 3일 동안 계속하였으며, 기미일에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연흥전에 연회를 배설하고 예물을 차등 있게 주었다.
- 29 ○ 계해일에 왕이 남경을 떠나 궁녀들과 함께 승가굴에 가서 재를 올리고 의복을 시주하였다.
- 30 ○ 10월 신해일에 왕이 궁으로 돌아왔다.
- 31 ○ 경오일에 요나라의 동경 대왕 야율순이 예빙 사신을 보내왔다.
- 32 요나라에 다음과 같은 인원을 파견하였는데, 지총연은 천총절을 축하하게 하고 문관은 책봉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고 최선은 왕의 생일을 축하한 데 대하여 사례하게 하고 김한공은 물품을 전달하게 하고 최덕개는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
- 33 ○ 11월 계유일에 종묘와 사직에서 눈(雪)을 빌었다.
- 34 ○ 갑오일에 퇴직 중에 있던 중서 시랑 평장사 김선석이 죽었다. 왕이 그에게 조상하는 제사를 지내고 충간이라는 시호를 주었다.
- 35 김선석은 성품이 청렴하고 굳세었으며 관리의 재간이 있고 사생활을 돌보지 아니 하였으나,

- 36 벼슬에서 물러설 나이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미련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다.
- 37 ○ 이 달에 밀진사 김고를 요나라에 보내었다.
- 38 ○ 12월 병진일에 요나라에서 마직온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 39 ○ 이 해, 정월, 2월에 서여진의 종곤 등 30명, 거라 불, 마포 등 49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으며
- 40 ○ 8월 정사일에 송나라의 도량 주송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 41 ○ 을유 10년(1105) 정월 계축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봉은사에 갔다.
- 42 태자에게 명령하여 구정에서 삼계(三界) 신령에 기도를 하게 하였다.
- 43 ○ 8월 을해일에 왕이 서경에 갔다.
- 44 ○ 임오일에 왕이 감진전에서 태조의 화상을 참배하고, 그 길로 오성전에 가서 참배한 다음 장락전에 앉아서 백관의 축하를 받았다.
- 45 ○ 을유일에 왕이 명령을 내려 합주 수령 고민익을 옥에 가두고 백성의 재물을 강탈한 죄를 심문하게 하였다.
- 46 ○ 무자일에 왕이 흥복사에 가서 재를 울리고 남쪽 언덕에 성지한 장막에 가서 주연을 배설하였다.
- 47 태자를 비롯하여 재상들과 양경의 문무 대신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왕이 사운시를 지어서 돌려 보았다.
- 48 ○ 기축일에 왕이 창화문에서 활 쏘는 것을 검열하였고 경인일에도 그렇게 하였다. 태자가 과녁을 맞히니 여러 신하들이 다 이를 축하하였다.
- 49 ○ 9월 무술일에 인에 태후의 휘신 도량과 관련하여 왕이 장경사에 갔다.
- 50 ○ 계묘일에 요나라 사람 상구가 귀순하여 왔다.
- 51 ○ 임자일에 왕이 영작원문에 나가서 무사들이 활 쏘고 말 달리는 것을 사열하였다.
- 52 ○ 병진일에 왕의 몸이 편치 못하였다.
- 53 ○ 정사일에 왕이 서경을 떠났다.
- 54 ○ 10월 을축일에 왕의 병이 더하여 금교역에 머물렀다.
- 55 ○ 병인일 밤중에 금교를 출발하여 오다가 장평문 밖에 이르러 연(驛)에서 죽었다.
- 56 날이 밝을 무렵에 서화문에 이르러 상사를 발표하였다.
- 57 태자와 여러 신하들이 통곡을 하면서 영구를 받들고 영영전으로 들어왔다. 이날 선덕전으로 영구를 옮겼다.
- 58 ○ 왕이 조서를 남겼다. "내가 덕이 천박한 몸으로 중대한 왕업을 맡게 되어 만사를 통찰하기에 단 하루도 편안할 겨를이 없었고,
- 59 침식을 잊어 가면서 모든 정무를 몸소 처리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다. (생략)
- 60 황태자의 어질고 효성스러운 천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요,
- 61 그의 부드럽고 인자함은 백성의 기대에 맞을 것이니,
- 62 내가 죽는 즉시로 왕위에 오르게 하고 일체 군국(軍國) 대사는 일일이 새 임금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 63 지방 진영과 고을 수령들은 다만 자기들의 임지에서 애도식을 행하고, 함부로 일터를 떠나지 말 것이며, 거상 절차는 날을 달로 계산하며 능묘 제도는 되도록 검박하게 하기에 노력하라."
- 64 왕의 향수는 52세로 왕위에 있는 연수는 10년이였다.